연구보고서 17-08

수출기업의 MEGA FTA 활용방안 분석 · 연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출기업의 MEGA FTA 활용방안 분석·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08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 구 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송 경 은

〈참여연구자〉

선임연구원 윤 호 성

연 구 원 서 지 민

연구보조원 오 윤 진

요 약 문

1 연구배경

□ 누적조항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로서,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 원산지 상품(재료)의 적용 범위를 체약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ㅇ Mega FTA가 현실화 될 경우, RCEP·TPP 등 광역 FTA에서 누적조항은 활용가치가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ㅇ TPP, RCEP은 가장 엄격성이 완화된 형태인 완전누적*의 도입(또는 논의)을 시도하고 있는 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완전누적은 FTA특혜지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공정을 최종품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는 것을 의미

□ 아울러 Mega FTA에서 직접운송조항은 역내 경유 허용 등 기존의 양자 FTA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우리 수출기업은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제분업체제에 참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ㅇ 광역 FTA 발효 가정 하, 누적조항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제시함으로써 기업의 Mega FTA 선제적 대응 방안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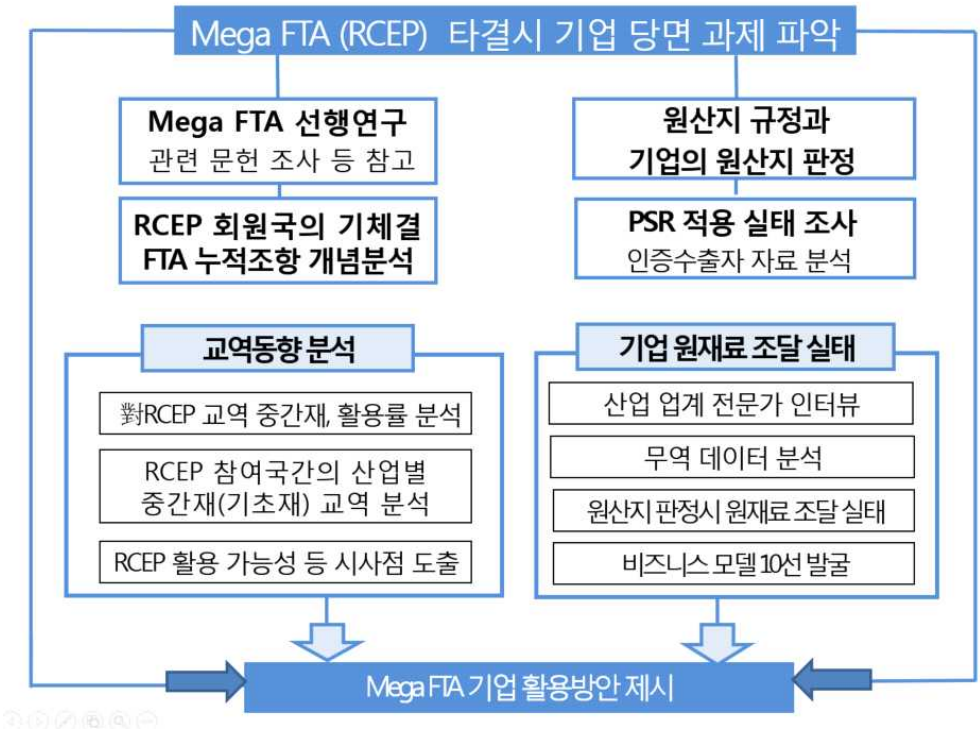
ㅇ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원산지규정 누적조항의 활용 가능성·방향 제시 필요

□ RCEP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RCEP 참여국 내에서의 우리나라 수출입 국제분업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Mega FTA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ㅇ 우리기업의 Mega FTA 적극적 활용을 위해, 협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 누적조항을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제시 필요

<그림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주요 내용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협정문 직접운송, 누적조항 분석
② 기초재, 가공재 등 對RCEP 교역동향 분석
③ 기업의 원산지기준 적용실태 조사
④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주요 원산지 조항 분석)TPP·RCEP 등 협정문 직접운송원칙, 누적조항 분석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TPP 관련 조항 비교 분석

ㅇ 우리나라 기체결 FTA와 TPP·RCEP 협정문 비교를 통한 직접운송 및 누적 조항의 기초 설명 및 다자간 FTA의 활용 방법 분석

□ (교역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기초재, 가공재 등 교역동향 분석

ㅇ HS별 원재료, 가공품, 비가공품 연계, 교역패턴 및 경쟁력 현황 분석

- UN의 품목의 최종 사용목적(main end-use)에 따라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등 3개 범위로 대분류한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와 HSK 연계후, BEC 하위 단계*로 세분·분석하여 원재료, 가공재 등 교역동향 파악

* BEC와 RIETI-TID에 의해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는 다시 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으로 세분됨

ㅇ 對RCEP 참여국들의 교역 동향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對RCEP 비교우위 요소 파악

- RCEP 참여국간 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 국제분업의 거시적 무역통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對RCEP 누적활용 방안 도출

□ (기업의 원산지판정 실태 조사) 기업의 원산지결정기준 누적조항 적용실태 및 원재료 조달방식 조사

ㅇ 기업의 원재료 조달 실태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산업별 국제 분업 파악

ㅇ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및 원재료 조달방식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적정 원산지기준 파악 및 협상대응안 제시

□ (비즈니스 모델 제시) Mega FTA, 직접운송조항, 비교우위, 누적활성화 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ㅇ 산업, 품목별 등 중소기업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10選 제시

ㅇ 중소기업의 누적 활용 방안 제시

3 연구 결과

1. RCEP 주요 쟁점 및 영향 조항

가. 직접운송원칙

□ 분석 대상 협정과 규정 비교 : 32건

○ 직접운송원칙을 ASEAN, EU, NAFTA 유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협정별 특징 분석

○ 협정별 조문의 구성, 주요 내용(경유사유, 작업허용범위, 역내경유, BWT 가능 여부, 증빙서류 등) 세부 분석 제공

○ 직접운송원칙의 종합적 비교표 제시(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탁송화물, 경유사유, 경유국 불인정행위, 작업허용범위 등)

<표 1> 분석대상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유형	협정(발효년도)
한국 (16)	ASEAN 유형(8)	한-ASEAN(2007), 한-인도(2010), 한-페루(2011), 한-호주(2014), 한-뉴질랜드(2015), 한-중(2015), 한-베트남(2015), 한-중미(미발효)
	EU유형(3)	한-EFTA(2006), 한-EU(2011), 한-터키(2013)
	NAFTA 유형(5)	한-칠레(2004), 한-싱가포르(2006), 한-미(2012), 한-캐(2015), 한-콜롬비아(2016)
ASEAN+1 (5)	ASEAN 유형(5)	한-ASEAN(2007), 중국-ASEAN(2008), 인도-ASEAN(2010) ASEAN-호-뉴(2010) 일본-ASEAN(2008)
RCEP 참여국 양자	ASEAN 유형(5)	중국-뉴질랜드(2008), 뉴-말레이(2010), 중국-호주(2015) 일본-인도네시아(2008), 일본-인도(2011)
	NAFTA 유형(1)	일본-호주(2015)
다국간 (5)	EU유형(4)	이스라엘-메르코수르(2009), EEA(1994), PEM(2017)
	NAFTA 유형(1)	TPP(2015)

<표 2>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BWT	직접운송	비당사국비경유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경유 사유				경유국 불인정 행위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불인정행위	경유사유	보관기간	서류제출	서류리스트	지리	운송	경제	물류	거래	소비	교역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
한국	ASEAN	X	○			○	○	○		○	○	○	○			○	○		
	인도	X	○		○	○	○			○	○					○	○		
	중국	X	○		○	○	○	○	○	○	○	○	○			○	○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일시 보관 기간
	베트남	X	○			○	○	○		○	○	○	○			○	○		
	호주	○	○		○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뉴질랜드	○	○		○	○				○	○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싱가포르	○	○		○	○				○	○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ASEAN	한국	X	○			○	○	○		○	○	○	○			○	○		
	일본	○	○			○				○	○								일시적 보관
	호-뉴	X	○			○	○	○		○	○	○		○	○	○			보관
	중국	X	○			○	○	○		○	○	○	○			○	○		
	인도	X	○			○	○	○		○	○	○	○			○	○		
중	뉴질랜드	X	○			○	○		○	○						○		○	재포장
뉴	말레이	X	○			○	○	○				○		○	○			○	
중	호주	○	○		○	○			○	○									재라벨링, 재포장, 분리, 일시적 보관
일	호주	○			○	○													재라벨링, 재포장, 분리, 보관
일	인니	○	○			○				○	○								
일	인도	○	○			○				○	○								

나. 누적조항

□ 분석 대상 협정과 규정 비교 : 43건

○ 재료누적, 생산누적, 완전누적 등으로 구분하고 협정별 특징 제시

<표 3> 분석대상 FTA

	협정
한국 (15)	한-ASEAN, 한-인도, 한-중, 한-베트남, 한-EFTA, 한-EU, 한-터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미,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RCEP 참여국 양자 (21)	일본-ASEAN, 중국-뉴질랜드, 중국-호주, 일본-베트남,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 ASEAN-호-뉴, 뉴질랜드-말레이시아, 일본-인도, 인도-싱가포르, ASEAN-중국, 인도-말레이시아, ASEAN-인도, 일본-호주, 일본-말레이시아, 일본-인도네시아, 일본-브루나이, 일본-필리핀
	호주-싱가포르, 호주-말레이시아
	일본-싱가포르
RCEP 참여국 기타 (7)	일본-멕시코, 일본-스위스, 중국-스위스, 중국-아이슬랜드
	미-싱가포르, 미-호주
	TPP

<표 4> RCEP 참여국간 FTA 협정문 상 누적조항 비교

FTA	협정문	해석	형태
ASEAN-일본 중-뉴질랜드 중-호주 일-베트남 ASEAN-호주-뉴 뉴질랜드-말레이 일본-인도 인도-싱가포르 ASEAN-인도 일본-호주	·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are used in a Party as materials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사용)되는 경우	재료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	· 원산지상품 조항 내에 누적조항이 규정됨 · used in the production of particular goods		
ASEAN-중국	·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 원산지 상품(생	재료

FTA	협정문	해석	형태
인도-말레이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 provided that the aggregate ACFTA content(i.e. full cumulation, applicable among all Parties) on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산)에 결합(사용)되는 경우 · 최종재 생산국의 부가가치 기준	
일본-말레이시아 일본-인도네시아 일본-부르나이 일본-필리핀	·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may be limited to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사용)되는 경우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제한	재료
일본-싱가포르	· the production in its territory as tha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of one or both Parties. · The Production of a Party includes the production at different stage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 · 양당사국의 영역 생산	재료& 생산(공정)
호주-싱가포르 호주-말레이시아	·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 · 완전누적	재료&완전
뉴질랜드-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 원산지상품 조항 내에 누적조항이 규정됨 · Originating materials (including inner containers) and qualifying expenditure	원산지 규정에 규정됨	

2. 우리나라와 RCEP 참여국간 교역 및 경쟁력 분석

가. RCEP 참여국의 對세계 교역 분석 : 수출입 상위요소

□ 국가간 무역구조를 상품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해 RIETI-TID(일본경제산업성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제공한 요소별 분류(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와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분석

○ 2000~2015년간 RCEP 국가의 요소별 교역 변화 검토(수출입 우위 품목의 변화 양상 체크)

<표 5> RCEP 회원국의 교역비중과 수출입 상위 요소 비교: 2000년, 2015년

	RCEP내 교역비중	수출		수입	
		2000	2015	2000	2015
중국	38.9	소비재(48.8%) > 자본재(18.25%)	자본재(31.0%) > 소비재(27.2%)	가공재(38.8%) > 부분품23.6%)	가공재(26.9%) > 원료(26.2%)
일본	14.4	부분품(33.7%) > 자본재(27.9%)	부분품(29.5%) > 가공재(27.5%)	소비재(26.6%) > 가공재(25.3%)	가공재(29.7%) > 소비재(25.7%)
한국	10.7	가공재(31.7%) > 부분품(27.7%)	부분품(36.0%) > 가공재(32.0%)	가공재(31.1%) > 부분품(23.4%)	가공재(33.0%) > 원료(22.1%)
인도	6.9	가공재(46.7%) > 소비재(37.7%)	가공재(49.4%) > 소비재(32.9%)	가공재(41.1%) > 원료(30.8%)	가공재(42.0%) > 원료(32.6%)
싱가포르	5.5	부분품(38.5%) > 자본재(29.3%)	가공재(44.4%) > 부분품(30.5%)	부분품(42.2%) > 가공재(20.0%)	부분품(34.8%) > 가공재(30.7%)
말레이시아	4.7	부분품(39.7%) > 자본재(23.9%)	부분품(39.9%) > 가공재(31.2%)	부분품(48.5%) > 가공재(24.6%)	가공재(38.0%) > 부분품(28.9%)
태국	4.6	소비재(32.3%) > 부분품(21.6%)	소비재(27.3%) > 가공재(24.6%)	가공재(33.2%) > 부분품(30.4%)	가공재(36.7%) > 부분품(19.8%)
호주	4.3	원료(40.8%) > 가공재(32.7%)	원료(58.5%) > 가공재(24.0%)	소비재(28.7%) > 자본재(24.0%)	소비재(34.1%) > 가공재(27.8%)
베트남	3.7	소비재(54.0%) > 원료(33.0%	소비재(40.7%) > 자본재(25.9%)	가공재(53.8%) > 소비재(17.6%)	가공재(46.1%) > 부분품(20.2%)
인도네시아	3.5	가공재(43.2%) > 소비재(22.6%)	가공재(39.0%) > 원료(24.5%)	가공재(49.5%) > 원료(16.5%)	가공재(49.2%) > 자본재(16.3%)
필리핀	1.6	부분품(55.1%) > 자본재(21.3%)	부분품(48.2%) > 자본재(18.1%)	부분품(42.1%) > 가공재(25.5%)	부분품(31.7%) > 가공재 28.6%)
뉴질랜드	0.8	소비재(46.0%) > 가공재(32.8%)	소비재(55.2%) > 가공재(24.9%)	소비재(31.1%) > 가공재(27.7%)	소비재(34.4%) > 가공재(25.8%)

나. 한국의 對RCEP 참여국 교역 분석 : 특혜 수출입 활용

□ 중국,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의 RCEP 참여국 旣체결 FTA의 특혜수출입 활용현황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의 품목, 활용률, 전체 산업활용률 제시

ㅇ 기체결 FTA의 활용도 분석을 통한 향후 RCEP에서의 특혜확장 및 특혜 활용 확대 가능성 검토

ㅇ 현재 對RCEP 참여국으로의 수출 활용률은 ASEAN, 중국 등이 전협정 평균 수준 보다는 저조. 주로 가공재 위주의 수출입 진행 확인

<표 6> 한국과 對RCEP 참여국 체결 FTA의 특혜수출입 활용현황(2016)

		FTA 적용 C/O 발급금액 중 1위 품목		전체 활용률
		비중	활용률	
수출	중 국	가공재(63.9%)	46.6%	42.9%
	ASEAN	가공재(63.3%)	55.7%	53.6%
	인 도	가공재(65.8%)	71.1%	68.9%
	호 주	완성재(69.8%)	86.8%	79.6%
	뉴질랜드	완성재(56.1%)	41.6%	38.7%
수입	중 국	가공재(45.9%)	68.2%	60.9%
	ASEAN	가공재(49.0%)	80.1%	80.3%
	인 도	가공재(77.7%)	92.0%	83.9%
	호 주	가공재(58.6%)	83.1%	85.9%
	뉴질랜드	완성재(65.6%)	93.7%	91.0%

다. 한국의 對RCEP 참여국 교역 분석 :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한나라가 특정품목의 국제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TSI_{Kij} = \frac{X_{Kij} - M_{Kij}}{X_{Kij} + M_{Kij}}$$

X_{Kij} : i 국의 j 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액

M_{Kij} : i 국의 j 국에 대한 K품목의 수입액

□ 가공재[1]는 가장 비교우위중립품목이 다수인 요소로서 가공재에 특화된 비교우위 선점 전략이 필요

<표 7> RCEP 참여국간 가공재 무역특화지수 분석요약

	수입특화	수입우위	비교우위중립	수출우위	수출특화
ASEAN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		중국, 호주	ASEAN, 일본, 뉴질랜드, 한국		
중국		한국	ASEAN,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중국, 인도, 한국		
한국			ASEAN,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뉴질랜드			ASEAN, 호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호주			ASEAN, 중국, 뉴질랜드, 한국	인도, 일본	

□ 부분품[2]의 경우 각국별로 무역특화지수가 다양하게 분포됨

○ 한국의 경우 부분품이 수출품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36.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CEP 참여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구축할 필요

1) 가공재에는 중간재로서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제품, 가공된 산업용 공급품, 동력기용(연료, 윤활유)이 포함되어 있다.
2) 부분품에는 부속품(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부속품 등이 포함된다.

<표 8> RCEP 참여국간 부분품 무역특화지수 분석요약

	수입특화	수입우위	비교우위중립	수출우위	수출특화
ASEAN		일본, 한국	중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	
중국		일본, 한국	ASEAN	뉴질랜드, 호주, 인도	
한국		일본		ASEAN,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인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ASEAN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중국, ASEAN	호주, 인도,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국, 일본	ASEAN, 인도, 한국	호주		
호주	중국, 일본	ASEAN, 인도, 한국	뉴질랜드		

3. 기업의 對RCEP 참여국 누적조항 적용 실태조사

가. 원산지결정기준 판정 및 원재료 조달 실태

□ 2016년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지역에서 인증된 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 결과 8,355건의 원산지판정자료를 추출 분석

○ 기업의 약 75.8%가 CTC를 채택·선호. 특히 CTH는 66.1%로 가장 높은 비중

<표 9> 2016년 인증수출자 인증건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 분		건수	비중(%)
완전생산기준		152	1.82
세번변경기준	CC	365	4.37
	CTH	5,515	66.01
	CTSH	459	5.49
	소계	6,339	75.87
부가가치기준	MC	327	3.91
	RVC	424	5.07
	소계	751	8.99
가공공정기준	SP	359	4.30
조합기준		680	8.14
기타		74	0.89
총합계		8,355	100

□ 원재료 조달 실태

○ 해외 조달 원재료 비율은 5.7%, 한국산 원재료 비율은 40.5%로 나타나, 한국으로부터 조달되는 원재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3)]

○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은 5개 산업은 1차 산품, 의류직물, 가공광물, 운송기기, 가공 1차 산품 등

○ 해외로부터 조달받는 원재료 비율이 높은 5개 산업은 가공광물, 비금속광물, 가죽제품, 정밀기계, 기타 제조품 등. 가공광물 산업에서 해외 원재료를 주로 조달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PSR별로는 CTH가 높은 비율을 차지

○ 해외원재료 조달분 중 RCEP 참여국으로부터 조달한 비중은 71%로 매우 높은 수준

<표 10> 조사대상 인증수출자의 산업별 해외조달원재료 비중

(단위 : 건수)

구분	해외조달원재료(A)			총계(C)	B/C(%)
		RCEP조달 원재료(B)	A/B(%)		
고무화학	127	78	61.4	2,285	3.41
일반기계	57	43	75.4	1,553	2.77
의류직물	51	41	80.4	961	4.27
금속제품	58	51	87.9	901	5.66
전기기계	24	17	70.8	634	2.68
가공 1차산품	29	14	48.3	482	2.9
정밀기계	45	28	62.2	478	5.86
기타 제조품	25	23	92.0	370	6.22
운송기기	-	-		197	-
비금속광물	21	21	100.0	145	14.48
가공광물	17	12	70.6	106	11.32
가죽제품	8	8	100.0	85	9.41
종이목재	16	4	25.0	80	5
1차 산품	1	-		71	-
기타 운송기기	-	-		7	-
총합계	479	340	71.0	8,355	4.07

3) 여기서 해외 원재료조달은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시 해외 조달여부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부문에 국한됨.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표시 되어, 이에 대한 부문이 불포함됨

나. 원재료 조달과 RCEP 활용 가능성 사례 조사

예) 플루오르화인삼염의 RCEP 유용성 검토

o 활용 조항 : 누적기준

o RCEP 유용성이 낮은 FTA :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성이 낮아, 해당 PSR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결과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가능. 이에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RCEP의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o RCEP 유용성이 높은 FTA : 한-인도 CEPA

- RCEP 협상에서 동 물품에 대해 CTH 또는 CTSH를 규정할 경우 RCEP의 활용이 기존 협정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플루오르화인산염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2826.90	한-중	CTH	AHF	2811.11	미상
			PCL3	2812.10	미상
			LIF	2826.19	중국
			CL2	2801.10	미상

협정	PSR	RCEP 유용성
한-인도	CTSH+RVC35	**높음**
한-호주	CTSH	낮음(기존협정 활용)
한-뉴질랜드	CTSH	낮음(기존협정 활용)

4. Mega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10선

	주요 내용
1	광역 FTA의 직접운송 기준완화, RCEP 물류영토 확장 및 물류 거점 확보형
2	RCEP을 통한 개방의 사각지대 제로 선언형
3	무역패턴 분석을 통한 RCEP 참여국간 경합섹터 선점형
4	Made in RCEP 누적조항 확대적용을 통한 특혜원산지 수출활용
5	FTA의 선택적 활용! 한-인도 CEPA의 복잡하고 엄격한 조합기준 개선 및 증빙간소화 모형
6	RCEP 다자간 역내 원재료의 합집합을 통한 부가가치 기준 충족
7	미리 알면 보인다! 보이지 않는 규제, 비관세장벽 극복형
8	RCEP 참여국간 품목분류 상위사례 최소화, 애로 개선형
9	스타트업!국내 제조의 강점을 활용한 원산지증명간소화 모델
10	RCEP GVC 활용, 가치사슬 재정의형

<비즈니스 모델 사례 >

1. 광역 FTA의 직접운송기준 완화, RCEP 물류 영토 확장 및 물류 거점 확보형

가. 개요

FTA특혜를 받기 위한 운송원칙(직접운송원칙)은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 특혜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광역 FTA에서 영역은 다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현재의 1:1 협정에서 체약당사국간 적용되는 직접운송원칙 조항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직접운송 위반 추징실적

(단위 : 건/백만원)



자료 : 관세청 자료 재가공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운송요건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기준으로 협정에서 정한 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여타 규정 충족과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여 추징된 실적은 <그림1>과 같다. 직접운송 관련 추징 금액은 2013년 폭증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라 할 수 있다. 단, 건수는 2015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RCEP 양허협상의 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이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회원국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RCEP 활용에 실익이 있으려면, RCEP의 양허결과가 기체결한 협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혜세율의 혜택범위를 포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RCEP의 양허가 기체결한 협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혜세율의 혜택범위를 포괄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때 RCEP의 특혜세율은 기체결 양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RCEP과 기체결 FTA가 동등한 특혜세율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즉, 특혜세율에 있어서는 기체결된 양자간 협정을 향유하는 것이 일정기간 동안 유리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RCEP 협상 주는 실익은 특혜세율 이외에 운송요건, 후술하는 원산지재료의 누적 부문에서 찾을 수 있겠다.

<표 1> 한국-RCEP 회원국 체결 FTA 발효시기 및 최장양허 현황

협정	발효	최장 양허	0% 진입 시기
싱가포르	2006	10년 철폐	2015년
ASEAN	2007	민감품목	2016~2024년
인도	2010	8년 철폐	2017년
호주	2014	20년 철폐	2033년
베트남	2015	15년 철폐	2029년
중국	2015	20년 철폐	2034년
뉴질랜드	2015	20년 철폐	2034년

직접운송원칙의 경우, Mega FTA에서 체약당사국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운송에 있어 경유할 수 있는 "역내"의 범위가 확장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어 해당 조항의 위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혼재하고 있는 양자간 협정의 스파게티볼 효과도 완화될 수 있다.

4)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은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체약당사국은, ① the Community(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 등, 12개국), ②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림 2> 개별 FTA와 Mega FTA

개별 FTA	Mega FTA : 영역의 확장, 단일화
	

출처 : http://www.fta.go.kr/main/

나. 주요 내용

(1) 스파게티볼 효과의 완화

현재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표 2>로 나타내었다. BWT 허용여부,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서류요건, 경유사유, 경유국 불인정행위, 경유국 내에서의 작업인정범위 등이 협정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미 양자간 협정에서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에서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 <표 2>와 같다. 증빙서류의 경우 유형이 7개로 나뉘어 지는 등 협정별로 다양하다. RCEP이 체결될 경우 운송서류는 1개의 조항으로 수렴될 것이며, 이는 원산지규정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구성된다. 즉 유럽의 일부 국가 간의 N:N협정. 완전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5) Article 2 General requirement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표 2>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협 정	주요 내용
한-베트남 중-ASEAN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원산지증명서 원본 ③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기타 증빙서류
한-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①~④ 상동 ⑤연결원산지증명서
한-인도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모든 경로) ②세관통제서류
한중간 한-페루	①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모든 경로) ②세관증빙서류
한-싱가포르	①세관통제서류 ②비조작증명서(세관) ③비조작증명서(수입자)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CEPA	①통과선하증권의 복사본 ②비조작증명서(세관)
일본-ASEAN	①연결원산지증명서

(2) 역내경유를 통한 운송거점 확보

직접운송과 누적은 RCEP에서 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FTA에서 영역, 누적, 직접운송 등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EU 또는 EEAA[4]가 대표적인데, 제2조[5]에서 “이 협정에서 적용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는 바, 이는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세관통제 없이 거래·유통이 가능한 것을 의미 즉 직접운송원칙이 매우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EA의 단일영역은 유럽내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근접, 참여국간 정치, 문화, 사회적 유사성과 공감대에 서 기인한 것으로, RCEP에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망된다.

이에 Mega FTA하 직접운송원칙 완화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RCEP에서 직접운송원칙에 “역내당사국 경유 허용” 부문이 포함되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RCEP의 회원국에서 생산되어 타RCEP의 회원국 역내 수출된 물품이 다시 다른 RCEP 회원국으로 재수출 될 때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는” 원칙이 관철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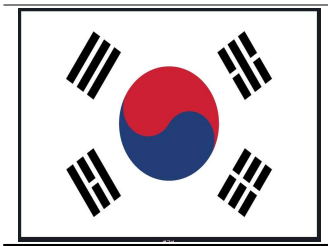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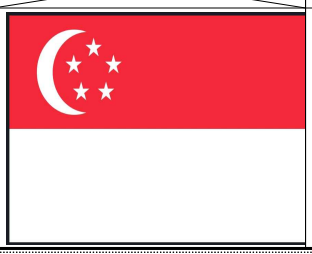
참고로 ASEAN+1 협정에서의 역내경유와 관련하여 협정문 검토결과는 다음의 <표 3>으로 요약된다. 중-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FTA의 경우, 일정조건하 역내경유 허용하고 있으며, 한-ASEAN, 일-ASEAN의 경우 수출, 수입 당사국 이외의 국가는 제3국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역내경유는 제3국 경유와 동일하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ASEAN+1의 협정은 경우 역내경유(보세구역에 일시적 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호-뉴, 인도-ASEAN 협정에서 수출국 이외의 역내 경유시 재수출할 수 있는 용도로서도 사용되는데, 인도의 경우 역내 장치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호-뉴-ASEAN FTA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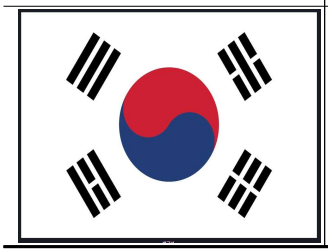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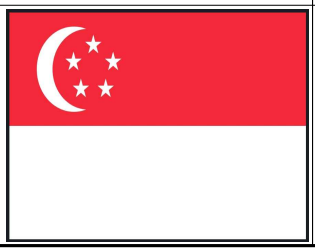
<표 3>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검토 요약

	역내경유	제3국경유	허용범위규정					서류	연결원산지증명서	역내재수출
			운송상사유	경제적사유	물류적사유	불인정행위	작업인정범위			
한국	동일 취급 제한적 허용		○			○	○	○	○	
일본	동일 취급 제한적 허용						○		○	
중국	○	제한적 허용	○			○	○	○		
인도	○	제한적 허용	○			○	○	○	○	○ (보세구역)
호-뉴	○	제한적 허용	○	○	○	○	○	○	○	○

<그림 3> RCEP의 중간물류 거점 활용 사례

생산(수출)	~~수입(장치), 재수출~~	최종 수입
		

as originating in the EEA

생산(수출)	수입(장치), 재수출	최종 수입
		

한편, 개별국가로서 일본의 경우 일-ASEAN 등에서 역내 경유에 대해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은 존재 확인되나, 그외 역외경유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지리·운송상 정당화, 경유국 거래소비 불인정, 통과선하증권, 세관통제요건 등이 부재함이 확인되어, 직접운송에 대한 규정의 엄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RCEP 체결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수출해서, 인도로 수출할 경우 한-인도 CEPA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협정에서는 BWT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물류기지에 일시적 장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RCEP이 체결되고, 해당협정이 역내 경유를 허용할 경우, RCEP 참여국인 싱가포르 물류기지에서 원산지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치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인도로의 재수출도 허용된다.

다. 효과

Mega FTA는 원산지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영역내에서 물류거점 확보가 보다 원활하며, 기업은 물류 루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략적으로 물류 거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Mega FTA는 양자간 협정에서 각각 정의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정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직접운송 원칙의 경우, 다양한 증빙 방식, 증빙서류를 통일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a) products wholly obtained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b) products obtained in the EEA incorporating materials which have not been wholly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RCEP 협상시 원산지 부문 참고 자료로 제공

ㅇ RCEP 협상 참여시 협정문상 직접운송(역내경유), 완전누적 도입 여부 결정, 원산지 이행절차 등 협의시 대응 참고 자료로 활용

□ RCEP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효율적 유연적 대응방안 선제적 마련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For this purpos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shall be considered as a single territory.

목 차

Ⅰ.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Ⅱ. Mega FTA의 진행현황과 주요 이슈 ····· 5

제1절 세계 FTA 진행현황 ····· 5

1. WTO RTA 진행 현황 ····· 5

2. RCEP 진행 현황 ····· 10

3. RCEP 참여국의 FTA 진행 현황 ····· 22

4. 기타 Mega FTA의 진행 현황 : TPP ····· 38

제2절 Mega FTA의 주요 이슈 : RCEP 분야별 주요 쟁점 ····· 40

1. 상품무역 자유화 ····· 40

2. 원산지 규정 ····· 43

3.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 44

4. 기타 쟁점 ····· 47

Ⅲ. RCEP 참여국 체결 FTA 원산지조항 검토 ····· 50

제1절 분석 개요 ····· 50

제2절 RCEP 체결시 주요 영향 조항 : 직접운송원칙 ····· 52

1. 개요 ····· 52

2. 한국의 旣체결 FTA ····· 58

3. ASEAN+1 FTA ····· 85

4. RCEP 상호간 旣체결 FTA ····· 96

5. 기타 FTA ····· 106

6. 소결 ····· 110

제3절 RCEP 체결시 주요 영향 조항 : 누적 ····· 129

1. 개요 ····· 129

2. 한국의 旣체결 FTA ····· 132

3. RCEP 상호간 旣체결 FTA ····· 151

4. 기타 FTA ····· 167

5. 소결 ····· 176

Ⅳ. 우리나라와 RCEP 참여국 간 교역 및 경쟁력 분석 ····· 177

제1절 분석 개요 ····· 177

제2절 RCEP 참여국의 對세계 교역 분석 ····· 180

1. 중국 ····· 180

2. 일본 ····· 182

3. 한국 ····· 184

4. 인도 ····· 187

5. ASEAN ····· 189

6. 호주 ····· 201
7. 뉴질랜드 ····· 203

제3절 한국의 對RCEP 참여국 교역 및 활용률 검토 ····· 208

1. 對RCEP 참여국 요소별 수출입 ····· 211
2. 對RCEP 참여국 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 214
3. 對RCEP 참여국 요소별 특혜수출입과 활용률 ····· 217
4. 對RCEP 참여국 특혜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 227

제4절 RCEP 참여국간 교역 경쟁력 분석 ····· 230

1. 중국 ····· 233
2. 일본 ····· 233
3. 한국 ····· 236
4. 인도 ····· 236
5. ASEAN ····· 239
6. 호주 ····· 240
7. 뉴질랜드 ····· 241

Ⅴ. 기업의 對RCEP 참여국 누적조항 적용 실태 조사 ·····244

제1절 분석 개요 ····· 244

제2절 주요 산업(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원재료 조달 실태 · 248

1. 원산판정 실태 ····· 248
2. 원재료조달 실태 ····· 249

제3절 원재료 조달과 RCEP 누적 활용 가능성 검토 ····· 253

1. 국내산 원재료 조달 사례 ····· 253

2. 누적조항 활용사례 검토 결과 ····· 255

Ⅵ. Mega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10선 ····· 268

1. 광역 FTA의 직접운송기준 완화, RCEP 물류 영토 확장 및 물류 거점 확보형 ····· 268

2. RCEP을 통한 개방 사각지대 제로 선언형 ····· 275

3. 무역패턴 분석을 통한 RCEP 참여국간 경합섹터 선점형 ····· 279

4. Made in RCEP : 누적조항 확대적용을 통한 특혜원산지 ····· 284

5. FTA의 선택적 활용! 한-인도 CEPA의 복잡하고 엄격한 조합기준 개선 및 증빙 간소화 모형 ····· 288

6. RCEP 다자간 역내 원재료의 합집합을 통한 부가가치기준 충족 · 292

7. 미리 알면 보인다! 보이지 않는 규제, 비관세 장벽 극복형 ·· 296

8. RCEP 참여국간 품목분류 상위사례 최소화, 애로 개선형 ····· 300

9. 스타트업! 국내 제조의 강점을 활용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모델 ·· 307

10. RCEP의 GVC 활용, 가치사슬 재정의형 ····· 312

표 목 차

<표 2-1> RCEP 협상구조 ·····10
<표 2-2> RCEP 추진 연혁 ·····11
<표 2-3> RCEP 협상경과 및 관련 이슈 ·····13
<표 2-4> 세계 주요경제블록의 GDP 규모 ·····19
<표 2-5> RCEP 참여국과 한국의 교역현황(2016) ·····20
<표 2-6> TPP·RCEP 참여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현황 ·····21
<표 2-7> RCEP 협상 대상국의 기체결 FTA 현황 ·····22
<표 2-8> ASEAN의 기체결 FTA 현황 ·····23
<표 2-9> 호주의 기체결 FTA 현황 ·····26
<표 2-10> 중국의 기체결 FTA 현황 ·····28
<표 2-11> 일본의 기체결 FTA 현황 ·····31
<표 2-12> 인도의 기체결 FTA 현황 ·····33
<표 2-13> 뉴질랜드의 기체결 FTA 현황 ·····35
<표 2-14> 한국의 기체결 FTA 현황 ·····37
<표 2-15> TPP 협상 추진 결과 ·····38
<표 2-16> ASEAN+1 FTA 관세철폐 범위 ·····41
<표 2-17> ASEAN+1 FTA 관세철폐 항목 분포 ·····42
<표 2-18> ASEAN+1 FTA의 투자 자유화 관련 규정 ·····46
<표 2-19> 기체결 ASEAN+1 FTA에서 부재한 분야 ·····47

<표 3-1> RCEP 참여국간의 상호 협정체결 현황 ·····51
<표 3-2> 한-칠레(NAFTA 유형 예) ·····54
<표 3-3> 직접운송원칙 'NAFTA 유형' 협정 ·····54
<표 3-4> 한-ASEAN(ASEAN 유형 예) ·····54
<표 3-5> 직접운송원칙 'ASEAN 유형' 협정문 ·····56
<표 3-6> 한-EU(EU 유형 예) ·····57
<표 3-7> 직접운송원칙 'EU 유형' 협정문 ·····58
<표 3-8> 한국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59

〈표 3-9〉 한-ASEAN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59
〈표 3-10〉 한-인도 CEP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61
〈표 3-11〉 한-베트남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63
〈표 3-12〉 한-중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64
〈표 3-13〉 한-페루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66
〈표 3-14〉 한-중미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68
〈표 3-15〉 한-호주(뉴질랜드)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69
〈표 3-16〉 한-EFTA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1
〈표 3-17〉 한-EU(터키)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2
〈표 3-18〉 한-칠레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4
〈표 3-19〉 한-미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6
〈표 3-20〉 한-싱가포르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6
〈표 3-21〉 한-캐나다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8
〈표 3-22〉 한-콜롬비아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79
〈표 3-23〉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제3국 경유시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구분81
〈표 3-24〉 한국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목록 ·····83
〈표 3-25〉 한국이 旣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84
〈표 3-26〉 ASEAN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85
〈표 3-27〉 중(인도)-ASEAN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85
〈표 3-28〉 호주-뉴질랜드-ASEAN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88
〈표 3-29〉 일-ASEAN EP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91
〈표 3-30〉 ASEAN이 체결한 FTA의 제3국 경유시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구분93
〈표 3-31〉 ASEAN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목록 ·····94
〈표 3-32〉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95
〈표 3-33〉 RECP 회원국 양자간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96
〈표 3-34〉 중국-뉴질랜드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96
〈표 3-35〉 말레이시아-뉴질랜드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97
〈표 3-36〉 중국-호주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99
〈표 3-37〉 일-인도네시아 EPA, 일,-인도 CEP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100
〈표 3-38〉 일-호주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101
〈표 3-39〉 RECP 회원국 양자간 체결한 FTA의 제3국 경유시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구분 ·····103
〈표 3-40〉 RECP 회원국 양자간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목록 104

〈표 3-41〉 RCEP 회원국간 1:1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105
〈표 3-42〉 (당사국 정의) Section B Article 1.3 General Definitions〉 ·····106
〈표 3-43〉 (직접운송 규정) Transit and Trans-shipment ·····106
〈표 3-44〉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직접운송 관련 규정(당사국 정의) 107
〈표 3-45〉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직접운송 관련 규정 ·····107
〈표 3-46〉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BWT 허용 여부 ·····111
〈표 3-47〉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112
〈표 3-48〉 한-인도 CEPA 재수입물품 특례 ·····113
〈표 3-49〉 인도-ASEAN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117
〈표 3-50〉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검토 요약 ·····120
〈표 3-51〉 PEM /EEA의 직접운송원칙 ·····122
〈표 3-52〉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직접운송 : 역내경유 관련 ·····124
〈표 3-53〉 한-인도 FTA 누적 근거규정 ·····132
〈표 3-54〉 한-중 FTA 누적 근거규정 ·····132
〈표 3-55〉 한-ASEAN FTA 누적 근거규정 ·····133
〈표 3-56〉 한-베트남 FTA 누적 근거규정 ·····133
〈표 3-57〉 한-EU, 한-터키 FTA 누적 근거규정 ·····138
〈표 3-58〉 한-EFTA FTA 누적 근거규정 ·····138
〈표 3-59〉 한-미 FTA 누적 근거규정 ·····142
〈표 3-60〉 한-호주 FTA 누적 근거규정 ·····142
〈표 3-61〉 한-뉴질랜드 FTA 누적 근거규정 ·····143
〈표 3-62〉 한-콜롬비아 FTA 누적 근거규정 ·····143
〈표 3-63〉 한-칠레 FTA 누적 근거규정 ·····144
〈표 3-64〉 한-싱가포르 FTA 누적 근거규정 ·····144
〈표 3-65〉 한-페루 FTA 누적 근거규정 ·····145
〈표 3-66〉 한-캐나다 FTA 누적 근거규정 ·····147
〈표 3-67〉 우리나라 체결 FTA의 협정문상 누적 문구 ·····149
〈표 3-68〉 일본-ASEAN 누적 근거규정 ·····152
〈표 3-69〉 중-뉴질랜드 누적 근거규정 ·····152
〈표 3-70〉 중-호주 누적 근거규정 ·····152
〈표 3-71〉 일본-베트남 FTA 누적 근거규정 ·····152
〈표 3-72〉 호주-태국 누적 근거규정 ·····154
〈표 3-73〉 태국-뉴질랜드 누적 근거규정 ·····154

〈표 3-74〉 호-뉴-ASEAN 누적 근거규정 ·····155
〈표 3-75〉 뉴질랜드-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156
〈표 3-76〉 일본-인도 누적 근거규정 ·····156
〈표 3-77〉 인도-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156
〈표 3-78〉 중-ASEAN 누적 근거규정 ·····158
〈표 3-79〉 인도-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158
〈표 3-80〉 ASEAN-인도 누적 근거규정 ·····159
〈표 3-81〉 일본-호주 FTA 누적 근거규정 ·····159
〈표 3-82〉 일본-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160
〈표 3-83〉 일본-인도네시아 누적 근거규정 ·····161
〈표 3-84〉 일본-브루나이 FTA 누적 근거규정 ·····161
〈표 3-85〉 일본-필리핀 FTA 누적 근거규정 ·····162
〈표 3-86〉 일본-싱가포르 FTA 누적 근거규정 ·····163
〈표 3-87〉 호주-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164
〈표 3-88〉 호주-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165
〈표 3-89〉 뉴질랜드-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165
〈표 3-90〉 호주-뉴질랜드 누적 근거규정 ·····166
〈표 3-91〉 일본-멕시코 FTA 누적 근거규정 ·····168
〈표 3-92〉 일본-스위스 누적 근거규정 ·····169
〈표 3-93〉 중국-스위스 누적 근거규정 ·····170
〈표 3-94〉 중-아이슬랜드 누적 근거규정 ·····171
〈표 3-95〉 미국-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172
〈표 3-96〉 미국-호주 누적 근거규정 ·····173
〈표 3-97〉 TPP 누적 근거규정 ·····174
〈표 3-98〉 RCEP 참여국 FTA 협정문 상 누적 형태와 구분 ·····176

〈표 4-1〉 무역 산업 분류 표 ·····179
〈표 4-2〉 생산단계에 의한 무역 품목의 분류 표 ·····179
〈표 4-3〉 RCEP 회원국의 RIETI-TID 분류 결과 비교 : 2000년, 2015년 ·205
〈표 4-4〉 BEC와 RIETI-TID 분류 현황 ·····209
〈표 4-5〉 무역 특화지수 분류 ·····211
〈표 4-6〉 한-중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218
〈표 4-7〉 한-ASEAN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219

〈표 4-8〉 한-인도 CEP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220
〈표 4-9〉 한-호주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220
〈표 4-10〉 한-뉴질랜드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221
〈표 4-11〉 RCEP FTA의 특혜對수출 활용현황(2016) ·····222
〈표 4-12〉 한-중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223
〈표 4-13〉 한-ASEAN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224
〈표 4-14〉 한-인도 CEP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224
〈표 4-15〉 한-호주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225
〈표 4-16〉 한-뉴질랜드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226
〈표 4-17〉 對RCEP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227
〈표 4-18〉 RCEP 참여국간 무역특화지수 : 2015년 ·····232
〈표 4-19〉 중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34
〈표 4-20〉 일본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35
〈표 4-21〉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37
〈표 4-22〉 인도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38
〈표 4-23〉 ASEAN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39
〈표 4-24〉 호주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41
〈표 4-25〉 뉴질랜드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242

〈표 5-1〉 유효 인증수출자 인증 현황(2016년말 기준) ·····245
〈표 5-2〉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건의 지역별 비중 ·····245
〈표 5-3〉 유효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건의 산업별 분포 ·····246
〈표 5-4〉 유효인증수출자 인증건수의 협정별 구분(2016년말 기준) ·····247
〈표 5-5〉 2016년 인증수출자 인증건수의 원산지결정기준 ·····248
〈표 5-6〉 조사대상 인증수출자의 원재료 조달 현황 ·····249
〈표 5-7〉 조사대상 인증수출자의 산업별 해외조달원재료 비중 ·····250
〈표 5-8〉 배기가스 터빈과급기 부분품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3
〈표 5-9〉 곡물조제품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4
〈표 5-10〉 윤활유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5
〈표 5-11〉 기타 주스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6
〈표 5-12〉 윤활유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6
〈표 5-13〉 플루오르화인산염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7
〈표 5-14〉 음료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8

〈표 5-15〉 음료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59
〈표 5-16〉 기타 조명기구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0
〈표 5-17〉 마커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2
〈표 5-18〉 밸브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2
〈표 5-19〉 분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3
〈표 5-20〉 규산염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5
〈표 5-21〉 황동제 파이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5
〈표 5-22〉 샤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66

〈표 6-1〉 한국-RCEP 회원국 체결 FTA 발효시기 및 최장양허 현황 ····269
〈표 6-2〉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271
〈표 6-3〉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272
〈표 6-4〉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검토 요약 ·····274
〈표 6-5〉 기초재, 가공재, 부분품, 완성재 분류 요약 ·····277
〈표 6-6〉 한국과 對RCEP 참여국 체결 FTA의 특혜수출입 활용현황(2016) ····278
〈표 6-7〉 RCEP 회원국의 교역비중과 수출입 상위 요소 비교: 2000년, 2015년 ·280
〈표 6-8〉 RCEP 참여국간 가공재 무역특화지수 결과표 ·····282
〈표 6-9〉 RCEP 참여국간 부분품 무역특화지수 결과표 ·····283
〈표 6-10〉 실리카 겔 파이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85
〈표 6-11〉 소가죽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86
〈표 6-12〉 티타늄제 관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87
〈표 6-13〉 모노필라멘트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289
〈표 6-14〉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의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290
〈표 6-15〉 RCEP 주요국과의 기체결 협정별 부가가치 계산방식 ·····292
〈표 6-16〉 음료의 BOM 내역 ·····293
〈표 6-17〉 음료의 BOM 내역 ·····295
〈표 6-18〉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296
〈표 6-19〉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중국 ·301
〈표 6-20〉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ASEAN ·304
〈표 6-21〉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인도 ·305
〈표 6-22〉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기타 ·306
〈표 6-2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309
〈표 6-24〉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309

〈표 6-25〉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310
〈표 6-26〉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311
〈표 6-27〉 협정별 간이발급대상 품목 수출 비중(2016년 특혜품목 中) 311
〈표 6-28〉 N:N 협정의 원재료(재료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313
〈표 6-29〉 RCEP 완전누적 가정시 누적규정의 변화 비교 ·····31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그림 2-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5
<그림 2-2> WTO에 통보된 연도별 RTA 발효 현황 ·····6
<그림 2-3> 인도의 對중국 무역수지와 對세계 서비스무역수지 추이 ·····34
<그림 2-4> RCEP 및 주요 경제권의 중간재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 지수 추이 ·····44
<그림 3-1> 직접운송원칙 적용 개요 ·····52
<그림 3-2> 한-ASEAN FTA 누적 사례 ·····134
<그림 3-3> 한-EU FTA 누적 사례 ·····139
<그림 4-1> 중국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81
<그림 4-2> 일본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83
<그림 4-3> 한국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85
<그림 4-4>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88
<그림 4-5> 싱가포르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90
<그림 4-6> 말레이시아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92
<그림 4-7> 태국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94
<그림 4-8>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96
<그림 4-9>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199
<그림 4-10> 필리핀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201
<그림 4-11> 호주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202
<그림 4-12> 뉴질랜드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204
<그림 4-13> 한국의 對RCEP 참여국 수출과 수입: BEC 분류 ·····212
<그림 4-14>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BEC 분류 ·214
<그림 4-15> 2016년 협정별 FTA 특혜수출 활용률 ·····217
<그림 4-16> 2016년 협정별 FTA 특혜수입 활용률 ·····222
<그림 4-17> 對RCEP 참여국 FTA특혜활용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227
<그림 5-1> 산업별 한국산 원재료 비율내역 ·····251
<그림 5-2> 산업별 해외조달 원재료 비율내역 ·····251

<그림 5-3> 원재료 해외 조달 국별 현황 ·····252
<그림 6-1> 직접운송 위반 추징실적 ·····268
<그림 6-2> 개별 FTA와 Mega FTA ·····270
<그림 6-3> RCEP의 중간물류 거점 활용 사례 ·····274
<그림 6-4> 한국과 對RCEP 참여국 체결 FTA의 특혜수출 규모 및 FTA 적용률 ··276
<그림 6-5> 대기업,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비교(2016) ·····307
<그림 6-6>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제도 도입 개요 ·····308
<그림 6-7> RCEP협정 원재료(완전누적) 사례 : 공정누적 ·····314
<그림 6-8> RCEP협정 원재료(완전누적) 사례 : 부가가치누적 ·····31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무역은 WTO 다자간 협상(DDA)이 지연되면서 개별 국가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이 복잡다기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FTA로 양자 간 협정 확산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블록화 또는 Mega FTA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지역통합형 Mega FTA(TPP[1], RCEP[2], FTAAP[3] 등)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10월 TPP의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무역의 재편이 주목받았으나, 최근 미국의 TPP 참여 불투명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 이행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RCEP의 타결 여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향후 Mega FTA는 RCEP 중심으로의 재편이 전망되며, RCEP 등의 국내 기업 활용을 위해 원산지 기준, FTA 적용요건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중간재[4]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경제권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TPP는 전 세계 총생산 (GDP)의 약 36%, 인구의 약 11%, 세계 교역의 약 25%(2014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3)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APEC 참여 21개국의 FTA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비중이 75 ~ 85%로 상당한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5)]

이에 RCEP이 타결될 경우, 對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완제품의 경우 생산시 투입된 원재료 조달의 범위가 RCEP 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다. 이는 통상 FTA에 포함되어 있는 누적조항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6)] 특히 누적조항은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 수출기업은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제분업체제에 참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Mega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업이다. 특히 광역 FTA 발효 가정 하, 누적조항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제시함으로써 기업의 Mega FTA 선제적 대응 방안 구축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Mega FTA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바, TPP와 RCEP의 협상참여 준비단계에서 기업들이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발효후 적극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RCEP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RCEP 참여국 내에서의 우리나라 수출입 국제분업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누적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Mega FTA 적극적 활용을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접운송, 누적조항 등 원산지 조항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제시하고자 한다.

---

4) 여기서 중간재는 UN에서 최종 사용목적에 따라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에 의거하여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로 분류한 것이다. 제3장에서 정의를 참고하면 된다. 따라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의하는 중간재와는 다른 의미이다.

5) 조미진(2014),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무역학회지 39(3)

6) 특히 TPP에서는 '완전누적(Full Accumulation)' 도입을 통해 역내에서 부가가치를 최대로 창출하고 완성재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여 해당 조항을 협정문에 반영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협정문 직접운송, 누적조항 분석
② 기초재, 가공재 등 對RCEP 교역동향 분석
③ 기업의 원산지기준 적용실태 조사
④ 비즈니스 모델 제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방법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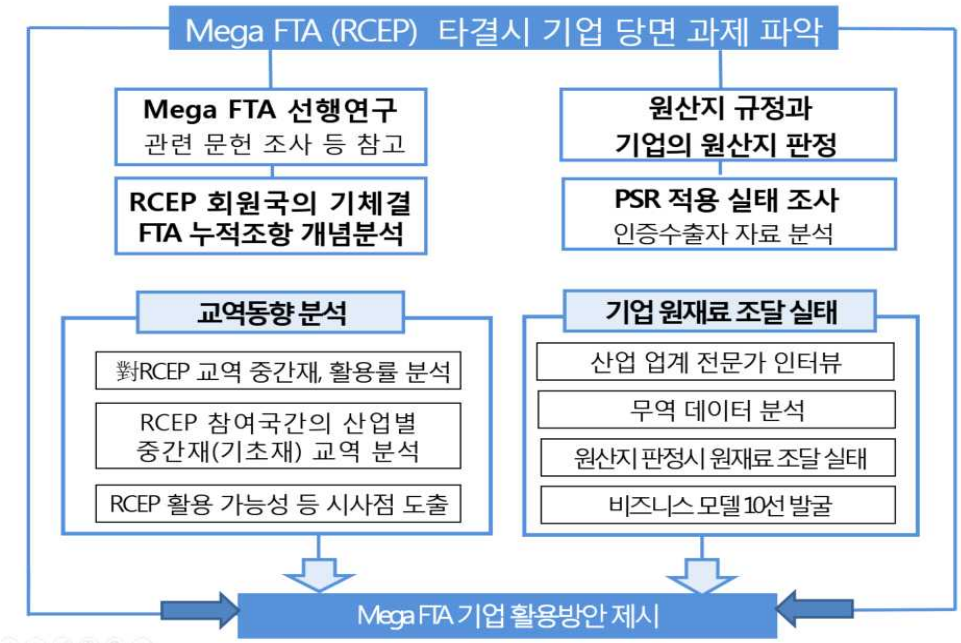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Mega FTA의 진행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먼저 WTO RTA와 RCEP의 이행현황과 세계 및 한국경제에서 갖는 RCEP의 의미를 정리한다. 아울러 현재 RCEP 참여국들의 FTA 진행현황도 체크한다. 또한 상품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기타 등 RCEP 분야별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RCEP 참여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원산지조항을 검토한다. 우선 기본적인 협정문 정리 작업의 시행하여, RCEP 참여국간 교차 체결된 FTA 등의 원산지조항 검토함으로써 RCEP의 관련 원산지 조항의 협상 방향성을 미리 진단해 본다. 즉, RCEP 참여국들의 원산지조항에 대한 기본 입장을 예측해 향후 RCEP 협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검토 대상 원산지조항은 기존의 양자간 협상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여 RCEP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과 우리 산업의 GV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적조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對RCEP 교역분석을 통해 Mega FTA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우선 RCEP 참여국의 전반적인 교역현황을 對세계 교역의 RIETI-TID(Trade Industry Datavase)를 통해 5단계(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7])

7) 일본경제산업성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재(소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각국의 교역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거시 통계 데이터로부터 파악한다. 또한 Mega FTA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대상 특혜교역을 분석한다. 특히 Mega FTA의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BEC와 RIETI-TID에 기초하여 기초재, 부분품, 가공재, 완성재로 세분하고 기체결 對RCEP 참여국과의 FTA 활용률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RCEP 참여국간 교역의 요소별 비교우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기업의 누적조항의 활용 실태분석을 통해 Mega FT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기업의 원재료조달 실태 및 원산지규정 활용 현황은 수집된 약 8,355건의 원산지 판정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주요 산업의 원산지기준 적용과 해외조달 원재료 실태 파악을 통해 Mega FTA 하 누적 활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제6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의 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Mega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한다.

제2장 Mega FTA의 진행 현황과 주요 이슈

제1절 세계 FTA 진행 현황

1. WTO RTA 진행 현황

지역경제통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 특혜협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FTA는 부문별 특혜협정 다음으로 통합의 수준이 낮은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이다.

<그림 2-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출처 :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의 추진은 WTO 출범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WTO사무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발효 중인 지역협정(이하 RTA)는 440개로 상품무역을 다룬 FTA 협정은 2017년 6월 현재 274개이다.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되었고, 2009년 203개로 200개를 돌파하였다. 이는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88.3%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사이트, www.fta.go.kr). 다음의 <그림 2-1>은 연도별 RTA 협정수의 변화추이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림 2-2> WTO에 통보된 연도별 RTA 발효 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06)

지역주의가 이와 같이 확산되게 된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양대 축인 서유럽과 미국의 영향이 크다. 서유럽 국가들은 1958년 이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통해 유럽 경제 통합에 착수하여 초기 부문별특혜협정, 공동시장단계를 거쳐 완전 경제통합 단계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등 유럽 밖에 있는 약 44개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8)]

미국은 GATT/WTO 틀에서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자유화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1980년에 들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체결된 FTA는 1985년 이스라엘이고 이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인해 체결한 것이었다. 본격적 FTA 추진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1989년에 캐나다에 이어 1994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출범시켰

8) https://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다. 이어서 미국은 2002년 요르단, 2004년 모로코, 호주, 바레인, 칠레, 싱가포르, 2005년 오만, 중남미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미주 34개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비롯하여 ANDEAN(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로, 에콰도르), SACU(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태국, 파나마 등 14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를 포용하기로 정책을 선회한 이유는 첫째, 합의 지연 등과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주의를 활용한 것이고, 둘째는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강화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데 기인한다.[9)]

이에 아시아지역도 지역주의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에 대표되는 지역협정이 1992년 출범한 ASEAN자유무역지대(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다. ASEAN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도 2000년 이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과 FTA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 콜롬비아, EU, 터키 등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대 이후부터는 TPP, RCEP 등 Mega FTA로 지역적 연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수출이 국내 경제의 근반이 된다. 또한 IMF 이후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에 있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9) 권오복 외 7명 (200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과거 한국의 입장은 FTA가 회원국 간 배타적인 특혜무역이라는 점에서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 FTA 체결이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은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두각 되었다. 과거 한국은 WTO가 주도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여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대·심화되어 WTO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다수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WTO/DDA협상의 진전도가 낮아 이후에 FTA의 추진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며 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국기업은 첨단기술대비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의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선진국의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기업의 발전된 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FTA 체결은 선진국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FTA의 추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역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한국을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시장 규모와 투자제도의 완비가 중요하므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동시에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FTA 이슈는 광역화를 주제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무역은 WTO의 부진 이후 FTA로 양자 간 협정 확산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블록화 또는 Mega FTA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Mega FTA의 양대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0]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1]이다.

2015년 10월 TPP의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무역의 재편이 주목받았으나, 미국의 TPP 탈퇴선언이후, TPP 향방은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세계정세의 급변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RCEP의 타결 여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경제권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다[12]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 중 하나인 '완전누적(Full Accumulation)' 도입을 통해 역내에서 부가가치를 최대로 창출하고 완성재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Mega FTA에 의한 세계무역질서 재편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

10)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1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 TPP는 전 세계 총생산 (GDP)의 약 36%, 인구의 약 11%, 세계 교역의 약 25%(2014년 기준)를 점유

2. RCEP 진행 현황[13)]

가. 개요

RC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현재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 구성은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RCEP은 역내 경제협력강화 및 교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상의 구조는 <표 2-1>와 같다.

RCEP의 구성은 우선 RCEP 경제장관회의와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중심으로 8개 작업반과 6개 소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소작업반은 4개 작업반으로 출범하였으나, 협상을 거치며 분야별 작업반이 분화되었다.

<표 2-1> RCEP 협상구조

구 분	주요 역할
RCEP 장관회의 (RCEP Ministerial Meeting)	TNC 합의사항 추인 및 주요 결정사항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RCEP 협상의 모멘텀 부여 * ASEAN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수석대표회의 (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주요 결정사항 논의, 각 작업반에 지침 제시 각 작업반은 회의 종료 후 TNC에 결과 보고
작업반(8) 및 소작업반(6) (Working(Sub-working) Groups)	(작업반)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식재산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상품 소작업반) 원산지, 통관, SPS, STRACAP (=TBT) (서비스 소작업반) 금융, 통신

장관회의는 수석대표회의(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합의사항 추인 및 주요 결정사항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RCEP 협상의 동기 즉 모멘텀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다수를 점하는 ASEAN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수석대표회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각 작업반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각 작업반은 관련 세부 회의

13) 코트라(2016),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Global Market Report 16-03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종료 후 수석대표회의(TNC)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반의 구성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소작업반으로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표준·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절차(STRACAP=TBT), 금융, 통신(6개) 분야가 설치되어 있다. 원산지, 통관, 위생, 기술규제 등 4개 소작업반은 상품작업반, 금융, 통신 등 2개 부문은 서비스 작업반을 상위로 두고 있다.

나. 추진배경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추진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아시아권에서도 지역무역협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표 2-2> RCEP 추진 연혁

시기	회의명	내용
2000년초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 및 지역무역협정 논의 본격화
'04년		EAFTA 연구 시작
'07년		CEPAEA 연구 시작
'09.8월	ASEAN+6 경제장관회담	EAFTA, CEPEA 연구결과 보고
'11.11월	ASEAN 정상회담	RCEP 작업계획 제시 - EAFTA, CEPEA 논의 종료
'12.8월	ASEAN+6 경제장관회의	RCEP 협상지침 및 협상개시선언 일정 확정*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 선언

특히 미국 중심의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ASEAN을 중심으로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st Asian Free Trade Arrangement)[14]와 CEPEA(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15]을 논의한 끝에 2011년

14) ASEAN + 3(한·중·일), 중국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논의
15) ASEAN +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주도로 2007년부터 논의

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RCEP 작업계획을 제시한바, RCEP 협상이 본격화 되었다.

한편 RCEP에 참여하는 16개 협상국은 2012년 8월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을 확정하였는데, 8가지 기본지침은 ①WTO 협정과의 일관성 확보, ②기존 ASEAN+1 FTA보다 상당히 개선된 협정을 목표, ③무역 및 투자의 투명성과 원활화 확보, ④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flexibility) 및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포함, ⑤협상 참여국 기체결 FTA의 지속, ⑥추가 참여 조항(open accession clause)의 포함, ⑦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⑧상품・서비스・투자, 여타 분야의 병행협상(parallel negotiation)이다. 동 지침을 기반으로 RCEP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 협상경과 및 주요 내용

RCEP은 2013년 제1차 협상을(5.9-5.13,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베가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말 기준 제20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차수별 각 협상개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표 2-3>와 같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제1차 협상은 참여국 간 협상 매커니즘 합의, 무역협상위원회(TNC) 설립 및 운영규칙 합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3개 작업반 설립 및 회의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분야별 이슈는 개별국가가 준비한 Concept Paper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분쟁해결, 일본은 지재권 및 경쟁, ASEAN은 협력부문에 집중하였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개최된 제1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15년 협상타결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하였고, 최종협상(제10차 협상) 개최시기 및 장소(’15.9월 대한민국)를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 협상은 2013년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었고, 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작업반 별 논의 진행되었다. 또한 기타 분야에 대한 추가 작업반 구성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협상은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되었다. 작업반별 논의의 진전이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 작업반은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하위에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작업반 신설 및 관련논의가 있었다. 서비스·투자 작업반은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 협력분야인 경쟁,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등 4개 분야 작업반 신설 합의하였다.

<표 2-3> RCEP 협상경과 및 관련 이슈

내용	개최기간	개최지
제1차 협상	’13.5.9-5.13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제1차 경제장관회의	’13.8.19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제2차 협상	’13.9.23-9.27	호주 브리즈번
제3차 협상	’14.1.20-1.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4차 협상	’14.3.31-4.4	중국 난닝
제5차 협상	’14.6.23-6.27	싱가포르
제2차 경제장관회의	’14.8.27	미얀마 네피도
제6차 협상	’14.12.1-12.5	인도 그레이터노이다
제7차 협상	’15.2.9-2.13	태국 방콕
제8차 협상	’15.6.8-6.13	일본 교토
제9차 협상	’15.8.3-8.7	미얀마 네피도
제3차 경제장관회의	’15.8.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PP 타결	’15.10.5	
제10차 협상	’15.10.12-10.16	대한민국 부산
ASEAN 정상회의	’15.11.21-11.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EC 출범	’15.12.31	
제11차 협상	’16.2.15-5.19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제12차 협상	’16.4.22-4.29	호주 퍼쓰
제13차 협상	’16.6.10-6.18	뉴질랜드 오클랜드
제14차 협상	’16.8.15-8.19	베트남 호치민
제15차 협상	’16.10.17-10.21	중국 텐진
제16차 협상	’16.12.6-12.10	인도네시아 땅그랑
제17차 협상	’17.2.27-3.3	일본 고베
제18차 협상	’17.5.8-5.12	필리핀 마닐라
제19차 협상	’17.7.24-7.28	인도 하이데라바드
제20차 협상	’17.10.24-10.28	한국 인천

제4차 협상은 2014년 3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되었다. 상품 작업반의 경우 협상방식, 협상목표 및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가 중점 논의되었다. 동 협상에서 한국의 경우 관세 감축률 등 모델리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서비스·투자 작업반에서는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등을 논의하였다. 경쟁·지재권·경제협력 작업반은 등은 제3차에서 신설에 합의한 뒤 제4차 협상에서 최초 논의를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협상범위 및 계획 등으로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의 협상 포함 여부도 추가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 제안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5차 협상은 2014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나, 특이 동향은 없었다. 다만, 같은 해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제2차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를 협상 대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6차 협상은 앞서 언급한 제2차 경제장관회의 지침을 기초로 협상 진행되었다.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포함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자유화 방식이 논의되었다.

제7차 협상은 2015년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상품분야의 경우 양허안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수준, 관세철폐기간, 유관세품목 포함여부 등을 논의하였고 아울러 상품 통합협정문 작성 시작되었다. 또한 상품분야에 포함되는 원산지, 통관, SPS, Stracap 등 4개 소작업반 설치하여 해당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6차 협상에 이어서 자유화 방식 및 협정 포함요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특히 자유화 방식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등이 거론되었다. 규범·협력 분야의 경우 경쟁,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등 4개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앞서 제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던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해 협정문 내 포함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 노동분야의 RCEP 포함 여부 관련 논의되었다.

제8차 협상은 2015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상품분야의 경우 1차 양허안 모델리티 및 협정문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지난 7차 협상에 이어 지속되었다.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2개 소작업반 설치되었다.

제9차 협상은 2015년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초되었다. 이때 특이 사항은 한국 대표단이 6개 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연맹 (ATP :ASEAN FTA Partner)[16]의 연맹 조정자 역할 수행한 것이었다.

제10차 협상은 2015년 10월 12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동 협상이 개최 직전인 2015년 10월 5일 TPP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RCEP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14개 분과회의 동시 개최되었는데, 아울러 AEC(ASEAN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앞두고, AEC 세미나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편, RCEP의 첫 번째 협상 이후 개최된 제1차 경제장관화의에서 제10차 협상을 최종협상으로 목표했으나, 실질적인 협상 지연 등으로 협상 타결이 미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 11월에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2016년 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하였고, 분야별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 심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1차 협상은 2016년 2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되었다. ASEAN 정상회의에서 2016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 뒤 열린 첫 공식협상이었으나,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 분과 협상만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1차 상품 양허 수준 등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만 합의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동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각국 간 이해가 대립되었다. 중국과 인도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TPP와 RCEP에 동시 참여하고 있는 호주·일본 등은 TPP 타결 이후 상대적으로

16)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느긋한 입장으로 협상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2차 협상은 2016년 4월 호주 퍼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발의에 의해 의약품 지재권 강화 조항 작성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제13차 협상은 2016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2차 협상에 이어 일본과 인도의 협상 조건과 중국과의 입장 차가 발생하였다. 인도는 15개 회원국을 3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관세율 인하를(three-tier approach to tariff reduction) 제안하는 접근법을 추진해 왔는데,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ASEAN 국가들은 이와 같은 인도의 선택적 무역 자유화 접근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는 중국이 제안한 ASEAN 수준의 품목 개방에 대해 산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산지규정과 경쟁,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도 적극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제7차 협상부터 투자분야의 자유화 방식이 논의되었는데, 제13차 협상에 이르러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ASEAN이 서비스 분야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려 하지 않고 있어 리스트의 확정에 대해서는 향후 협성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자연인 이동’ 챕터에서도 경제·사회 발전 정도 차이로 인해 일부 참여국은 적극적인 반면, 일부 국가는 보수적인 이민정책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달의 경우 제13차 협상까지도 기본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RCEP은 중소기업의 생산, 취직 등에 대한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챕터를 구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14차 협상은 2016년 8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었다. 상품 시장접근의 경우, 한국측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참여국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협상 참여국들은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속 협의하기로 논의하였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3차 협상에서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대립하였으나, 제14차 회의에서 최종 개방수준 관련 이견을 일부 축소하고,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제15차 협상은 2016년 10월 중국 텐진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13개 협상 챕터 중 경제, 기술협력분야 합의 도출하였다. 특히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자발적 기여에 기반한 협력 프로그램 추진도 논의되었다.

제16차 협상은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17차 협상은 2017년 2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RCEP 참여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제17차 협상에서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분야별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서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 추진하였다. 투자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원산지·지재권·통관·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 하였다.

제18차 협상은 2017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제19차 협상은 2017년 7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협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각국은 상품, 서비스 후속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재권・위생 및 검역(SPS)・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논의를 지속하였다.

제20차 협상은 2017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 설정한 부문에 대해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1회 ASEAN 정상회의에서 RCEP 참여 16개국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8년 협정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RCEP은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요 광역 MEGA FTA로 주목받고 있으며, 협상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라. 세계 경제에서 RCEP의 의의

RCEP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이 높다. <표 2-4>는 세계 주요 경제블록의 GDP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2014년 기준 RCEP 참여국의 GDP 총합은 22조7천억 달러 규모로 28조1천억 달러의 TPP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블록이다. 특히 최근 TPP의 부진과 위기는 RCEP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RCEP은 세계인구의 47.6%, 세계 교역액의 34.2%를 차지하는 초 거대 시장이기도 하다. 2014년 기준, RCEP 참여국의 총인구는 약 35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어 최대생산지역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RCEP 참여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총액은 13조 달러 규모로 38조 2천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교역액의 1/3을 차지하고 있있다. 이에 역내

<표 2-4> 세계 주요경제블록의 GDP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경제블록	GDP	비중*
1	TPP	28,100,000	36.0%
2	RCEP	22,679,487	29.1%
3	EU	15,510,000	23.7%

자료원 : UNCTAD, World Bank (기준연도 : 2014년)
* 2014년 전 세계 GDP : 77,690,607,000,000 달러 (World Bank, 195개국 기준)
출처 : 앞의 자료에서 재인용

원활한 국별 분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역 확대뿐 아니라 참여국간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원자재 수출중심국가, 노동집약형 제조업중심국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중심국가가 모두 포진되어 있어 역내 활발한 GVC(Global Value Chain)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Mega FTA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마. 한국 경제에서 RCEP의 의의

다음으로 한국 경제에서의 RCEP의 의를 살펴보자. 첫째, RCEP 참여국과의 절대적인 교역 비중의 우위와 중요성이다. <표 2-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총 교역 가운데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49.0%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과 RCEP 참여국간 전체 교역액은 4천4백억 달러 규모로 한국 전체 교역액 9천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교역액 기준 교역순위 10위 이내 국가 중 5개 국가, 20위 이내 국가 중 10개 국가가 RCEP에 참여하고 있다.[17]

둘째, 주요 교역국과 안정적인 교역기반구축 및 일본과 최초로 무역협정 체결에 의의가 있다.

17) 중국(1), 일본(3), 베트남(4), 호주(8), 싱가포르(10), 인도(11), 말레이시아(12), 인도네시아(13), 태국(18), 필리핀(20), 뉴질랜드(43), 미얀마(60), 캄보디아(69). 괄호안은 순위

<표 2-5> RCEP 참여국과 한국의 교역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	교역액	교역비중
1	중국	211,394,718	23.4
3	일본	71,810,680	8.0
4	베트남	45,145,659	5.0
8	호주	22,654,216	2.5
10	싱가포르	19,264,819	2.1
11	인도(인디아)	15,787,514	1.8
12	말레이시아	15,037,734	1.7
13	인도네시아	14,884,005	1.7
18	태국	11,042,884	1.2
20	필리핀	10,504,901	1.2
43	뉴질랜드	2,403,389	0.3
60	미얀마	1,219,399	0.1
69	캄보디아	812,424	0.1
소계		441,962,342	49.0
총계		901,525,580	100.0

출처 : 무역협회

RCEP이 타결되면 일본과 최초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의의가 있으며, 한·중·일FTA 및 한·일FTA 협상의 디딤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TPP 참여 12개국 중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 멕시코 2개국으로, RCEP 타결 시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TPP 참여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향유하게 된다.

무엇보다 RCEP 타결 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旣체결한 무역협정 간 '스파게티 볼' 현상 발생억제 부문이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참여국이 한국과 양자/다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적용으로 각 협정별 규정의 충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역내 GVC를 활용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6> TPP·RCEP 참여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현황

지역	국가	TPP	RCEP	한국	비고
북중미	미국	○	×	○	
	캐나다	○	×	○	
남미	멕시코	○	×	×	
	칠레	○	×	○	
	페루	○	×	○	
대양주	호주	○	○	○	
	뉴질랜드	○	○	○	
동북아	중국	×	○	○	
	일본	○	○	×	
동남아	태국	×	○	○	
	싱가포르	○	○	○	
	베트남	○	○	○	
	말레이시아	○	○	○	
	브루나이	○	○	○	
	인도네시아	×	○	○	
	필리핀	×	○	○	
	미얀마	×	○	○	
	캄보디아	×	○	○	
	라오스	×	○	○	

마지막으로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기대되고 있다.[18]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2016년 성장률은 중국 6.7%, 인도 6.6%, 베트남 6.2% 로 미국 1.6%, 유로존 1.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UN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위연령도 인도 26.6세, ASEAN 28.3세로, 한국 40.2세 일본 46.4세, 미국 37.6세 보다 매우 낮은 젊은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RCEP 체결시 경제적 기대효과('12, KIEP)는 실질 GDP의 경우 10년간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은 10년간 113.51~194.56억 달러 증대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RCEP은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경제 이슈이다.

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03.07.)

3. RCEP 참여국의 FTA 진행 현황[19)]

본 항에서는 RCEP 참여국이 각각 진행한 FTA 발효 현황, FTA 정책,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등에 대해 정리한다.

<표 2-7>은 RCEP 협상 대상국의 기체결 FTA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 현재 15개 협정, 호주, 인도는 11개 협정, 뉴질랜드는 9개협정, ASEAN은 6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표 2-7> RCEP 협상 대상국의 기체결 FTA 현황

RCEP 협상국	RCEP 협상국 기체결 협정
중국	중국-APTA, 중국-홍콩 CEPA, 중국-마카오 CEPA, 중국-ASEAN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페루 FTA, 중국-칠레 FTA, 중국-코스타리카 FTA, 중국-EFTA FTA, 중국-아이슬란드 FTA, 중국- 스위스 FTA, 중국-호주 FTA, 중국-한국 FTA,
일본	일본-ASEAN EPA, 일본-브루나이 EPA, 일본-칠레 FTA, 일본-인도 EPA, 일본-호주 EPA, 일본-인도네시아 EPA, 일본-말레이시아 EPA, 일본-멕시코 EPA, 일본-몽골 EPA, 일본-페루 EPA, 일본-필리핀 EPA, 일본-싱가포르 EPA, 일본-스위스 EPA, 일본-태국 EPA, 일본-베트남 EPA
ASEAN	ASEAN-호주-뉴질랜드 FTA, ASEAN-중국 FTA, ASEAN-인도 FTA, ASEAN-일본 EPA, ASEAN-한국 FTA, ASEAN-AFTA
호주	호주-뉴질랜드-ASEAN FTA, 호주-칠레 FTA, 호주-중국 FTA, 호주-뉴질랜드 FTA, 호주-파푸아뉴기니 FTA(PATCRA), 호주-일본 EPA, 호주-한국 FTA, 호주-말레이시아 FTA, 호주-싱가포르 FTA, 호주-태국 FTA, 호주-미국 FTA
뉴질랜드	뉴질랜드-호주-ASEAN FTA, 뉴질랜드-호주 FTA, 뉴질랜드-중국 FTA, 뉴질랜드-홍콩 CEP, 뉴질랜드-한국 FTA, 뉴질랜드-대만 ECA,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뉴질랜드-싱가포르 CEP, 뉴질랜드-태국 CEP
인도	인도-ASEAN FTA, 인도-칠레 PTA,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인도-부탄 FTA, 인도-일본 CEPA, 인도-말레이시아 CECA, 인도-네팔 Treaty of Trade,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스리랑카 CEPA, 인도-한국 CEPA, 인도-MERCOSUR PTA
한국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19) 주요국의 입장 부문은 라미령・김제국(2017.02.1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로부터 정리함

가. ASEAN

(1) FTA 정책

ASEAN 10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북아 국가 및 주변지역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한·중·일 및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 6개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RCEP 협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FTA 정책을 통해 아시아 내 경제통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 미국 등과의 FTA도 추진했으나 ASEAN 10개국 내의 경제력 격차 문제, EU측의 ASEAN 내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ASEAN 전체 차원의 협상은 잠정 중단되고 개별국 차원의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국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개별 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EU와의 FTA에 타결, 가서명('13.9월)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2) FTA 발효 현황

<표 2-8> ASEAN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입	발효일자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20]	2010-01-01
ASEAN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7-07-01
ASEAN - Ind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07-01
ASEAN - Japan	Goods	FTA	2008-12-01
ASEAN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10-14
ASEAN Free Trade Area (AFTA)	Goods	FTA	1993-01-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TA 발효 현황은 다음 <표 2-8>와 같다. ASEAN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6건의 협정이 발효되었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발효한 협정으로는 1992년 발효된 ASEAN Free Trade Area (AFTA)이다. 이 중 상품무역협정만은

20)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 경제통합협정

맺은 협정은 ASEAN - India, ASEAN - Japan, ASEAN Free Trade Area (AFTA) 등의 3개 협정이면 나머지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협정 모두 발효되었다.

(3)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RCEP에 대한 ASEAN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ASEAN 10개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ASEAN 내부적으로 합의과정을 거친 뒤 AFP(ASEAN and FTA Partner)[21]와 협상을 벌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ASEAN 내부적으로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RCEP 전체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4년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경제개혁에 집중하면서 RCEP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 조코위 정부가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보호주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RCEP에 대한 ASEAN 회원국 각국의 기본 입장은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 TPP와 병행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RCEP이 무역시장 확대를 통한 중소국가의 한계 극복, 주력 산업인 서비스·투자 부문 역내 교역 활성화할 것으로 경제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투자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추진이 꼽히고 있다.

베트남의 RCEP에 대한 기본입장은 다자간 무역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및 투자지원 확대이다. 특히 베트남은 TPP와 RCEP 동시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섬유산업 기반 확대, 역내 글로벌 체인 편입을 통한 자국기업 발전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주목하는 RCEP 주요쟁점은 RCEP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한 원산지 규정 엄격성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 지적재산권은 낮은 수준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RCEP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시장 개방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국민적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

21)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아는 RCEP 체결 시 경제성장률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태국은 RCEP을 통해 원자재의 저렴한 수입을 통한 태국기업의 무역 공급망 확장 기대하고 있다. 즉 태국에게 RCEP는 주요 수출시장의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태국은 협상 가운데 상품·서비스 및 투자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RCEP을 활용한 주요 교역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이 RCEP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전체무역의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촉진과 말레이시아 기업의 해외사업 확장 기회로 활용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중국 등과의 인건비 격차에 관심을 갖고 있어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민감한 입장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등 1차 산업분야 보호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RCEP을 활용한 주요 교역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RCEP을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확대 기회로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것이 필리핀에서의 RCEP 참여 의의라 하겠다. 필리핀의 주요 쟁점은 상품분야로서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관세 수준 재조정 요구 중에 있다.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RCEP 조기타결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캄보디아는 자체 생산이 거의 없어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를 염두에 두고 RCEP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이 거의 없어 관련 쟁점이 적은 편이다.

미얀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RCEP을 활용한 주요 교역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하고 있다. RCEP 참여의 목적은 경제활성화 및 국제경제체제 편입 가속화로 알려졌다.

나. 호주

(1) FTA 정책

호주는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13.1월)함으로써 旣발효된 호주·뉴질랜드· ASEAN를 보완하였고, '13년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FTA 협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TPP와 RCEP 협상 모두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TPP 참여를 통해 페루,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 RCEP을 통해 인도 등 1개국과의 FTA를 추가적으로 맺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FTA 발효 현황

호주의 FTA 발효현황을 살펴보면 총 7개의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이 중 상품무역만을 합의한 협정은 호주-파퓨아 뉴기니 협정이며, 대부분이 서비스 협정까지 확대된 형태이다.

<표 2-9> 호주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입	발효일자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1-01
Australia - Chil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9-03-06
Australia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Australia - New Zealand (ANZCERTA)	Goods & Services	FTA & EIA	1989-01-01
Australia - Papua New Guinea (PATCRA)	Goods	FTA	1977-02-01
Japan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01-15
Korea, Republic of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4-12-12
Malaysia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3-01-01
Singapore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3-07-28
Thailand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5-01-01
United States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5-01-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호주의 RCEP에 대한 기본입장은 호주가 TPP와 RCEP를 동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 Mega FTA 동시참여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 있다.

특히 호주는 상위 12대 교역국 중 TPP에 참여하지 않은 5개 국가와 RCEP을 통해 Mega FTA체결하고, 아울러 서비스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RCEP 참여국으로의 시장 확대 기회 확보 등이 RCEP 참여 의의라 하겠다.

RCEP에서 호주가 집중하는 주요쟁점은 서비스・투자・지재권 분야이다. 해당 부문에서 호주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의약품 지재권의 보호수준은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전반적으로 호주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RCEP 협정 타결을 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호주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발효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12번째 가입국이 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TPP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술한 호주의 Mega FTA에 대한 적극성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RCEP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 중국

(1) FTA 정책

중국은 그동안의 지리적 인접 국가 및 자원확보 중심으로 체결해왔던 FTA 수준을 넘어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아이슬란드('13.4월), 스위스('13.7월)와 FTA에 서명하며 FTA 추진 범위를 유럽권으로 확대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EU와의 FTA 체결을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 RCEP, GCC 등 다자간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양적 측면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국제규범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맺은 스위스와의 FTA의 경우, 중국은 스위스에 대한 수출품의 99.9%(무관세 84.2%), 스위스는 중국에 대한 수출품의 99.7%(무관세 99.7%)가 관세혜택을 받게 되어 개방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그동안 중국에서 민감하게 여겨졌던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경쟁력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FTA 발효 현황

<표 2-10> 중국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임	발효일자
ASEAN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7-07-01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 - Accession of China	Goods	PSA[22]	2002-01-01
Australia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Chile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8-01
China - Costa Ric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8-01
China - Hong Kong,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3-06-29
China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China - Macao,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3-10-17
Chin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08-10-01
China - Singapor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9-01-01
EFTA - Hong Kong,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2-10-01
Hong Kong, China - Chile	Goods & Services	FTA & EIA	2014-10-09
Hong Kong, Chin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1-01
Iceland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4-07-01
Pakistan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9-10-10
Peru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3-01
Switzerland - Chin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4-07-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PSA(Preferred Supplier Agreement)

중국의 협정 발효현황을 살펴보면 17개의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최근 발효한 협정으로는 한-중 FTA이다. 현재 중국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정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3)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중국의 RCEP에 대한 기본입장은 경제안보 및 역내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 적극성이 높다. 이는 TPP 타결 이후 RCEP 조기타결 필요성 언급함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RCEP 참여 의의는 RCEP 참여국이 중국 대외무역의 약 30% 차지하고,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항하여 역내 영향력 유지 및 경제안보 확보함에 있다.

중국은 농업분야 개방을 적극 추진 중으로 한국, 일본과 관련 의견 상충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분야의 개방에는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RCEP을 통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를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수립에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RCEP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통해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RCEP 타결을 통한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등 자국의 이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의 리더십이 RCEP 협상과정에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부에서는 RCEP은 ASEAN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 원안이 일본이 제안한 ASEAN+6의 형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RCEP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라. 일본

(1) FTA 정책

일본은 그간 결정을 미루어 왔던 TPP 협상 참가와 일-EU FTA 협상을 개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다수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FTA에 적극 나서고 있다.

뒤쳐진 무역자유화 추격, 구조개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FTA에 적극 대응하여 '18년까지 FTA 무역 비중을 70%까지 확대(현 19%)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TPP, 한·중·일, RCEP,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등과의 FTA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업 개방 우려 등 일본 내 논란으로 그동안 TPP 협상 참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13.2월 美-日 정상회담을 통해 농업 개방 유예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13.3월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한 후 18차 협상('13.7월)부터 참가하였다. TPP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 향후 향방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EU와의 FTA의 경우 일본측 자동차 수입 확대에 대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의 우려로 협상 추진이 지연되어 왔지만, 양측이 일본의 철도, 교통 등 공공조달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협상에서 다루기로 합의하며 협상 출범의 돌파구 마련중에 있다.

(2) FTA 발효 현황

일본의 특혜무역협정 발효현황을 살펴보면 13개 협정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협정을 제외하고 모두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체결 및 발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일본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입	발효일자
ASEAN - Japan	Goods	FTA	2008-12-01
Brunei Darussalam - Japan	Goods & Services	FTA & EIA	2008-07-31
Chile - Japan	Goods & Services	FTA & EIA	2007-09-03
India - Japan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8-01
Japan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01-15
Japan - Indones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8-07-01
Japan - Malays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06-07-13
Japan - Mexico	Goods & Services	FTA & EIA	2005-04-01
Japan - Mongo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6-06-07
Japan - Peru	Goods & Services	FTA & EIA	2012-03-01
Japan - Philippines	Goods & Services	FTA & EIA	2008-12-11
Japan - Singapor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2-11-30
Japan - Switzer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09-09-01
Japan - Thai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07-11-01
Japan - Viet Nam	Goods & Services	FTA & EIA	2009-10-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일본의 RCEP에 대한 기본입장은 TPP와 RCEP의 2대 광역 FTA 참여를 통해 FTAAP 구축이 목적이라고 알려졌다.

일본의 RCEP 참여 의의는 중국, 동남아, 인도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ASEAN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하는데 있다.

일본이 관심을 갖는 협상의 주요 쟁점은 서비스·투자·지재권 분야로 해당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자국 민감품목인 농산품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TPP 타결에 집중해왔으며, TPP 타결 이후 RCEP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은 2017년 1월 20일 TPP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TPP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등 여타 가능성을 타진하여 왔으나 미국이 TPP에서 공식 탈퇴함에 따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 인도

(1) FTA 정책

SARRC(남아시아지역협력 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등 서남아시아 역내에 중점을 두던 인도는 1991년 '동방정책(Look East)' 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여 한국, 일본, ASEAN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인도는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으로 RCEP, 아시아 외의 지역으로는 EFTA,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의 FTA 협상을 통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협상중인 FTA의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씩 꾸준하게 협상을 지속해오고 있다.

(2) FTA 발효 현황

인도의 협정발효현황을 살펴보면, 총 11개 협정이 발효된 것으로 조사된다. 이중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과의 협정을 제외한 모든 협정이 상품무역만을 양허하는 등 인도는 상품무역이외의 FTA 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인도의 RCEP에 대한 기본입장은 TPP대응 및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조속한 타결지지로 요약된다.

인도의 RCEP 참여 의의는 기존에 무역협정 미체결국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정체결 효과, ASEAN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등이다.

<표 2-12> 인도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입	발효일자
ASEAN - Ind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07-01
Chile - India	Goods	PSA	2007-08-17
India - Afghanistan	Goods	PSA	2003-05-13
India - Bhutan	Goods	FTA	2006-07-29
India - Japan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8-01
India - Malays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7-01
India - Nepal	Goods	PSA	2009-10-27
India - Singapor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5-08-01
India - Sri Lanka	Goods	FTA	2001-12-15
Korea, Republic of - Ind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1-01
MERCOSUR - India	Goods	PSA	2009-06-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도가 주목하는 주요 쟁점은 서비스·투자·지재권 분야에서 차등화된 개방 요구, 무역자유화 방식에서 그룹별로 다른 관세 인하율 제시 등이다.

특히 인도는 RCEP을 그동안 자신이 배제되었던 역내 지역무역협정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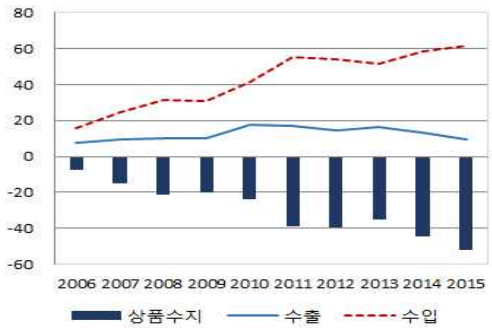
이에 따라 협정 초기부터 상품분야에 소극적, 서비스분야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는 2015년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520억 달러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무역적자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RCEP을 동남아를 넘어 일본, 호주 등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 APEC과 TPP에서 배제된 인도에 RCEP은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비스 자유화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며 높은 수준의 Mode 4 자유화를 RCEP에서 논의하고자 하나, 현재 ASEAN의 반대 입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23]

23) http://www.livemint.com/Politics/7Zfm9yuQYP6XrcNztK7APM/RCEP-faces-services-logjam.html (검색일: 2017. 1. 5).

<그림 2-3> 인도의 對중국 무역수지와 對세계 서비스무역수지 추이

대중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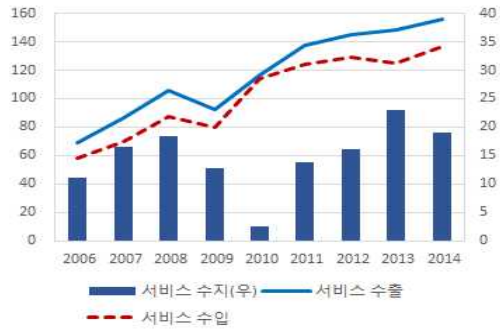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對세계 서비스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출처 : 라미령・김제국(2017)

바. 뉴질랜드

(1) FTA 정책

뉴질랜드는 2000년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뉴질랜드는 중국, 홍콩, 대만과 차례로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뉴질랜드는 선진경제권 중 가장 먼저 중국 및 대만과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최근 한국과의 협정도 발효되었다.

뉴질랜드는 기존의 TPP 참가국 중 하나로, 이와 더불어 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2) FTA 발효 현황

뉴질랜드는 총 8개 협정이 발효되었다. 주로 TPP, RCE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FTA는 인접국인 호주와의 FTA였으며, 이후 싱가포르, 태국, ASEAN,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한국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권과 FTA를 주로 체결하였다.

<표 2-13> 뉴질랜드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입	발효일자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1-01
Australia - New Zealand (ANZCERTA)	Goods & Services	FTA & EIA	1989-01-01
Chin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08-10-01
Hong Kong, China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1-01
Korea, Republic of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New Zealand - Chinese Taipei	Goods & Services	FTA & EIA	2013-12-01
New Zealand - Malays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8-01
New Zealand - Singapor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1-01-01
Thailand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05-07-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RCEP에 대한 주요 입장

뉴질랜드는 RCEP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TPP, RCEP 동시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출의 60%를 RCEP 참여국이 차지(TPP : 20%), 인도, 일본과 무역협정체결 효과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RCEP 참여의 의의를 경제적 부문에 두고 있다.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요 쟁점은 낙농제품 등 1차 가공품으로 RCEP을 통해 현재 무역협정 미체결국인 인도, 일본의 수출장벽 제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RCEP 협정 타결을 원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뉴질랜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발효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12번째 가입국이 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뉴질랜드 의회는 TPP 비준 및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TPPA Amendment Bill)을 2016년 11월 15일 통과시키는 등 TPP 발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TPP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술한 뉴질랜드의 Mega FTA에 대한 적극성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RCEP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 한국

(1) FTA 정책[24)]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동시다발적 FTA추진,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추진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 등 거대 선진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경제체제를 지향해 온 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자유무역협정체제에의 참여가 상당기간 지체됨으로써, ‘FTA 네트워크’를 단기간 내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거대 선진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체결 확대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채택한 방법은 ‘동시다발적 FTA추진’이었는데 이를 통해 그 동안 지체된 FTA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FTA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WTO의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시다발적 FTA추진’이나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추진’ 전략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추진’을 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FTA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이

24) 국제원산지정보원(2016), FTA 협정 및 법령, p.19~23

를 위해 정부는 2004년 5월 대통령훈령 제121호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FTA를 추진하여 왔다. 이후 2008년 8월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2011년 7월 대통령훈령 제288호로 당해 규정을 재개정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동아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에서 핵심축(linchpin)역할' 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2) FTA 발효 현황

2015년 12월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한-중-일 FTA, RCEP 등 향후 협상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협정을 발효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현황은 다음의 <표 2-14>와 같다.

<표 2-14> 한국의 기체결 FTA 현황

협정대상	범위	협정타입	발효일자
ASEAN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10-14
Canada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01-01
China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EFTA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06-09-01
EU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7-01
Korea, Republic of - Colomb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6-07-15
Korea, Republic of - Austral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4-12-12
Korea, Republic of - Chil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4-04-01
Korea, Republic of - India	Goods & Services	FTA & EIA	2010-01-01
Korea, Republic of - New Zealand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Korea, Republic of -Singapore	Goods & Services	FTA & EIA	2006-03-02
Korea, Republic of - Turkey	Goods	FTA	2013-05-01
Korea, Republic of -United States	Goods & Services	FTA & EIA	2012-03-15
Korea, Republic of - Viet Nam	Goods & Services	FTA & EIA	2015-12-20
Peru - Korea, Republic of	Goods & Services	FTA & EIA	2011-08-01

자료 : WT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기타 Mega FTA의 진행 현황 : TPP

<표 2-15> TPP 협상 추진 결과

연도	세부 추진동향	한국의 추진 동향
'06년	·5월 P4 협정 발효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	
'08년	·美 협상개시 의사 표명	
'09년	·美정부 8개국 간 협상 개시 美의회 통보 - 기존 4개국+美, 호주, 페루, 베트남	
'10년	·3~12월 1~4차 협상 - 10월 3차 협상시 말레이시아 참가로 총 9개국	
'11년	·2~12월 5~10차 협상	
'12년	·3~12월 11~15차 협상, - 12월 15차 협상시 멕시코, 캐나다 참가로 총 11개국	
'13년	·3~8월 16~19차 협상 - 7월 18차 협상 일본 참가로 총 12개국 ·10월 APEC 계기 TPP 정상회의 - 실질 합의 실패,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12월 TPP 각료회의 - 협상 타결 실패, 논의 지속 합의	·11.15일 국내 공청회 ·11.29일 협상 참여 관심표명 ·12.3일 WTO 각료회의 계기 예비 양자협의 개시
일본 참가	·3.15일 아베 총리 TPP 참가 공식 선언 ·4.12일 일본의 TPP 참가 위한 일·미 사전협의 타결 ·4.20일 TPP 장관 회담서 11개국 일본의 참가 지지 ·4.24일 美정부의 美의회 통지 - 통지 이후 90일의 물리적 기간 소요(7월 23일)	
'14년	·2월 TPP 각료회의 ·4.24일 美·日 정상회담 전후 美·日 TPP 장관 협의 ·5.19~20일 TPP 각료회의 - 향후 과제 논의, 공동성명 채택 ·6.9~10일 美·日 양자 협의(자동차 및 비관세조치) ·7.3~12일 수석대표회의 - 향후 각료회의 일정합의 없이 종료 ·7.16~18일 美·日 양자 협의(자동차 및 비관세조치) ·8.4~5일 美·日 양자 협의(농산물 등) ·8.13~14일 美·日 양자 협의(자동차 및 비관세조치) ·9.1~10일 수석대표회의 ·9.3~5일 美·日 양자 협의(자동차 및 비관세조치) ·9.9~10일 美·日 양자 협의(농산물 등) ·10.19~24일 각료회의 ·11.10일 APEC 계기 TPP 정상 회의 ·12.7~12일 수석대표회의	·12개국과 예비협의 지속 - 1차: 미국(1.13), 멕시코(1.15), 칠레(1.17), 페루(1.21), 말레이시아(1.21), 싱가포르(1.23), 캐나다(2.7), 호주(2.11), 브루나이(2.13), 뉴질랜드(2.14), 베트남(2.16), 일본(3.6) - 2차: 미국(4.3), 캐나다(4.7), 페루(4.8), 칠레(4.10), 싱가포르(4.17), 말레이시아(4.18), 멕시코(9.19) ·4.28일 국회 산업위 TPP 대응방안 모색 공청회
'15년	·1.14~16일 美·日 양자 협의 ·1.25~2.1일 수석대표회의 ·1.28~2.3일 美·日 양자 협의(자동차, 농산물) ·3.5~6일 美·日 양자 협의 ·3.9~15일 수석대표회의 및 美·日 양자 협의(농산물) 병행	
향후 일정	·~'15.3월말 美의회 예산안 등 처리 예정 ·'15.3월말~4.12일 美의회 휴회 ·'15.4월 중순~5월 중순 TPA 심의·처리(1개월 소요 예상)? ·'15.4월~ 美·日 각료회의 및 양자 협의 합의? ·'15.4월말~5월초 美·日 정상회담 ·'15.5월 12개국 각료회의 통해 협상 타결(핵심쟁점 합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선언으로 향후 향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절 Mega FTA의 주요 이슈 : RCEP 분야별 주요 쟁점[25)]

1. 상품무역 자유화

상품 분야는 FTA에 있어 가장 주목을 받는 핵심 분야이다. 상품무역 자유화의 주요 쟁점은 관세철폐 수준, 공통 양허안 채택 여부이다.[26)] 지금까지 Rcep 협상은 관세철폐 수준뿐만 아니라 협상 참여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공통 양허안 채택에 대해 협상국간 이견이 존재하여 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세철폐 부문에 대해서는 <표 2-16>로 요약된다.

RCEP 상품협상의 출발점이 될 ASEAN+1 FTA[27)]의 상품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ASEAN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품목수 기준 약 91% 관세철폐를 수용하고 있으며, 국가별/FTA별 관세철폐 수준이 상이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ASEAN의 후발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ASEAN+1 FTA의 평균 관세철폐 범위가 9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8개국은 AIFTA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AFP의 對ASEAN 관세철폐 범위 역시 상이하여 AFP간에도 상품양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ASEAN 관세철폐 수준은 100%에 달하는데, 호주는 중 · 호주 FTA하에서도 100% 관세철폐에 합의한 바 있다. 반대로 인도는 ASEAN의 FTA 파트너 중 가장 낮은 對ASEAN 관세철폐 범위(78.8%)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일 · 인도 CEPA에서 일본에 대해 89.7%, 한 · 인도 CEPA에서 한국에 대해 74.5% 관세를 철폐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판단되고 있다.[28)] 이처럼

25) 라미령, 김제국(2017.2.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로부터 정리함. 이하 <표>의 출처도 상기 자료와 같음

26) Megha Kumar and Benjamin Charlton(2017. 1. 23), “RCEP will step into gap as Trump pulls out of TPP,” Oxford Analytica(검색일 2017. 1. 23).

27)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는 이미 ASEAN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기체결 무역협정을 ‘ASEAN+1 FTA’라 지칭함

28) 이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2014),「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기체결된 RCEP 협상 참여국들 간의 상호 시장개방 수준이 상이하여 상품양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반대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16> ASEAN+1 FTA 관세철폐 범위

(단위: %)

구분	AANZFTA	ACFTA	AIFTA	AJCEP	AKFTA	평균
브루나이	99.2	98.3	85.3	97.7	99.2	95.9
캄보디아	89.1	89.9	88.4	85.7	97.1	90.0
인도네시아	93.7	92.3	48.7	91.2	91.2	83.4
라오스	91.9	97.6	80.1	86.9	90.0	89.3
말레이시아	97.4	93.4	79.8	94.1	95.5	92.0
미얀마	88.1	94.5	76.6	85.2	92.2	87.3
필리핀	95.1	93.0	80.9	97.4	99.0	93.1
싱가포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태국	98.9	93.5	78.1	96.8	95.6	92.6
베트남	94.8	-	79.5	94.4	89.4	89.5
호주·뉴질랜드	100.0					
중국		94.1				
인도			78.8			
일본				91.9		
한국					90.50	

주: 1) HS 6-digit 기준(품목수 기준)으로 작성됨.
2) ACFTA하의 베트남 데이터가 부재하며, ACFTA하의 미얀마 데이터 또한 HS01-HS08 데이터가 부재함.

자료: Yoshifumi Fukunaga and Ikumo Isono(2013), "Taking ASEAN+1 FTAs towards the RCEP: A Mapping Study,"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p. 8, ERIA.

둘째, 공통 양허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편 ASEAN의 경우 FTA에서 중첩되는 관세철폐 품목이 평균적으로 73.3%에 지나지 않아 협상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안을 채택하는 데 어

영향」, p. 5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ASEAN+1 FTA에서 중첩되는 품목 범위가 46%밖에 되지 않아 공통 양허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2-17> ASEAN+1 FTA 관세철폐 항목 분포

(단위: %)

	5개의 ASEAN+1 FTA에서 관세를 철폐한 품목	FTA마다 철폐여부가 다른 품목	5개의 ASEAN+1 FTA에서 모두 제외된 품목
브루나이	84.1	15.9	0
캄보디아	64.3	35.3	0.4
인도네시아	46	52.8	1.2
라오스	68	31.6	0.4
말레이시아	76	22.9	1.1
미얀마	66.6	31.8	1.6
필리핀	74.6	24.4	1
싱가포르	100	0	0
태국	75.6	24.3	0.1
베트남	78.1	19.1	2.8
평균	73.3	25.8	0.9

주: HS 6-digit 기준(품목수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Yoshifumi Fukunaga and Ikumo Isono(2013), "Taking ASEAN+1 FTAs towards the RCEP: A Mapping Study,"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p. 8, ERIA.

실제로 ASEAN의 일부 국가와 인도가 국가별로 다른 관세인하를 제시하는 3-tier 접근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3-tier 접근법이란 회원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인도의 경우 ASEAN 국가들에 80%, 한국과 일본에 65%,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 대해서는 42.5% 철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9]

이와 같이 관세인하 품목과 폐지기간 등 개방수준을 국가별로 달리하게 되면, 역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체결 FTA와 함께 복잡성이 가중되어 Mega-FTA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통 양허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16개

29) Kyle Robert Cote and Purna Chandra Jena(2015), "India's FTAs and RCEP Negotiations," p. 12, Economics & Environment (CUTS CITEE) Discussion paper, CUTS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참여국은 복수의 관세철폐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그 결과 RCEP 내 복잡한 관세철폐 일정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해서 관세인하 일정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기준 적용에 있어 복잡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6개 협상국은 회기간 장관회의(Intersessional Ministerial Meeting)[30] 및 16차 협상에서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RCEP이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공통 양허안을 채택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유연성(flexibility) 및 개별양허(deviation)가 존재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국별/국가그룹별 상이한 관세인하 기간(phase-out period)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유연성 및 개별양허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공통 양허안을 따르게 된다면 높은 수준의 공통 양허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머무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2. 원산지 규정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일반 이슈는 다음과 같다.

우선 RCEP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조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그림 2-4>에 의하면, RCEP 경제권 내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 및 역내편향성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내 분업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AANZFTA, AJCEP, AKFTA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변형 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31] 이거나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난 상품' 이며, ACFTA는 'RVC 기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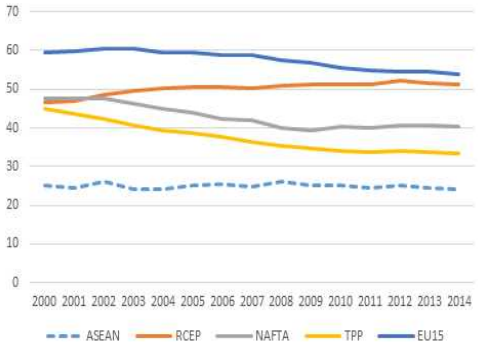
30) 2016년 11월 4일 필리핀 세부에서 16개국 통상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기간 장관회의가 개최됨. '회기간 회의' 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최되는 회의로, 공식 협상 중간에 열리는 소규모 회의를 말함.

31)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방법으로, RVC를 계산하는 방법은 협정별로 다소 상이함. AKFTA에서는 공제법(Build-Down) 또는 집적법(Build-Up)을 통해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며, 이 값이 40% 미만이 아닌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이상인 상품’ 이다. AIFTA의 경우 ‘RVC 기준 35% 이상이고,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난 상품’ 으로 확인된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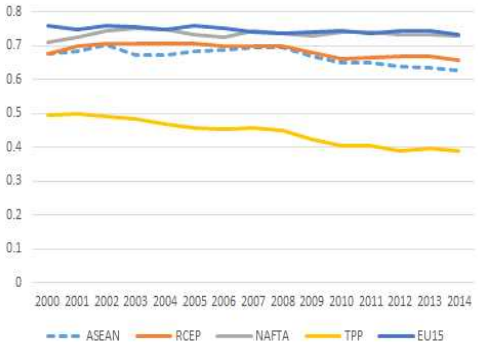
<그림 2-4> RCEP 및 주요 경제권의 중간재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 지수 추이

역내무역비중(중간재)



자료: RIETI-TID(검색일: 2017. 1. 3).

지역무역내향성지수[33)](중간재)



자료: RIETI-TID(검색일: 2017. 1. 3).

따라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ASEAN + 1 FTA의 원산지 규정상의 조화가 요구되며, AIFTA나 ACFTA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RCEP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TPP에서 규정된 여러 요소를 여기에도 적용하는 지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는 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Full Accumulation) 개념이다.

완전누적은 FTA특혜지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공정을 최종품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규정 도입을 통해 역내에서 부가가치를 최대로 창출하고 완성재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Mega FTA에 의한 세계무역질서 재편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3.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32) ASEAN+1 FTA 협정문 및 Yoshifumi Fukunaga and Ikumo Isono(2013), p. 11 참고.
33)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그 값이 0보다 크면 역내편향적, 0보다 작으면 역외편향적, 0에 가까울수록 지리적으로 중립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RCEP은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품 · 서비스 · 투자 분야를 병행 협상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어 관세철폐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체결 ASEAN+1 FTA의 서비스, 투자 협정은 각각 열거주의(positive list),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34]을 적용하고 있어 RCEP 역시 동일한 방식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TPP 참여국을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한 서비스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없어 TPP와 같이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참고로 한-뉴질랜드 FTA(2015년 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년 발효), 한-호주 FTA(2014년 발효)의 서비스협정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를 주장해온 인도는 3-tier 접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주장해 왔다. 인도는 총 155개의 소분야(sub-sector) 중 120개 소분야(sub-sector)의 자유화를 제안하였으며,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또는 Mode 3) 관련 60개의 소분야에 대해 100% 외국인지분을 심사 없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35] 또한 인도는 자연인의 자유로운 이동(MNP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또는 Mode 4) 관련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ASEAN 측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36] 이에 2016년 11월 4일 장관회의에서 협상국들은 Mode 4 자유화를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룰 것을 합의된 상태이다.[37]

다음으로 투자분야를 살펴보자. 투자분야의 관련 규정으로 내국민대우, 최

34) 개방할 영역을 명시하는 방식을 열거주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을 기술하여 그 외 분야를 모두 개방하는 방식을 포괄주의라고 지칭함.

35)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ready-to-abolish-tariff-structure-if-rcep-promises-fdi/articles how/53626290.cms(검색일: 2017. 1. 5).

36) http://www.livemint.com/Politics/7Zfm9yuQYP6XrcNztK7APM/RCEP-faces-services-logjam.html (검색일: 2017. 1. 5).

37) http://www.livemint.com/Politics/oYhlhzbUGxd382lGt3OvUN/RCEP-agrees-to-work-on-modalities-for-movement-of-skilled-wo.html(검색일: 2017. 1. 5).

혜국대우, 이행요건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 국적요건 부여금지,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 등이 있으며 <표 2-18>로 요약된다.

기체결 ASEAN+1 FTA 중에서 한-ASEAN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정을 맺고 있다. RCEP 투자협정이 ASEAN+1 FTA에서 개선된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ASEAN FTA 수준 이상의 협정내용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협상참여국들은 양자간 투자협정, FTA의 투자협정 등 다수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RCEP에서는 이들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표 2-18> ASEAN+1 FTA의 투자 자유화 관련 규정

구분	AANZFTA	ACFTA	AIFTA	AKFTA
내국민대우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후 단계에만 적용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최혜국대우	규정 없음 (작업반에서 추후 논의)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ISDS에 대해서 예외)	규정 없음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비합치조치의 현상동결 의무	현재유보에 적용	규정 없음[38]	현재유보에 적용	현재유보에 적용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행요건 금지	TRIMs 수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TRIMs 수준
국적요건 부여 금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적용

주: 1) AJCEP의 경우 투자협정이 부재
2) AANZFTA, AIFTA, AKFTA 모두 투자 유보안을 협의 중에 있음.
3) ASEAN포괄적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의 경우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상동결 의무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
자료: ASEAN+1 FTA 협정문과 김관호(201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분야 협정의 의의와 전망」,『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2호, p. 25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8) ACFTA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 유보안, 향후 투자 유보안 논의 계획, 비합치조치의 현상동결 의무 모두 부재함.

4. 기타 쟁점

RCEP 협상분야 중 ASEAN+1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한 분야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국영기업), 정부조달 등이 있다.[39] <표 2-19>는 이하 기술된 분야별 조항이 부재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9> 기체결 ASEAN+1 FTA에서 부재한 분야

ASEAN+1 FTA	RCEP 협상분야 중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한 분야
ACFTA	- 경쟁정책 - 전자상거래(관련 조항이 있으나 협력차원에서 언급한 수준)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40]
AKFTA	- 경쟁정책 - 전자상거래 - 정부조달
AJCEP	- 경쟁정책 - 전자상거래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AIFTA	- 경쟁정책 - 무역구제(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 전자상거래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AANZFTA	- 경쟁정책(관련 조항이 있으나 협력차원에서 언급한 수준) - 정부조달

자료: ADB FTA database, ASEAN+1 FTA 협정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2.15.)로부터 인용함

먼저 경쟁정책부문은 독립적인 경쟁당국 설립 또는 유지, 반경쟁적 사업행위 금지, 경쟁법의 조화, 정보제공 관련 조항 등을, 전자상거래 부문은 서류 없

39) 협정문 내 해당 조항이 없거나 추후협상 분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또는 WTO-plus 수준의 협정이 부재한 경우를 말함.

40)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가 2009년 12월 체결되었으며, 체결 후 5년간 발효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5년 연장됨. 해당 양허각서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협력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전통지식(genetic resource, traditional knowledge)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는 무역(paperless trading),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정보 보호 등, 정부조달은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차별 금지 원칙, 인터넷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출판, 공공조달 체제의 명시 등,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 집행(enforcement), 내국민대우, TRIPs 협정[41]에 언급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조항 등을 의미한다.

한편 AJCEP의 경우 TRIPs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RCEP은 후발개도국을 포함하고 있어 TPP 수준의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 협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ASEAN+1 FTA에서 ASEAN은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분야 협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CEP의 상품 ·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수준은 기체결 ASEAN+1 FTA처럼 협력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측면을 강조한 조항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분아별 쟁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정책의 경우 국영기업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및 ASEAN 개도국은 특혜금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국영기업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은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42]을 강조하며, 국영기업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주된 쟁점은 TRIPs-plus 조항 포함 여부, 의약품 특허,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지리적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등으로 예상되고

41)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4년 4월 15일에 확정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인 트립스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을 하나로 수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화를 보다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단적인 예로 트립스는 각 해당 협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보호수준의 원칙과 외국인의 권리보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국인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베른협약에 포함된 최소 범위의 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암사 편집부(2015),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42) 정부가 정부소유 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상의 이익(세금 차등부과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있다. 특히 의약품 자료 보호 및 특허기간 등 공중보건 관련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는 이슈로 향후 협상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 관련 FTA 및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RCEP 협상 과정에서도 GRTK 관련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43]

43) 풍부한 유전자원·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 등은 GRTK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TRIPs 개정 요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중국은 GRTK 관련 조항을 FTA의 지식재산권 장(chapter)에서 협상해왔음(중·뉴질랜드 FTA, 중·페루 FTA, 중·스위스 FTA, 중·코스타리카 FTA).

제3장 RCEP 참여국 체결 FTA 원산지 조항 검토

제1절 분석 개요

본장에서는 RCEP 참여국 간 교차 체결된 FTA의 원산지조항 검토를 통해 RCEP 참여국들의 원산지조항에 대한 기본 입장을 예측해 보고, 협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기본 단계로서 협정문 정리·분석 작업을 시행한다.

현재 RCEP 참여국 간에 상호 체결한 FTA 협정은 <표 3-1>과 같다. 일본 10개 협정,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각 7개 협정, 중국, ASEAN, 싱가포르, 등 6개 협정, 인도 5개 협정, 말레이시아, 태국 4개 협정,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1개 협정으로 나타났다.[44]

먼저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RCEP 참여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ASEAN은 물론 ASEAN의 주요 회원국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對RCEP 참여국과 총 7개 협정을 맺은 가운데, ASEAN과 체결한 협정은 한-ASEAN,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등 3개 협정이다. 중국은 6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ASEAN과 체결한 협정은 ASEAN, 싱가포르, 태국 3개국 협정이다.

한, 중, 일과 모두 협정을 맺은 국가는 ASEAN, 싱가포르, 호주 등이다. 반대로 1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인데, 이들은 모두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RCEP 참여국간의 FTA 협정은 자유무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RCEP 참여국의 Mega FTA에 대한 사전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

44) 단, ASEAN 회원국과 ASEAN 간의 협정은 제외하였다.

<표 3-1> RCEP 참여국간의 상호 협정체결 현황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싱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		O		O	O			O				O	O	O
중	O			O	O		O						O	O
일				O	O	O	O	O	O	O	O	O	O	
ASEAN	O	O	O									O		O
싱가포르	O	O	O									O	O	O
인도네시아			O	O										
태국		O	O										O	O
베트남	O		O											
말레이시아			O									O	O	O
브루나이			O											
필리핀			O											
인도	O		O	O	O				O					
호주	O	O	O	O	O		O		O					O
뉴질랜드	O	O			O		O		O				O	

이에 본 장에서는 RCEP 참여국간 체결한 상호 FTA를 대상으로 주요 쟁점이 되는 원산지 조항에 대해 각 FTA 협정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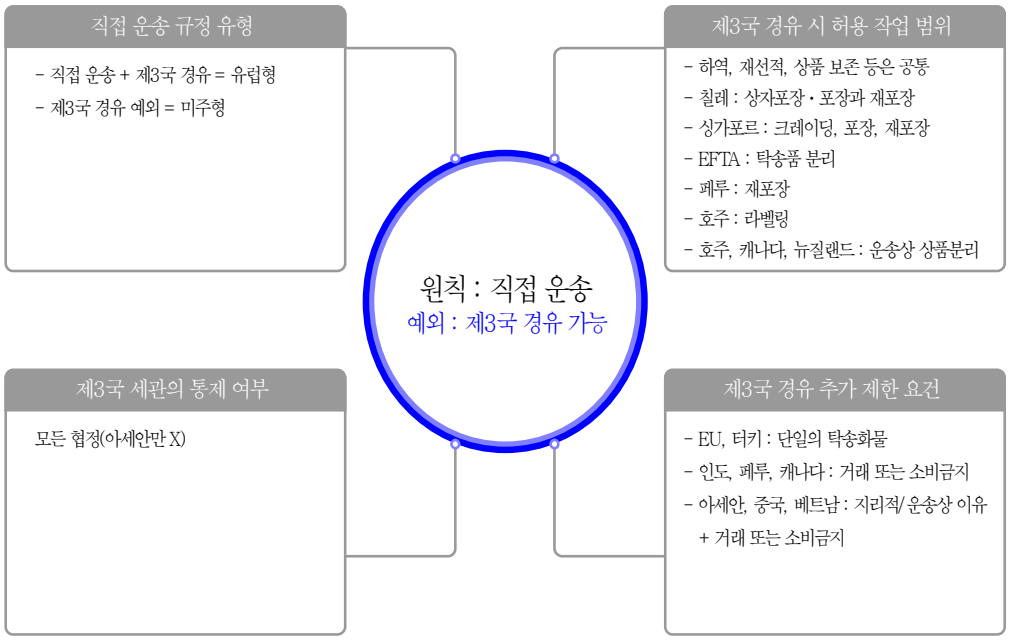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RCEP 참여국 상호체결 협정을 대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RCEP 체결시 RCEP의 활용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조항인 영역 및 누적조항을 살펴본다. 각 절의 마지막 항은 앞서 분석한 원산지 조항의 협정문 분석의 요약과 시사점으로 정리하였다.

제2절 RECP 체결시 주요 영향 조항 : 직접운송원칙

1. 개요

FTA특혜를 받기 위한 운송원칙(직접운송원칙)은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 특혜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역내 운송업 이용 촉진과 운송과정에서 물품의 원산지가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원산지를 변동시키는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 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림 3-1> 직접운송원칙 적용 개요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2016년 원산지결정기준』, 2016년, p.40.

선행연구에서 직접운송원칙 규정은 조항 여부, 규정형태, 추가 충족요건, 세관통제요건, 경유국 내 허용작업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우선 직접운송원칙을 두고 있는 협정 유형은 '유럽형'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총 12개 협정에서 협정 내에 직접운송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미주형’은 3개 협정이 협정 내에 직접운송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3국에서 가능한 작업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각 협정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의 공통점은 직접운송하거나 이에 준하는 증빙을 통해 원산지자격 부여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규정의 유무, 규정형태, 세관통제요건의 부가, 추가 충족요건의 부가, 제3국내 허용작업의 범위, 경유기간 제한, 경유사실 입증서류 등이다.[45]

본 연구에서는 협정을 그 유사성에 따라 ‘NAFTA 유형’, ‘ASEAN 유형’, ‘EU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NAFTA 유형’은 ‘영역밖에서 다음에 해당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는 문구와 영역 밖에서의 허용 가능한 작업을 서술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세부 조항으로 ①세관당국 통제를 언급하는 유형, ②관세당국 통제 하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내용이 확대되기도 한다.

한편, ‘NAFTA 유형’은 다시 세 가지 부문으로 세분된다(<표 3-2>, <표 3-3>참조). ‘NAFTA②’ 유형은 가장 간단한 형태인 ‘NAFTA①’ 유형의 “환적” 규정에 세관당국 통제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NAFTA 이후 멕시코-칠레 FTA(1999)에서 차용된 이후 이를 경로로 하여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NAFTA+케’ 유형은 ‘NAFTA 유형’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유형으로, 제3국 경유시 비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체결 FTA 중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제3국 경유요건으로 ①거래, 소비금지, ② 허용작업범위, ③경유정당화, ④세관통제 등을 언급하는 구조로 구성된다(<표 3-5> 참조).

45) 진병진 외(2016), 한국형 FTA 원산지규정·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위탁연구과제

<표 3-2> 한-칠레(NAFTA 유형 예)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12: Transhipmen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the good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 undergoes further production or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and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r observa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in the territory of the non-Party.	(직접운송 규정) 제4.12조 환적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

<표 3-3> 직접운송원칙 'NAFTA 유형' 협정

NAFTA①	NAFTA②	NAFTA+케
1. 운송과 관련하여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① 영역 밖에서 허용 범위이외 작업 수행시	1. 운송과 관련하여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① 영역밖에서 허용 범위이외 작업 수행시	1. 비당사국 경유시 다음을 미입증시 비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① 허용작업범위
	② 세관당국 미통제시	② 세관통제 ③ 거래, 소비금지
NAFTA(1994)	**한국—칠레(2004)***, 미국(2012) 일본—호주(2015)	**한**-캐나다(2015)* 한-콜롬비아(2016)*

*서류제출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표 3-4> 한-ASEAN(ASEAN 유형 예)

영 문 본	한 글 본
Rule 9 Direct Consignment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제9조 직접 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영 문 본	한 글 본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 provided that: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b) the good has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c) 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it in good condition.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고려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Rule 19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Rule 9 of Annex 3,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other than that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 a Certificate of Origin;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9 of Annex 3 are being complied with.	<부록1 제19조>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3 제9조의 이행목적상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의 부속서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Rule 7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 after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2.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a) a valid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 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영 문 본	한 글 본
presented;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and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Rule 14 is applied.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표 3-5> 직접운송원칙 'ASEAN 유형' 협정문

ASEAN+멕	ASEAN①	ASEAN②
1. 원산지 지위 유지, 직접운송 상품에 적용됨	1. 특혜대우는(중략) 직접운송상품에 적용됨	1.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가. 타당사국 경유 나. 비당사국 미경유
2.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가. 비당사국 미경유 나. 관세당국 통제하 ① 거래, 소비 금지 ② 허용작업범위 ③ 경유정당화	2.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제3국 경유 가능 요건 ① 거래, 소비 금지 ② 허용작업범위 ③ 경유정당화 ④ 세관통제	다. 비당사국 경유 요건 ①경유정당화 ②거래, 소비금지 ③허용작업범위
ASEAN-일본(2008)* 중국-뉴질랜드(2008)* 한국-페루(2011)*, 중미*	**한-ASEAN(2007)*** · 인도(2010)*·베트남(2015)*·중국(2015)*	**중국-ASEAN(2005)*** ASEAN-인도(2010)*
ASEAN③	**ASEAN+호뉴**	**ASEAN+일**
1. 원산지지위를 유지함 가. 비당사국 미경유	1. 원산지 지위 유지, 직접운송 상품에 적용	1. 직접운송 충족 간주 가. 직접운송된 경우
나.비당사국 경유 ① 거래, 소비금지 ② 허용작업범위 ③ 경유정당화 ④ 세관통제	2. 비당사국 경유시, 다음외에는 원산지지위 박탈 ① 허용작업범위 ② 세관통제	나. 허용작업범위 (타조항) 비당사국 경유시 서류제출
뉴-말레이시아(2010) ASEAN-호주-뉴질랜드(2010)*	한국-호주(2015)* 한국-뉴질랜드(2015)* 중국-호주(2015)*	일본-인도네시아(2008)* 일본-인도(2011)*

*서류제출관련 규정

'ASEAN 유형'의 기원은 멕시코-우루과이 FTA(2004)로 보이며, 이것이 변

형되어, ASEAN+1(중-ASEAN, 한-ASEAN, 일-ASEAN)의 협정에서 주로 차용되었다. ‘ASEAN 유형’은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제3국 경유 요건과 증빙서류에 대한 명시 등 표현 방식에 의해 6개 유형으로 다시 세분된다(<표 3-5> 참조).

마지막으로 ‘EU 유형’은 ‘ASEAN 유형’과 유사하게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도 같은 항에 명시되어 있는 형식이다. ‘EU 유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단일 탁송화물’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엄격한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표 3-7> 참조).

<표 3-6> 한-EU(EU 유형 예)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13: DIRECT TRANSPORT	제13조 직접운송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pplicable in the importing Party, by the production of: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originating products in third countries;	가. 제2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b)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c)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TITLE I GENERAL PROVISIONS (k)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제1조 정의>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표 3-7> 직접운송원칙 'EU 유형' 협정문

EU 유형
1. 특혜대우는(중략) 직접운송상품에 적용됨
단일탁송화물, 비당사국 경유·환적, 일시적 보관 가능 허용작업범위 세관통제 (파이프 운송)
2. 서류제출
한-EFTA(2006)·EU(2011)·터키(2013)

2. 한국의 旣체결 FTA

가. 유형 분류

한국이 체결한 FTA는 'ASEAN 유형' 8개, 'EU 유형' 3개, 'NAFTA 유형' 5개 등으로 구성된다.

<표 3-8> 한국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유형	협정(발효년도)
ASEAN 유형(8)	한-ASEAN(2007), 한-인도(2010), 한-페루(2011), 한-호주(2014), 한-뉴질랜드, 한-중, 한-베트남(2015), 한-중미(미발효)
EU 유형(3)	한-EFTA(2006), 한-EU(2011), 한-터키(2013)
NAFTA 유형(5)	한-칠레(2004), 한-싱가포르(2006), 한-미(2012), 한-캐(2015), 한-콜롬비아(2016)

ASEAN 유형을 다시 세분하면, ‘ASEAN①’ 유형은 4건으로 한-ASEAN,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 FTA 등 주로 아시아권과의 FTA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ASEAN+멕’ 유형은 2건으로 한-페루, 한-중미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정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ASEAN+호뉴’ 유형은 2건으로,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가 여기에 속한다. 즉 ASEAN 유형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중남미권 구가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NAFTA 유형을 세분하면, ‘NAFTA②’ 유형이 2건으로 한-칠레, 한-미 FTA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NAFTA+케’ 유형은 2건으로,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FTA가 여기에 속한다. NAFTA 유형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 EU 유형은 EU, EFTA, 터키 등 모두 유럽권 국가들이다. <표 3-9> ~ <표 3-22>로 협정문 조항별 특징,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나. ASEAN 유형

<표 3-9> 한-ASEAN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Rule 9 Direct Consignment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제9조 직접 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

영 문 본	한 글 본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 provided that: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b) the good has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c) 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it in good condition.	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고려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Rule 19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Rule 9 of Annex 3,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other than that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 a Certificate of Origin;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9 of Annex 3 are being complied with.	<부록1 제19조>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3 제9조의 이행목적상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의 부속서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Rule 7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 after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2.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a) a valid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presented;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 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영 문 본	한 글 본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and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Rule 14 is applied.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 유형 : ASEAN①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1항)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경유 사유,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중남미, 멕시코) 규정하고 있음
 ○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를 타조항(제19조)에 명시함.
▢ 주요내용
 ○ 경유사유 : 지리적, 운송상의 정당화 규정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연결원산지증명서
 ○ 증빙서류(의무조항) : 통과선하증권(수출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가능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유국에서의 세관통제하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세관통제요건으로 해석 가능함
▢ 역내경유
 ○ 중간경유 당사국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요건(정당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중간경유 당사국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할 것, 검증절차 적용 등)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 경유가 지리적, 운송상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즉 BWT의 목적이 지리적, 운송상의 고려에 합치되어야 함. 또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있어 불가능

<표 3-10> 한-인도 CEP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5: DIRECT CONSIGNMENT	제 3.15조 직접운송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2. 제1항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영 문 본	한 글 본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 provided that:	수입 당사국 영역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a)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b)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and	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c) the goods have remained under the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 있어야 한다.
ARTICLE 4.8: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d),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require an importer to demonstrate that the good was shipp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5 (Direct Consignment) by providing with:	3. 제1항 라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bills of lading or waybills indicating the shipping route and all points of shipment and transhipme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and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b)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hipped in a non-Party, a copy of the customs control documents indicating that the good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while in that non-Party.	나.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

▢ 유형 : ASEAN①
▢ 조문의 구성
-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 (1항)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제4.8조)시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을 타조항에 명시. 한-인도 CEPA의 경우 서류증빙에 대해 의무가 아닌 ‘요청할 수 있다’로 한-ASEAN FTA 보다 완화된 형태임

▢ 주요내용
-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 세관통제 명시
- ○ 증빙서류(의무조항은 아님) : 상업서류(선하증권, 화물운송장), 세관통제 서류

영 문 본	한 글 본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BWT 제한	

<표 3-11> 한-베트남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8 : Direct Transport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shall be considered to be transported directly, provided that: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b) the good has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c) 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it in good condition.	(직접운송 규정) 제 3.8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Article 3.23 : Implementation of Direct Transport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Article 3.8,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other than those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 a Certificate of Origin;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8 are complied with.	제3.23조 직접 운송의 이행 제3.8조 이행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 증명서 다.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제3.8조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유형 : ASEAN①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1항)'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경유사유,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중남미, 멕시코)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경유 사유 : 지리적, 운송상의 정당화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증빙서류(의무조항) : 통과선하증권(수출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가능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유국에서의 세관통제하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세관통제요건으로 해석가능함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경유와 환적의 목적이 지리적, 운송상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하며,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표 3-12> 한-중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4: Direct Transport	(직접운송 규정) 제 3.14조 직접운송
1. The originating goods of the Parties claiming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directly transported between the Parties.	1.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2. Good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Non-Parties, shall be considered directly transported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that:	2.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에서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a) the transit entry of goods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가.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b) the goods do not enter into trade or consumption in the non-Party; and	나.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c) the goods do not undergo any other operation in the non-Party other than unload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그리고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

transport reasons,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In the case where the goods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Party as provided in this paragraph, the goods shall remain under control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at Non-Party during its stay. The stay of the goods in that Non-Party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entry. In the case of force majeure, the stay of the goods in that Non-Party may exceed three months but shall not exceed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entry.	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이 항에 규정된 대로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upon import declaration of the goods:	3. 이조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가 상품의 수입 신고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a) in the case of transit or trans-shipment, transport documents such as the airway bill, the bill of lading, or the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covering the whole transporting route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and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b) in the case of storage or devanning of the containers, transport documents such as the airway bill, the bill of lading, or the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covering the whole transporting route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and supporting documents provided by the customs authority of a Non-Party. The importing customs authority may designate other competent agencies in such Non-Party to issue such supporting documents and inform the exporting customs authority of such designation.	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축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 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 유형 : ASEAN①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3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 3항은 2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1항)‘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해 제시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도록 제시함.

- 단, 비당사국의 경유시 환적, 일시적 보관 여부는 상관하지 않음[46]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문구는 주로 중남미, 멕시코 등의 NAFTA 유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경유 사유,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중남미, 멕시코)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3항)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를 명시함

▢ 주요내용

○ 경유사유 : 지리적, 운송상의 정당화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화물의 분리,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세관통제
○ 보관기간(한-중 특징) : 반입일로부터 3개월까지(일반), 최대 6개월 미만
○ 증빙서류(의무조항)

- 통과, 환적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전체운송경로)
- 보관, 컨테이너 적축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전체 운송경로), 세관증빙서류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 경유가 지리적, 운송상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즉 BWT의 목적이 지리적, 운송상의 고려에 합치되어야 함.

<표 3-13> 한-페루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4: DIRECT TRANSPORT	(직접운송 규정) 제 3.14조 직접운송
1. In order for originating goods to maintain their originating status, the goods shall b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1.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a) goods that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and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b) good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non-Parties, under control	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46) 한-페루, 중국-호주, 중국-뉴질랜드, ASEAN-중국, ASEAN-인도, 이스라엘-멕시코,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볼리비아, 멕시코-니카라과, 멕시코-우루과이, 멕시코-페루, 메르코수루-인도, 메르코수루-이집트 등

of the customs authority, provided that the goods do not:	운송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i) enter into trade or commerce there; and	1)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ii) undergo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repack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2)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Compliance with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monstrated by presenting the following documentation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된다.
(a) in the case of transit or trans-shipment,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such as the airway bill, the bill of lading, or the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ation document, that certify the transport from the country of origin to the importing country, as the case may be; and	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 그리고
(b) in the case of storage,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such as the airway bill, the bill of lading, or the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ation document, that certify the transport from the country of origin to the importing country, as the case may be, as well as the documents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y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that authorized this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non-Party.	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 유형 : ASEAN+멕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1항)‘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한-페루 FTA의 경우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는 주로 멕시코 등 중미, 중남미권 국가 FTA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임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이는 직접운송을 의미함
-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 (중남미, 멕시코)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3항)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 명시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

○ 경유시 거래, 교역 금지
○ 증빙서류(의무조항) : 한-중 FTA와 유사함
- 경유, 환적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전체운송경로)
- 보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전체 운송경로), 세관증빙서류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에서 거래 또는 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BWT 제한

<표 3-14> 한-중미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4 DIRECT TRANSPORT	제3.14조 직접운송
1. A good shall be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to maintain its originating status.	1.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good shall be considered to be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if the good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Parties or non-Part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there, provided that: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a) the good is under control of the customs authority; and	가.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b) the good does not undergo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repack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3.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2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by the production of:	3.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제출하여 제공된다.
(a)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b) a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country of transit to the importing Party and certification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containing the following:	나.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i)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1) 제품의 정확한 설명
(ii)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and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영 문 본	한 글 본
(iii)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transit country;or (c) failing these, any substantiating document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to be agreed by the Parties at the Committee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and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established in Chapter 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또는 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그리고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 관세당국 증명자료

▢ 유형 : ASEAN+멕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3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2개, 3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1항)‘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한-중미 FTA의 경우 한-페루 FTA와 유사하게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는 주로 멕시코 등 중미, 중남미권 국가 FTA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임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멕시코-칠레, 멕시코-Northern Triangle FTA 등, 멕시코-중미 등) 규정하고 있음

○ (3항)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 명시(단일운송서류)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

○ 증빙서류(의무조항) : 한-중 FTA와 유사함

- 경유, 통과 : 단일운송서류(전체운송경로)
- 관세당국 증명자료(한-EU FTA와 동일한 내요으로 구성됨)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단일운송서류에 의해 운송요건이 인정되므로, BWT는 불가능함

<표 3-15> 한-호주(뉴질랜드)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4(3.16): DIRECT TRANSPORT 1. An originating good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3.2), provided that it is directly trans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without passing through	제 3.14(3.16)조 직접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1(3.2)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the territory of a non-Party. 2. 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shall not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if it: (a) has undergone any subsequent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toring, repacking, relabell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ustoms control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한-뉴질랜드) Article 3.26 : Direct Transport - Compliance Compliance with the direct transport provisions set out in Article 3.16 may be evidenced by providing any proper docu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levant commercial shipping or freight documents.	(한-뉴질랜드) 제3.26조 직접 운송 - 준수 제3.16조에서 규정된 직접운송 규정의 준수는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관련된 상업 선적 또는 화물 운송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유형 : ASEAN + 호-뉴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2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1항과 2항의 내용은 멕시코-파나마의 1항과 유사성이 있음

○ (1항)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는 해당 문구를 포함하지 않음.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해당 문구는 주로 멕시코 등 중미권 협정의 직접운송 원칙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상문구임. 직접운송원칙을 원산지 지위 유지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은 호-뉴-ASEAN, 뉴-말, 이스라엘-캐나다 등

○ (2항)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

-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

○ (타조항/뉴질랜드만 규정) 직접 운송 - 준수와 관련하여 서류 입증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호주)하역, 재선적, 보관(storing),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 화물 분리,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뉴질랜드) 하역, 일시적 보관(temporary storage),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상품의 보존필요공정

○ 세관통제

○ 서류입증(뉴질랜드) : 상업 선적 또는 화물 운송 서류외 기타입증서류

○ BWT 가능 여부 : 가능 - 제3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협정에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대다수의 BWT가 허용되는 ASEAN 유형의 협정은 영역 밖에서의 작업을 규정하는 NAFTA와 다르게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국은 경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다만, 운송의 시작점을 수출당사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WT 인정 여부의 해석 판단이 어려우나, 한-호주(뉴질랜드)의 경우 보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됨

주 : ( )괄호 안은 한-뉴질랜드

다. EU 유형

<표 3-16> 한-EFTA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14 Direct Transport	(직접운송 규정) 부속서 I 제14조 직접 운송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Korea and an EFTA State.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The importer shall upon request supply the appropriate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 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paragraph 1, originating products may be transported by pipeline across territories other than that of Korea or an EFTA State.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이외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Article 1 Definitions	<협정문 제1조 정의>
(c)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제히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 유형 : EU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3개로 구성, 모두 하위조항 없음.
○ (1항) 'EU 유형은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1항에 명시됨. 아울러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도 같은 항에 명시되어 있음.
- 한편 직접운송원칙이 한국과 EFTA회원국 간에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경유가능 요건은 비당사국으로 범주하고 있어 EFTA 역내 경유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항) 서류증빙 의무
○ (3항) 파이프라인 운송 가능 명시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
○ 증빙서류
○ 탁송품의 정의 명시 :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제히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 역내경유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비당사국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BWT 가능 여부 : BWT 가능 여부 : 가능
- 제3국 허용작업 범위에 탁송풍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3국 거래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

<표 3-17> 한-EU(터키)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13: DIRECT TRANSPORT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제13조 직접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pplicable in the importing Party, by the production of: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originating products in third countries;	가. 제2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b)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c)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the country of transit.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TITLE I GENERAL PROVISIONS (k)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제1조 정의>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유형 : EU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 하위조항으로 구성
- (1항) 'EU 유형은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일 탁송화물일 것을 명시. 아울러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작업인정범위도 같은 항에 명시되어 있음.
- (2항) 서류증빙 의무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는 실질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2항의 증빙자료로부터 실질적인 세관통제 요건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증빙서류 : 환적, 보관 증거,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증명자료
- 탁송품의 정의 명시 :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

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탁송품의 정의에 의거하여 운송요건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운송서류 충족요건 의해 BWT는 불가능함

라. NAFTA 유형

<표 3-18> 한-칠레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12: Transhipmen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the good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 undergoes further production or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and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r observa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in the territory of the non-Party.	(직접운송 규정) 제4.12조 환적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
"Article VI-11. For purposes of Chapter 4 and Chapter 5 of the Agreement, when a good of a Party is transported through a third country, (a) in case the bill of lading for final destination is issued in a third country, the claim 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good shall be supported by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invoices, bills of lading or waybills that indicate the shipping route and all points of shipment and trans-shipme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into the importing Party's territory; and (b) a time limit of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for a good of the exporting Party that is in transit or	<통일규칙 제6-1조 환적> 1. 협정 제4장 및 제5장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의 상품이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 가. 최종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그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및 모든 선적, 환적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나.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 된 수출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수입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기간 제한은 두지 아니

trans-shipment in a third country shall not benecessary.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good of a Party transported through athird country must meet the provisions of Chapter 4 and Chapter 5 of the Agreement.”	한다.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되는 당사국 상품은 협정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형 : NAFTA②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NAFTA의 변형

○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공통적으로 NAFTA 유형에서 통용되는 문구 확인됨

○ 영역밖에서 작업허용범위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NAFTA), 세관통제 요건이 불충족 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전자는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영역 밖에서의 하역, 선적,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상품의 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등.

- NAFTA·한-미 FTA에 비해 작업허용범위(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가 추가됨

○ 세관통제 요건

○ BWT 가능 여부 : 가능

- 한-칠레 FTA의 경우 제4.12조 환적 규정만 적용한다면, 제3국에서 세관통제하에 협정에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함.
- 단, 2007년 10월 개정된 통일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 “최종목적지가 기재된”선하증권에 수입당사국 영역 전까지의 모든 운송경로가 표시된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이 “수출당사국”이라는 부문이 명시되지 않은 바, BWT 거래의 인정여부를 불명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제3국 보세구역 거래의 경우*]

*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 외에 B/L, 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상 적출국이 제3국인 경우

- 제3국 물류기지(보세구역)에서 비당사국과 당사국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위 BWT(Bonded Warehouse Trade)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 규정에 의한 직접운송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

<한·칠레 FTA>

- 한·칠레 간 직접운송 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①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보세구역)하에 있고, ②수송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외의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운송 규정 충족
- 동 규정에 의해서는 BWT 거래의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바,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운송규정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직접운송요건만을 충족했다는 의미이며, 제3국 발행 송장이나 수출자 요건 등은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

- 따라서, 제3국에서 세관통제하에 있고, 물품 수송 등을 위한 작업외의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BWT 거래도 인정가능하나, 칠레에서 제3국으로의 운송서류, 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되어야 함

<표 3-19> 한-미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6.13: TRANSIT AND TRANSSHIP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good: (a) undergoes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직접운송 규정) 제 6.13조 통과,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유형 : NAFTA②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NAFTA에 변형된 형식임
○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은 공통적으로 NAFTA 유형에서 통용되는 문구 확인됨
○ 영역밖에서 작업허용범위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NAFTA), 세관통제 요건이 불충족 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전자는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
▢ 주요내용
○ 영역 밖에서의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등 작업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NAFTA)
○ 세관통제요건 명시
○ BWT 가능 여부 : 가능
- 한-미 FTA의 경우 제3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협정에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함

<표 3-20> 한-싱가포르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15 : DIRECT CONSIGNMEN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직접운송 규정) 제4.15조 직접운송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the good is not transported directl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b)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shipped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that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e importer has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paragraph (c) of Article 5.9.	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상품이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5.9조다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ARTICLE 5.9 :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제5.9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c) if,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shipped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that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e importer of the good does not provide, on the request of that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다. 상품이 이 협정상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선적되거나 그 영역에서 환적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다음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i) a copy of the customs control documents that indic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importing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while in the territory of such non-Parties;	1)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ii) any other information given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such non-Parties or other relevant entities, which evidences that they have not undergone, in such non-Parties,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or	2)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iii) any other information or commercial documents given by the importer which evidence that they have not undergone, in such non-Parties,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or	3)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

▢ 유형 : NAFTA(기타)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1항은 NAFTA와 유사함. 다만, 비당사국 영역의 운송, 환적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부문을 제5.9조 다호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협정과 구분되는 특징

○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공통적으로 NAFTA 유형에서 통용되는 문구가 확인됨.

○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에 관한 것을 규정한 제5.9조 다호는 운송, 환적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부문(입증서류)을 3개 부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입증자료 : 세관통제, 비조작증명서(작업허용범위 명시, 관세당국, 상업서류)

○ BWT 가능 여부 : 가능

- 한-칠레 FTA의 경우 제4.12조 환적 규정만 적용한다면, 제3국에서 세관통제하에 협정에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함.
- 단, 2007년 10월 개정된 통일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 “최종목적지가 기재된”선하증권에 수입당사국 영역 전까지의 모든 운송경로가 표시된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이 “수출당사국”이라는 부문이 명시되지 않은 바, BWT 거래의 인정여부를 불명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동 지침에 따르면 한-싱가포르는 한-칠레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표 3-21> 한-캐나다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6: Transit and Transhipment 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is non-originating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good:	제 3.16조 통과 및 환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a) undergoes no further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non-party, other than unload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b) remains under the customs control while outside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c) does not enter into trade or consump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non-party.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것

▢ 유형 : NAFTA+케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1항은 NAFTA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NAFTA 유형에 속하는 중남미 국가들(멕시코와의 FTA 등)의 직접운송원칙 2항을 변형시킨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공통적으로 NAFTA 유형에서 통용되는 문구가 확인되지 않으나, ‘원산지상품이 비원산지상품이다(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is non-originating)’는 의미상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NAFTA 유형으로 분류

○ (1항)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해 작업허용 범위, 세관통제, 거래·소비 금지 등 세 가지 요

건이 충족될 경우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도록 제시함. 경유시 입증의 의무가 있음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요건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BWT 불가능

<표 3-22> 한-콜롬비아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5: DIRECT TRANSPORT	③ (직접운송 규정) 제 3.15조 직접운송
1. 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non-originating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good:	1.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이 증명될 수 없는 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a) undergoes no further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non-Party, other than unload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 이유로 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b) remains under the customs control while outside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c) does not enter into trade or consump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non-Party.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다는 것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upon request,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pplicable in the importing Party, by producing: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he trans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goods in the territory of the non-Party; or	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
(b) a document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y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non-Party that indicates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나.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적시하는 서류

▢ 유형 : NAFTA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항은 3개의 하위조항, 2항은 2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1항은 NAFTA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NAFTA 유형에 속하는 중남미 국가들(멕시코와의 FTA 등)의 직접운송원칙 2항을 변형시킨 것으로 판단됨.
 ○ (1항) 한-캐나다 FTA와 동일
 ○ (2항) 1항의 증빙요건 명시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요건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입증자료 :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증거, 1항의 충족을 적시하는 서류(비당사국의 관세당국,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BWT 불가능

마. 한국이 旣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공통점으로는 직접운송 되거나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을 위한 최소 공정 등 원산지를 변동시키는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 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운송의 협정문내 규정형태,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 세관통제요건의 부가 여부, 추가 충족요건, 경유사실 입증서류 등에 협정별 차이가 존재한다. 협정문내 규정 형태는 한-칠레, 한-미, 한-캐나다 FTA의 경우 직접운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환적이나 통과 및 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12개 협정에서 직접운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 세관통제요건의 부가 여부, 추가 충족요건, 경유사실 입증서류 등의 협정별 차이점은 <표 3-25>로 정리하였다. 또한 세부 사항과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정리한다.

첫째, 세관 통제와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형별 특징 분류는 다음과 같다.

'NAFTA 유형'의 경우 모든 협정에 대해 세관통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SEAN 유형'의 경우 세관통제와 증빙서류 제출을 협정별로 다르게 선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통제와 증빙서류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한-

중, 한-페루, 한-중미 등 세 개 협정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증빙서류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세관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은 사실상 세관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EU 유형'의 경우, 대체로 세관통제는 규정하지 않고, 증빙서류 제출로 규정하고 있다.

<표 3-23>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제3국 경유시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구분

	NAFTA 유형	ASEAN 유형	'EU 유형
총협정수	5	8	3
세관통제	한-미, 한-칠레, 한-싱,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인도, 한-중국, 한-페루, 한-호주, 한-뉴 한-중미	한-EFTA
증빙서류 제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캐나다	한-ASEAN, 한-중, 한-페루,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EU, 한-EFTA, 한-터키
세관통제& 증빙서류	한-싱	한-중, 한-페, 한-중미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없는 협정			

둘째, BWT 가능여부와 협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BWT 거래는 경유시 '불인정행위(거래, 소비, 사용, 고용 등 금지)'를 규정한 협정과, EU의 단일탁송화물 규정이 있을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 때, 경유시 불인정 행위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경유를 하지 않을 것을 협정에서 명시,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SEAN 유형'의 경우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등 8개 협정 중 2개 협정만 BWT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NAFTA 유형'의 경우 5개 협정에서 모두 BWT를 허용하고 있었다. 'EU 유형'의 경우 한-EFTA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탁송품의 분리를 규정한 것에 의한다.

셋째, 입증, 서류제출 관련하여 협정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서류제출의 경우, 'ASEAN 유형'은 한-ASEAN, 한-중, 한-페루, 한-중미,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등 7개 조항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의무조항이 아닌 “수입관세당국이 수입자에게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문구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미 직접운송원칙에 “경유국세관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신고서상 운송과 관련된 조항은 적출국[47], 적출항[48], 출항일[49], 환적국[50], 환적항[51], 환적일[52], 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53]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인 입증서류에 대해 동반제출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관세당국에서 직접운송관련 위반혐의가 포착되어 해당 수입자에가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서류 제출 의무여부 규정은 실질적인 이행 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

‘NAFTA 유형’의 경우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서류제출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EU 유형의 경우 모든 협정에서 서류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서류리스트는 한-ASEAN, 베트남, 인도, 중국, 페루, 뉴질랜드, 중미, EU, 터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FTA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서류 리스트는 <표 3-24>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유지에서의 작업인정범위는 공통적으로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을 모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 특이사항으로는 재포장에 대해 한-페루, 한-중미, 한-호주,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 상자포장・포장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 규정하고 있었

47)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의 국가부호 기재
48) 선하증권(B/L)상의 선적항 기재
49) 선하증권(B/L)상의 B/L 발행일 기재
50)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로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51)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로 확인된 환적국항 기재
52)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로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53) 한-ASEAN FTA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최초로 ㅂ라급한 국가의 국가부호 기재. 예를 들어, 베트남의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애하는 경유 : ‘VN’

으며, 물품의 분리에 대해서는 한-중, 한-호주, 한-EFTA,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FTA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한-호주 FTA의 경우 유일하게 재라벨링을 허용하였다.

<표 3-24> 한국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목록

협 정	주요 내용
한-ASEAN 한-베트남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원산지증명서 원본 ③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기타 증빙서류
한-인도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모든 경로) ②세관통제서류
한-중 한-페루	①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모든 경로) ②세관증빙서류
한-뉴질랜드	①상업선적 또는 화물운송서류 ②기타 입증서류
한-중미	①단일운송서류(수출국-경유국-수입당사국) ②경유국 관세당국 발생 증명서(상세내역1~3) ③기타 증빙 서류
한-EU 한-터키	①환적 또는 보관 관련 증명서(경유국) ②단일운송서류(수출국-경유국-수입당사국) ③관세당국의 증명서(상세내역1~3)
한-칠레	①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
한-싱가포르	①세관통제서류 ②비조작증명서(세관) ③비조작증명서(수입자)
한-콜롬비아	①환적 보관관련 증명서 ②기타세관 증명자료

<표 3-25> 한국이 旣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유형	BWT	직접운송	비당사국비경유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탁송화물	경유 사유				경유국 불인정행위					작업인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불인정행위	경유사유	보관기간	서류제출	서류리스트		지리	운송	경제	물류	거래	소비	교역	사용	고용	(공 하역, 재선 존 및 운송
한국	ASEAN	AS	X	○			○	○	○		○	○		○	○			○	○				
	인도	AS	X	○	○	○	○				○*	○						○	○				
	중국	AS	X	○	○	○	○	○	○	○	○	○		○	○			○	○				운송상의 이 화물의 분 관 기간
	베트남	AS	X	○		○	○	○			○	○		○	○			○	○				
	페루	AS	X	○	○	○	○				○	○						○		○			재포장
	중미	AS	△	○	○	○					○	○	△										재포장
	호주	AS	○	○	○	○																	재포장, 재 송상의 이 분리, 보관
	뉴질랜드	AS	○	○	○	○					○	○											일시적 보 의 이유로
	EFTA	EU	○	○	○	○					○		○										탁송품 분 라인 운송
	EU	EU	X	○	○	○					○	○	S-○										
	터키	EU	X	○	○	○					○	○	S-○										
	칠레	NA	○		○	○					○	○											상자포장, 포
	미국	NA	○		○	○																	
	싱가포르	NA	○	○	○	○					○	○											상자포장, 포
	캐나다	NA	X		○	○	○				○							○	○				운송상의 이 분리
	콜롬비아	NA	X		○	○	○				○*	○						○	○				운송상의 이 분리

주 : 1. 탁송화물의 S-O는 단일(Single) 탁송화물, △는 단일 운송서류(a single transport document)
2. 서류제출의 ○*는 서류제출을 요청시 응하는 경우를 의미

3. ASEAN+1 FTA

가. 유형 분류

ASEAN이 RCEP 회원국과 체결한 FTA는 모두 ‘ASEAN 유형’이었다.

<표 3-26> ASEAN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유형	협정(발효년도)
ASEAN 유형(5)	한-ASEAN(2007), 중국-ASEAN(2008), 인도-ASEAN(2010) ASEAN-호-뉴(2010) 일본-ASEAN(2008)

‘ASEAN 유형’을 다시 세분하면, ‘ASEAN①’ 유형은 한-ASEAN FTA 1건, ‘ASEAN②’ 유형은 중국-ASEAN FTA, 인도-ASEAN CEPA 등 2건, ‘ASEAN+멕’ 유형은 일본-ASEAN EPA 1건, ‘ASEAN③’은 호-뉴-ASEAN FTA 1건으로 나타났다. <표 3-27> ~ <표 3-29>로 협정문 조항별 특징,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나. ASEAN 유형

<표 3-27> 중(인도)-ASEAN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RULE 8 Direct Consignment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other ACFTA member states; (b)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non-ACFTA member states; (c) The product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제8조 직접운송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품이 다른 ACFTA(중-ASEAN FTA)[AIFTA(ASEAN-인도 CEPA)] 회원국 영토를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나. 제품이 비 ACFTA(중-ASEAN FTA)[AIFTA(ASEAN-인도 CEPA)]회원국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운송되는 경우; 다. 환적 또는 비당사국에서 임시 보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의 비 ACFTA(중

non-ACFTA member stat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countries, provided that: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ii) the product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iii) the product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ASEAN FTA)[AIFTA(ASEAN-인도 CEPA)]회원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다음에 한한다. (1).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3).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RULE 19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Rule 8(c) of the China-ASEAN Rules of Origin,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non-ACFTA member states,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State: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exporting Member State; (b)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Member State;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product; and (d) Supporting documents in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8(c) sub-paragraphs (i),(ii) and (iii) of the China-ASEAN Rules of Origin are being complied with.	제19조 중국-ASEAN[AIFTA]원산지규정에 관한 Rule 8(c)조의 이행목적상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의 Rule 8(c)의 세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
APPENDIX D Article 11 (a) Notwithstanding paragraph (b) of Article 7, Articles 13 and 14(b),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of that Party while the product is passing through that Party's territory, provided that: (i) a valid AIFTA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original exporting Party is presented only to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ii)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부록 D 제11조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 (b)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한하여 연결 AI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 당사자로부터 발급된 유효한 AIFTA 원산지 증명서가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행 기관에만 제출되어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AIFTA 원산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와 중간 경유국의 수입자가 동일하다;
(iii) validity of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have the same end-date as the original AIFTA Certificate of Origin;	(3) 연결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원래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종료 날짜와 동일하다;
(iv) the originating products re-exported could either be full or part of the original consignment;	(4) 재수출되는 원래 제품은 원래 탁송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될 수 있다.
(v) the consignment which is to be re-exported using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must not undergo any further processing in the intermediate Party, except for repacking and logistics activities consistent with Rule 8 of the ROO;	(5)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재수출되는 탁송품은 재포장이나 Rule 8에 상응하는 물류활동 이외에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공정을 하지 않는다;
(vi) the product shall remain in the intermediate Party's customs territory, including its free trade zones and bonded areas approved by the customs. The product shall not enter into trade or consumption in the intermediate Party;	(6) 이 제품은 자유 무역 지역을 포함한 중간 경유 당사국의 관세영역과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보세구역에서 유효하다.
(vii) information on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ncludes the name of the Party which issued the original AIFTA Certificate of Origin, date of issuance and reference number; and	(7) 연결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정보는 원본 원산지 증명서 발행 당사 이름 및 발행일과 참조 번호를 포함한다; 그리고
(viii)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Articles 16 and 17 are applied.	(8) Articles 17 및 Articles 18에 규정된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b) the original exporting Party,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cooperate in the process of verification. The copy of the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original exporting Party shall be given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if it requests for the same during the process of verification.	(b) 수출 당사국, 중간 경유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에서 협력한다. 검증 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AIFTA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은 수입 당사국의 세관 당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c) Up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and revise it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c)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은 이 조항 및 그 실행의 조항을 검토하고, 상호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유형 : ASEAN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 조항 3개 하위조항으로 구성

○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ASEAN은 특혜관세대우 문구는 없고, 직접운송 간주되는 부문만 명시함에서 차이점 존재
○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수출국 이외 다른 당사국의 영역을 거쳐 운송된 제품(다른 당사국에 물품 존재)
- 비당사국 영역을 거치지 않고 운송된 제품(수출국-수입국 직접 운송)
- 경유 사유,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중남미, 멕시코)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를 타조항(제19조)에 명시함

▢ 주요내용
○ 경유사유 : 지리적, 운송상의 정당화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경유시 거래, 소비 금지
○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인도-ASEAN에만 규정됨)
○ 증빙서류(의무조항) : 통과선하증권(수출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가능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유국에서의 세관통제하에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세관통제요건으로 해석 가능함

▢ 역내경유
○ 중간경유 당사국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요건(정당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중간경유 당사국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할 것, 검증절차 적용 등)
- 재수출시 분리가능 명시, 단 추가공정이 없을 경우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BWT의 목적이 지리적, 운송상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있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주 : [ ]안은 인도-ASEAN CEPA

<표 3-28> 호주-뉴질랜드-ASEAN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14 Direct Consignment A good wi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under Article 2 (Originating Goods) if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met:	제14조 직접운송 상품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Article 2 (원산지 상품)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a) the good has been trans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without passing through any non-Party; or	가. 비당사국 영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상품
(b) the good has transited through a non-Party, provided that:	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다만:
(i) the good has not undergone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toring, or any other	(1)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당사국들의 영역 밖에서

operations necessary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m to the importing Party; (ii) the good has not entered the commerce of a non-Party; and (ii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economic or logistical reasons.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지 않는 경우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상거래 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3) 그 경유가 지리적, 경제적, 물류상 이유로 정당화될 것
RULE 2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rticle 14 (Direct Consignment)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non-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vid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i)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exporting Party; (ii)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relevant Issuing Authorities/Body of the exporting Party, unless not required pursuant to Rule 12.2 or Rule 14; (iii)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product; and (ⅳ) Supporting documents in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4 (Direct Consignment)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have been being complied with.	제21조 원산지규정에 관한 Chapter 3(원산지 규정)의 Article 14조(직접운송)의 이행목적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4) 그 밖의 Rule 8(c)의 세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
CHAPTER 3 Article 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means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n intermediate exporting Party's Issuing Authority/Body based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first exporting Party;	제3장 제1조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RULE 10 3. An Issuing Authority/Body of an intermediate Party shall issue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that intermediate Party, provided that: (i) a valid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or its certified true copy is presented; (ii)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does not exceed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original	제10조 3.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Certificate of Origin; (iii) the consignment which is to be re-exported using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does not undergo any further processing in the intermediate Party, except for repacking or logistics activities such as unloading, reloading, storing, or any other operations necessary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m to the importing Party;	(3)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재수출되는 위탁물은 재포장이나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을 제외하고 경유국에서 추가 공정을 하지 않는다;
(iv)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contains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data requirements in this Annex's Appendix 2 (Minimum Data Requirements – Certificate of Origin). The FOB value shall be the FOB value of the goods exported from the intermediate Party; and	(4)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부록 2(최소 데이터 요구 사항 - 원산지 증명서)의 최소 데이터 요구 사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FOB 값은 중간 당사자로부터 수출 된 물품의 FOB 값이다; 그리고
(v) the verification procedures in Rule 17 and Rule 18 shall also apply to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5) Rule 17 및 Rule 18의 확인 절차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도 적용된다.

▢ 유형 : ASEAN③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 조항 3개 하위조항으로 구성

○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호-뉴-ASEAN은 해당 문구를 포함하지 않음.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직접운송원칙을 원산지 지위 유지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은 뉴질랜드-말레이시아, 이스라엘-캐나다 등

○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비당사국 영역을 거치지 않고 운송된 제품(수출국-수입국 직접 운송)
- 경유 사유,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중남미, 멕시코)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를 타조항(제21조)에 명시함

▢ 주요내용

○ 지리적, 경제적, 운송상의 정당화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저장,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경유시 상거래 금지

○ 연결원산지증명서

○ 증빙서류(의무조항) : 통과선하증권(수출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가능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유국에서의 세관통제하에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세관통제요건으로 해석가능함

▢ 역내경유, 연결원산지증명서
○ 중간경유 당사국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요건(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 재수출 가능, 단 작업허용범위 명시(재포장, 하역, 재선적, 보관, 상품 보존의 필요공정) 이외 추가공정이 없을 경우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BWT의 목적이 지리적, 경제적, 물류상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표 3-29> 일-ASEAN EP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 Direct Consignment	제 31조 직접운송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ccorded to an originating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i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다.
2.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2.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a) a good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or	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 되거나; 또는
(b) a good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Parties, other than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or through a non-Party, provided that the good does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transit or temporary storage in warehouses, unloading, reloading, and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나.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한 물품, 다만, 그 상품이 경유, 또는 창고에서의 임시 보관,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
ANNEX 4 Rule 3	부속서 4 제3조
4. (a) Notwithstanding paragraph 5 of Rule 2, where an originating good, for which a CO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s “original CO”) was issued by th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y or its designees of the exporting Party, is to be exported from the importing Party to another Party, th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y or its designees of the importing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O as a new CO for the originating good, if a request is made by	4. 가. RULE2 제5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정부 기관 또는 수출 당사국의 피지정인이 발행 한 상품 (이하 "원산지 증명서 원본 (CO)"라 칭함)이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상대 당사국으로 수출 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정부 기관 또는 그 피지권자는 수입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한 새로운 일괄 운송 수단으로서 연결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할 수 있음.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유효한 원본 원산지 증명서를 를 제시해야 한다.

the exporter in the importing Party or its authorised agent with presentation of the valid original CO. (b) Where a back-to-back CO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an originating good of the exporting Party" referred to in Chapter 3 and this Annex shall be construed as an originating good of the Party whos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y or its designees has issued the original CO.	나. (a)호에 따라 연결원산지증명서 가 발행된 경우, 이 부속서와 제3장에 언급된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관할권이 있는 정부 기관 또는 기관장이 원산지 CO를 발행한 그 당사국의 원산 상품으로 해석된다.

▢ 유형 : ASEAN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 (1항)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가 직접운송(consign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2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멕시코-페루 FTA와 유사, 변형됨, 경유국 내 소비 등은 동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음)
- 수출-수입 당사국 간 운송된 상품
- 작업인정범위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연결원산지증명서 조항은 별도로 ANNEX 4 규정
○ BWT 가능 여부 :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함

다.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공통점으로는 ASEAN이 체결하고 있는 협정문에는 영역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경유국의 세관통제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ASEAN FTA를 제외하고 직접운송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ASEAN이 旣체결한 모든 협정에서 직접운송 되거나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을 위한 최소 공정 등 원산지를 변동시키는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 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한국이 旣체결한 FTA 협정들과 유사하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ASEAN+1 협정에서 중간경유국의 세관은 원래 수출자

의 요청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서(Bact-to-back Certificate of Origin)을 발급할 수 있으며,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 추가 충족요건 등에 협정별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협정별 차이점은 <표 3-32>로 정리하였다.

첫째, 세관 통제와 증빙서류 제출 유형별 특징 분류는 다음과 같다.

ASEAN+1 협정은 모두 'ASEAN 유형'으로, 의 증빙서류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다. 증빙서류는 대부분 세관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은 사실상 세관통제를 의미한다. 다만, 일본-ASEAN EPA의 경우 세관통제와, 증빙서류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다른 협정과 차이다. 아울러 세관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연결원산지증명서(경유국 세관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세관통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30> ASEAN이 체결한 FTA의 제3국 경유시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구분

	NAFTA 유형	ASEAN 유형	EU 유형
총협정수	-	5	-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한-ASEAN , 중-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세관통제 & 증빙서류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없는 협정		일본-ASEAN	

둘째, BWT 가능여부의 협정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BWT 가능 협정은 일본-ASEAN EPA가 유일하다. 해당 협정은 제3국 경유시 불인정행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WT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입증, 서류제출과 리스트와 관련하여 협정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일본-ASEAN EPA을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류리스트 역시 모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ASEAN EPA의 경우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타조항에 연결원산지 증명서 발행 가능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31> ASEAN이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목록

협정	주요 내용
중-ASEAN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원산지증명서 원본 ③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기타 증빙서류
한-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①~④ 상동 ⑤연결원산지증명서
일본-ASEAN	①연결원산지증명서

마지막으로 경유지에서의 작업인정범위는 공통적으로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을 모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 특이사항으로 일본-ASEAN EPA, 호-뉴-ASEAN FTA에서 보관과 관련된 것을 명기하고 있었다.

<표 3-32>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유형	BWT	직접운송	비당사국비경유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탁송화물	경유 사유				경유국 불인정행위					작업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불인정행위	경유사유	보관기간	서류제출	서류리스트		지리	운송	경제	물류	거래	소비	교역	사용	고용	하역, 저장 및 운
ASEAN	한국	ASEAN	X	○			○	○	○		○	○		○	○			○	○				
	일본	ASEAN	○	○			○				○*	○											일시적
	호-뉴	ASEAN	X	○			○	○	○		○	○		○		○	○	○					보관
	중국	ASEAN	X	○			○	○	○		○	○		○	○			○	○				
	인도	ASEAN	X	○			○	○	○		○	○		○	○			○	○				

주 : 서류제출의 ○*는 서류제출을 요청시 응하는 경우를 의미

4. RCEP 상호간 旣체결 FTA

가. 유형 분류

RCEP 회원국간 체결한 양자 FTA는 ‘ASEAN 유형’ 5개, ‘NAFTA 유형’ 1개, 기타 2개 등으로 구성된다.

<표 3-33> RECP 회원국 양자간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유형 구분

유형	협정(발효년도)
ASEAN 유형(5)	중국-뉴질랜드(2008), 뉴-말레이(2010), 중국-호주(2015) 일본-인도네시아(2008), 일본-인도(2011)
EU 유형	-
NAFTA 유형(1)	일본-호주(2015)

‘ASEAN 유형’을 다시 세분하면, ‘ASEAN+멕’ 유형은 중국-뉴질랜드 FTA 1건, ‘ASEAN③’ 유형은 뉴질랜드-말레이시아 1건, ‘ASEAN+호뉴’ 유형은 중국-호주 FTA 1건, ‘ASEAN+일’ 유형은 일본-인도네시아, 일본-인도 CEPA 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NAFTA유형’은 총 1건으로 ‘NAFTA②’ 유형이며, 일본-호주 FTA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하 <표 3-34> ~ <표 3-38>로 협정문 조항별 특징,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나. ASEAN 유형

<표 3-34> 중국-뉴질랜드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18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to goods th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제18조 특혜관세대우 이 협정하 특혜관세대우는 이장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양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Article 25 Direct Consignment 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8, the following	제25조 직접운송 1. Article 18의 목적상, 다음은 수출 당사국에

영 문 본	한 글 본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a) goods that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b) good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of up to 6 months in such non-Parties, provided that: (i) the goods do not enter into trade or commerce there; and (ii) the goods do not undergo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repack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2.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paragraph 1(b) shall be evidenced by presenting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either with customs documents of the non-Parties or with any other documents.	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상품은 운송시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않아야함 나.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시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1)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상거래 되지 아니한 것 (2)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1항 나목의 조항의 준수는 비당사국 세관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시하여 입증함

▢ 유형 : ASEAN+멕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관련 조항은 2개조로 분리 구성. 특혜관세대우(18조)와 직접운송(제25조) 등. 제18조는 1개항, 제25조는 2개항으로 구성
 ○ (18조)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가 직접운송(consign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을 타조항에 분리해 수록한 것이 특징
 ○ (25조)(1항)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한-페루 FTA와 동일함
  -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 규정
 ○ (25조 2항)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 명시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경유시 거래, 상거래 금지
 ○ 증빙서류(의무조항) : 구체적 서류명시 없음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제3국에서 거래, 교역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 판단됨

<표 3-35> 말레이시아-뉴질랜드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 good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 된 경우 Article

영 문 본	한 글 본
determined under Article 3.2 (Origin Criteria) if either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met:	3.2(원산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함
(a) the good has been trans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without passing through any non-Party; or	가. 상품이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 또는
(b) the good has transited through a non-Party, provided that:	나.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다음에 한함
(i) the good has not entered the commerce of a non-Party;	(1)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상거래되지 아니하였을 것
(ii) the good has not undergone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toring, or any other operations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it to the other Party; and	(2)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저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ii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economic or logistical reasons.	(3). 그 경유가 지리적, 경제적, 물류 등의 이유로 정당화될 것

▢ 유형 : ASEAN③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 조항 3개 하위조항으로 구성
○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말-뉴 FTA는 해당 문구를 포함하지 않음.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직접운송원칙을 원산지 지위 유지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은 호-뉴-ASEAN, 이스라엘-캐나다 등
○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함
- 비당사국 영역을 거치지 않고 운송된 제품(수출국-수입국 직접 운송)
- 경유 사유, 경유국 소비, 작업인정범위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NAFTA 유형에 속하는 협정에서도(중남미, 멕시코)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 의무를 타조항(제21조)에 명시함(확인요)
▢ 주요내용
○ 지리적, 경제적, 물류상의 정당화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저장,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경유시 상거래 금지
○ 증빙서류 : 통과선하증권(수출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가능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유국에서의 세관통제하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세관통제요건으로 해석가능함
○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BWT의 목적이 지리적, 경제적, 물류 등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며, 특히 지리적 요건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표 3-36> 중국-호주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3: Direct Consignment	제3.13조 직접운송
1 An originating good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provided that the good is directly trans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1. 원산지 상품은 상품이 비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에 직접 운송된다면 원산지 지위가 유지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originating good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non-parties,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provided that: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상품은 그러한 비 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임시 저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a) the good remains under customs control in those non-parties;	가. 비 당사국의 세관 통제 하에 있는 상품
(b) the good does not undergo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repacking, re-labelling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Party, temporary storage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and	나.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은 수입 당사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라벨링, 임시보관,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c) in cases where the good is temporarily stor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tay of the good in that non-party shall not exceed 12 months from the date of its entry.	다. 제2항의 조건하 비 당사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 상품 보관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Consignments of originating goods may be split up in non-parties for further transport, subject to the fulfilment of the conditions listed in paragraph 2.	3. 원산지 물품의 위탁품은 제 2 항에 열거된 조건의 이행을 조건으로 추가 운송을 위해 비 당사국들에서 분리 될 수 있다.
4.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may require the importer to submit documentary evidence to confirm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listed in paragraph 2.	4. 수입 당사국의 세관 담당자는 수입업자에게 제 2 항에 열거된 조건들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유형 : ASEAN + 호-뉴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4개로 구성, 1항(하위조항 없음), 2항은 3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2항 4항은 하위조항 없음

○ (1항) ‘ASEAN 유형’은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 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국-호주 FTA는 해당 문구를 포함하지 않음.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대신 원산

지지위(originating status) 문구를 사용. 해당 문구는 주로 멕시코 등 중미권 협정의 직접운송 원칙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상문구임. 직접운송원칙을 원산지 지위 유지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2항)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 한-중 FTA와 동일한 문구 사용.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해 제시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도록 제시함.

- 단, 비당사국의 경유시 환적, 일시적 보관 여부는 상관하지 않음을 명시
-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상품보관 기간(반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한-중의 경우 최대 6개월 미만)

○ (3항) 상품의 분리 가능, 유사한 시기에 발효된 한-중 FTA에서도 반영된 사항임

○ (4항) 제3국 경유시 서류제출요구 가능(한-중의 경우 의무조항)으로 완화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 화물 분리,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 세관통제

○ 보관기간 : 반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증빙사류 요청 가능

○ BWT 가능 여부 : 가능

- 제3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협정에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대다수의 BWT가 허용되는 ASEAN 유형의 협정은 영역 밖에서의 작업을 규정하는 NAFTA와 다르게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국은 경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다만, 운송의 시작점을 원산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나, 중국-호주의 경우 임시보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ARTICLE 3.13에서 비당사국에서의 탁송화물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어 BWT거래가 가능

<표 3-37> 일-인도네시아 EPA, 일,-인도 CEP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3 Consignment Criteria	제33조 탁송화물 기준
1.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shall be deemed to meet the consignment criteria when it is:	1. 다음의 경우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a)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other Party; or	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경우; 또는
(b)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for the purpose of transit or temporary storage in warehouses in such non-Parties, provided that it does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and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나. 경유 또는 창고 임시 보관을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다만, 하역, 재선적 및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함
2.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does not meet the consignment criteria	2.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제1항에 언급 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로 그 상품

영 문 본	한 글 본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을 간주하지 아니함
Article 40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3. Where an originating good of the exporting Party is imported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the importing Party may require importers, who claim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good, to submit: (a) a copy of through bill of lading; or (b) a certificate or any other information given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such non-Parties or other relevant entities, which evidences that the good has not undergone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and이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in those non- Parties.	제40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3.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통해 수입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대우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통과선하증권의 복사본 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을 입증 할 비당사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및 기타 정보

▢ 유형 : ASEAN+일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 2개의 하위조항, 2항은 하위조항이 없음.
○ (1항)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은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규정
○ (2항) 직접운송원칙 미충족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
○ (타조항) 제40조 입증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 보존 필요공정
○ 증빙서류(의무조항은 아님) : 통과선하증권의 복사본, 세관통제관련 서류
○ BWT 가능 여부 :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 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함. 비조작증명서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함

다. NAFTA 유형

<표 3-38> 일-호주 FTA 직접운송규정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8 Consignmen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good: (a) undergoes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Area of the exporting Party, other than repacking and	제3.8 탁송화물 상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만약 상품이 가. 재포장과 수입 당사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라벨링, 위탁화물의 분리, 하역, 재선적, 보관, 환적과 임시보관 중

영 문 본	한 글 본
relabelling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Party, splitting up of the consignment, unloading, reloading, stor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importing Party during its transhipment and temporary storage; or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에게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작업 이외에 후속 생산 또는 수출 당사국 밖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경우
(b) does not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of one or more non-Parties while it is in those non-Parties.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않음

▢ 유형 : NAFTA
▢ 조문의 구성
○ 직접운송 조항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하위조항이 있음. NAFTA에 변형된 형식임
○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공통적으로 NAFTA 유형에서 통용되는 문구 확인됨
○ 수출국 영역 밖에서 작업허용범위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NAFTA), 세관통제 요건이 불충족 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전자는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
▢ 주요내용
○ 작업허용범위 : 재포장, 재라벨링(수입당사국의 요구 충족을 목적), 위탁화물의 분리,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등.
- NAFTA·한-미 FTA 등과 비교해 볼 때, 작업허용범위(재포장, 재라벨링, 위탁화물의 분리)가 추가됨
○ 세관통제 요건
○ BWT 가능 여부 : 가능
- 제3국에서 탁송품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세관통제 하에 협정에서 제3국에서의 허용 작업내에 있다면 BWT는 가능함

라. RCEP 상호간에 旣체결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공통점적으로 RCEP 상호간에 旣체결된 FTA에서도 직접운송 되거나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을 위한 최소 공정 등 원산지를 변동시키는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 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RCEP 상호간에 旣체결된 FTA의 직접운송 관련 조항은 국가별로 살펴보더라도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동일한 국가가 기체결한 FTA 규정에서도 상대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관통제 및 추가충족 조건이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중국의 경우 추가 충족 조건이 좀 더 다양하고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맺고 있는 모든 협정에서는 비당사국의 세관통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기체결한 FTA 협정문의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 세관통제요건의 부가 여부, 추가 충족요건, 경유사실 입증서류 등의 차이점은 <표 3-41>로 정리하였다.

첫째, 세관 통제와 증빙서류 제출 유형별 특징 분류는 다음과 같다.

'NAFTA 유형'의 경우 모든 협정에 대해 세관통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ASEAN 유형'의 경우 세관통제와 증빙서류 제출을 선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통제와 증빙서류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중-호주 FTA로 나타났다. 한편, 증빙서류는 대부분 세관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은 사실상 세관통제를 의미한다 하겠다.

한편, 세관통제와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협정은 뉴질랜드-말레이시아 협정이며, 중국-뉴질랜드, 일본-인도네시아, 일본-인도 등으로 세관통제는 규정하지 않고, 증빙서류 제출만 규정하고 있었다.

<표 3-39> RECP 회원국 양자간 체결한 FTA의 제3국 경유시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구분

	NAFTA 유형	ASEAN 유형
총협정수	1	5
세관통제	일본-호주	중국-호주
증빙서류 제출		중국-뉴질랜드, 중국-호주, 일본-인도네시아, 일본-인도
세관통제 & 증빙서류		중국-호주
세관통제, 증빙서류 제출 없는 협정		뉴질랜드-말레이시아-

둘째, BWT 가능여부의 협정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BWT 거래는 경유시 ‘불인정행위(거래, 소비, 사용, 고용 등 금지)’를 규정한 협정과, EU의 단일탁송화물 규정이 있을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 경유시 불인정 행위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경유를 하지 않을 것을 협정에서 명시,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WT 가능 협정은 중-호주, 일-호주,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등 4개 협정으로 나타났다. 해당 협정은 경유국 불인정행위(또는 경유 목적상 금지), 경유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셋째, 입증, 서류제출 관련하여 협정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서류제출의 경우, ASEAN 유형 가운데 중-뉴질랜드, 중-호주 등 중국이 체결한 협정과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등 일본이 체결한 협정은 모두 서류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었다. 서류리스트는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등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표 3-40> RECP 회원국 양자간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목록

협정	주요 내용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CEPA	①통과선하증권의 복사본 ②비조작증명서(세관)

마지막으로 경유지에서의 작업인정범위는 공통적으로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을 모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 특이사항으로는 중-호주, 일-호주 FTA에서 재라벨링, 재포장, 분리, 일시적 보관 등을 허용한 점이라 하겠다.

<표 3-41> RCEP 회원국간 1:1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유형	BWT	직접운송	비당사국비경유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탁송화물	경유 사유				경유국 불인정행위					작업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불인정행위	경유사유	보관기간	서류제출	서류리스트		지리	운송	경제	물류	거래	소비	교역	사용	고용	(경 하역, 재선적 운송 필요공
중	뉴질랜드	AS	X	○			○	○		○	○							○		○			재포장
뉴	말레이	AS	X	○			○	○	○					○		○	○			○			
중	호주	AS	○	○		○	○			○	○*												재라벨링, 재 시적 보관
일	호주	NA	○			○	○																재라벨링, 재 관
일	인니	AS	○	○			○				○*	○											
일	인도	AS	○	○			○				○	○											

주 : 서류제출의 ○*는 서류제출을 요청시 응하는 경우를 의미

5. 기타 FTA

가. TPP

<표 3-42> (당사국 정의) Section B Article 1.3 General Definitions

영 문 본	한 글 본
Party means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for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정이 시행되는 모든 국가 또는 별도의 세관 영역을 의미한다.

<표 3-43> (직접운송 규정) Transit and Trans-shipment

영 문 본	한 글 본
With TPP countries located across the Asia-Pacific, manufacturers in all TPP countries have to be able to transport their goods across oceans to get goods to consumers. The Rules of Origin chapter ensures that TPP goods do not lose preferential tariffs simply because of the routes they transit to reach consumers. At the same time, to prevent circumvention of the TPP rules, the chapter imposes strict limits on the production processes that can be conducted while in transit outside the TPP region in order for a product to still be eligible for TPP tariff preferences.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모든 TPP 국가와 모든 TPP 국가의 제조업체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해양을 가로 질러 물건을 운송 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장(챕터)에서 TPP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 통과하는 경로 때문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동시에 TPP 규칙의 우회를 막기 위해, 이 장은 TPP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품에 대해 **TPP 지역 외부로 운송되는 동안에 수행 될 수 있는 생산 프로세스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TPP의 당사국은 참여국의 모든 국가 또는 세관영역을 의미한다.

TPP 협정문에서는 제3장 Chapter Summary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동안 생산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 세관통제요건의 부가 여부, 추가 충족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표 3-44>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직접운송 관련 규정 (당사국 정의)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1 Contracting and Signatory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are MERCOSUR and the State of Israel. The "Signatory Parties" are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Member States of MERCOSUR, and the State of Israel.	제1조 체약당사국들과 서명 당사국들 이 협정의 목적상, 이하 "당사국"이라 칭하는 "체약 당사국들"은 메르코수르 및 이스라엘 국가이다."서명 당사국들"은 아르헨티나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파라과이 공화국, 우루과이 동양 공화국, MERCOSUR 회원국 및 이스라엘 국가이다.

<표 3-45>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직접운송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CHAPTER IV Article 13 Direct Transport	제4장 제13조 직접운송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under the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Israel and one or more Member States of MERCOSUR**.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erein, provided that: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스라엘과 하나 이상의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에 직접 운송되거나 누적이 적용되는 이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관세당국의 감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s or by considerations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and	(1)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ii) they are not intended for trade, consumption, use or employment in the country of transit; and	(2) 경유국에서의 거래, 소비, 사용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iii)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3)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국이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by the production of:	여 제공된다.
(a) Any single through transport documents,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at proves that the goods were directly transported from the exporting countr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to the importing country; or	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상품이 수출국에서 경유국을 통해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됨을 증명하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b)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which contains an exact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date and place of the loading and reloading of the goods in the country of transit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goods were placed; or	나. 제품의 정확한 설명, 경유국에서의 제품 선적 및 하역 일자와 장소, 제품이 놓여진 조건을 포함하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c) In the absence of any of the above documents, any other documents that will prove the direct shipment.	다. 위의 서류가 없을 경우, 직접 출하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3. Goods originating in Israel and exported to a Member State of MERCOSUR, shall maintain their originating status when re-exported to another Member State of MERCOSUR, subject to the Understanding attached to this Chapter as Annex I.	3.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은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으로 재수출 될 때 원산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단, 이 장 부속서 I에 첨부된 이해를 조건으로 한다.
CHAPTER IV Article 13 Direct Transport (k)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제4장 제13조 직접운송 카. 탁송화물이란 한 수출자로부터 한 수취인에게 일제히 발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취인에게 발송물을 담은 단일 운송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인보이스에 의해 발송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Understanding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3.3 In reference to Article 13.3 of Chapter IV Israel has agreed to the postpon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until such time as the Member States of MERCOSUR have established the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such implementation. In the case that free circulation of good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MERCOSUR has not been	제13.3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 제4장 제13.3조를 참조하여, 이스라엘은 MERCOSUR의 회원국이 그러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절차를 수립할 때까지 이 조항의 이행 연기에 동의했다. MERCOSUR의 CMC 결정 54/04에 따라 MERCOSUR의 회원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정의 공동위원회는 제4장 제 13.3 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MC Decision 54/04 of MERCOSUR[54], the Joint Committee of the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3.3 of Chapter IV.	

□ 유형 : EU + 중남미 혼합형
□ 조문의 구성
  ㅇ 직접운송 조항은 2개로 구성, 1항은 3개 하위조항, 2항은 3개 하위조항. 3항(하위조항 없음)으로 구성
  ㅇ (1항) 'EU 유형은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가 직접운송(transported directly)시에만 적용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일 탁송화물일 것을 명시. 아울러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도 같은 항에 명시되어 있음
  - 직접운송의 대상이 다수의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이스라엘로 규정됨
  - 비당사국 경유에 대한 규정은 메르코수르, 멕시코, 중남미 협정 서술방식과 유사
  ㅇ (2항) 서류증빙 의무
  ㅇ (3항) 재수출
□ 주요내용
  ㅇ 작업허용범위 :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 필요 공정
  ㅇ 세관통제는 실질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2항의 증빙자료로부터 실질적인 세관통제 요건이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증빙서류 :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증명자료, 기타 증빙서류
  ㅇ 탁송품의 정의 명시 :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
  ㅇ 메르코수르 내 재수출: 이스라엘산 물품이 메르코수르 내에서 원산지지위를 유지한 채 재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협정에서는 MERCOSUR의 회원국이 그러한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는 시점까지 본 조항 이행연기에 동의하여 실질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음
  ㅇ BWT 가능 여부 : 불가능
  - 탁송품의 정의에 의거하여 운송요건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운송서류 충족요건 의해 BWT는 불가능함

54) "CMC Decision 54/04"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회원국 간의 이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편입에서 역내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내용

6. 소결

가. 직접운송원칙의 세부 규정 의의

첫째, ‘ASEAN 유형’과 ‘EU형’의 경우 직접운송원칙 제1항에 특혜원산지물품이 체약 당사국간 직접운송될 것 또는 비당사국의 비경유 규정 등의 선언적 문구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서류제출의 의무 여부는 의무조항과, 관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다 등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으나,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한-인도의 경우 서류제출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닌 “수입관세당국이 수입자에게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미 동 협정은 직접운송원칙에 “경유국세관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행측면에서 보아도 국내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신고서상 운송과 관련된 조항은 적출국[55], 적출항[56], 출항일[57], 환적국[58], 환적항[59], 환적일[60], 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61]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인 입증서류에 대해 동반제출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관세당국에서 직접운송관련 위반혐의가 포착되어 해당 수입자에가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서류제출은 의무조항과 권고조항을 동일하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셋째, 협정별 BWT 허용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5)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의 국가부호 기재
56) 선하증권(B/L)상의 선적항 기재
57) 선하증권(B/L)상의 B/L 발행일 기재
58)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로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59)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로 확인된 환적국항 기재
60)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로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61) 한-ASEAN FTA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최초로 ㅂ라급한 국가의 국가부호 기재. 예를 들어, 베트남의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애하는 경유 : ‘VN’

본 연구에서 BWT 거래는 경유시 불인정행위를 규정한 협정과, EU와 같이 단일탁송화물 규정이 있을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해당규정을 해석하였다. 특히 경유시 불인정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경유를 하지 않을 것을 협정에서 명시,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RCEP에서의 직접운송원칙 세부 조항 채택 관련 전망

첫째, 경유사유 제시, 경유국 불인정행위는 RCEP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도록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RCEP 참여국 간 체결된 FTA에서 경유사유 제시, 경유국 불인정행위(거래, 소비, 교역)등을 일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SEAN+1 협정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해당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RCEP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BWT 거래의 경우 각국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호주가 체결한 협정의 경우 대부분 BWT를 허용하고 있으나, ASEAN 체결 협정의 경우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조항의 허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6>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BWT 허용 여부

구 분	협정
BWT 금지	한-ASEAN, 인도, 중국, 베트남 ASEAN-호·뉴, 중국, 인도 뉴질랜드-중국, 말레이
BWT 허용	한-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ASEAN,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중국, 일본, 한국

셋째, 세관통제의 경우는 각 협정에서 선별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제출은 RCEP에서도 채택·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서류 제출 리스트는 다음의 <표 3-47>로 요약된다.

<표 3-47>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협 정	주요 내용
한-베트남 중-ASEAN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원산지증명서 원본 ③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기타 증빙서류
한-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①~④ 상동 ⑤연결원산지증명서
한-인도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모든 경로) ②세관통제서류
한중간 한-페루	①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모든 경로) ②세관증빙서류
한-싱가포르	①세관통제서류 ②비조작증명서(세관) ③비조작증명서(수입자)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CEPA	①통과선하증권의 복사본 ②비조작증명서(세관)
일본-ASEAN	①연결원산지증명서

넷째, 제3국 반입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 관련 수출 규정으로부터 RCEP 역내 경유 물품의 통관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재수입물품 특례는 제3국에서 통관여부를 불문하고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하고, 재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을 입증하는 조건 하에서 특혜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요건이다. 즉 재수입물품 특례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Mega FTA에서 역내에서 통관 이후에 또 다른 역내국으로 원산지지위를 유지한 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한국에 체결한 FTA의 경우 한-EU, EFTA, 인도,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등에서 협정에서 재수입물품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는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하고 있다. 단, ASEAN의 경우 협정에는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이 불포함되었으며, 국내법령인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허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이 체결한 對RCEP 회원국 대상 FTA의 경우 인도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재수입물품 특례를 불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 우리나라가 체결한 RCEP 회원국과의 FTA에서 재수입물품에 대한 규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황으로부터 해당 규정의 차용은 RCEP 참여 각국 간 이견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8> 한-인도 CEPA 재수입물품 특례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3: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제3.13조 영역원칙
2. Except as provided for in Article 3.7, an originating product exported from a Party to a non-Party shall, when returned, be considered to be non-originating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concerned that:	2.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대하여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a) the returning product is the same as that exported; and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b) the returning product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beyond that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while being exported.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다섯째, 역내경유 관련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통한 역내 경유 제도 도입 논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EAN+1 협정에서는 역내 경유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RCEP에서 해당 조항을 차용하여 역내경유허용 논의 가능성이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발급요건으로서 중간경유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와 중간경유국의 수입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역내 경유국에서 재수출 물품시에도 발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뉴질랜드-ASEAN과 인도-ASEAN**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ASEAN CEPA 협정에서 재수출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자유 무역 지역을 포함한 중간 경유 당사국의 관세영역과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보세구역에서 유효하다"고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중간경유국의 재수출 물품은 통관되지 않은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RCEP 회원국간 협정에서 역내 경유에 대해 통관까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RCEP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내경유에 대한 허용이 필요한 바,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차용하여 RCEP 역내경유국에서 물품이 그 원산지지위를 유지(원래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하여 타RCEP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역내경유국에서의 재수출은 현 인도-ASEAN CEPA와 같이 보세구역으로 그 허용범위를 제한할 경우 활용도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도 물품의 동질성을 입증 가능할 경우 재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 즉 역내 경유국에서 수입시 해당 물품의 재수출 여부를 미리 신고하는 국내 재수출물품에 대한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될 수 있다. 단, 이때 수입물품과 재수출 물품의 동질성, 비조작 입증 부문 등을 포함한 제도적 방안 도입도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역내에 장치될 경우 특혜원산지의 유효기간설정은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원래 원산지 증명서의 종료날짜와 동일하도록 또는 단기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역내 경유 물품의 특혜원산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다. 다자간 협정에서 직접운송원칙의 역내당사국 경유 관련 비교

RCEP의 경우 다국이 참여하는 Mega FTA 즉 N:N 협정이기 때문에, 역내경

유와 관련 기체결 다국 간 협정에서 역내 경유의 허용범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Mega FTA에 참여하는 주요 유인이 역내 GVC를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 공정누적, 원산지재료의 누적의 활용 시 역내경유의 허용 및 허용시 통제요건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역내경유에 대한 ASEAN+1 직접운송원칙 검토는 협상에서 RCEP 참여국의 Mega FTA에 대한 직접운송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한 해석의 기초 자료, 즉 기체결한 경험에 대한 리뷰 및 사전검토 차원에서 필요하다.

(1) 역내당사국 경유 가능 협정 비교 : 한국 기체결

먼저, 한국이 다국 혹은 관세동맹과 맺은 협정을 살펴보자. 한-중미 FTA의 경우 중미국가 간 역내경유에 대해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운송할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역내 경유를 가능한 범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역내 경유시 단일운송서류를 필수로 두고 있어, 역내 통관 및 장치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한-EU FTA의 경우, 체약당사국의 범주가 EU로서, EU 전체를 당사국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EU 역내에서의 경유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한-EFTA FTA의 경우 역내 경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역내당사국 경유 가능 협정 비교 : ASEAN+1

먼저 한-ASEAN FTA의 경우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직접운송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 이외에는 모든 영역을 제3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ASEAN 역내 경유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한-ASEAN FTA에서 제3국 경유에 대해서 ①지리·운송상의 정당화, ②경유국에서의 거래·소비 불인정, ③하역·재선적·상품보존 필요 공정 등의 작업인정범위 등을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간 경유국에 대한 필수서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그밖에 증빙서류 등으로 실질적인 세관통제와 운송의 일치

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ASEAN EPA의 경우 제31조에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ASEAN FTA와 동일하게 수입국과 수출국 이외에는 모두 제3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ASEAN 역내 경유에 대한 규정 없다. 제3국 경유에 대해서, 하역・재선적・상품보존 필요 공정 등의 작업인정범위 등을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ASEAN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지리・운송상의 정당화, ②경유국에서의 거래・소비 불인정 등은 불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 경유국에 대한 의무제출 서류규정도 없어 일본-ASEAN EPA는 보다 완화된 규정이라 하겠다. 단, 역내 중간 경유국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규정이 따로 제시되고 있다.

중-ASEAN FTA의 경우 제8조에 제3국 경유와 관련하여 ①회원국 영토를 통과하여 운송하는 경우, ②비회원국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③하나 이상의 비회원국을 경유하는 경우’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①과 ②는 역내경유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③은 제3국 즉 비회원국 경유로서, 한-ASEAN FTA와 마찬가지로 ⑴지리・운송상의 정당화, ⑵경유국에서의 거래・소비 불인정, ⑶하역・재선적・상품보존 필요 공정 등의 작업인정범위 등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9조에는 제8조의 ③하나 이상의 비회원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간 경유국에 대한 서류를 수입당사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간 경유국에 대한 서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그밖에 증빙서류 등으로 한-ASEAN FTA와 유사하게 실질적인 세관통제와 운송의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ASEAN CEPA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중-ASEAN FTAdhk 같다. 다만, 인도-ASEAN CEPA와 중국-ASEAN FTA의 규정이 상이한 것은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인도-ASEAN에서만 정의하고 있다.

<표 3-49> 인도-ASEAN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PPENDIX D Article 11	부록 D 제11조
(a) Notwithstanding paragraph (b) of Article 7, Articles 13 and 14(b),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of that Party while the product is passing through that Party's territory, provided that: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 (b)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한하여 연결 AI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i) a valid AIFTA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original exporting Party is presented only to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1) 수출 당사자로부터 발급된 유효한 AIFTA 원산지 증명서가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행 기관에만 제출되어야 한다;
(ii)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2)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AI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와 중간경유국의 수입자가 동일하다;
(iii) validity of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have the same end-date as the original AIFTA Certificate of Origin;	**(3) 연결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원래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종료날짜와 동일하다;**
(iv) the originating products re-exported could either be full or part of the original consignment;	**(4) 재수출되는 원래 제품은 원래 탁송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될 수 있다.**
(v) the consignment which is to be re-exported using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must not undergo any further processing in the intermediate Party, except for repacking and logistics activities consistent with Rule 8 of the ROO;	**(5)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재수출되는 탁송품은 재포장이나 Rule 8에 상응하는 물류활동 이외에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공정을 하지 않는다;**
(vi) the product shall remain in the intermediate Party's customs territory, including its free trade zones and bonded areas approved by the customs. The product shall not enter into trade or consumption in the intermediate Party;	**(6) 이 제품은 자유 무역 지역을 포함한 중간 경유 당사국의 관세영역과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보세구역에서 유효하다.**
(vii) information on the back-to-back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ncludes the name of the Party which issued the original AIFTA Certificate of Origin, date of issuance and reference number; and	(7) 연결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정보는 원본 원산지 증명서 발행 당사 이름 및 발행일과 참조 번호를 포함한다; 그리고
(viii)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Articles 16 and 17 are applied.	(8) Articles 17 및 Articles 18에 규정된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b) the original exporting Party,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cooperate in the process of verification. The copy of the AI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original exporting Party shall be given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if it requests for the same during the process of verification.	(b) 수출 당사국, 중간 경유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에서 협력한다. 검증 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AIFTA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은 수입 당사국의 세관 당국에 제시되어야한다.
(c) Up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and revise it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c)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은 이 조항 및 그 실행의 조항을 검토하고, 상호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ASEAN CEPA에서 ASEAN 역내 경유는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 가능하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한-ASEAN FTA에도 부록 제11조에 규정되고 있다.

두 협정이 유사한 점은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중간경유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최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유 발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경유국)와 경유국의 수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도-ASEAN CEPA의 경우 여기에 경유국에서 '재수출' 시에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탁송품의 일부만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중간경유 당사국에서 추가공정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으며, 통관되지 않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재수출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 "자유 무역 지역을 포함한 중간 경유 당사국의 관세영역과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보세구역에서 유효하다"고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중간경유국의 재수출 물품은 통관되지 않은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래 AIFTA 원산지 증명서의 종료날짜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호주-뉴질랜드-ASEAN FTA에서는 경유와 관련하여 ①비당사국 영토를 거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③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등 두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은 역내경유 허용 의미로 해석되며, ③은 비당사국 경

유로서, 한-ASEAN FTA와 마찬가지로 (1)하역・재선적・상품보존 필요 공정 등의 작업인정범위, (2)경유국에서의 거래・소비 불인정, (3)지리・경제적・물류・운송상의 정당화 등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3)의 경우 한-ASEAN FTA와의 차이점은 지리적 사유 외에 호-뉴-ASEAN의 경우 경유 사유로서 '경제적(economics)' 또는 물류적(logistical) 부문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요건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나, 실제 당국에서 동 조항으로부터 파생되는 추가적인 실무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ASEAN)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호-뉴-ASEAN)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economic or logistical reasons.

또한 호-뉴-ASEAN에서도 중간 경유국에 대한 서류로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그밖에 증빙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ASEAN FTA, 중-ASEAN, 인도-ASEAN과 유사하게 실질적인 세관통제와 운송의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호-뉴-ASEAN의 경우, 한-ASEAN, ASEAN-인도와 같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부록 제11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재수출과 관련해서는 인도-ASEAN에서 역내 장치 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호-뉴-ASEAN의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다.

(인도-ASEAN) (4) 재수출되는 원래 제품은 원래 탁송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될 수 있다. (6) 이 제품은 자유 무역 지역을 포함한 중간 경유 **당사국의 관세영역과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보세구역에서 유효**하다. (호-뉴-ASEAN) (4)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부록 2(최소 데이터 요구 사항 - 원산지 증명서)의 최소 데이터 요구 사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FOB 값은 중간 당사자로부터 수출 된 물품의FOB 값이다; 그리고

<표 3-50>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검토 요약

	역내 경유	제3국 경유	허용범위규정					서류	연결원산지증명서	역내 재수출
			운송상 사유	경제적 사유	물류적 사유	불인정행위	작업인정범위			
한국	동일 취급 제한적 허용		○			○	○	○	○	
일본	동일 취급 제한적 허용						○		○	
중국	○	제한적 허용	○			○	○	○		
인도	○	제한적 허용	○			○	○	○	○	○ (보세구역)
호-뉴	○	제한적 허용	○	○	○	○	○	○	○	○

마지막으로 ASEAN+1의 역내경유와 관련하여 협정문 검토결과는 다음의 <표 3-50>로 요약된다.

중-ASEAN, 인도-ASEAN, 호-뉴-ASEAN의 경우 역내경유 허용하고 있으며, 한-ASEAN, 일-ASEAN의 경우 수출, 수입 당사국 이외의 국가는 제3국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역내경유는 제3국 경유와 동일하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ASEAN+1의 협정은 경우 역내경유(보세구역에 일시적 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호-뉴, 인도-ASEAN 협정에서 수출국 이외의 역내 경유시 재수출할 수 있는 용도로서도 사용되는데, 인도의 경우 역내 장치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호-뉴-ASEAN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개별국가로서 일본의 경우 일-ASEAN 등에서 역내 경유에 대해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은 존재 확인되나, 그외 역외경유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지리・운송상 정당화, 경유국 거래소비 불인정, 통과선하증권, 세관통제요건 등이 부재함이 확인되어, 직접운송에 대한 규정의 엄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3) 역내당사국 경유 규정이 있는 협정 비교 : 기타

그 외 Mega FTA에서의 역내, 역외 직접운송원칙 적용여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TPP, EU가 참여하고 있는 Mega FTA 등으로부터 참고 가능하다.

우선 TPP의 경우 역내 경우에 대해서도 따로 허용여부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협정에서 'TPP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 통과하는 경로 때문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는 것으로부터 역내경유 등에 제한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EU가 참여하고 있는 협정의 경우 EEA[62]가 대표적인데, 제2조[63]에서 "이 협정에서 적용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한다." 고 언급하는 바, 이는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세관통제도 없으며, 직접운송원칙 적용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역의 원칙은 다음절에서 살펴볼 누적조항에 있어서 완전누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공정, 특히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자 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를 통해 증빙을 함으로써 역내 GVC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62)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은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체약당사국은, ① the Community(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 등, 12개국), ②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구성된다. 즉 유럽의 일부 국가 간의 N:N협정. 완전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63) Article 2 General requirement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a) products wholly obtained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b) products obtained in the EEA incorporating materials which have not been wholly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For this purpos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shall be considered as a single territory.

그러나 EEA의 단일영역은 유럽내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근접, 참여국간 정치, 문화, 사회적 유사성과 공감대에 서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RCEP에서 그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EU가 EU 영역 외의 타국간의 체결한 Mega FTA인 Pan-Euro-Med[64]의 해당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an-Euro-Med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협약에 참여하는 개별 영역(EU, EFTA,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 등)[65]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 이외의 다수 국가들도 참여중이다.

<표 3-51>에서와 같이 EEA와 PEM의 직접운송원칙은 한-EU FTA와 유사하게 개별 영역간 역내 경유에 대해서는 단일탁송화물, 제3국 경유에 대해서는 경유국 거래, 소비 불인정. 실질적인 세관통제요건에 의한 입증서류 제출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 3-51> PEM /EEA의 직접운송원칙

영문본	한글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e relevant Agreement shall apply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or through the territories of the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제3조에 따라 누적이 적용 가능한 체약 당사자들의 영역을 통하거나 당사자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64) REGIONAL CONVENTION ON PAN-EURO-MEDITERRANEA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범유로지중해 원산지규정에 관한 지역 협약), 2013년 2월 26일, EU를 비롯한 EFTA, 터키, 지중해 지역 국가는 기존의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범유로지중해 누적(PEM, Pan-Euro-Med cumulation) 협약을 도입하였다. EU의 범유로지중해 누적은 기존의 단일 FTA에서 당사국끼리의 누적을 복수 FTA간 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PEM 참여국 간에는 완전누적도 포함되어 있다.

65) ①EU, ②EFTA(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③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 참여국(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시리아, 튀니지, 터키), ④EU의 안정 및 연합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참여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⑤페로스 제도

PART 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3. The following ar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 the European Union,
- the EFTA States as listed in the Preamble,
- the Kingdom of Denmark in respect of the Faroe Islands,
- the participants in the Barcelona Process as listed in the Preamble,
- the participants in the European Union's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as listedin the Preamble

영문본	한글
Contracting Parties with which cumulation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remain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Originating products may be transported by pipeline across territory other than that of the Contracting Parties acting as exporting and importing parties.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원산지 제품은 수출입 당사자 역할을 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 이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by the production of: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체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a)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Contrac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가. 수출 체약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b)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나.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transit country; or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c) failing these, any substantiating documents.	다. 그 외 입증 서류

마지막으로 메르코수르-이스라엘 FTA 협정에서는 메르코수르 내의 역내

경유를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해당 협정 제13조 3항에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은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으로 재수출 될 때 원산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단, 이 장 부속서I에 첨부된 이해를 조건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역내에서의 재수출이 가능한 것을 협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서1의 제3.3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에서는 “제4장 제13.3조를 참조하여, 이스라엘은 MERCOSUR의 회원국이 그러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절차를 수립할 때까지 이 조항의 이행 연기에 동의”하고 있어 실질적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당국의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52> 이스라엘-메르코수르 FTA 직접운송 : 역내경유 관련

영 문 본	한 글 본
CHAPTER IV Article 13 Direct Transport **3. Goods originating in Israel and exported to a Member State of MERCOSUR, shall maintain their originating status when re-exported to another Member State of MERCOSUR, subject to the Understanding attached to this Chapter as Annex I.**	제4장 제13조 직접운송 **3.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은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으로 재수출 될 때 원산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단, 이 장 부속서 I에 첨부된 이해를 조건으로 한다.**
ANNEX I Understanding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3.3 In reference to Article 13.3 of Chapter IV Israel has agreed to the postpon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until such time as the Member States of MERCOSUR have established the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such implementation. In the case that free circulation of good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MERCOSUR has not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MC Decision 54/04 of MERCOSUR[66], the Joint Committee of the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3.3 of Chapter IV.	부속서 1 제13.3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 제4장 제13.3조를 참조하여, 이스라엘은 MERCOSUR의 회원국이 그러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절차를 수립할 때까지 이 조항의 이행 연기에 동의했다. MERCOSUR의 CMC 결정 54/04에 따라 MERCOSUR의 회원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정의 공동위원회는 제4장 제 13.3 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라. RCEP의 역내당사국 경유 허용 필요성

마지막으로 RCEP의 역내 당사국간 경유 허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역내 GVC 구축관련 누적과 직접운송의 구분 필요하다. 왜냐하면, Mega FTA 체약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차적으로 원산지지위를 얻지 못한 품목이, 이후 Mega FTA에 참여한 다국의 단계별 공정 누적을 통해 원산지 지위를 얻게 될 경우와 같은 역내 GVC 구축과 관련된 이슈는 누적조항의 증빙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소(예를 들면, EU의 공급자신고서, 국가간 원산지확인서의 유통) 등을 통해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Mega FTA에 참여하고 있는 체약 당사국 영역 간 운송 상의 이유가 아니다. 다시 말해 상품 생산의 단계, 공정 완성의 목적으로 중간재(가공재)가 수입 통관된 이후 다른 체약국에서 추가적으로 역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직접운송 부문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운송의 단일 이슈로 집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Mega FTA의 직접운송 이슈는 RCEP 참여국 내 수입국 특혜관세 기준으로 특혜대상이 되는 품목이(즉, FTA특혜수입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된 수출국가로부터 출발하여 수입국까지 운송되는 루트(역내경유, 역외경유)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수출국과 수입국을 제외한 RCEP 참여국 역내경유시 세관통제 등의 허용여부 대한 부문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67]

(1) 유형 구분

RCEP 내에서의 역내 경유에 대해서는 영역의 설정에 있어 ‘ASEAN 유형’과 ‘EU형(Pan-Euro 형)’으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66) “CMC Decision 54/04“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회원국 간의 이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편입에서 역내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메르코수르의 관세동맹으로의 이행절차 가이드라인이다.

67) 역외경유는 앞서 살펴본 RCEP 참여국의 기체결 협상의 검토로 부터 세관통제 등의 ‘ASEAN 유형’ 채택 유력하다.

다.

먼저 ‘ASEAN 유형’은 1:1 협정의 연장으로, RCEP 참여국을 개별 파트너, 즉 개별 체약당사국으로 인식하고 경유국을 역내, 역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수출국과 수입국 이외의 국가는 RCEP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세관통제가 필요한 경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유국에서의 작업은 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하역, 재선적, 상품 보존 및 운송 상의 필요공정 등으로 제한한다.

EU형(Pan-Euro 형)은 Mega FTA 참여국을 하나의 특혜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RCEP이 EU형(Pan-Euro 형)을 채택할 경우, RCEP 참여국 내 경유는 세관 통제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역내 가공시에도 C/O 또는 공급자 신고서 등을 통해 최종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시 기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3국 경유는 단일탁송화물[68]의 원칙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즉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역외국의 영역을 통과시, 단일 운송서류,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69]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 경유시 단일탁송화물로서 세관통제와 증빙이 필요하게 된다.

요컨대 EU형(Pan-Euro 형)은 체약당사국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운송이 가능하며, 역내 경유시 세관통제에 대한 의무는 없다. 단, 역외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단일탁송화물과 세관 통제의무를 적용한다.

(2) ASEAN 유형의 선택시

한편, RCEP이 ‘ASEAN 유형’을 채택할 경우, 1:1 양자협정을 RCEP 참여국과 각각 체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역내 GVC 확대를 추구하는 Mega FTA의 효용성이 퇴색한다는 단점 존재한다.

---

68) 단일탁송화물에 대해서는 EEA, PEM 참여국은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에서의 단일탁송화물과 이행상에서 실질적 체감하는 준수 강도가 다름을 고려해야 함. 다만 수출시점에 목적국이 정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함은 동일

69)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아울러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하게 둘 경우 다음과 같이 완성품과 원부자재 간 FTA 활용시에도 불균형이 발생한다.

첫째, 세관통제를 의무화로 둘 경우,

①추가 가공이 필요한 원부자재의 경우, A국(베트남)산 원부자재를 RCEP 역내 경유국인 B국(한국)에서 통관한 뒤, 해당 물품을 중간재로 투입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해당 완제품을 RCEP 역내 C국(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품목은 RCEP B국(한국)산 원산지로 특혜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②가공이 불필요한 A국(베트남)산 완제품의 경우, RCEP 역내 경유국인 B국(한국)에서 통관 후, 해당 물품을 다시 RCEP 역내 C국(중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해당 품목의 RCEP A국(베트남)산 원산지로 특혜수출이 불가능하다.

둘째, 운송상의 편의성과 관행으로 단일운송서류 등 입증이 어려울 경우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한국' 운송루트의 경우 '인도네시아→싱가포르'는 단거리로 관행상 소규모 feeder로 운송하는 경우가 다수로, 따라서 '싱가포르 → 한국'에 대해서만 B/L 발행할 경우 RCEP 특혜에서 배제된다.

(3) EU 유형의 선택시

위의 사유로 'EU 유형'을 채택할 경우, 역내에서 세관 통제가 없어 역내 경유국에서 원산지 물품이 비체약국 물품과의 혼재될 가능성이 주요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 혼재가능성의 문제는 사실 제3국이 아닌 국내에서도 가능한 부문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의 '비조작증명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변형되지 않고 원상태로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증명서류이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는 아니다.

이에 역내경유가 운송상의 경유일 경우 단일운송서류, 재수출(연결원산지증명서)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 물품임을 입증(또는 서류상 보완)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 하에 운송상 경유를 할 경우 비원산지 물품의 혼재 문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입증(서류상 보완)'의 범위에 따라 오히려 직접운송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역효과)으로 협상결과가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운송상의 경유가 아닌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Hubbing과 같이 물품을 역내에 세관통제 없이 창고 보관할 경우 비체약국 물품과 혼재 가능성 대두한다. 이에 원산국 외의 RCEP 역내 물류허브 국가에 물품을 장치해 둘 경우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 확인 등 재고관리기법에 의해 해당물품이 관리, 체크되어야 한다. 이에 동사안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와 같이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운송, Hubbing, 환적 등이 원산지증빙(인증수출자에 의한 송품장 신고)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당사자 입증이 담보된 자율증빙일 경우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Hubbing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해당 사례들의 허용 필요성에 대해 산업별 서치가 필요한 부문이다.

결론적으로 역내 경유시 ①세관통제가 없을시 비원산지혼재 가능성이 높을 경우(기업 물류 활성화)와 ②세관통제 하 비원산지 혼재 가능성이 낮을 경우(행정비용+관세수익하락)의 두 부분의 경제적 효용 비교를 통해 역내 경유에 대한 정책적 선택 필요하다.

그러나 Mega FTA로서 RCEP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비원산지 혼재 가능성이 다소 높더라도, 생산과 물류의 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역내 경유시 세관통제 비적용' 채택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RECP 체결시 주요 영향 조항 : 누적

1. 개요

누적(Cumulation)이란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기준의 적용을 통해 협정 상대국의 재료가 원산지재료로 인정되게 되어 원산지 영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역내를 광역화하고 있는 Mega FTA에서 누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역내 GVC(Global Value Chain), 협정의 활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적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FTA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누적기준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등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자누적은 가장 기초적인 누적의 형태로서 FTA 체약상대국 간에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누적은 해당 FTA의 체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에 의해 공급되는 재료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70] 완전누적은 FTA를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 활동을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양자누적은 용어상 다자누적과 대비되는 개념도 포함되어 1:1 협정에서의 누적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서에서는 양자누적 대신 '재료누적'과 '생산누적'으로 개념을 구분하도록 한다.

재료누적의 핵심은 재료누적만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누적조항의 적용범위는 직전 수출 단계의 원산지재료만을 원산지판정시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70) 교차누적은 공통으로 FTA를 맺은 제3국의 재료를 역내산 재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유사누적의 형태이나, 한-캐나다 FTA와 같이 한국 캐나다가 공통으로 FTA를 맺은 미국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한국-미국-캐나다가 공통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누적과 그 특징이 구분된다.

FTA 참여국의 계약 관계가 1:1, 1:N, N:N의 협정여부에 상관없이[71], 해당 협정이 양자누적을 채택하고 있다면 체약당사국간 거래 발생시 수출국 생산품이 원산지재료일 경우, 해당 분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과 동일하게 고려된다.

생산누적은 '공정'과 '생산단계'도 누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료누적에 '공정'과 '생산단계'의 누적이 가능한 경우를 '생산누적'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생산누적의 핵심은 좁게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가공공정기준의 누적, 나아가 그 밖의 양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에 대한 누적을 의미한다. 다만,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생산누적 허용 여부는 협정문이 아닌 협정 이행상 행정을 통해 알 수 있다.[72]

완전누적의 핵심은 재료, 부가가치, 공정 등 역내에서 발생한 생산의 모든 투입요소를 원산지판정시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FTA 참여국의 계약 관계가 1:1, 1:N, N:N의 협정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협정이 완전누적을 채택하고 있다면 체약당사국 영역 내 생산(투입)이 발생할 경우 생산의 중간 단계별 투입요소의 원산지 지위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 최종 상품의 원산지 판정시 FTA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투입요소(재료, 부가가치, 가공공정)을 역내산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재료, 생산, 완전누적은 누적의 범위에 대한 용어라면, 유사누적은 누적의 대상에 관한 용어이다. 유사누적은 협정에서 체약당사국 이외 제3국의 제품도 누적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협정문에서 재료누적을 지칭하는 용어는 재료의 누적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또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등 이다.

생산누적을 지칭하는 용어는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71) 1:1 협정은 한-칠레, 한-미 FTA 등이며, 한-EU FTA도 여기에 포함된다. 1:N 의 협정은 한-ASEAN FTA이다. N:N 협정은 최근 타결된 TPP이다.
72) 후술하는 EU의 공급자신고서는 비원산지재료의 누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이다.

완전누적을 지칭하는 용어는 협정별로 상이한데, ①FTA 영역을 통해 정의한 경우, ②작업 또는 가공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③체약국간 생산단계가 누적됨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우, ④체약국간 복수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이 가능하며(재료누적과 공정누적),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고려 가능 등이 대표적이다.

①의 사례는 EEA로, “이 협정에서 적용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②의 사례는 EU-알제리 FTA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으로, “작업 또는 가공이 알제리(체약당사국)내에서 수행될 경우, 유럽연합(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③의 사례는 한-칠레 FTA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④의 사례는 TPP로,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undertaken) 생산품이, 그 상품이 재료 그 자체로부터 원산지 지위 획득을 부여받기에 충분한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의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요소(부가가치)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다.

용어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형 협정의 경우 완전누적을 ①과 ②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73] 한-칠레 FTA와 같이 1:1 협정으로서 완전누적을 규정한 경우 ③을, 최근 타결된 TPP 협정에서는 기존의 재료와 공정누적에 부가가치를 따로 언급한 ④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

73) Guide to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스위스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완전누적은 충분한 작업 또는 과정이 하나의 단일국가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자유무역이 적용되는 전체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한국의 旣체결 FTA[74)]

가. 인도, 중국

1:1 양국간 협정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한-인도 FTA의 누적조항은 제3장(원산지 규정), 제3.7조, 한-중 FTA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 제1절(원산지 규정) 하부인 제3.6조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협정의 누적조항은 “FTA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incorporated in)” 에 대해 원산지로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FTA 참여국의 구성 형태가 1:1로서 재료누적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누적이다.

<표 3-53> 한-인도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7 ACCUMULATION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제3.7조 누적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표 3-54> 한-중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7 ACCUMULATION Where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other Party, the goods or materials so incorporated shall be regarded to be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제3.6조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74) 송경은(2016), 완전누적기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관세행정 체계 변화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위탁연구과제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나. ASEAN, 베트남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ASEAN의 경우 PSR을 통해 다국누적을 인정·제한, 공정누적을 제한적 허용

한-ASEAN FTA의 누적조항은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7조, 한-베트남 FTA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1절(원산지 규정)의 제3.6조에 수록되어 있다.

양 협정은 앞의 한-인도,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재료누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문상 표현이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경우(is used in)"로 사용이 결합(incorporated in)을 대체하는 수준의 차이만 존재한다.

<표 3-55> 한-ASEAN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Rule 7 ACCUM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nnex,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표 3-56> 한-베트남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6 ACCUM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75]

한편 한-ASEAN의 경우 협정체결 형태가 1:N로, 체약당사자가 대한민국과 ASEAN 각 회원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EU와 같이 1개의 체약당사국 영역으로서 ASEAN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료누적을 활용하여 한-ASEAN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SEAN 회원국간의 원산지증빙이 따로 요구된다.

<그림 3-2> 한-ASEAN FTA 누적 사례

생산국	일본	베트남	태국
최종생산품	HS 8501.10 모터	HS 8509.90 몸체(전동기를 갖춘 것)	HS 8509.40 가정용 믹서기
PSR		CTH	CTH
원재료		HS 8501.10 모터	HS 8509.90 몸체(전동기를 갖춘 것)
		HS 8208.30 커터	HS 3924.10 컵
			HS 3926.90 버튼 커버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예로서 가정용 믹서를 생산할 경우를 가정하자. 일본산 모터(HS 8501)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믹서기의 몸체를 만든 후 태국에서 가정용 믹서기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베트남, 태국 등 ASEAN 각 회원국을 거쳐 생산한 뒤, 對한 특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베트남에서 전동기를 갖춘 믹서기의 몸체(HS 8509.90)를 생산하게 된다. 이때 사용된 원재료는 모터(HS 8501.10), 커터(HS 8508.30) 등이다. 믹서기의 몸체의 PSR은 CTH(4단위 세번변경)로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믹서기 몸체는 한-ASEAN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역내산이다.

두 번째 단계는, 태국에서 베트남산 믹서기 몸체(HS 8509.90)를 수입해서

75) *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그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효중인 경제통합 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컵(HS 3924.10), 버튼 커버(HS 3926.90) 등과 결합해서 최종재인 가정용 믹서기(HS 8509.40)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때 가정용믹서기의 PSR은 CTH(4단위 세번변경)로, 원재료인 믹서기의 몸체는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료가 역내산이라는 전제하에 충족이 가능하다.

위의 사례는 베트남, 태국 등 ASEAN 회원국 2개국 에서 생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對한 수출을 목적으로 한-ASEAN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산 원재료를 태국에서 누적(재료)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SEAN 국가 간 거래, 즉 베트남과 태국 간 거래시 한-ASEAN FTA의 PSR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증빙방식은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 협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한-ASEAN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AK원산지증명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ASEAN 회원국간에도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ASEAN 회원국은 관세동맹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ASEAN 회원국 간의 관세는 한-ASEAN FTA 특혜세율 보다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SEAN 회원국 간에는 한-ASEAN FTA를 활용할 유인이 매우 낮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도 기관발급으로 기존의 ASEAN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기본적으로 한-ASEAN FTA의 낮은 활용률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SEAN 회원국 내 2국 이상에 걸친 재료누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ASEAN FTA에서 다국누적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ASEAN FTA의 누적의 특징은 PSR을 통해 다국누적 혹은 공정누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쌀가루(HS 1102.90-2000)의 PSR은 다음과 같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즉, HS 1102.90-2000의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의 영역(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에서 생산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생산시에는 수출당사국 이외의 체약국산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PSR을 통해 다국누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가루(HS 1102.20-0000)의 경우 PSR은 다음과 같다.

수출국의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즉, 원재료는 쌀가루와 다르게 수출한 국가에서 생산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해당 제품의 생산은 반드시 수출국 1개국에서만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충족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다국누적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ASEAN FTA의 경우 PSR 공정누적의 예외적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61류 의류로, PSR은 다음과 같다.

HS 6101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Change to Heading 61.01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or A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즉, 61류, 62류・63류(일부) 등은 재단・봉재 공정 수행국을 1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EU, 터키, EFTA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 불충분 공정(최소공정) 이상 수행
- EFTA의 경우, 재수출 및 수출국 비가공 물품 등 원산지자격 명시

한-EU FTA의 누적조항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원산지 규정)의 제3조에, 한-터키 FTA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절(원산지 규정)의 제3조에, 한-EFTA FTA는 부속서 I의 제1부(원산지규정)의 제2절 "원산지상품요건"의 제3조에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위의 세 협정은 유럽권 협정으로 누적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누적조항의 주요 내용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결합하여 획득된 경우(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즉 재료누적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즉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을 넘어서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EU FTA의 PSR을 만족하는 양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는 최종재의 원산지 판정시 원산지결정기준[76]을 따로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76)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이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즉 예를 들면 세번 변경 여부 등

<표 3-57> 한-EU, 한-터키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 CUMULATION OF ORIGIN Notwithstanding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a Party if such products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제3조 원산지누적 제2조[77]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표 3-58> 한-EFTA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 Cumulation of Origin	
1. Notwithstanding Article 2, materials originating in another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nnex shall be considered to be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Party concerned.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제3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2. Products originating in another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nnex, which are exported from one Party to another, shall retain their origin when exported in the same state or without having undergone in the exporting Party working or processing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where materials originating in two or more of the Parties are used and those materials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xporting Party nat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the origin is determined by the material with the highest customs value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with the highest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at material in that Party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77) 제2조 원산지제품

한편, 한-EU의 경우 1:1의 협정으로 체약 당사자를 한국, 그리고 EU영역과 EU 회원국 둘 다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EU 영역 내에서는 재료, 공정, 부가가치 누적도 가능하다.

<그림 3-3> 한-EU FTA 누적 사례

생산국	일본	독일	프랑스
최종생산품	HS 8501.10 모터	HS 8509.90 몸체(전동기를 갖춘 것)	HS 8509.40 가정용 믹서기
PSR	-	CTH	CTH
원재료		HS 8501.10 모터	HS 8509.90 몸체(전동기를 갖춘 것)
		HS 8208.30 커터	HS 3924.10 컵
			HS 3926.90 버튼 커버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앞선 한-ASEAN 역내 누적 사례를 국가만 EU 회원국으로 변경해서 살펴보자. 해당 사례는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2개국에서 생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다. 이때 한-EU FTA를 적용하여 對한 수출을 목적으로 상품이 제작되며, 이 과정에서 독일산 원재료를 프랑스에서 재료누적하기 위해서는 EU 국가 간 거래 내에서 한-EU FTA의 PSR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원산지 규정)의 제22조에 언급되어 있다.[78]

78) 제22조 증빙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이는 한-EFTA FTA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20조(증빙서류) 규정되어 있다. 이들 내에서는, EU 내에서 더 불리한 세율인 한-EU FTA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또 원산지확인서(소명서)와 같이 EU 원산지 여부만을 증명하는 자체 서류만 유통・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한편 동일한 유럽지역과의 협정이지만 한-EFTA FTA는 한-EU FTA와 다르게 1:1이 아니다. 즉, 한-ASEAN과 동일한 1:N의 협정이다. EU와 마찬가지로 해당규정에 의해 재료로 투입되는 원재료가 EFTA 원산지 상품일 경우, EFTA 회원국 내에서 재료누적이 행정적으로 손쉽게 가능케 된다. 특히 유럽형 협정은 송품장신고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1 : N 협정인 한-ASEAN FTA 보다 누적조항의 활용이 용이하다.

한-EFTA FTA 누적조항에는 다른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순가공품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EFTA 국가 간의 누적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한 당사국의 물품을 동일한 상태 또는 단순 가공하여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초의 원산지가 유지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다국 재료가 사용되거나 충분한 가공이 아닌 경우 사용된 당사국 재료 중 최고의 가격의 재료 원산지를 해당 수출물품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재수출에 대한 부문도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유럽권 협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다국간 유사누적 적용시 재료・공정누적을 최종적으로 증빙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는 조항이다.[79]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79) 일본-스위스 FTA 등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음

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누적 명시

한-미 FTA의 누적조항은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원산지 규정)의 제6.5조에, 한-호주 FTA는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원산지규정)의 제3.5조에, 한-뉴질랜드 FTA와 한-콜롬비아 FTA는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원산지규정)의 제3.6조에 수록되어 있다.

누적조항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항에서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incorporated into), 즉 재료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최종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그 생산과정상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여기서 "생산"의 범위는 실제 협정문에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으로 명확하게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동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완전누적 즉,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원산지 재료의 누적은 물론 부가가치, 공정 누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타 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문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완전누적 조항의 도입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TPP의 누적조항을 살펴보자.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도 한-미 FTA 누적조항 제2항과 동일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80]. 더해서 TPP는 제3항에 "비원산지

80) 다만, TPP는 다국간 협정이기 때문에, one or both of the Parties를 one or more of the Parties로 표기하고 있다.

<표 3-59> 한-미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6.5: ACCUMULATION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one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제6.5조 누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81]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3-60> 한-호주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5: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제3.5조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료로 수행된 부가가치 부문이 원산지 요소로서 기여 가능하다" 는 즉 부가가치의 누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TPP에서 한-미 FTA 누적의 제2항과 동일한 조항을 둔 가운데, 부가가치의 누적을 따로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에 부가가치의 누적은 포함하지 않은 재료누적과 생산누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1) 제6.1조 원산지 상품

<표 3-61> 한-뉴질랜드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6 : Accumulation	제3.6조 누적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2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3-62> 한-콜롬비아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6: ACCUMULATION	제3.6조 누적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재료·공정누적에 있어 최종 상품의 원산지 판정시 누적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중간단계에서 발생한 불충분한 가공·생산의 원산지상품 기여 관련 증빙자료 등 이행상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칠레, 싱가포르, 페루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생산누적 명시
- 완전누적의 개념을 생산의 “누적”이라는 용어로 명시함

<표 3-63> 한-칠레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5: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제4.5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제4.2조[82]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표 3-64> 한-싱가포르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9: ACCUMULATION 1.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제4.9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 누적조항은 제4장 원산지 규정의 제4.5조에, 한-싱가포르 FTA는 제4장 원산지 규칙의 제4.9조에, 한-페루 FTA는 제3장 원산지 규정의 제3.6

82) 제4.2조 원산지상품

조에 수록되어 있다. 누적조항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incorporated to good), 즉 재료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표 3-65> 한-페루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6: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Production carried out by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a Party may be accumulated with the production of one or more producer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or the other Party, in such way that the production of the materials incorporated into the good shall be considered as carried out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제3.6조 누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다(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해석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누적의 범위가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으로 명확하게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미 FTA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이다” 로 누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한-미 FTA 등은 TPP등 타 협정과 비교하여 생산누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경우 “생산을 누적할 수 있다” 고 명시했기 때문에,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WCO

에서는 해당 협정을 '양자+완전' 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류된 모든 협정은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또는 유사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부가가치의 경우 협정문에 근거하여 완전누적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다. 협정문 상 A(칠레)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중간 투입재가,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료일 경우, A국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B국의 최종재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할 때 누적이 가능하다. 단, 부가가치 계산시 역내에서 발생된 모든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즉 총가치 중 비원산지재료만을 제외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완전누적이 입증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이에 협정문 상에서는 완전누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문상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TPP 등에서 통용되는 완전누적의 개념까지 포괄할 경우, 실제 이행상에서는 원산지 증명과 검증과 관련한 제도(예를 들면, EU의 공급자신고서 등)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한-칠레 등 FTA 관련한 부문이 협정문에서 제도적으로 동반하고 있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실적으로는 동 조항의 문구가 함의하고 있는 모든 범위의 누적의 실질적 이행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한-칠레 FTA 등에서 명시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한 영역내 누적, 즉 완전누적은 협정문 상으로 그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번, 공정, 부가가치 모두 이행상에서 행정적 증빙이 가능한가가 해당 조항의 활용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바. 기타 : 캐나다

- 체약국간 원산지 상품을 서로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누적 명시
- 교차 누적 가능 명시

<표 3-66> 한-캐나다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7: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the territory of either Parties.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erritory one or both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is, at the choice of exporter or producer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if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 undergo sufficient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3,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제3.7조 누적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한-캐나다 FTA 누적조항은 제3장 원산지 규정의 제3.7조에 수록되어 있다.

누적조항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재료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의 내용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그 생산과정상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erritory one or both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해당 내용은 한-미 FTA와 동

일하게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의 생산이 양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비원산지재료에 의한 “상품의 생산”, 즉 생산누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한-캐나다 FTA의 경우 제3항을 통해 교차누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이 가능함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일방 당사자의 영역 내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4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 1. 해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
> 2. 미합중국의 영역이 동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동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 하에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캐나다 FTA에서 제8701호부터 제8706호의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때, 해당 물품 생산시 미국산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4류를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①미국으로부터 한국 또는 캐나다로 수입될 것, 그리고 ②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83]

사. 소결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문을 중심으로 누적조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의 <표 3-67>로 요약된다.

83) 이때 교자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캐나다 간 거래에 있어서도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NA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상이하므로 협정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재료누적만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인도, 한-중, 한-ASEAN, 한-베트남, 한-EU, 한-터키, 한-EFTA FTA 등 아시아권과 유럽권이다.

아시아권인 한-인도, 한-중, 한-베트남 FTA의 경우 재료누적만 허용할 때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는 'incorporated' 또는 'used'이다. 또한 유럽권인 한-EU FTA, 한-터키 FTA, 한-EFTA FTA의 경우 재료누적만을 허용하되, 불충분공정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여러 국가로 구성된 ASEAN, EFTA, EU의 경우 체약당사국의 범위에 따라 누적의 내용과 범위가 상이해 짐을 유의해야 한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이 ASEAN과 EFTA는 각 회원국이고, EU는 EU이기 때문에, EU내에서 재료 및 생산단계누적이 가능하나, ASEAN과 EFTA는 재료누적만 가능하며, 이때 원산지증빙이 수반 되어야 한다. 또한 ASEAN의 경우 PSR을 통해, 다국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표 3-67> 우리나라 체결 FTA의 협정문상 누적 문구

FTA	협정문	해석	형태
인도, 중국	incorporated in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재료
ASEAN, 베트남	is used in	최종재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EU, 터키, EFTA	incorporating materials	원산지 재료를 결합하여 획득된 경우	
칠레, 싱가포르, 페루	incorporated to good &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 누적	재료 &생산(공정) &부가가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캐나다	incorporated into &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 & 양당사국의 영역 생산	재료& 생산(공정)
캐나다	The Parties may agree to (중략)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	교차

둘째, 재료누적과 양 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문을 명시하고 있는 협정은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등이다. 협정문상 생산단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 따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원산지결정기준상 공정누적이 가능하다는 제한적 범위에서 해석되고 있다.

재료누적과 관련해서는 “incorporated into”를 통해 원산지 상품에 결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의 누적의 경우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를 통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여러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례로 섬유와 같이 생산과정·단계의 누적이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재료누적과 양 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생산 투입요소 누적’이 가능하다는 완전누적을 명시하고 있는 협정은 한-칠레, 한-호주, 한-페루 FTA이다. 협정문상 누적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 따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나, WCO(2015) 등에서는 한-칠레 FTA 등을 완전누적으로 규정하며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 모든 일련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요소들의 누적이 가능하며, 원산지 판정시 고려할 수 있는 부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료누적과 관련해서는 “incorporated to good”를 통해 원산지 상품에 결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생산누적과 완전누적은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를 통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여러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바를 누적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완전누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교차누적의 경우 한-캐나다 FTA에서 일부 자동차 물품에 양국이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미국산 물품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한-미-캐간 공통된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누적을 활용하려면 캐나다-미, 한-미 간 교역품일지라도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3. RCEP 상호간 旣체결 FTA

가. ASEAN-일본[84], 중-뉴질랜드[85], 중국-호주[86], 일본-베트남[87] FTA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MONG JAPAN AND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당사국은 ASEAN 회원국과 일본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N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누적 조항은 1개 조항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어느 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는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그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로 간주" 하는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뉴질랜드 역시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4 RULES OF ORIGIN AND OPERATIONAL PROCEDURES에 누적 조항을 1개조로 구성하고 있다.

두 협정의 누적조항은 동일하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될 때, 그 상품 또는 그렇게 결합된 재료는 최종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로 공통적으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호주 역시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에 누적 조항을 1개조로 구성하고 있다.

---

84)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asean/agreement.pdf
85) https://www.mfat.govt.nz/assets/_securedfiles/FTAs-agreements-in-force/China-FTA/NZ-China FTA-Agreement-text.pdf
86) http://dfat.gov.au/trade/agreements/chafta/official-documents/Documents/chafta-chapter-3-rules-of-origin-and-implementation-procedures.pdf
87)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vietnam/epa0812/agreement.pdf

<표 3-68> 일본-ASEAN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9 Accumulation Originating materials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an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materials of that Party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good has taken place.	**제29조 누적**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어느 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는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그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

<표 3-69> 중-뉴질랜드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3 Accumulation Where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the goods or materials so incorporated shall be regarded to be originating in the latter's territory	**제23조 누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한 상품에 결합될 때, 그 상품 또는 그렇게 결합된 재료는 최종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표 3-70> 중-호주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6: CUMULATION Originating material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 fthe other Party.	제3.6조 누적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표 3-71> 일본-베트남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9 Accumulation Originating materials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materials of that other Party.	제29조 누적 일방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상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두 협정의 누적조항은 동일하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로 공통적으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베트남 FTA 역시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3 RULES OF ORIGIN 에 누적 조항을 1개조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일방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상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로 공통적으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나. 태국-호주[88], 태국-뉴질랜드[89] FTA

- 누적조항이 아닌 원산지 상품 조항에 관련 사항을 명시 -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호주-태국 FTA 역시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4 RULES OF ORIGIN에 누적조항을 따로 1개조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제402조 원산지 상품 부문에 누적조항을 한 개의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특정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로 공통적으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태국-뉴질랜드 FTA 역시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4 RULES OF ORIGIN에 누적조항을 따로 1개조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제4.2조 원산지 상품 부문에 누적조항을 한 개의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특정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로 공통적으로 재료누적만을 허용

88) http://dfat.gov.au/trade/agreements/tafta/fta-text-and-implementation/Documents/aus-thai_FTA_text.pdf

89) http://www.thaifta.com/english/eng_nz.html_text.pdf
https://www.mfat.govt.nz/assets/_securedfiles/FTAs-agreements-in-force/Thailand-FTA/thainzcep-agreement.pdf

하고 있다.

<표 3-72> 호주-태국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02 Originating Goods 2.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particular good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제402조 원산지 상품 2.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특정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한-싱 유사)

<표 3-73> 태국-뉴질랜드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4.2 Originating Goods 2.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particular good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 which the production is performed.	제4.2조 원산지 상품 2.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특정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생산이 수행된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한-싱 유사)

다. ASEAN-호-뉴[90] 뉴질랜드-말레이시아[91], 일본[92]-인도[93], 인도-싱가포르[94]FTA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ASEAN-호주-뉴질랜드 FTA는 CHAPTER 3 RULES OF ORIGIN 에 누적 조항을 1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90)https://www.mfat.govt.nz/assets/_securedfiles/FTAs-agreements-in-force/AANZFTA-ASEAN/Agreement-Establishing-the-ASEAN-Australia-New-Zealand-Free-Trade-Area-1.pdf
91) https://www.mfat.govt.nz/assets/_securedfiles/FTAs-agreements-in-force/Malaysia/mnzfta-text-of-agreement.pdf
92)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index.html
93)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india/epa201102/pdfs/ijcepa_ba_e.pdf
94)https://www.iesingapore.gov.sg/~/media/IE%20Singapore/Files/FTA/Existing%20FTA/CECA%20India/Legal%20Text/India20CECA20FTA20Legal20Text.pdf
https://www.iesingapore.gov.sg/~/media/IE%20Singapore/Files/FTA/Existing%20FTA/CECA%20India/Legal%20Text/Chapter%203/Chapter2032020Rules20of20Origin.pdf

누적의 주요 내용은 “제2조(원산지 상품)의 목적상, 그 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으로 또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 재료로서 다른 당사국에서 사용된 상품은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최종재의 작업과 공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문구가 뉴질랜드-말레이시아 등 뉴질랜드가 체결한 FTA의 누적조항과 동일하다.

<표 3-74> 호-뉴-ASEAN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6 Cumulative Rules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 (Originating Goods), a good which complies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therein and which **is used in another Party**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제6조 원산지의 누적 규칙** 제2조(원산지 상품)의 목적상, 그 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으로 또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 재료로서 다른 당사국에서 사용된 상품은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최종재의 작업과 공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누적조항은 CHAPTER 3: RULES OF ORIGIN에 1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조항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기준)의 목적상, 그 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으로 또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 재료로서 다른 당사국에서 사용된 상품은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최종재의 작업과 공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로 ASEAN권 국가의 특징인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인도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누적 조항을 1개 조항에 단일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충분공정 이상이 최종 생산국에서 이루어 질 경우에 한한 것으로, 한-EU FA 와 마찬가지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표 3-75>뉴질랜드-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5 Cumulative Rule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2 (Origin Criteria), a good which complies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therein and which **is used in t**he other Party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제3.5조 원산지의 누적 규칙** 제3.2조(원산지 기준)의 목적상, 그 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으로 또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 재료로서 다른 당사국에서 사용된 상품은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최종재의 작업과 공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표 3-76> 일본-인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1 Accumulation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er Party may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of the former Party, provided that such good has undergone its last production process in the former Party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33.	**제31조 누적** 상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자의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제33조[95]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 앞의 당사국에서 최종 생산 가공이 수행될 경우에 한한다.

<표 3-77> 인도-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9: ACCUMULATION 1. A product manufactured in one Party and u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as a material for the finished product shall be considered as a produc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provided that it: (a) complies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s 3.3 or 3.4;and (b) fulfils the criteria in Article 3.6.2. The origin of the finished product would be determined under Article 3.4.	제3.9조 누적 1. 상품이 한 당사국에서 제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제품의 재료로서 사용된 경우, 그 상품은 최종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한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a)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b) 제3.6조 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다.

95) Article 33 Non-Qualifying Operations

라. ASEAN-중국[96], 인도-말레이시아[97] FTA

-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 부가가치 누적 및 부가가치누적의 범위·수준 명시

중국-ASEAN FTA는 1:N 협정으로 ANNEX 3(RULES OF ORIGIN FOR THECHINA-ASEAN FREE TRADE AREA)에 누적조항을 1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당사국은 Rule 1: Definitions의 (a)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98] ASEAN 10개각국과 중국으로 1:N의 형식이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따르면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상 특혜조치가 가능한 완성품의 재료로서 사용된 제품은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ASEAN-인도 FTA의 누적조항과도 동일한 문구이다.

그러나, 중국-ASEAN FTA의 경우 다음의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ASEAN-인도 FTA와 구분된다. 중국-ASEAN FTA 누적조항에는 "단, 최종생산품에 총 ACFTA 부가가치요소(즉, 완전누적, 모든 당사국간에 적용가능한)가 적어도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 중국과 ASEAN의 누적된 부가가치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ASEAN FTA에서 full cumulation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누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

96) http://fta.mofcom.gov.cn/dongmeng/annex/xieyi2004en.pdf
97)http://fta.miti.gov.my/miti-fta/resources/Malaysia-India/MICECA.pdf
98) Rule 1: Definitions
(a) "a Party" means the individual parties to the Agreement i.e.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Malaysia,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표 3-78> 중-ASEAN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Rule 5: Cumulative Rule of Origi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Rule 2 and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product has taken place **provided that the aggregate ACFTA content(i.e. full cumulation, applicable among all Parties) on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제5조 원산지 누적 규칙**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따르면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상 특혜조치가 가능한 완성품의 재료로서 사용된 제품은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단, 최종 생산품에 총 ACFTA 부가가치요소(즉, 완전누적, 모든 당사국간에 적용 가능한)가 적어도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표 3-79> 인도-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5 Cumulative Rule of Origi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goods which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3.2 (Origin Criteria) and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s has taken place.	제3.5조 원산지 누적의 규칙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3.2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따르면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상 특혜조치가 가능한 완성품의 재료로서 사용된 제품은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마. ASEAN-인도[99], 일본-호주[100] FTA

-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ASEAN-인도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Annex 2(RULES OF ORIGIN FOR THE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에 누적 조항을 1개 조항으로

99) http://commerce.gov.in/trade/asean-india%20trade%20in%20goods%20agreement.pdf
100) http://www.mofa.go.jp/files/000044322.pdf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2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따르면서, 어느 한 당사국에서 협정문 하 특혜조치 자격이 있는 제품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작업과 가공이 처리된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간주된다.” 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표 3-80> ASEAN-인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RULE 5 Cumulative Rule of Origi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Rule 2 and which are used in a Party as materials for a product which is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originating in that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product has taken place.	**제5조 원산지 누적 규칙**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2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따르면서, 어느 한 당사국에서 협정문 하 특혜조치 자격이 있는 제품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작업과 가공이 처리된 그 당사국의 원산지 제품으로서 간주된다.

<표 3-81> 일본-호주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6 Accumulation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er Party may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material of the former Party.	제3.6조 누적 상품을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자의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바. 일본-말레이시아[101], 일본-인도네시아[102], 일본-브루나이[103], 일본-필리핀[104] FTA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 부가가치 제한 규정

101)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malaysia/epa/content.pdf
102)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indonesia/epa0708/agreement.pdf
103)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brunei/epa0706/agreement.pdf
104)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hilippine/epa0609/main.pdf

일본-말레이시아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누적 조항은 1개 조항에 2개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제1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인도 FTA의 누적조항과도 동일하다. 다만, 일-인도 FTA의 경우 충분공정 이상이 최종 생산국에서 이루어 질 경우로,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말레이시아 FTA에서는 이러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를 계산할 경우 누적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Japan-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제30조에 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은 위에서 서술한 일본-말레이시아 FTA와 동일하다.

<표 3-82> 일본-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9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Country,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Countr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Country may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of the former Country. 2.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qualifying value content of a good under subparagraph 4(b) of Article 28[105] in determining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Country, the value of a non-originating material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untry and to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y be limited to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 provided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that Country under subparagraph 1(c) of Article 28.[106]	**제29조 누적** 1. 상품을 한 국가(Conuntry)의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 전자의 국가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2. 제28호 4(b) 하에서 상품의 부가가치 자격을 주는 계산을 목적으로, 상품이 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다른쪽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 1(c) 하에서 국가의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상품에 한한다.

<표 3-83> 일본-인도네시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0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er Party may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of the former Party. 2.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qualifying value content of a good under subparagraph 4(b) of Article 29 in determining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the value of a non-originating material produced in either Party and to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y be limited to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 provided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that Party under subparagraph 1(c) of Article 29.	**제30조 누적** 1. 상품을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자의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2. 제29호 4(b) 하에서 상품의 부가가치 자격을 주는 계산을 목적으로, 상품이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1(c) 하에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상품에 한한다.

<표 3-84> 일본-브루나이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er Party may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of the former Party. 2.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qualifying value content of a good under	1. 상품을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자의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2. 제24조 4(b) 하에서 상품의 부가가치 자격을 주는 계산을 목적으로, 상품이 한 국가

105) 부가가치기준

106) Article 28 Originating Good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 good shall qualify as an originating good of a Country where:

(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of the Country; or

(c) the good satisfies the product specific rules set out in Annex 2, as well a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when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using non-originating materials.

subparagraph 4(b) of Article 24 in determining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the value of a non-originating material produced in either Party and to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y be limited to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 provided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that Party under subparagraph 1(c) ofArticle 24.	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다른쪽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 1(c) 하에서 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상품에 한한다.

<표 3-85> 일본-필리핀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0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er Party may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of the former Party. 2.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qualifying value content of a good under subparagraph 4(b) of Article 29 in determining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the value of a non-originating material produced in either Party and to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y be limited to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 provided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that Party under subparagraph 1(c) ofArticle 29.	제30조 누적 1. 상품을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자의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전자의 당사국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 2. 제29조 4(b) 하에서 상품의 부가가치 자격을 주는 계산을 목적으로, 상품이 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다른쪽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1(c) 하에서 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상품에 한한다.

사. 일본-싱가포르 FTA[107]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누적 명시

107)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ingapore/jsepa-1.pdf

일본-싱가포르 FTA 누적조항은 CHAPTER 3 RULES OF ORIGIN의 제27조로, 2개 항으로 구성된다.

<표 3-86> 일본-싱가포르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7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either shall consider the production in its territory as tha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of one or both Parties. 2. The Production of a Party includes the production at different stage undertaken by one or more producers located in its territory	**제27조 누적** 1. 다른쪽 당사국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들 또는 그 영역에서 생산될 때,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일지라도 어느 쪽도 그것을 생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의 생산은 그것의 영역에 위치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다른 단계의 생산을 포함한다.

제1항은 "양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양국의 원산지로 간주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원산지 판정시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제2항에서는 "한쪽 당사국의 생산은 그것의 영역에 위치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다른 단계의 생산을 포함한다"로 직접 누적을 언급하는 조항은 없으나, "포함(include)"이라는 단어로서 누적에 해당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즉 최종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그 생산과정상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아. 호주-싱가포르[108], 호주-말레이시아 FTA[109]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 명시
-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누적 명시
- 부가가치 누적 대한 TPP식 완전누적 언급

108)http://dfat.gov.au/trade/agreements/safta/Documents/agreement-to-amend-the-singapore-australia-free-trade-agreement.pdf
109)http://dfat.gov.au/trade/agreements/mafta/pages/malaysia-australia-fta.aspx
http://dfat.gov.au/trade/agreements/mafta/Pages/malaysia-australia-free-trade-agreement.aspx#chap_3

호주-싱가포르 FTA에서의 누적관련 규정은 0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의 Section A: Rules of Origin 제9조에 의한다.

첫 번째 조항은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 타방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될 경우 타방의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서 간주할 수 있다”로 재료누적을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조항은 이외에 기존의 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재료 누적과 공정누적에 의거하여 표현되었던 기존의 협정과는 달리 부가가치 누적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문구로서, 통상 “완전누적”으로 칭해지고 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undertaken) 생산품이, 그 상품이 재료 그 자체로부터 원산지 지위 획득을 부여받기에 충분한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의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요소(부가가치)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역외산인 투입 원재료가 역내에서 가공된 경우,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해서 계산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더라도 최종재의 원산지 판정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쪼개어 합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 TPP에서 완전누적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해당 문구이다.

호주-말레이시아 FTA에서의 누적관련 규정은 Chapter 3: Rules of Origin의 제3.4조에 의한다. 내용은 앞서 언급한 호주-싱가포르 FTA와 동일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3-87> 호주-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9 Accumulation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 of one of the Parties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제9조 누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나머지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다른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2.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undertaken) 생산품이, 그 상품이 재료 그 자체로부터 원산지 지위 획득을 부여받기에 충분한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의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요소(부가가치)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 3-88> 호주-말레이시아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4 Cumulation 1. A good which is to be treated as originating pursuant to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and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or good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Party. 2. Production that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count as qualifying content in the origin determination of a good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on the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제3.4조 누적 1.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원산지로 취급되고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 또는 상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상품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한쪽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은 그 생산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된 재료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원산지 결정적격 한 요소로 간주된다.

자. 기타 : 뉴질랜드-싱가포르[111], 호주-뉴질랜드 FTA[112]

<표 3-89> 뉴질랜드-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2 Originating materials (including inner containers) and qualifying expenditur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5(1)(b)(ii)(A), originating materials and the qualifying expenditure thereof shall be: materials being “wholly produced or obtained” as defined by Section 1 of these Notes; and	2. 원산지 재료(내부 용기 포함) 및 qualifying expenditure 제5조 (1)(b)(ii)(A)[110]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 재료와 그 지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주의 제1부에 정의된 대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 된" 재료; 그러한 자료가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고 일방 당

where those materials do not leave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and are incorporated into a final product for export from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qualifying expenditure shall be treated as wholly of Singapore or New Zealand origin;	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최종 제품에 통합되는 경우, qualifying expenditure은 싱가포르 또는 뉴질랜드 원산지로만 취급된다.

<표 3-90> 호주-뉴질랜드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 Rules of origin	제3조 원산지 규정
1. Goods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directl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Member State or which, if not exported directly, were at the time of their export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Member State and were subsequentl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at other Member State, shall be treated as good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Member State if those goods are:	1.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직접 수출되거나, 직접 수출되지 않는 상품이 다른 회원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며,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출될 당시 연속적으로 그 다른 회원국이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만약 그 상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제1국 회원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a) wholly the unmanufactured raw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a) 회원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원재료
(b) wholly manufactured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fro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 회원국 영토 내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서 완전히 제조된 것.
(i) unmanufactured raw products;	(i) 비 가공 원재료;
(ii) materials wholly manufactu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Member States;	(ii) 회원국 중 하나 또는 양 영역에서 전적으로 제조 된 물질;
(iii) materials imported from outside the Area that the other Member State has determ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o be manufactured raw materials; or	(iii) 다른 회원국이 이 협정의 목적 상 원자재를 제조를 위해 그 지역 밖에서 수입한 물질; 또는
(c) partly manufactured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c) 다음 조건에 따라 해당 회원국 영역 내에서 부분적으로 제조된 것 :
(i) the process last performed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was performed	(i)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수행 된 공정처리가 그 회원국의 영토

110) A) materials, including inner containers, that originate in one or both Parties; or

111) https://www.iesingapore.gov.sg/~/media/IE%20Singapore/Files/FTA/Non%20Priority%20FTAs/New%20Zealand%20ANZSCEP/Legal%20Text/Chapter%203/Annex20120Rules20of20Origin.pdf

112) http://dfat.gov.au/trade/agreements/anzcerta/pages/australia-new-zealand-closer-economic-relations-trade-agreement.aspx
http://dfat.gov.au/trade/agreements/anzcerta/Documents/anzcerta1.pdf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and (ii) the expenditure on one or more of the items set out below is not less than one half of the factory or works cost of such goods in their finished state: A. material that originate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Member States; B. labour and factory overheads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Member States; C. inner containers that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Member States.	내에서 수행 된 경우; 그리고 (ii) 아래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지출이 완제품 상태의 완제품의 제조 또는 작업 원가의 절반보다 작지 않은 경우 : A. 회원국 중 하나 또는 양자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B. 회원국 중 한 곳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동 및 공장 간접비 C. 한쪽 또는 양쪽 회원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내부 용기.

4. 기타 FTA

가. 일본

(1) 일본-멕시코 FTA[113)]

일본-멕시코 FTA 누적조항은 Chapter 4 Rules of Origin의 제27조로 1개 단일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한-칠레 FTA의 누적조항 제2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생산을 누적할 수 있음” 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 누적 조항 제1항에 언급된 “상품에 포함되는 재료를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는 부문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제1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2항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멕시코 FTA의 누적조항은 칠-멕 FTA 누적조항 제2항에 언급된 역내부가가치는 순원가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생략되어 있다.

누적조항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일본-멕시코 FTA와 한-칠레 FTA는 거의 유사하며, 해당 FTA를 혼합(양자-완전)이 아닌 완전누적으로 분류한 사유에 대해

113) http://www.mofa.go.jp/region/latin/mexico/agreement/

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표 3-91> 일본-멕시코 FTA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7 Accumulation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a producer of the good **may accumulate hi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of **one or more producers** in the Area of **one or both Partie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 in a manner that the production of the materials is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are satisfied.	**제27조 누적**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제22조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그 생산을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일본-스위스 FTA[114)]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 부가가치 제한 규정 - 재수출 및 수출국 비가공 물품 등 원산지자격 명시

일본-스위스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Annex II[115)]에 누적 조항을 1개 조항에 2개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제1항에서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시 재료로 사용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일본-말레이 FTA, 일본-인도 FTA와도 동일하다.

제2항은 한-EFTA FTA의 누적조항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수출 및 최소공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의 원산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EFTA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누적 문구이다.

114) http://www.mofa.go.jp/region/europe/switzerland/epa0902/annex2.pdf
115) Annex II Referred to in Chapter 2 Rules of origin

<표 3-92> 일본-스위스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V Accumulation of Origin 1. Notwithstanding Article II of this Annex, an originating product of a Party **which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a product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product of that other Party. 2. Originating products of a Party which are exported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one Party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retain qualification as originating products if: (a) such originating products are exported in the same condition as they were when they were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or (b) such originating products have not undergone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rking or processing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VII of this Annex.	**제5조 원산지의 누적** 1. 이 부속서의 2조에도 불구하고,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시 재료로 사용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출된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a) 그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영역 안에서 수입되었을 때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수출되었을 경우 또는 (b) 그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영역 안에서 이 부속서 7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나. 중국

(1) 중국-스위스 FTA[116)]

-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 재수출 및 수출국 비가공 물품 등 원산지자격 명시

중국-스위스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3(RULES OF ORIGI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에 누적 조항을 1개조, 2개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1항에서는 “제3.2조를 침해하지 않고, 한쪽 당사국을

116) http://www.ezv.admin.ch/pdf_linker.php?doc=D30_5_1_cn&lang=en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된 경우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어느 한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될 경우 그리고 제3.6조 1항에 언급된 것을 넘어선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로 한-EFTA FTA에서 규정한 재수출물품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한-EFTA FTA 누적 조항에는 재수출 및 최소공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의 원산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EFTA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누적 문구이다.

<표 3-93> 중국-스위스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7 Accumulation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3.2, a product originating in a Party, **which is used as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a product in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Party where the last operations beyond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1 of Article 3.6 have been carried out. 2. A product originating in a Party, which is exported from a Party to the other Party and does not undergo working or processing beyond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1 of Article 3.6, shall retain its origin.	**제3.7조 누적** 1. 제3.2조를 침해하지 않고,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쪽 당사국의 제품의 생산에 재료로서 사용된 경우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단, 제3.6조의 1항에 규정된 넘어선 최종공정이 수행될 때에 한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어느 한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될 경우 그리고 제3.6조 1항에 언급된 것을 넘어선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2) 중국-아이슬랜드 FTA[117]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중국-아이슬랜드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3: Rules of Origin에 누적 조항을 1개조로 구성하고 있다.

117) https://www.mfa.is/media/fta-kina/Iceland-China.pdf

<표 3-94> 중-아이슬랜드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26 Accumulation Where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her Party, the goods or materials so incorporated shall be regarded to be originating in the latter Party.	제**26조 누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될 때, 그 상품 또는 그렇게 결합된 재료는 최종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될 때, 그 상품 또는 그렇게 결합된 재료는 최종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로 공통적으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 ASEAN

(1) 미-싱가포르 FTA[118)]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 공통적으로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
-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이 체약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인정하는 공정누적을 규정

미-싱가포르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3 : RULES OF ORIGIN에 누적 조항을 1개 조, 2개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1항에서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싱가포르 FTA 누적조항과 동일한 조문이다.[119)]

제2항에서는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때,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로 여러 생산자에 의해 생산이

118)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singapore/asset_upload_file708_4036.pdf
119) 한-싱가포르 FTA는 used 대신 incorporated 용어로 표현함

가능한 바, 생산(재료·공정)이 누적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가 맺은 FTA와 대비시켜 보면, 한-싱가포르 FTA와 내용상 유사하나, "누적"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누적이라 하겠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제1항에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incorporated to good), 그리고 생산 시 누적할 수 있다(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는 규정에 의해 재료와 생산(공정), 부가가치까지 누적이 가능하다. 한편 한-미 FTA의 경우 위의 조항과 거의 유사하다.

<표 3-95> 미국-싱가포르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3.4 : ACCUMULATION 1.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when it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제3.4조 누적**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때,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수입된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호주

(1) 미-호주 FTA[120]

-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로서 간주한다는 재료누적을 명시함
- 공통적으로 생산이 양당사국 내 여러 생산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
-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이 체약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인정하는 공정누적을 규정

12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australia/asset_upload_file148_5168.pdf

<표 3-96> 미국-호주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RTICLE 5.3 : ACCUMULATION 1.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when **it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5.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or Chapter 4.	**제5.3조 누적**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때,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5.1조에 따라 수입된 요건과 **이 장 또는 제4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호주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CHAPTER FIVE RULES OF ORIGIN에 누적 조항을 1개 조, 2개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누적의 주요 내용은 1항에서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경우, 그 재료는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로 재료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싱가포르 FTA 누적조항과 동일한 조문이다.[121]

제2항에서는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때,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로 여러 생산자에 의해 생산이 가능한 바, 생산(재료・공정)이 누적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가 맺은 FTA와 대비시켜 보면, 한-싱가포르 FTA와 내용상 유사하나, "누적" 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누적이라 하겠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제1항에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되는 경우(incorporated to good), 그리고 생산 시 누적할 수 있다(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는 규정에 의해 재료와 생산(공정), 부가가치까지 누적이 가능하다. 한편 한-미 FTA의 경우 위의 조항과 거의 유사하다.

121) 한-싱가포르 FTA는 used 대신 incorporated 용어로 표현함

마. TPP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표 3-97> TPP 누적 근거규정

영 문 본	한 글 본
Atricle 3.10: Accumula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s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제3.10조 누적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122]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3.2조(원산지상품)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어느 한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나머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사용되는[123]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한-미 FTA 원산지규정 1항과 동일함, 재료누적이 가능)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undertaken) 생산품이, 그 상품이 재료 그 자체로부터 원산지 지위 획득을 부여받기에 충분한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의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요소(부가가치)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22) 우리가 맺은 타 협정은 both(당사국)으로 표현.
123) 미국은 incorporated, tpp는 used

TPP에서의 누적관련 규정은 제3.10조에 의한다. 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크게 3부문으로 세분된다.

먼저 첫 번째 조항은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최종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그 생산 과정 상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앞서 한-미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나타난 생산누적 즉, 재료누적과 공정누적 동시 허용하는 문구와 동일하며, 다만 생산영역(territory)의 범위를 양당사국(one or both)에서 다수의 당사국(one or more)로 확대한 것이 차이점이다. TPP가 N:N의 협정으로 FTA 영역에서의 생산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재료 누적은 물론 생산누적이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항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경우(is used ino), 즉 재료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 기존의 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재료 누적과 공정누적에 의거하여 표현되었던 기존의 협정과는 달리 부가가치 누적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문구로서, 통상 “완전누적”으로 칭해지고 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undertaken) 생산품이, 그 상품이 재료 그 자체로부터 원산지 지위 획득을 부여받기에 충분한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의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요소(부가가치)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역외산인 투입 원재료가 역내에서 가공된 경우,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해서 계산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더라도 최종재의 원산지 판정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쪼개어 합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소 결

본절의 내용을 다음의 <표 3-98>로 요약하였다.

<표 3-98> RCEP 참여국 FTA 협정문 상 누적 형태와 구분

FTA	협정문	해석	형태
ASEAN-일본, 중-뉴질랜드, 중-호주, 일-베트남, ASEAN-호주-뉴, 뉴질랜드-말레이, 일본-인도, 인도-싱가포르, ASEAN-인도, 일본-호주	·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are used in a Party as materials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사용)되는 경우	재료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	· 원산지상품 조항 내에 누적조항이 규정됨 · used in the production of particular goods		
ASEAN-중국 인도-말레이	·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 provided that the aggregate ACFTA content(i.e. full cumulation, applicable among all Parties) on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사용)되는 경우 · 최종재 생산국의 부가가치 기준	재료
일본-말레이시아 일본-인도네시아 일본-부르나이 일본-필리핀	·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may be limited to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사용)되는 경우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제한	재료
일본-싱가포르	· the production in its territory as tha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of one or both Parties. · The Production of a Party includes the production at different stage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 · 양당사국의 영역 생산	재료& 생산(공정)
호주-싱가포르 호주-말레이시아	·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 원산지 상품(생산)에 결합 · 완전누적	재료&완전
뉴질랜드-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 원산지상품 조항 내에 누적조항이 규정됨 · Originating materials (including inner containers) and qualifying expenditure	원산지 규정에 규정됨	

제4장 우리나라와 RCEP 참여국간 교역 및 경쟁력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RCEP 참여국간 교역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RCEP 참여국간 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의 4단계로 분류하여 국제분업을 파악한다. 이에 제1절에서는 RCEP 참여국의 전반적인 교역현황을 對세계 교역의 RIETI-TID(Trade Industry Datavase)[124]를 통해 5단계(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소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각국의 교역상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거시 통계 데이터로부터 파악한다. 제2절에서는 Mega FTA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체결 중인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대상 특혜교역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RCEP 참여국간 교역의 요소별 비교우위를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RECP 참여국의 對세계 교역을 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활용 자료와 구분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국가간 무역구조를 상품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해 RIETI-TID(일본경제산업성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는 UN Comtrade의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의 통계를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세 단계 분류 후, 중간재를 가공재와 부품으로, 최종재를 자본재와 소비재로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①식료품 및 관련 농림수산업, ②섬유제품, ③펄프・제지・목재 및 관련 농림수산업, ④화학제품, ⑤석유 석탄제품 및 광업, ⑥요업 토석제품, ⑦철강・비철금속・금속제품 및 광업 ⑧일반기계, ⑨전기기계, ⑩가정용전기기기, ⑪수송기계, ⑫정밀기계, ⑬완구・잡화 등 13개로 정리된 산업

124) 일본경제산업성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을 후술하는 BEC 분류[125]를 토대로 원료, 중간재(가공재,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3가지(또는 5가지) 범주로 재분류 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BEC에서 분류하고 있는 소비재, 가공재, 중간재의 3분류에서 세분하여 소재로 투입되는 원료, 중간재(가공품, 부품) 등으로 재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생산단계별 교역실태 그리고 무역의 특화 우위 등을 파악하는 데 보다 세분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원료(1차 제품)"은 식료품 및 관련 농림수산업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해당 산업 생산단계의 첫 번째 가공단계를 통해 "중간재"로 전환된다. 중간 투입재로 정의 된 1차 상품은 가사 소비를 제외한 공업용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표 4-1>과 같이 생산 단계에 따라 교역품을 구별하는 것이 RIETI-TID그룹화의 주요 목적 때문이다.

"중간재"는 최종 제품의 중간 투입물을 나타내는 무역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1차 상품에서 생산되었지만 아직 최종 상품이 아닌 가공 상품(가공 또는 조립품) 상태이다. 이 카테고리에는 두 가지 하위 범주 인 "가공재" 와 "부품 및 구성 요소" 가 있으며, 각각 BEC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 두 하위 카테고리는 각 하위 카테고리의 상품이 상이한 범위의 제조과정과 생산과정을 겪게되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반영한 것이다.

"최종재" 는 생산자가 중간재로 사용하는 재화 및 가계와 정부가 소비하는 재화로 정의된다. 이 카테고리의 상품은 주 사용처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SNA에서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자본재" 와 "소비재" 이다.[126]

125) UN에서는 품목의 최종 사용목적(main end-use)에 따라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등 3개 범위로 분류하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재를 제외한 소비재와 자본재의 경우 최종재로 간주하여 각국 산업별 교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126) http://www.rieti-tid.com/로

<표 4-1> 무역 산업 분류 표

Industry	Production stage				
	Primary	Intermediate goods		Final goods	
		Processed goods	Parts & Components	Capital goods	Consumption goods
01 Food and relate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		●	●
02 Textile products	●	●	●		●
03 Pulp, paper and wood products (including rubber, leather and oil) and relate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	●		●
04 Chemical products (including plastics)	●	●			●
05 Petroleum and coal products, related mining	●	●			
06 Ceramic and cement products, related mining	●	●			●
07 Iron and steel, nonferrous metal and metal products, related mining	●	●	●	●	●
08 General machinery		●	●	●	●
09 Electrical machinery		●	●	●	
10 Home electronics, appliances		●	●	●	●
11 Transportation equipment	●		●	●	●
12 Precision machinery		●	●	●	●
13 Toys and sundries		●	●	●	●

자료 :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BEC), UN Statistics Division
출처 : RIETI-TID 2015 (RIETI Trade Industry Database

<표 4-2> 생산단계에 의한 무역 품목의 분류 표

Category	Sub-category	BEC code	BEC Title
Primary goods		111	Food and beverages, primary, mainly for industry
		21	Industrial supplies, n.e.s., primary
		31	Fuels and lubricants, primary
Intermediate goods	Processed goods	121	Food and beverages, processed, mainly for industry
		22	Industrial supplies, n.e.s., processed
		32	Fuels and lubricants, processed
	Parts & Components	42	Parts and accessories of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53	Parts and accessories of transport equipment
Final goods	Capital goods	41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521	Other industrial transport equipment
	Consumption goods	112	Food and beverages, primary,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122	Food and beverages, processed,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51	Passenger motor cars
		522	Other non-industrial transport equipment
		61	Durable consumer goods n.e.s.
		62	Semi-durable consumer goods n.e.s.
		63	Non-durable consumer goods n.e.s.

1. This classification table represents the traded goods in BEC categories that are linked to the criteria of 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 and classified by process stage (cf. the research results of CEP II). Since SNA divides the data by user (producer, household, etc.), "capital goods (capital formation)" and "consumption goods (final consumption)" are separated; however, "capital goods" are considered part of "final goods" in this case, based on the idea that international trade is organized by stage of production process.
2. For BEC code 32, 321-motor spirits may be divided into "household consumption" and "use of other industrial transport equipment"; however, this distinction is not made in this case.

자료 :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BEC), UN Statistics Division
출처 : RIETI-TID 2015 (RIETI Trade Industry Database

제2절 RECP 참여국의 對세계 교역 분석[127)]

1. 중국

중국은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1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38.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5.8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원료(1차 제품)와 자본재, 부품과 요소** 등으로 2000년 대비 각각 8.9배, 7.9배, 7.3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소비재로 약 3.4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에서 2015년간 중국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1>와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5.2배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자본재로 2000년 대비 약 8.9배 증가하였다. 이어 증가폭이 컸던 부문은 요소와 부품으로 7.9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전체적인 수출 증가가 한 부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요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원료로 1.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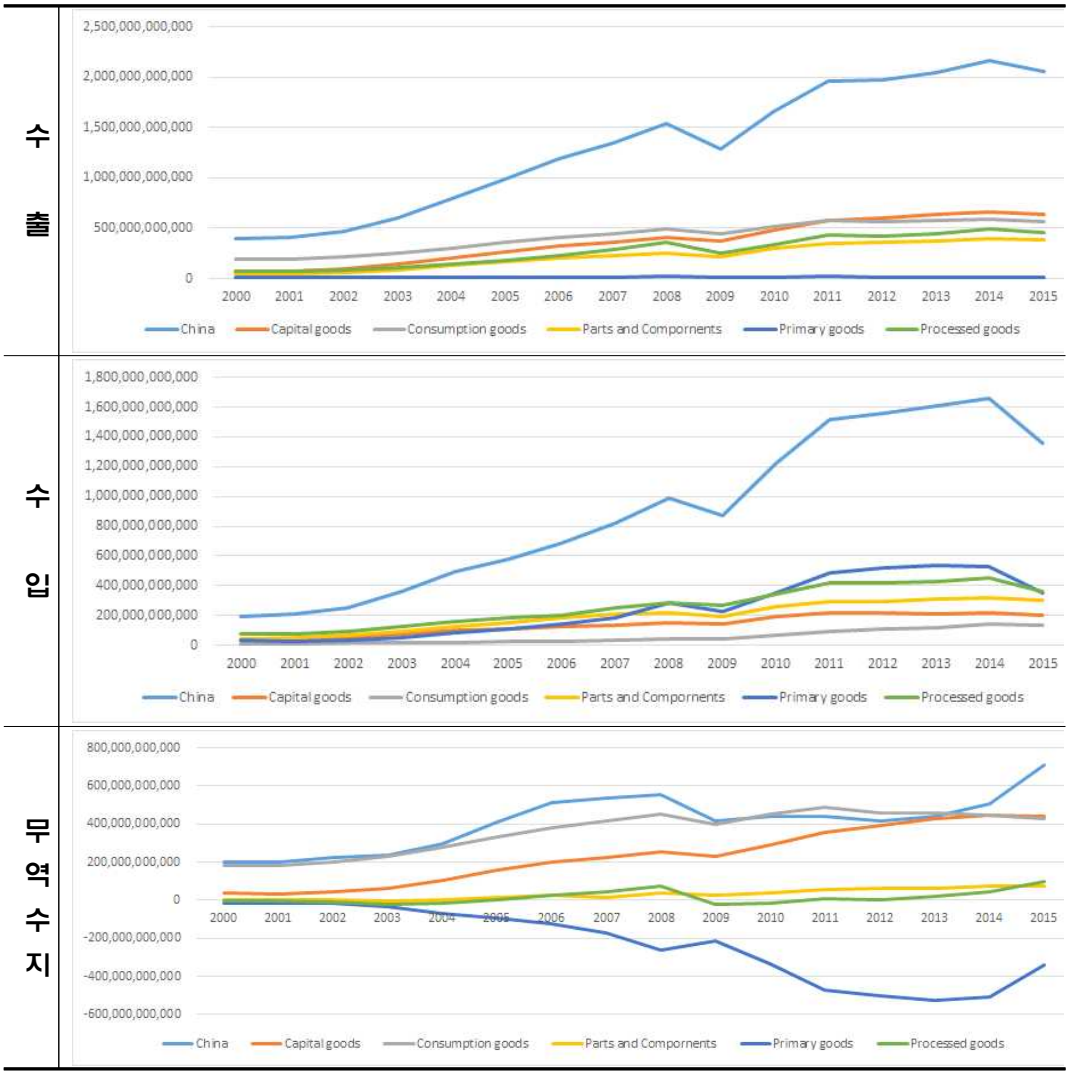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2000년의 경우 소비재(48.8%) > 자본재(18.25%) > 가공재(17.8%) > 부품과 요소(12.2%) > 원료(3.0%) 순으로 수출의 절반가량이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5년의 경우 자본재(31.0%) > 소비재(27.2%) > 가공재(22.5%) > 부품과 요소(18.5%) > 원료(0.8%) 순으로 **2015년 자본재가 소비재를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비재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다소 둔화되고, 자본재의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증가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었다. 주된 전환은 2010년대부터로 이 두 부문의 수출이 역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6.9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와 원료로 각각 13.8배. 11.9배 증가하였다.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

127) 라오스 미얀마는 원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고,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는 RCEP내 무역점유율이 1%이하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1> 중국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가세를 보인 것은 가공재로 4.8배 증가한 것이었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가공재(38.8%) > 부분품과 요소(23.6%) > 자본재(17.5%) > 원료(15.3%) > 소비재(4.8%)로, 가공재의 수입이 1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소비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2015년의 경우 가공재(26.9%) > 원료(26.2%) > 부분품과 요소(22.5%) > 자본재(14.6%) > 소비재(9.7%)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가공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소비재가 가장 적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나, 그 비중 면에서는 가공재는 감소추세를, 소비재는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의 경우 1부문의 품목에 압도적인 수입이 집중되기보다 **가공재, 원료, 부분품과 요소 등 상위 품목이 22~26% 범위 내 유사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도 이전시기의 수입과 변화된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재, 소비재 등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원료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소비재, 자본재를 수출하고 원료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로 요약된다.

2. 일본

일본은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2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14.4%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1.4배 증가하는 등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재와 소비재 등으로 2000년 대비 각각 1.8배, 1.5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자본재로 약 1.2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15년간 일본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2>와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1.3배 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가 크게 발생한 것 원료로 2000년 대비 약 4.4배 증가하였다. 이어 증가폭이 컸던 부문은 가공재로 1.9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료의 비중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림 4-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수출 증가는 가공재와 소비재 부문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자본재로 1.1배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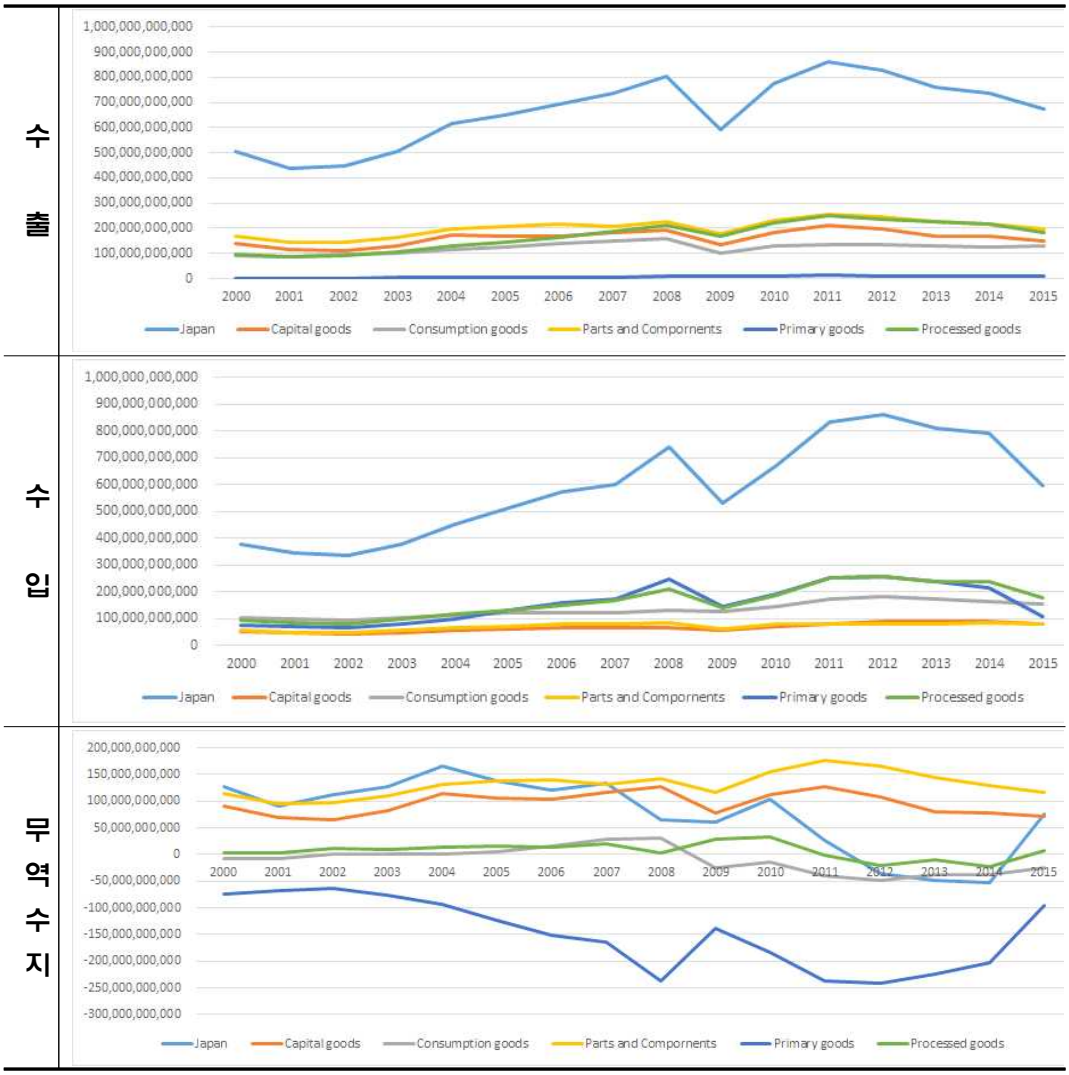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3.7%) > 자본재(27.9%) > 가공재(19.5%) > 소비재(18.5%) > 원료(0.4%) 순으로 **수출의 주요 구성은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29.5%) > 가공재(27.5%) > 자본재(22.3%) > 소비재(19.3%) >** 원료(1.3%)로 자본재와 가공재의 순위가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수출의 품목구성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1.6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재와 자본재로 각각 1.9배, 1.6배 증가하였다.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소비재, 부분품과 요소로 각각 1.5배 증가하였다.

<그림 4-2> 일본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소비재(26.6%) > 가공재(25.3%) > 원료(20.3%) > 부분품과 요소(14.5%) > 자본재(13.3%)로, 소비재와 가공재의 수입이 상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자본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되는데, 가공재(29.7%) > 소비재(25.7%) > 원료(17.6%) > 부분품과 요소(13.6%) > 자본재(13.3%)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소비재와 가공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상위를 점하던 품목 간 순위 역전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무역수지의 경우 2012~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에 기인한 것이다. 원료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그 폭도 확대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일부 회복된 것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를 수출하고 원료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로 요약된다.

3. 한국

한국은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3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10.7%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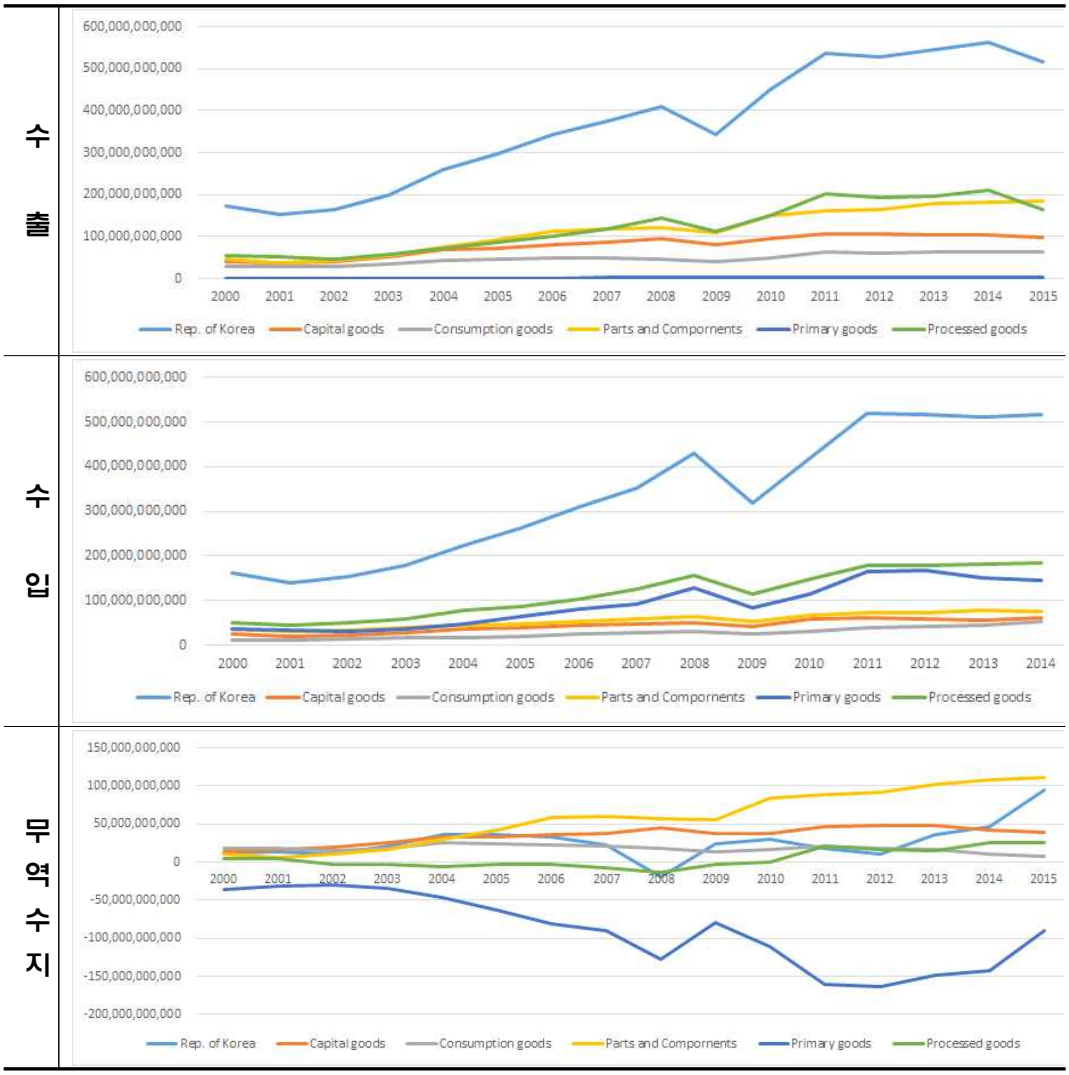
한국은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2.8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RCEP 평균인 3.1배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부분품과 요소, 소비재, 가공재 등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0배, 2.9배, 2.9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자본재로 약 2.8배 증가에 그쳤다. 자본재는 동기간 한국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부문이기도 하다.

2000년부터 2015년간 한국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3>과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가 크게 발생한 것은 부분품과 요소, 원료 등으로 2000년 대비 약

<그림 4-3> 한국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3.9배, 3.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료의 비중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림 4-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수출 증가는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소비재로 2.1배 증가에 그쳤다.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가공재(31.7%) > 부분품과 요소(27.7%) > 자본재(23.0%) > 소비재

(17.2%) > 원료(0.5%) 순으로 **수출의 주요 구성은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6.0%) > 가공재(32.0%) > 자본재(19.3%) > 소비재(12.2%) > 원료(0.5%) 순으로 부분품과 요소와 가공재의 순위가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중간재 위조로 구성되어 있고, 점유율이 전체의 68% 수준으로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수출의 품목구성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 또는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2.6배 증가하였다. 수입 증가가 크게 발생한 것 소비재로 5.1배 증가하였다.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로 각각 2.0배 2.4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가공재(31.1%) > 부분품과 요소(23.4%) > 원료(22.9%) > 자본재(15.8%) > 소비재(6.7%)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의 수입이 상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소비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5년은 가공재(33.0%) > 원료(22.1%) > 부분품과 요소(17.5%) > 자본재(14.3%) > 소비재(13.1%) 순으로 상위는 여전히 가공재가 점하고 있으나**, 소비재의 비중이 기존에 6.7%에서 13.1%로 확대**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에 기인한 것인데, 일본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하겠다. 원료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그 폭도 확대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다소 회복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가공재의 경우 2008년까지는 적자기조였으나 이후부터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분석기간 중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폭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부분품과 요소, 부분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출하고 원료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로 요약된다.

4. 인도

인도는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4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6.9%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무려 금액기준 약 7.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RCEP 평균인 3.1배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큰 폭의 증가가 있었던 것은 자본재, 원료, 부분품과 요소 등으로 2000년 대비 각각 8.9배, 8.7배, 7.6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낮았던 것은 소비재로 약 5.0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15년간 인도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4>과 같다.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5.2배 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자본재, 부분품과 요소 등으로 2000년 대비 약 7.6배, 7.5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원료로 3.5배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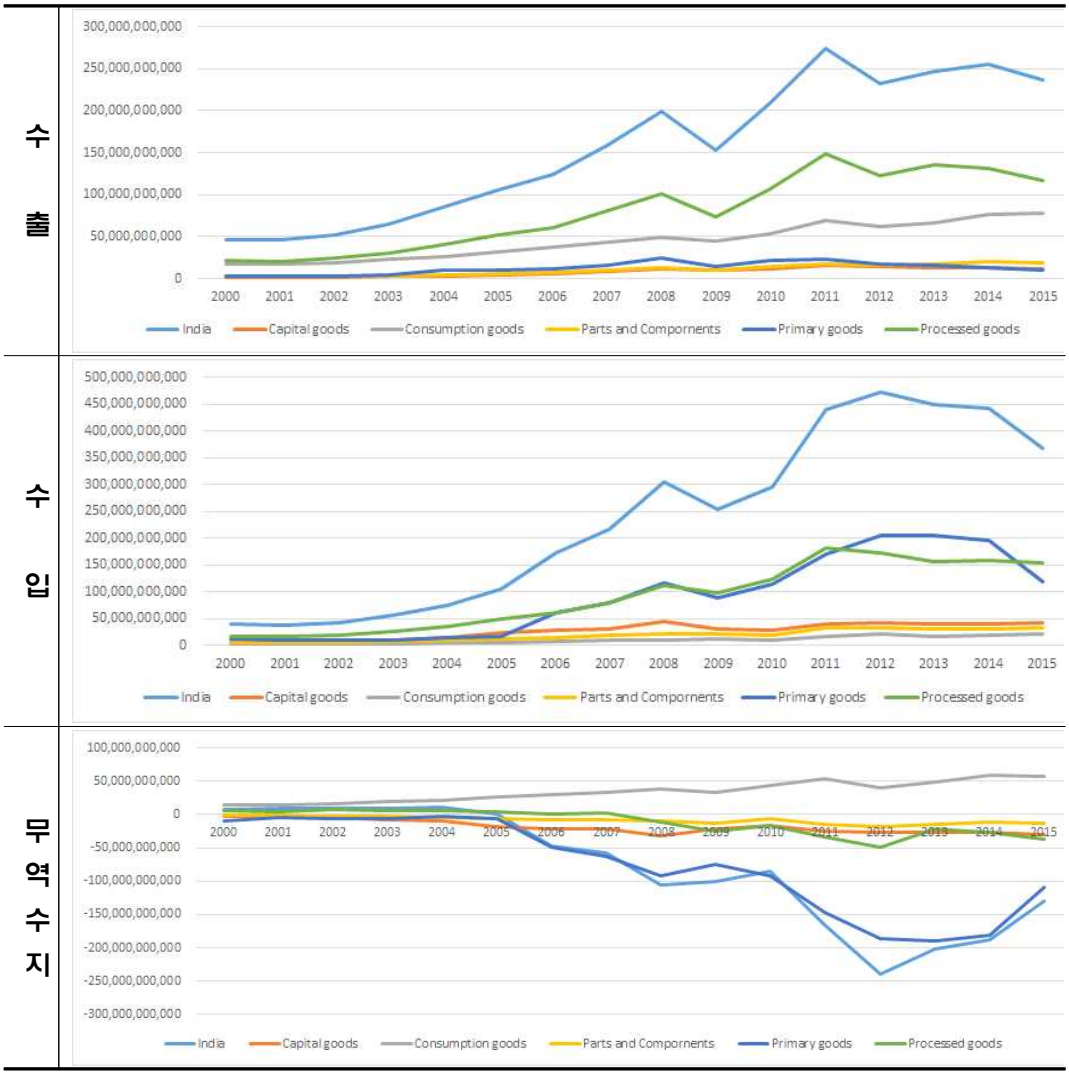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가공재(46.7%) > 소비재(37.7%) > 원료(6.5%) > 부분품과 요소(5.6%) > 자본재(3.5%)순으로 **수출의 주요 구성은 가공재와 소비재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가공재(49.4%) > 소비재(32.9%) > 부분품과 요소(8.1%) > 자본재(5.2%) > 원료(4.5%) 순으로 다만 변동이 있다면 하위에 배치된 부분품과 요소, 원료, 자본재 등의 순위가 역전되었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9.5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원료, 가공재 등으로 각각 10.0배 9.7배 증가하였다. 모든 품목에서 수입의 증가가 시현되었지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분품과 요소, 소비재로 각각 7.6배 8.8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가공재(41.1%) > 원료(30.8%) > 자본재(11.4%) > 부분품과 요소(10.8%) > 소비재(5.8%) 순으로 가공재와 원료의 수입 순위가 상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소비재가 가장 낮은 수준

<그림 4-4>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은 가공재(42.0%) > 원료(32.6%) > 자본재(11.3%) > 부분품과 요소(8.7%) > 소비재(5.4%)순으로 상위는 여전히 가공재가 점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가공재는 수출과 수입 양부문에서 가장 점유가 높은 품목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모든 해에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공재의 경우 2008년 적자로 전환된 뒤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적자의 양상은 원료 부문의 수지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5. ASEAN

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5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5.5%를 싱가포르가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2.0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재로 2000년 대비 3.4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자본재로 약 1.3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에서 2015년간 싱가포르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5>와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2.1배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재**로 2000년 대비 약 3.8배 증가하였다. 이어 증가폭이 컸던 부문은 원료로 2.8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자본재**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8.5%) > 자본재(29.3%) > 가공재(25.0%) > 소비재(6.3%) > 원료(1.0%) 순으로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 가공재가 상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5년의 경우 가공재(44.4%) > 부분품과 요소(30.5%) > 자본재(15.8%) > 소비재(7.9%) > 원료(1.3%) 가공재가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의 비중이 74.9%로 수출증가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었다. 주된 전환은 2005년으로 가공재와 부분품과 요소의 수출순위가 역전되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2.0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그림 4-5> 싱가포르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것은 가공재와 원료로 각각 3.0배, 2.3배 증가하였다.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본재, 부분품과 요소로 각각 1.4배, 1.6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42.2%) > 가공재(20.0%) > 자본재(19.1%) > 소비재(11.3%) > 원료(7.5%)순으로, 부분품과 요소의 수입이 1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원료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2015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4.8%) > 가공재(30.7%) > 자본재(13.7%) > 소비재(11.7%) > 원료(9.0%)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

히 부분품과 요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원료가 가장 적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다. **다만, 가공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가공재의 경우 2011~2014년간에는 그 수입액이 부분품과 요소를 앞서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경우에도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가재가 높은 비중을 점유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지속적으로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수출입에 있어 가공재 부문에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원료 부문의 만성적 적자 무역구조**로 요약된다.

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6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4.7%를 말레이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2.1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로 2000년 대비 3.6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부분품과 요소로 약 1.3배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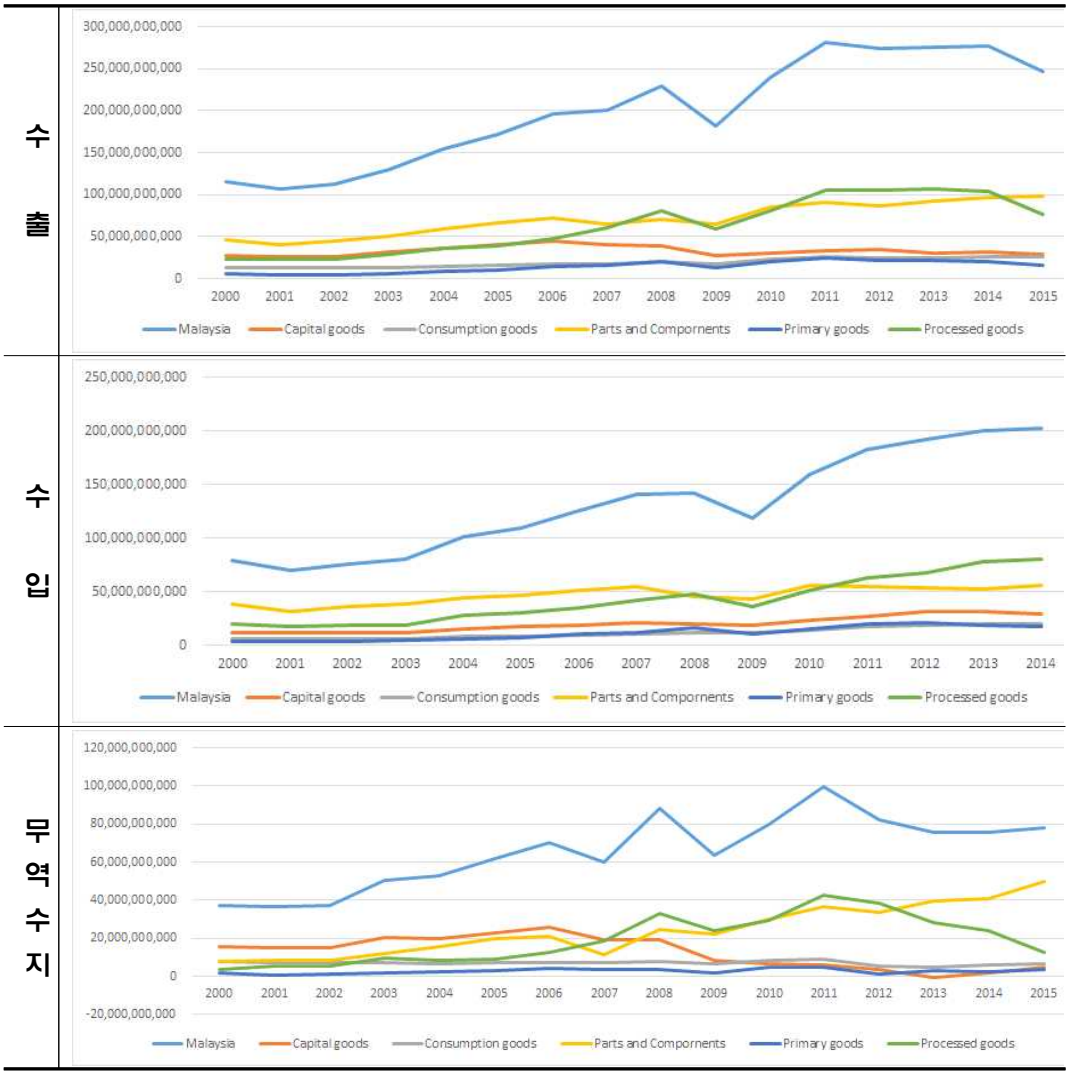
2000년에서 2015년간 말레이시아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6>과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2.1배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재**로 2000년 대비 약 3.3배 증가하였다. 이어 증가폭이 컸던 부문은 원료로 2.8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자본재**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와 동일하다.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9.7%) > 자본재(23.9%) > 가공재(20.0%) > 소비재(11.6%) > 원료(4.8%) 순으로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 가공재가 상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5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9.9%) > 가공재(31.2%) > 자본재

<그림 4-6> 말레이시아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11.8%) > 소비재(10.8%) > 원료(6.3%) 순으로 기존과 동일한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의 비중이 71.1%로 수출증가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2.1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 가공재, 원료**로 각각 3.6배, 3.3배, 3.3배 증가하였다.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본재, 부분품과 요소로 각각 2.0배, 1.3배 증가

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48.5%) > 가공재(24.6%) > 자본재(15.3%) > 소비재(7.1%) > 원료(4.6%)순으로, 부분품과 요소의 수입이 1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원료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2015년의 경우 가공재(38.0%) > 부분품과 요소(28.9%) > 자본재(14.3%) > 소비재(11.8%) > 원료(7.0%)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분품과 요소를 역전**하였다. 다만, 동일하게 중간재로 분류되는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가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원료가 가장 적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자본재가 2013년 적자를 기록한 것 외에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에서도 모두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에 있어 가공재 부문에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무역구조가 싱가포르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모든 부문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다.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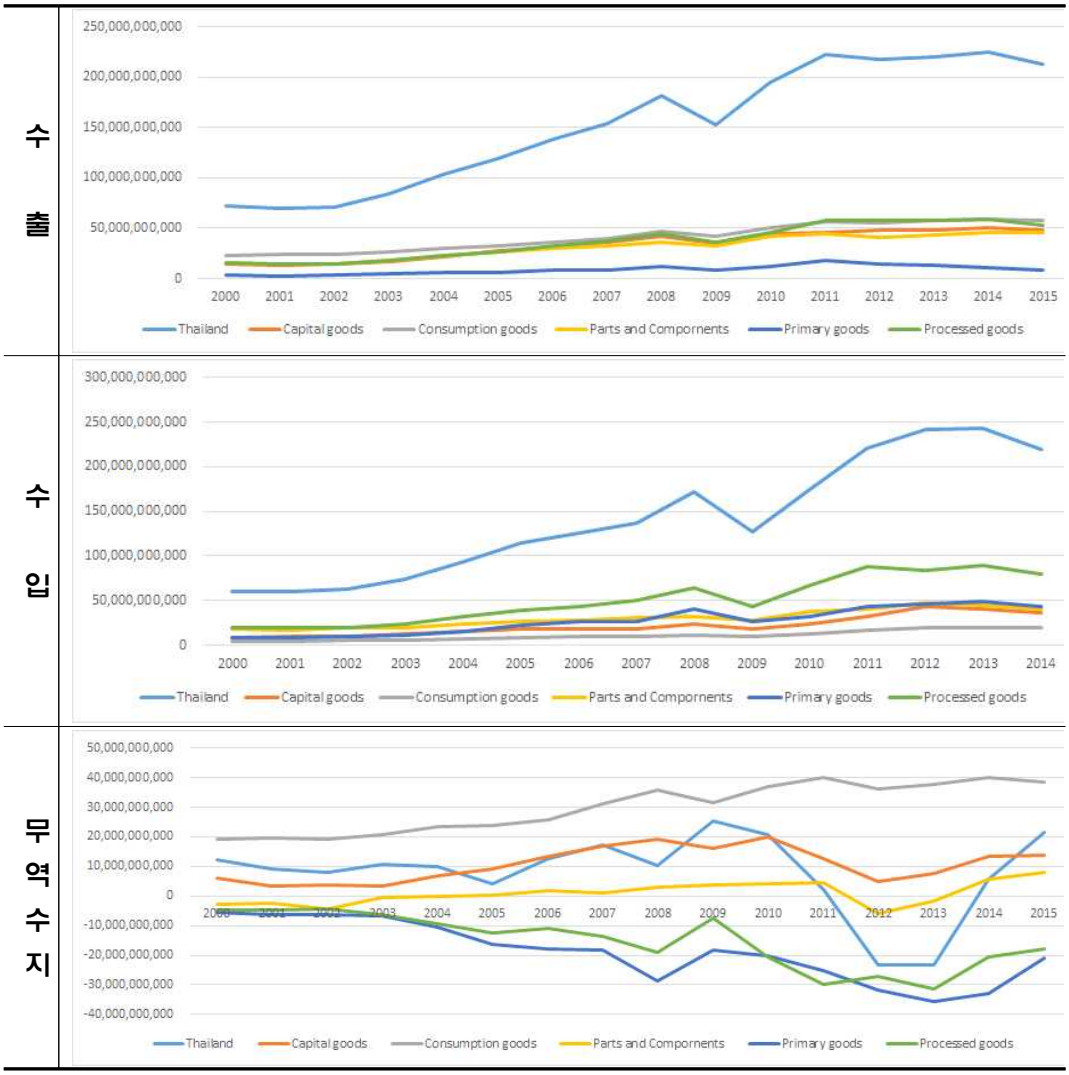
태국은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7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4.6%를 태국이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3.0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RCEP 평균 수준이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자본재, 가공재 등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5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낮았던 것은 부분품과 요소로 약 2.5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15년간 태국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태국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2.9배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재와 자본재로 2000년 대비 각각 약 3.4배, 3.3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소비재와 원료로 각각 2.5배 증가에 그쳤다.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소비재(32.3%) > 부분품과 요소(21.6%) > 가공재(21.1%) > 자본재

(20.2%) > 원료(4.8%) 순으로 **수출의 주요 구성은 원료를 제외한 4개 부문이 균형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소비재(27.3%) > 가공재(24.6%) > 자본재(22.5%) > 부분품과 요소(21.6%) > 원료(4.1%) 순으로, 다만 부분품과 요소, 원료, 자본재 등의 순위가 큰 비중의 차이 없이 역전되었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3.2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로 4.4배 증가하였다. 모든 품목에서 수입의 증가가 시현되었지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분품과 요소로 각각 2.1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가공재(33.2%) > 부분품과 요소(30.4%) > 원료(14.6%) > 자본재(14.4%) > 소비재(7.3%) 순으로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 수입 순위가 상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소비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은 가공재(36.7%) > 부분품과 요소(19.8%) > 자본재(17.8%) > 원료(15.5%) > 소비재(10.2%)순으로 상위는 여전히 가공재 등 중간재가 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2011년과 2012년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원료와 가공재는 적자기조, 자본재와 소비재는 흑자기조이다.

라. 베트남

베트남은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9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3.7%를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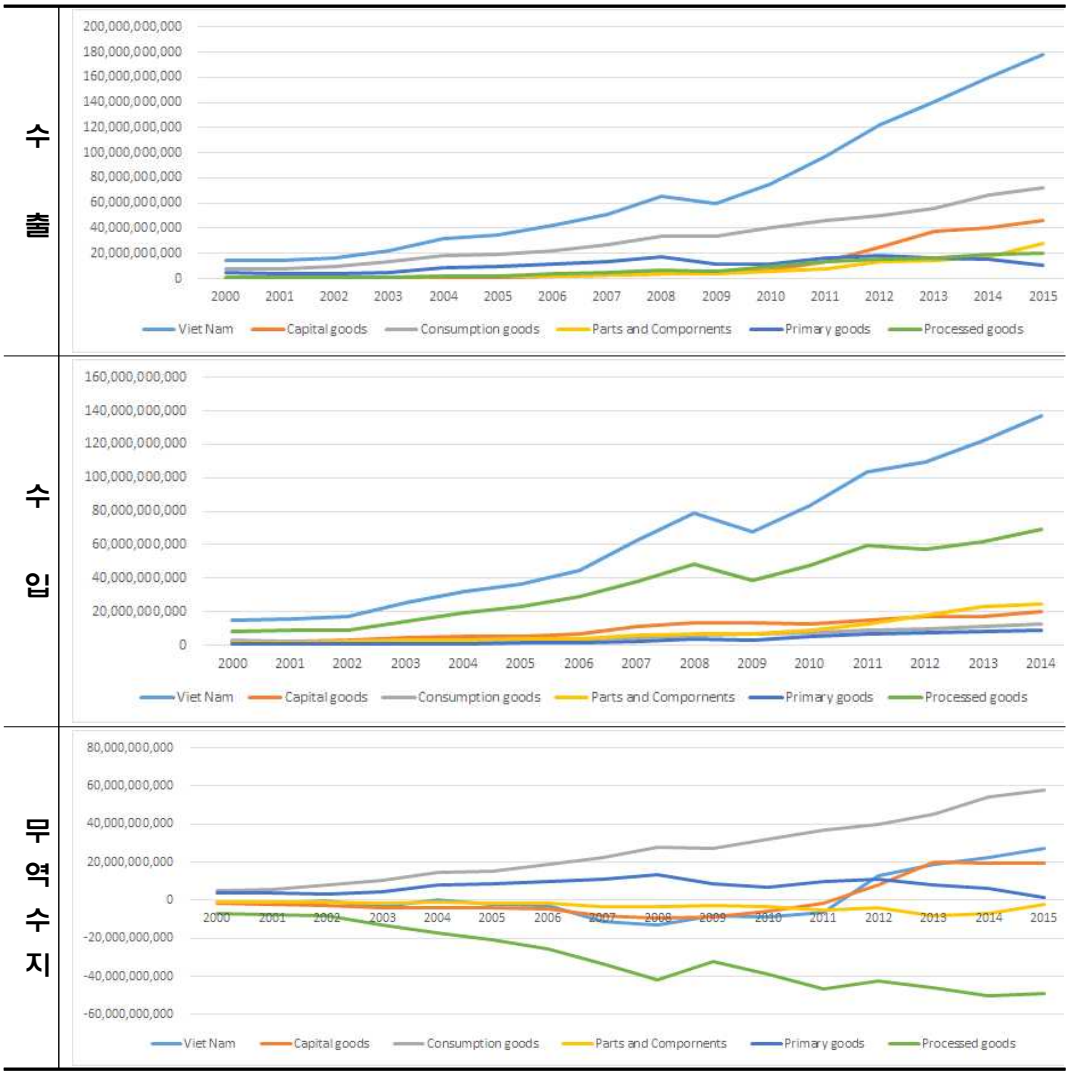
베트남은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무려 금액기준 약 11.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RCEP 평균인 3.1배를 세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자본재, 부분품과 요소 등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1.9배 24.2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낮았던 것은 원료로 약 3.8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15년간 베트남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8>과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12.6배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자본재와 부분품 및 요소, 가공재로 2000년 대비 각각 약 153.7배, 44.9배, 22.5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원료로 2.3배 증가에 그쳤다.

<그림 4-8>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소비재(54.0%) > 원료(33.0%) > 가공재(6.4%) > 부분품과 요소(4.5%) > 자본재(2.1%) 순으로 **수출의 주요 구성은 소비재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5년 이러한 양상은 소비재 이외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되고 있다. 점유율은 **소비재(40.7%) > 자본재(25.9%)** > 부분품과 요소(15.9%) > 가공재(11.4%) >원료(6.0%) 순으로 기존에 2위였던 원료가 가장 낮은 비중으로 그리고 가장 비중이 낮았던 자본재가 2위로 역전되었다. 또한 부분품과 요소, 가공품 등 중간재도 약 27%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10.0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원료, 부분품과 요소, 자본재 등으로 각각 17.1배, 17.0배, 13.5배 증가하였다. 모든 품목에서 수입의 증가가 시현되었지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소비재로 5.5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가공재(53.8%) > 소비재(17.6%) > 자본재(13.1%) > 부분품과 요소(11.9%) > 원료(3.6%) 순으로 주로 가공재에 절반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5년은 가공재(46.1%) > 부분품과 요소(20.2%) > 자본재(17.9%) > 소비재(9.7%) > 원료(6.1%) 순으로 **상위에는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 등 중간재**가 점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재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2011년까지 적자기조였으나, 2012년 부터는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소비재, 원료의 경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분품과 요소, 가공재 등 중간재 부문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10위인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2.9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원료(1차 제품)로 2000년 대비 약 3.2배 증가하였다. 이외의 부문은 로 약 2.7~2.9배 증가하여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0년에서 2015년간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9>와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2.3배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원료(1차 제품)으로, 전체적인 수출의 증가 추이와 궤적을 같이 한다. 반대로 자본재는 1.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가공재(43.2%) > 소비재(22.6%) > 원료(17.0%) > 부품과 요소(8.7%) > 자본재(8.5%)순으로 가공재와 소비재가 전체의 약 65.8%를 점유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가공재(39.0%) > 원료(24.5%) > 소비재(23.6%) > 부품과 요소(7.3%) > 자본재(5.6%)로, 원료의 수출 집중도가 높아졌고, 가공재, 부품과 요소, 자본재 등은 다소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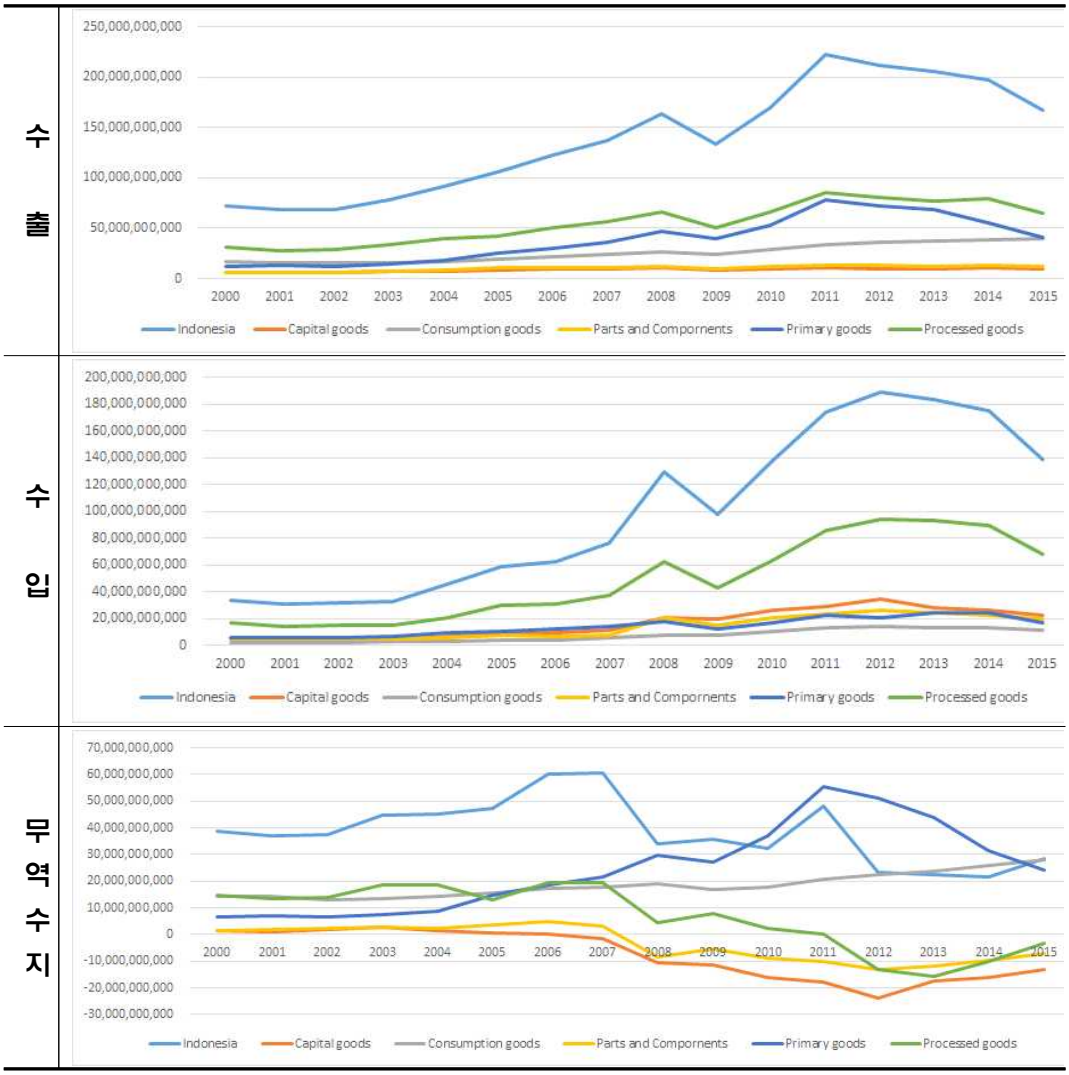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4.1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와 가공재로 각각 5.4배, 4.8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가공재(49.5%) > 원료(16.5%) > 부품과 요소(14.0%) > 자본재(13.9%) > 소비재(6.2%)로 가공재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료, 부품과 요소, 자본재는 고르게 점유하고 있었다. 2015년의 경우 가공재(49.2%) > 자본재(16.3%) > 부품과 요소(14.1%) > 원료(12.3%) > 소비재(8.1%)로 구성은 2000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2015년간 무역수지는 대체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가공재와 부품요소, 자본재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원료 부문의 흑자 확대에 의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원료와 가공재를 수출하고, 소비재, 부분품과 요소 등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로 요약된다.

<그림 4-9>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바. 필리핀

필리핀은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11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1.6%를 필리핀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1.8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가공품과 소비재로 2000년 대비 각각 2.4배, 2.3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

율이 낮았던 것은 부분품과 요소로 약 1.4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에서 2015년간 필리핀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10>과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1.6배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가 가장 큰 부문은 원료**로 2000년 대비 약 5.8배 증가하였다. 이어 증가폭이 컸던 부문은 가공재로 3.1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자본재와 부품과 요소**로 각각 1.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55.1%) > 자본재(21.3%) > 소비재(14.8%) > 가공재(7.1%) > 원료(1.8%)로 부분품과 요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48.2%) > 자본재(18.1%) > 가공재(13.7%) > 소비재(13.6%) > 원료(6.5%) 순으로 기존과 동일한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2.1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 가공재, 원료**로 각각 3.6배, 3.3배, 3.3배 증가하였다. 평균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본재, 부분품과 요소로 각각 2.0배, 1.3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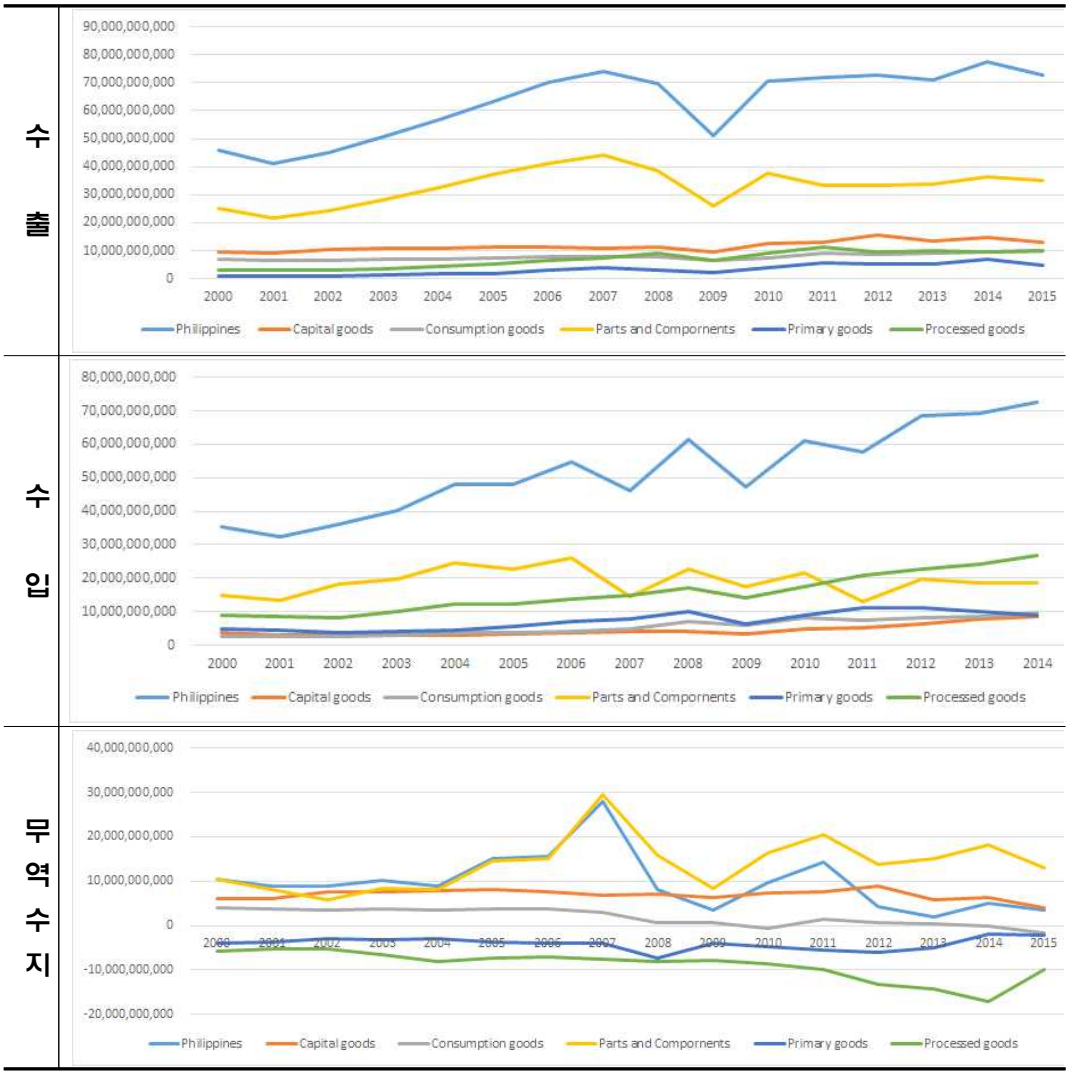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42.1%) > 가공재(25.5%) > 원료(13.8%) > 자본재(10.7%) > 소비재(7.9%) 순으로, 부분품과 요소의 수입이 1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소비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2015년의 경우 부분품과 요소(31.7%) > 가공재 28.6%) > 소비재(16.7%) > 자본재(13.2%) > 원료(9.8%)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무역수지의 경우 2000~2015년간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료, 가공품은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필리핀은 **수출입에 있어 부분품과 요소 부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양상이다.**

<그림 4-10> 필리핀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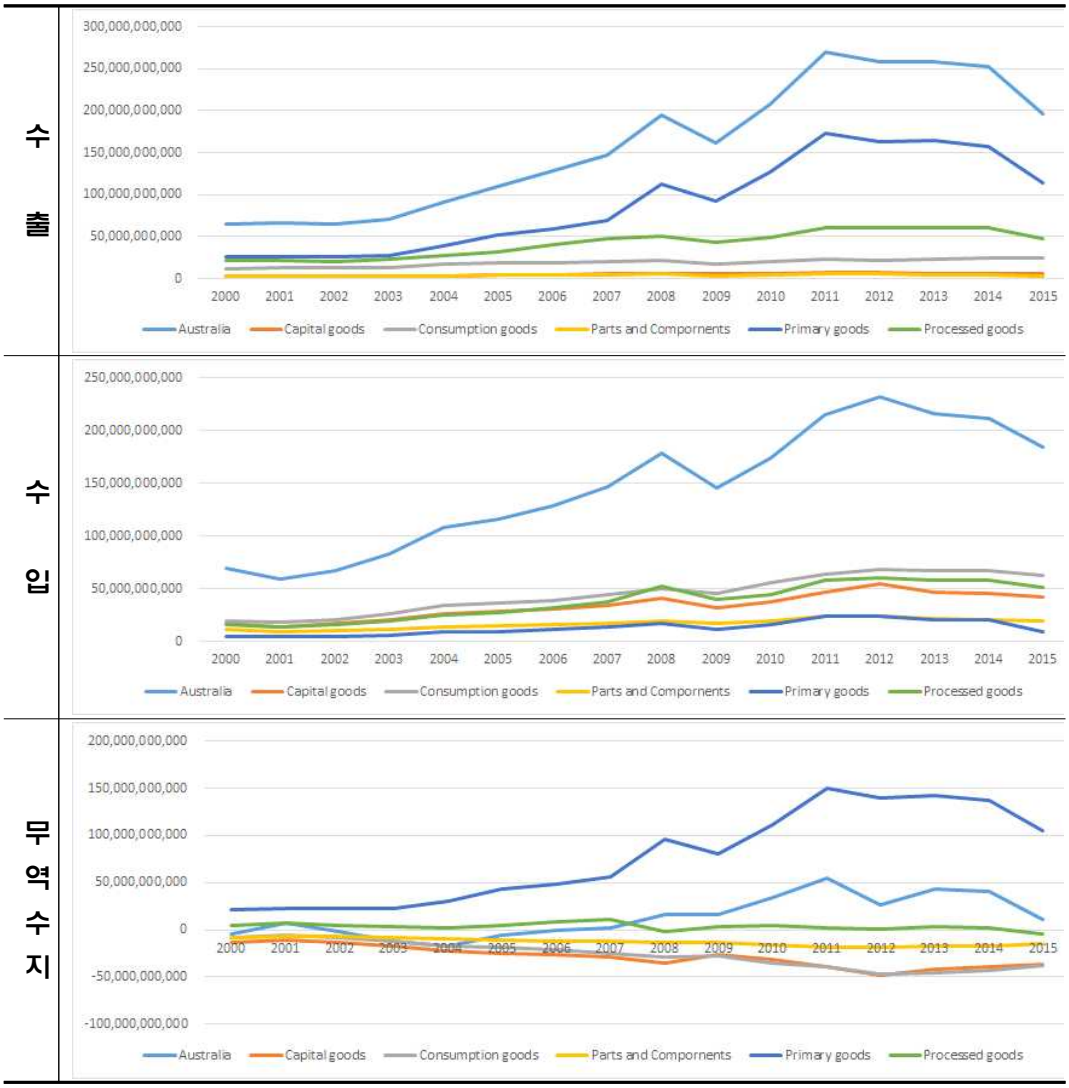


6. 호주

호주는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8위인 국가이다. 호주의 경우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2.8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원료(1차 제품)로 2000년 대비 약 3.9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부분품과 요소로 약 1.6배 증가에 그쳤다.

<그림 4-11> 호주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2000년에서 2015년간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4-8>과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3배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원료(1차 제품)으로, 전체적인 수출의 증가 추이와 궤적을 같이 한다. 반대로 부품과 요소는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원료(40.8%) > 가공재(32.7%) > 소비재(18.0%) > 부품과 요소(4.3%) > 자본재(4.2%)로 원료와 가공재

가 전체의 약 73.6%를 점유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원료(58.5%) > 가공재(24.0%) > 소비재(12.9%) > 자본재(2.8%) > 부품과 요소(1.9%)로 원료의 수출집중도가 높아졌고, 가공재, 소비재, 부품 등은 다소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2.7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와 가공재로 각각 3.2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소비재(28.7%) > 자본재(24.0%) > 가공재(23.3%) > 부분품과 요소(16.6%) > 원료(7.3%)로 소비재와 자본재, 가공재 세 부문이 고르게 점유하고 있으며, 약 76.0%를 점유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소비재(34.1%) > 가공재(27.8%) > 자본재(22.9%) > 부분품과 요소(10.2%) > 원료(4.9%)로 소비재와 가공재의 수입집중도가 높아졌고, 자본재와 부분품, 원료 등은 다소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이후 무역수지는 대체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원료 부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어 가공재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2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자본재, 소비재, 부분품 등은 만성 적자 품목이다.

전반적으로 호주는 원료와 가공재를 수출하고, 소비재, 부분품과 요소 등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로 요약된다.

7.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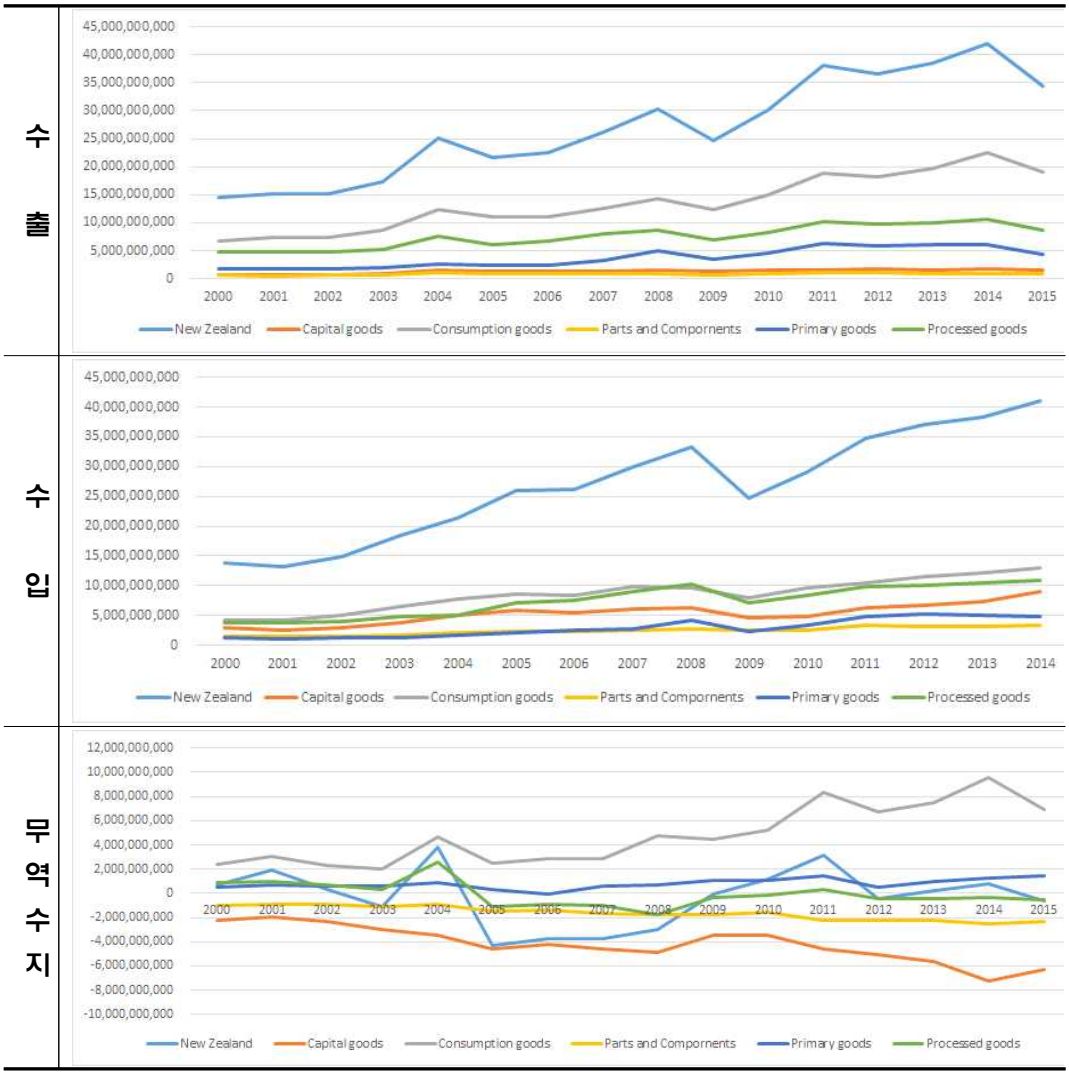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2015년 기준 RCEP 내에서 對세계 무역규모가 12위인 국가이다. 전체 RCEP 무역규모 가운데 약 0.8%를 뉴질랜드이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0년 대비 무역규모가 금액기준 약 2.5배 증가하였다. 대체로 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로 2000년 대비 2.8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낮았던 것은 부분품과 요소로 1.9배 증가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15년간 뉴질랜드의 항목별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는 <그림

<그림 4-12> 뉴질랜드의 對세계 수출입, 무역수지 : RIETI-TID 분류

(단위 : 달러)



4-12>과 같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의 절대 규모가 약 2.4배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로 2000년 대비 2.9배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가 부진했던 부문은 부분품과 요소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다시 수출을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소비재(46.0%) > 가공재(32.8%) > 원료(12.4%) > 자본재(5.0%) > 부분

품과 요소(3.9%) 순으로 **수출의 주요 구성은 소비재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러한 양상은 그대로 이어져 점유율은 **소비재(55.2%) > 가공재(24.9%) >** 원료(12.8%) > 자본재(4.5%) > 부분품과 요소(2.6%) 순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절대 규모가 약 2.6배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를 이끈 것은 소비재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수입의 RIETI-TID에 의한 5단계 품목구성은 2000년의 경우 소비재(31.1%) > 가공재(27.7%) > 자본재(21.1%) > 부분품과 요소(11.1%) > 원료(9.0%) 순으로 주로 소비재와 가공재에 절반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5년은 소비재(34.4%) > 가공재(25.8%) > 자본재(22.3%) > 부분품과 요소(9.0%) > 원료(8.4%)로 2000년과 동일하게 상**위에는 소비재, 가공재, 자본재 등이** 점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무역수지의 경우 부문별로 자본재, 부분품은 만성 적자이며 소비재의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RCEP 참여국의 對세계 교역 분석의 결과를 2000년과 2015년을 대비하여 <표 4-3>으로 요약하였다.

<표 4-3> RCEP 회원국의 RIETI-TID 분류 결과 비교 :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중국	수출	**소비재(48.8%)** > 자본재(18.25%) > 가공재(17.8%) > 부품과 요소(12.2%) > 원료(3.0%)	**자본재(31.0%) > 소비재(27.2%)** > 가공재(22.5%) > 부품과 요소(18.5%) > 원료(0.8%)
	수입	**가공재(38.8%) > 부분품과 요소(23.6%)** > 자본재(17.5%) > 원료(15.3%) > 소비재(4.8%)	**가공재(26.9%) > 원료(26.2%) >** 부분품과 요소(22.5%) > 자본재(14.6%) > 소비재(9.7%)
일본	수출	**부분품과 요소(33.7%) >** 자본재(27.9%) > 가공재(19.5%) > 소비재(18.5%) > 원료(0.4%)	**부분품과 요소(29.5%) > 가공재(27.5%) >** 자본재(22.3%) > 소비재(19.3%) > 원료(1.3%)
	수입	**소비재(26.6%) > 가공재(25.3%)** > 원료(20.3%) > 부분품과 요소(14.5%) > 자본재(13.3%)	**가공재(29.7%) > 소비재(25.7%)** > 원료(17.6%) > 부분품과 요소(13.6%) > 자본재(13.3%)
한국	수출	**가공재(31.7%) > 부분품과 요소(27.7%)** > 자본재(23.0%) > 소비재(17.2%) > 원료(0.5%)	**부분품과 요소(36.0%) > 가공재(32.0%)** > 자본재(19.3%) > 소비재(12.2%) > 원료(0.5%)

		2000년	2015년
인도	수입	가공재(31.1%) > 부분품과 요소(23.4%) > 원료(22.9%) > 자본재(15.8%) > **소비재(6.7%)**	가공재(33.0%) > 원료(22.1%) > **부분품과 요소(17.5%)** > 자본재(14.3%) > **소비재(13.1%)**
	수출	가공재(46.7%) > 소비재(37.7%) > 원료(6.5%) > 부분품과 요소(5.6%) > 자본재(3.5%)	가공재(49.4%) > 소비재(32.9%) > 부분품과 요소(8.1%) > 자본재(5.2%) > 원료(4.5%)
	수입	가공재(41.1%) > 원료(30.8%) > 자본재(11.4%) > 부분품과 요소(10.8%) > 소비재(5.8%)	가공재(42.0%) > 원료(32.6%) > 자본재(11.3%) > 부분품과 요소(8.7%) > 소비재(5.4%)
싱가포르	수출	부분품과 요소(38.5%) > 자본재(29.3%) > 가공재(25.0%) > 소비재(6.3%) > 원료(1.0%)	**가공재(44.4%)** > 부분품과 요소(30.5%) > 자본재(15.8%) > 소비재(7.9%) > 원료(1.3%)
	수입	부분품과 요소(42.2%) > 가공재(20.0%) > 자본재(19.1%) > 소비재(11.3%) > 원료(7.5%)	부분품과 요소(34.8%) > **가공재(30.7%)** > 자본재(13.7%) > 소비재(11.7%) > 원료(9.0%)
말레이시아	수출	부분품과 요소(39.7%) > 자본재(23.9%) > 가공재(20.0%) > 소비재(11.6%) > 원료(4.8%)	부분품과 요소(39.9%) > 가공재(31.2%) > 자본재(11.8%) > 소비재(10.8%) > 원료(6.3%)
	수입	부분품과 요소(48.5%) > 가공재(24.6%) > 자본재(15.3%) > 소비재(7.1%) > 원료(4.6%)	**가공재(38.0%)** > 부분품과 요소(28.9%) > 자본재(14.3%) > 소비재(11.8%) > 원료(7.0%)
태국	수출	소비재(32.3%) > 부분품과 요소(21.6%) > 가공재(21.1%) > 자본재(20.2%) > 원료(4.8%)	소비재(27.3%) > 가공재(24.6%) > 자본재(22.5%) > 부분품과 요소(21.6%) > 원료(4.1%)
	수입	가공재(33.2%) > 부분품과 요소(30.4%) > 원료(14.6%) > 자본재(14.4%) > 소비재(7.3%)	가공재(36.7%) > 부분품과 요소(19.8%) > 자본재(17.8%) > 원료(15.5%) > 소비재(10.2%)
호주	수출	원료(40.8%) > 가공재(32.7%) > 소비재(18.0%) > 부품과 요소(4.3%) > 자본재(4.2%)	원료(58.5%) > 가공재(24.0%) > 소비재(12.9%) > 자본재(2.8%) > 부품과 요소(1.9%)
	수입	소비재(28.7%) > 자본재(24.0%) > 가공재(23.3%) > 부분품과 요소(16.6%) > 원료(7.3%)	소비재(34.1%) > 가공재(27.8%) > 자본재(22.9%) > 부분품과 요소(10.2%) > 원료(4.9%)
베트남	수출	소비재(54.0%) > **원료(33.0%)** > 가공재(6.4%) > 부분품과 요소(4.5%) > 자본재(2.1%)	소비재(40.7%) > **자본재(25.9%) >** 부분품과 요소(15.9%) > 가공재(11.4%) >원료(6.0%)
	수입	가공재(53.8%) > **소비재(17.6%)** > 자본재(13.1%) > 부분품과 요소(11.9%) > 원료(3.6%)	가공재(46.1%) > **부분품과 요소(20.2%)** > 자본재(17.9%) > 소비재(9.7%) > 원료(6.1%)

		2000년	2015년
인도네시아	수출	가공재(43.2%) > 소비재(22.6%) > 원료(17.0%) > 부품과 요소(8.7%) > 자본재(8.5%)	가공재(39.0%) > **원료(24.5%)** > 소비재(23.6%) > 부품과 요소(7.3%) > 자본재(5.6%)
	수입	가공재(49.5%) > 원료(16.5%) > 부품과 요소(14.0%) > 자본재(13.9%) > 소비재(6.2%)로	가공재(49.2%) > **자본재(16.3%)** > 부품과 요소(14.1%) > 원료(12.3%) > 소비재(8.1%)
필리핀	수출	부분품과 요소(55.1%) > 자본재(21.3%) > 소비재(14.8%) > 가공재(7.1%) > 원료(1.8%)	부분품과 요소(48.2%) > 자본재(18.1%) > **가공재(13.7%)** > 소비재(13.6%) > 원료(6.5%)
	수입	부분품과 요소(42.1%) > 가공재(25.5%) > 원료(13.8%) > 자본재(10.7%) > 소비재(7.9%)	부분품과 요소(31.7%) > 가공재 28.6%) > **소비재(16.7%)** > 자본재(13.2%) > 원료(9.8%)로
뉴질랜드	수출	**소비재(46.0%)** > 가공재(32.8%) > 원료(12.4%) > 자본재(5.0%) > 부분품과 요소(3.9%)	**소비재(55.2%)** > 가공재(24.9%) > 원료(12.8%) > 자본재(4.5%) > 부분품과 요소(2.6%)
	수입	소비재(31.1%) > 가공재(27.7%) > 자본재(21.1%) > 부분품과 요소(11.1%) > 원료(9.0%)	**소비재(34.4%)** > 가공재(25.8%) > 자본재(22.3%) > 부분품과 요소(9.0%) > 원료(8.4%)

제3절 한국의 對RECP 참여국 교역 및 활용률 검토

Mega FTA에서는 누적규정에 대해 주목한다. 누적규정은 중간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간재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특례이다.

중간재의 정의를 살펴보자. 중간재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요소(inputs)[128]로 정의되는데, 자본, 노동, 혹은 자연자원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일종의 고정자산(fixed asset)의 형태로 투입되어 사용(used)되는데 그치지만 중간재는 생산과정에서 소진(used up)되어 변형되거나 혹은 합쳐져 궁극적으로 최종재로 변화되는 품목을 의미한다.[129]

따라서 Mega FTA의 활용도는 역내에서 중간재의 투입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가에 있다. 즉 기존에 양국간 FTA에서는 완성재 생산시 투입된 원재료, 중간재에 대해 양국의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RCEP 등 Mega FTA에서는 이 부문이 다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Mega FTA에서 중간재 교역은 그 중요성이 확대된다.

본절에서는 한국의 對RCEP 교역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교역물품을 제1절과 마찬가지로 BEC기준과 RIETI-TID를 동시에 고려하여 구분한다.

또한 2항에서는 한국의 對RCEP 교역에 대해 중간재 부문을 특화하여, 중간재를 기초재, 가공재, 부분품과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Mega FTA 체결시 산업별 중간재를 활용한 무역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FTA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

128) Deardorff(2006)에서는 'An intermediate good can be defined as an input to the production process that has itself been produced and, unlike capital, is used up in production'이라 정의하고 있다.

129) 본장에서의 '중간재'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의 특례로서 중간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표 4-4> BEC와 RIETI-TID 분류 현황

BEC 분류				구분	RIETI-TID
111	음식료품	비가공품	산업용 식음료품	중간재	기초재
112	음식료품	비가공품	가정용 식음료제품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121	음식료품	가공품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제품	중간재	중간재-가공
122	음식료품	가공품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21	산업용 공급품		원재료	중간재	기초재
22	산업용 공급품		가공된 산업용 공급품	중간재	중간재-가공
31	연료, 윤활유	원재료	연료 및 윤활류	중간재	기초재
32	연료, 윤활유	가공품	동력기용	중간재	중간재-가공
322	연료, 윤활유	가공품	기타	중간재	
41	기계, 자본재 및 그 부속품		기계 및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자본재	완성재-자본재
42	기계, 자본재 및 그 부속품		부속품(운송장비 제외)	중간재	중간재-부분품
51	운송기계, 부속품	승용차	승객용 자동차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521	운송기계, 부속품	기타	기타 산업용 운송기계	자본재	완성재-자본재
522	운송기계, 부속품	기타	기타 비산업용 운송기계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53	운송기계, 부속품	부속품	운송장비부속품	중간재	중간재-부분품
61	소비재		내구성 소비재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62	소비재		반내구성 소비재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63	소비재		비내구성 소비재	소비재	완성재-소비재
7	소비재		미분류	미분류	

출처 : 1. UN(2002),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DEFINED IN TERMS OF THE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ISION 3 AND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THIRD EDITION
2. http://www.rieti-tid.com/

활용률(utilization rates) 분석은 직관적으로 FTA 점검 가능하므로 위의 결과와 활용률을 연계하여 분석한다. FTA 활용률 분석의 장점은 잘 알다시피 실제 국내 교역규모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정확한 수치 제공이라 하겠다. 이는 실제 특혜 수입이 되는 중간재에 대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실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통해 FTA의 효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130]

BEC와 RIETI-TID에 기초한 산업 구분은 <표 4-4>와 같다. 먼저 BEC 코드는 1 ~ 7까지 부여되며, 이는 음식료품, 산업용 공급품, 연료・윤활유, 기계・자본재 및 그 부속품, 운송기계・부속품, 소비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가장 세분된 단위는 산업용 식음료품 등 19개이며, 최종적으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미분류 등 4개로 대분류된다.

아울러 소비재와 자본재를 포괄하는 최종재의 경우 품목수의 경우 일반기계 산업에 가장 많은 최종재가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1차 산품, 의류/직물, 전기기계 산업 등에 최종재가 많이 포함된 것도 확인된다.

다시 BEC와 RIETI-TID를 연계하여 중간재를 살펴보면, 산업용 식음료품, 연류 및 윤활용, 산업용 공급품으로서의 원재료 등이 기초재로 분류된다. 그리고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제품, 가공된 산업용 공급품, 동력기용으로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등은 가공재로 구분된다. 또한 기계 자본재 및 그 부속품과 운송장비 부속품은 부분품과 요소로 구분된다.

본 항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對RCEP 무역의 BEC 분류를 통해 對FTA 무역의 중간재를 활용현황을 진단한다. 아울러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RCEP 참여국과의 교역에서의 우위 부문을 점검한다. 즉 한국과 RCEP 참여국 간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하여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한나라가 특정품목의 국제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SI_{Kij} = \frac{X_{Kij} - M_{Kij}}{X_{Kij} + M_{Kij}}$$

X_{Kij} : i 국의 j 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

130) 조미진(2014),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貿易學會誌 第39卷 第3號

M_{Kij} : i 국의 j 국에 대한 K품목의 수입액

교역상대국이 해당품목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일수록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수입지향적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무역 특화지수 분류

지수 값	의미
0.7≤TSI	수출 특화
0.3≤TSI≤0.7	수출 우위
-0.3< TSI <0.3	비교우위 중립
-0.7<TSI ≤-0.3	수입 우위
TSI ≤-0.7	수입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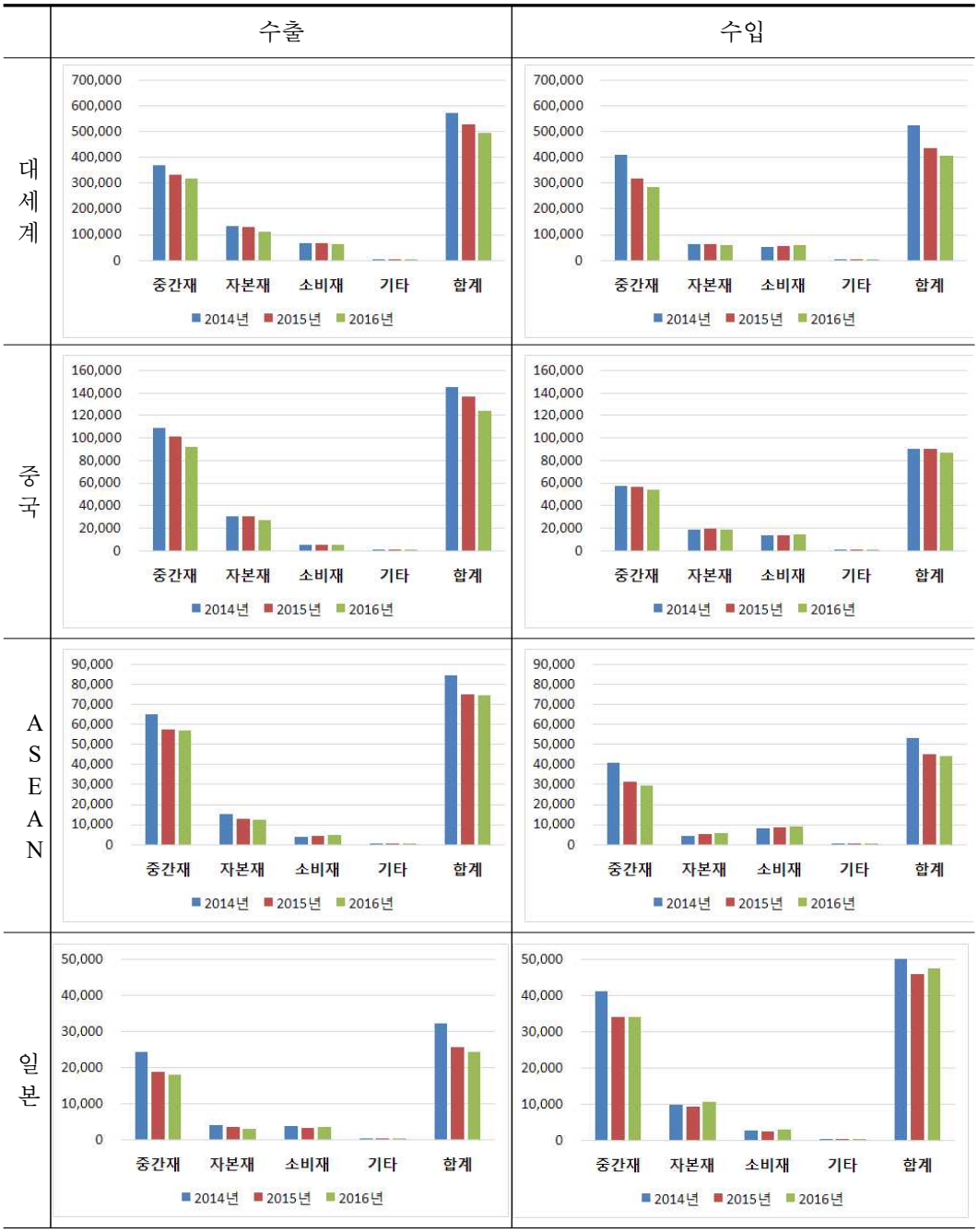
1. 對RECP 참여국 요소별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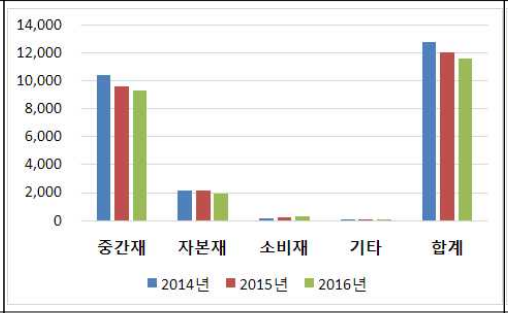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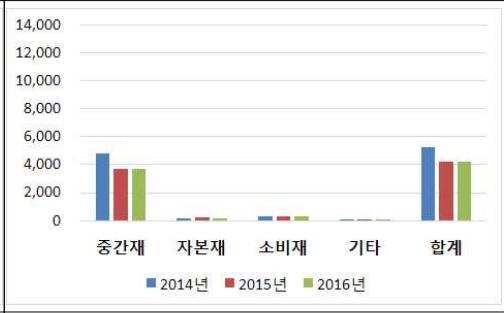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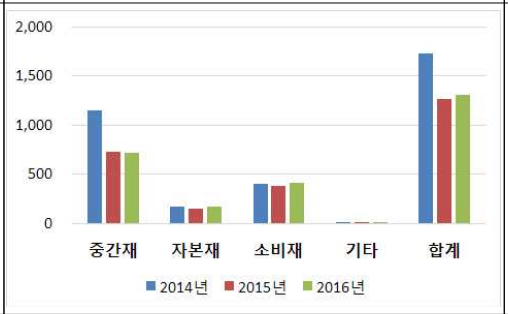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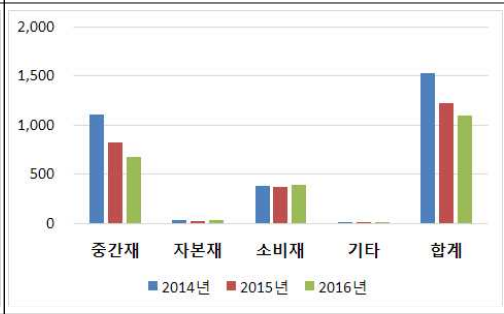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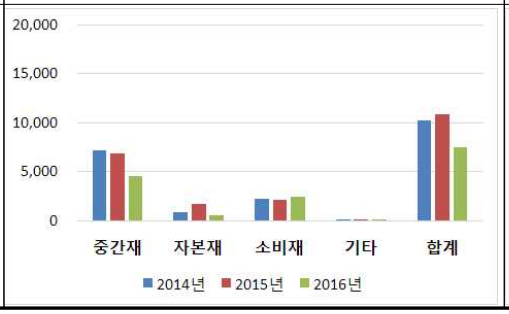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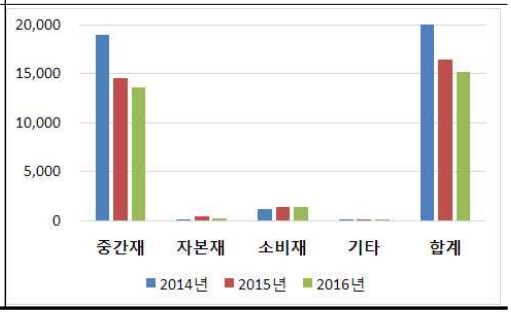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은 수출, 수입 양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을 BEC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수출은 중간재 63.9%, 자본재 23.5%, 소비재 12.4% 순으로 중간재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중간재 73.9%, 자본재 13.7%, 소비재 12.3%**로 수출보다 수입에 있어 중간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14~2016년 평균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중간재 74.3%, 자본재 21.8%, 소비재 3.8%, 수입은 중간재 63.2%, 자본재 21.4%, 소비재 15.3%로 구성된다. 한국의 對ASEAN 수출은 중간재 76.9%, 자본재 17.4%, 소비재 5.5%, 수입은 중간재 71.1%, 자본재 10.8%, 소비재 18.1%로 구성된다. 한국의 對일본 수출은 중간재 74.1%, 자본재 13.1%, 소비재 12.8%, 수입은 중간재 74.2%, 자본재 20.1%, 소비재 5.4%로 구성된다.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중간재 80.6%, 자본재 17.3%, 소비재 1.9%, 수입은 89.4%, 자본재 4.2%, 소비재 6.4%로 구성된다. 한국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중간재 60.6%, 자본재 11.5%, 소비재 27.6%, 수입은 67.8%, 자본재

2.4%, 소비재 29.7%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중간재 65.3%, 자본재 10.8%, 소비재 23.9%, 수입은 중간재 90.7%, 자본재 1.5%, 소비재 7.7%로 구성된다.

<그림 4-13> 한국의 對RCEP 참여국 수출과 수입 : BEC 분류



	수출	수입
인도		
뉴질랜드		
호주		

중국, ASEAN, 일본 모두 수출의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출 평균보다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수입의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입 평균보다는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중간재 80.6%, 자본재 17.3%, 소비재 1.9%, 수입은 중간재 89.4%, 자본재 4.2%, 소비재 6.4%로 구성되어 **한국의 對인도 교역은 RCEP 참여국 가운데 가장 수출부문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다**.

반대로 한국의 對호주의 경우 수출은 중간재 65.3%, 자본재 10.8%, 소비재 23.9%, 수입은 중간재 90.7%, 자본재 1.5%, 소비재 7.7%로 구성된다. **호주의 경우 RCEP 참여국 가운데 수입 부문의 중간재 비중이 가장 높다**. 뉴질랜드의 경

우 수출은 중간재 60.6%, 자본재 11.5%, 소비재 27.6%, 수입은 중간재 67.8%, 자본재 2.4%, 소비재 29.4%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소비재의 비중이 수출입에 양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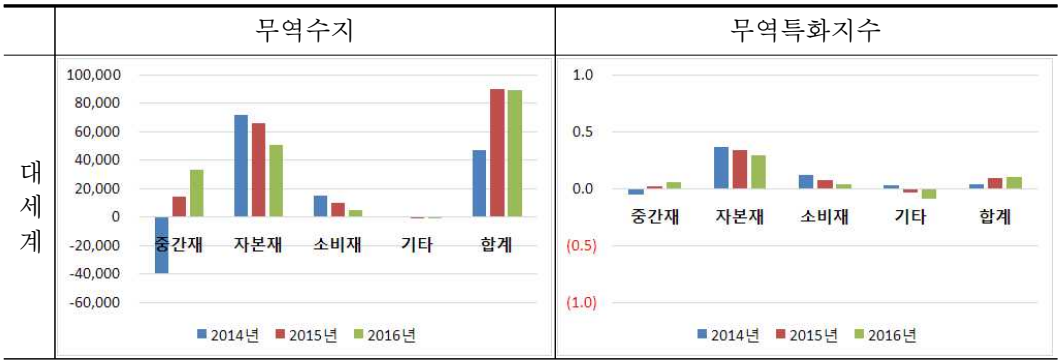
요컨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對RCEP 교역에서 중간재는 대부분의 참여국간의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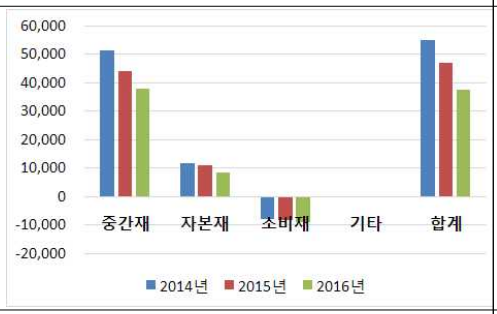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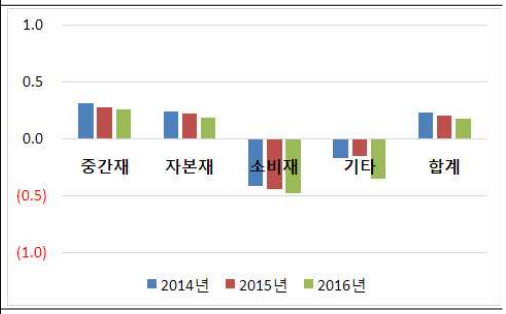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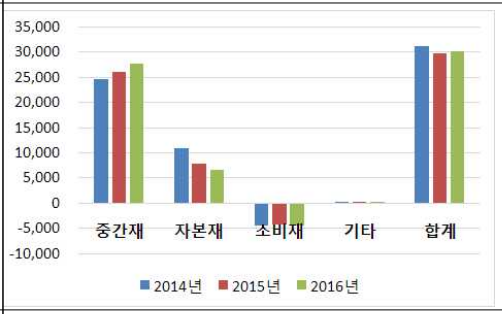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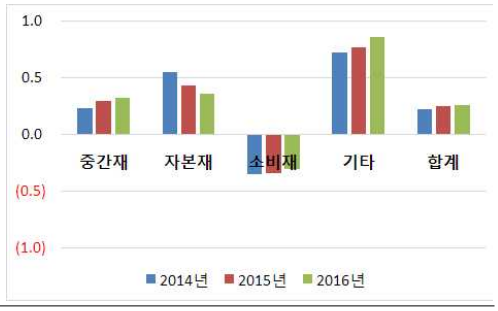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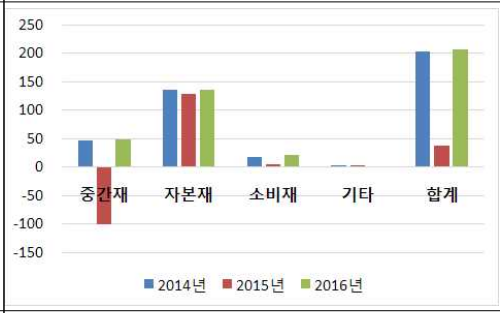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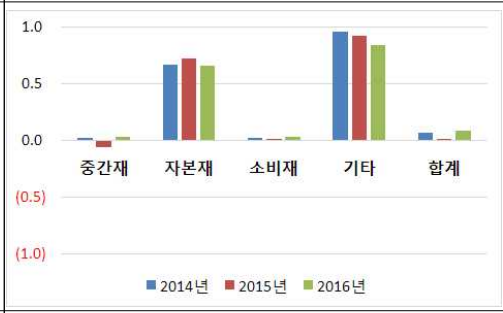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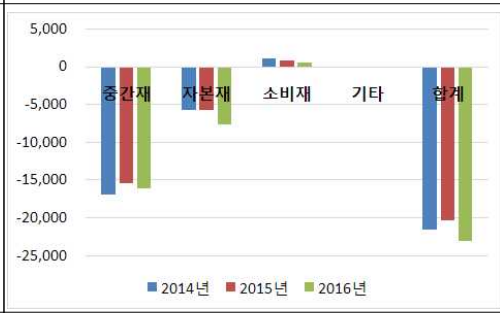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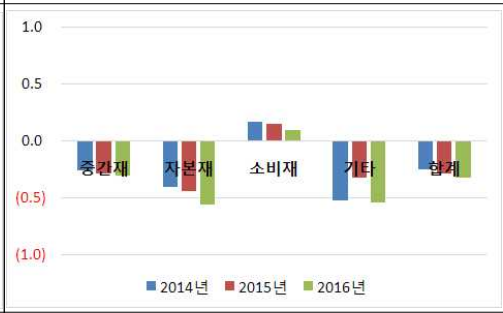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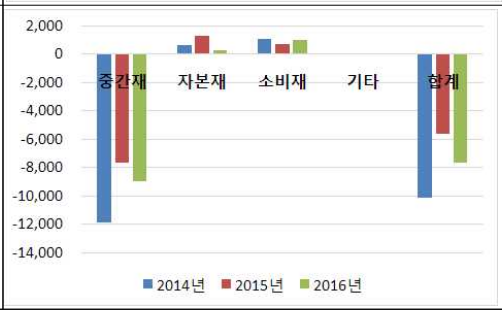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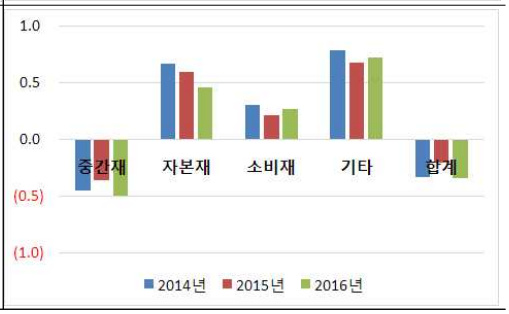
2. 對RCEP 참여국 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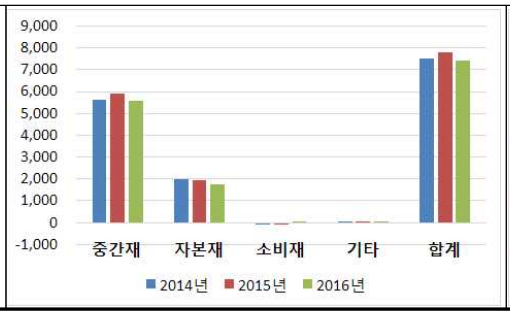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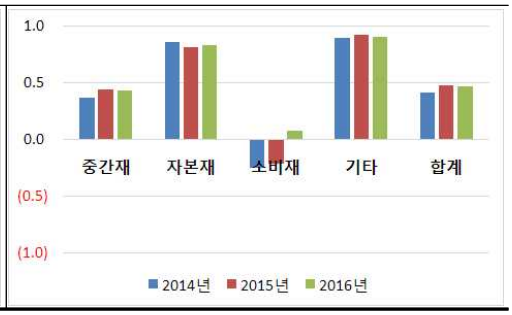
최근 수출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최근 3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을 BEC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중간재의 교역은 2014년 적자에서 2015, 2016년 흑자로 전환되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무역수지의 감소가 확인되나, 지속적인 흑자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16년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은 중간재에서의 부진에서 기인된 결과였다.

RCEP 참여국 대상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對세계 무역특화지수 분석결과는 다음의 <그림 1-14>와 같다. 먼저 중간재는 평균 0.0으로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평균 0.3이며, 연간 0.3~0.4의 수치를 보여, 수출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재는 3개년 평균 0.1로 0.0~0.1의 범위내에 결과값이 존재한다. 소비재의 경우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RCEP 참여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4>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 BEC 분류



	무역수지	무역특화지수
중국		
아세안		
뉴질랜드		
일본		
호주		

인도		

한국의 對중국 교역은 흑자로 요소별로는 중간재, 자본재는 흑자, 소비재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간재 교역은 對중국 흑자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중간재의 경우 3개년 평균 0.3으로 수치의 변동이 없다. 즉 중국에 대해 **중간재는 수출우위 품목**으로 분류된다. 자본재의 경우 3개년 평균 0.2로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 3개년 평균 -0.4로 수입우위에 있다.

한국의 對ASEAN 교역은 중국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중간재와 자본재는 흑자, 소비재는 적자이다. 다만, 우리나라 최근 교역의 감소 추세와는 달리 ASEAN의 경우 무역수지의 변동이 미미하다. 또한 중간재의 교역이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의 對인도 교역도 중국, ASEAN 등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무역특화지수는 ASEAN의 경우 중간재는 3개년 평균 0.3, 인도는 0.4로 수출우위를 보이고 있다. 자본재의 경우 ASEAN은 평균 0.5로 수출우위를 인도는 0.8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ASEAN은 평균 -0.3으로 수입우위를, 인도의 경우 평균 -0.1로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반면 **한국의 對일본 교역은 만성적인 적자 추세**이다. 요소별로는 **소비재만 소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중간재와 자본재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對호주 교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적자 추세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자본재와 소비재는 흑자, 중간재는 만성적 적자이다.

무역특화지수는 일본의 경우 중간재는 3개년 평균 -0.3으로 수입우위를, 자본재는 평균 -0.4로 수입우위를, 소비재는 평균 0.1로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호

주의 경우 중간재는 3개년 평균 -0.4로 수입우위, 자본재는 평균 0.6으로 수출우위, 소비재는 0.7로 수출특화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중간재 부분은 중국·ASEAN·인도는 수출우위, 일본·호주는 수입우위, 뉴질랜드는 비교우위 중립으로 분석**되었다.

3. 對RCEP 참여국 요소별 특혜수출입과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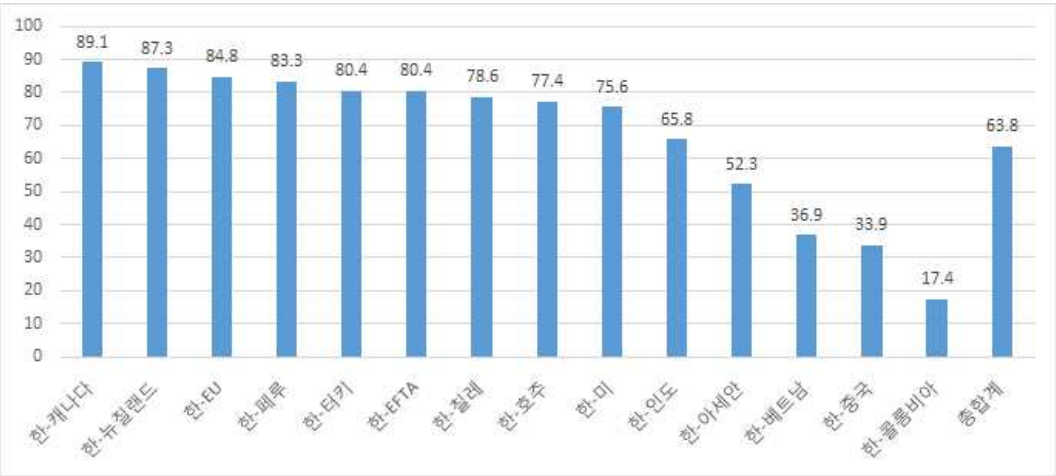
가. 수출

한국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다. 이에 RCEP의 활용가능성은 기체결한 FTA 활용률 현황으로 부터 참고가 가능하다. <그림 4-15>는 2016년 협정별 FTA 특혜수출 활용률로,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인도,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협정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캐나다, 뉴질랜드, EU, 페루, EFTA, 터키 등이 80% 이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칠레, 호주, 미국 등이 80%에 근접한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다. 인도, ASEAN,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과의 FTA는 2015년에 이어 여전히 낮은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5> 2016년 협정별 FTA 특혜수출 활용률

(단위 : %)



다음으로 한국의 對RCEP 참여국을 대상으로 BEC와 RIETI-TID의 구분에 의해 FTA 활용을 중간재, 완성재로 구분한 뒤, 다시 중간재를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중국

對중국의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출 가운데 중간재는 약 82.2%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58.9%, 부분품 22.9%, 기초재 0.5%로 가공재의 비중이 상당하다. 한편 <표 4-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특혜대상이 되는 품목의 총수출과 실제 FTA 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의 요소별 비중은 이와 상이하다.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은 중간재(가공품, 부분품, 기초재)가 약 83.2%로 유사하나, 가공재는 63.9%, 부분품은 18.9%, 기초재는 0.4%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FTA 활용에서 중간재 내 비중이 가공재가 부분품보다 우세함이 확인된다.

<표 4-6> 한-중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CO발급금액(a)	FTA대상수출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7,870,479	16,903,351	63.9	46.6
기초재	44,050	131,092	0.4	33.6
부분품	2,325,501	6,580,455	18.9	35.3
완성재	2,068,031	5,103,786	16.8	40.5
기타	87	4,062	0.0	2.1
총합계	12,308,147	28,722,747	100.0	42.9

구체적으로 對중국 수출의 중간재 FTA활용률은 가공재는 46.6%, 기초재 33.6%, 부분품 35.3%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중 FTA의 활용률은 42.9%로 타 협정 평균치인 63.8%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기초재, 부분품은 중국의 전체 평균 수준보다도 저조하다.

(2) ASEAN

對ASEAN 수출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출 가운데 중간재는 약

74.2%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61.1%, 부분품 12.6%, 기초재 0.6%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공재의 비중이 상당하다. 한편 FTA 특혜대상이 되는 품목 중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의 비중은 <표 4-7>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86.4%로 유사하나, 가공재는 63.3%, 부분품은 10.5%, 기초재는 0.3%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FTA 활용에서 중간재 내 비중이 가공재가 부분품보다 우세한 것이 확인된다.

<표 4-7> 한-ASEAN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CO발급금액(a)	FTA대상수출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4,017,340	7,216,397	63.3	55.7
기초재	18,825	71,298	0.3	26.4
부분품	667,759	1,493,010	10.5	44.7
완성재	1,589,172	2,993,093	25.0	53.1
기타	56,333	64,238	0.9	87.7
총합계	6,349,428	11,838,035	100.0	53.6

對ASEAN 수출의 중간재 FTA활용률은 가공재는 55.7%, 기초재 26.4%, 부분품 44.7%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ASEAN FTA의 활용률은 53.6%로 중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타 협정 평균치인 63.8%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기초재, 부분품은 평균 수준보다도 저조하다.

(3) 인도

對인도 수출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출 가운데 중간재는 약 74.2%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61.1%, 부분품 12.6%, 기초재 0.6%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공재의 비중이 상당하다. 한편 <표 4-8>과 같이 실제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85.9%로 유사하며, 그 구성은 가공재는 65.8%, 부분품은 20.1%, 기초재는 0.6%로 나타났따.

對인도 수출의 중간재 FTA활용률은 가공재는 71.1%, 기초재 35.1%, 부분품

70.3%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은 68.9%로 타 협정 평균치인 63.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 4-8> 한-인도 CEP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CO발급금액(a)	FTA대상수출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3,235,395	4,549,190	65.8	71.1
기초재	28,343	80,701	0.6	35.1
부분품	986,946	1,403,067	20.1	70.3
완성재	653,409	1,079,404	13.3	60.5
기타	15,972	28,749	0.3	55.6
총합계	4,920,064	7,141,111	100.0	68.9

(4) 호주

對호주 수출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출 가운데 중간재는 약 36.0%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23.8%, 부분품 12.0%, 기초재 0.0%로 가공재의 비중이 높다. 한편 <표 4-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30.2%로 다소 저조하다. 가공재는 18.8%, 부분품은 11.3%, 기초재는 0.0%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완성재는 FTA 특혜활용금액의 약 69.7%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특혜수출은 대체로 완성재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4-9> 한-호주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CO발급금액(a)	FTA대상수출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594,235	943,693	18.8	63.0
기초재	71	102	0.0	69.3
부분품	357,281	480,120	11.3	74.4
완성재	2,199,233	2,533,455	69.7	86.8
기타	2,480	3,333	0.1	74.4
총합계	3,153,300	3,960,702	100.0	79.6

구체적으로 對호주 수출의 중간재 FTA활용은 가공재는 63.0%, 부분품 74.4%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호주 FTA의 활용률은 79.6%로 평균보

다 높은 양상이다. 다만, 완성재의 경우 FTA 활용금액의 점유 비중도 69.7%로 높을 뿐만 아니라 86.8%의 높은 활용률을 보여 **전체 요소 중에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5) 뉴질랜드

對뉴질랜드 수출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출 가운데 중간재는 약 47.9%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26.9%, 부분품 20.9%, 기초재 0.0%로 가공재와 부분품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표 4-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의 비중은 이와 상이하다. FTA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46.9%로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가공재는 20.5%, 부분품은 23.5%, 기초재는 0.0%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완성재는 FTA 특혜활용금액의 약 56.1%를 점유하고 있다. **對뉴질랜드 수출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완성재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4-10> 한-뉴질랜드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CO발급금액(a)	FTA대상수출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18,788	63,971	20.5	29.4
기초재	0	0	0.0	
부분품	21,558	49,720	23.5	43.4
완성재	51,480	123,847	56.1	41.6
기타	2	3	0.0	55.6
총합계	91,827	237,540	100.0	38.7

구체적으로 對뉴질랜드 수출의 중간재 FTA활용은 가공재는 29.4%, 부분품 43.4%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뉴질랜드 FTA의 활용률은 38.7%로 타 협정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부분품의 경우 전체 요소 중에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6) 요약

중국,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의 RCEP 참여국과의 기체결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과 관련, 가장 높은 비중의 요소, 활용률, 전체 산업 활용률을 요약하여 <표 4-11>로 나타내었다.

<표 4-11> RCEP FTA의 특혜對수출 활용현황(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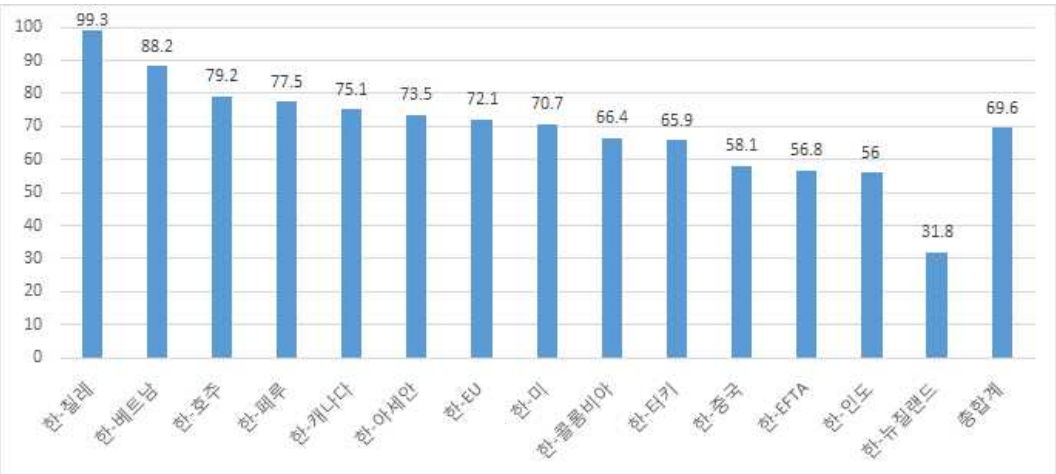
	FTA 적용 C/O 발급금액 중 1위 품목		전체 활용률
	비중	활용률	
중 국	가공재(63.9%)	46.6%	42.9%
ASEAN	가공재(63.3%)	55.7%	53.6%
인 도	가공재(65.8%)	71.1%	68.9%
호 주	완성재(69.8%)	86.8%	79.6%
뉴질랜드	완성재(56.1%)	41.6%	38.7%

나. 수입

<그림 4-16>은 2016년 협정별 FTA 특혜수출 활용률로,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인도,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16> 2016년 협정별 FTA 특혜수입 활용률

(단위 : %)



협정별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칠레, 베트남 등이 80% 이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칠레의 경우 99.3%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도 낮은 수출활용률에

비해 수입활용률은 88.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어 호주, 페루, 캐나다, ASEAN, EU, 미국 등이 평균치인 70% 이상의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다. 다만, 콜롬비아, 터키, 중국, EFTA, 인도, 뉴질랜드는 수입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협정이 50% 이상의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다.

(1) 중국

對중국의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입 가운데 중간재는 약 59.4%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40.9%, 부분품 16.9%, 기초재 1.5%로 가공재의 비중이 상당하다. 한편 <표 4-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의 비중은 이와 상이하다.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61.5%, 가공재는 45.9%, 부분품은 14.0%, 기초재는 1.6%로 유사하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對중국 수입 중 중간재 부문의 FTA활용률은 가공재 68.2%, 기초재 65.7%, 부분품 50.4%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중 FTA의 수입활용률은 60.9%로 타 협정 평균치인 69.6%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완성재의 활용률이 57.6%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가공재의 FTA 활용률은 한-중 FTA협정 내에서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2> 한-중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수입금액(a)	FTA대상수입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9,384,487	13,762,322	45.9	68.2
기초재	325,902	496,199	1.6	65.7
부분품	2,868,716	5,694,417	14.0	50.4
완성재	7,842,954	13,619,522	38.3	57.6
기타	33,962	39,251	0.2	86.5
총합계	20,456,022	33,611,711	100.0	60.9

(2) ASEAN

對ASEAN 수입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입 가운데 중간재는 약

60.4%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49.1%, 부분품 5.8%, 기초재 5.5%로 가공재에 집중도가 높다. 그리고 <표 4-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의 비중은 이와 유사하다.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58.4%로, 가공재는 49.0%, 부분품은 4.1%, 기초재는 5.3%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표 4-13> 한-ASEAN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수입금액(a)	FTA대상수입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8,227,886	10,268,624	49.0	80.1
기초재	881,846	1,141,645	5.3	77.2
부분품	695,798	1,221,463	4.1	57.0
완성재	6,971,023	8,260,371	41.5	84.4
기타	4,266	4,695	0.0	90.9
총합계	16,780,819	20,896,799	100.0	80.3

對ASEAN 수입의 중간재 FTA활용은 가공재는 80.0%, 기초재 77.2%, 부분품 57.0%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ASEAN FTA의 활용률은 80.3%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부분품은 다소 저조하다.

(3) 인도

<표 4-14> 한-인도 CEP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수입금액(a)	FTA대상수입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1,695,804	1,843,614	77.7	92.0
기초재	127,827	151,880	5.9	84.2
부분품	113,207	201,308	5.2	56.2
완성재	245,692	403,985	11.3	60.8
기타	361	590	0.0	61.3
총합계	2,182,891	2,601,376	100.0	83.9

對인도 수입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입 가운데 중간재는 약 84.4%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70.9%, 부분품 7.7%, 기초재 5.8%로 가공재의 비중이 매우 높

다. <표 4-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의 비중은 이와 유사하다.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88.7%이며, 가공재는 77.7%, 부분품은 7.7%, 기초재는 5.8%로 가공재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對인도 수입의 중간재 FTA활용률은 가공재는 92.0%, 부분품 56.2%, 기초재 84.2%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은 83.9%로 평균보다 높은 양상이다. 특히 가공재의 활용률은 9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다만, 부분품의 경우 56.2%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요컨대, 인도의 경우 **전체 요소 중에 가공재는 비중과 활용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4) 호주

對호주 수입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입 가운데 중간재는 약 76.8%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60.6%, 부분품 1.0%, 기초재 15.3%로 여타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가공재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표 4-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FTA 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의 비중은 이와 유사하다.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75.1%, 가공재는 58.6%, 부분품은 0.7%, 기초재는 15.8%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완성재는 FTA 특혜활용금액의 약 24.9%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수입은 대체로 가공재에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4-15> 한-호주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수입금액(a)	FTA대상수입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3,114,828	3,748,030	58.6	83.1
기초재	842,611	947,440	15.8	88.9
부분품	35,634	60,716	0.7	58.7
완성재	1,324,436	1,432,911	24.9	92.4
기타	1	1	0.0	100.0
총합계	5,317,510	6,189,097	100.0	85.9

對호주 수입 중간재의 FTA활용률은 가공재는 83.1%, 부분품 58.7%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호주 FTA의 활용률은 85.9%로 평균보다 높은 양상이다. 부분품의 경우 활용률이 다소 낮게 도출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0.7%에 불과하다.

(5) 뉴질랜드

對뉴질랜드 수입의 경우 FTA 특혜대상이 되는 수입 가운데 중간재는 약 36.3%를 점유하고 있다. 중간재를 다시 가공재, 기초재, 부분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공재의 비중이 29.6%, 부분품 0.2%, 기초재 6.5%로 가공재에 집중되어 있다. <표 4-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의 비중도 이와 유사하다. FTA적용하여 수입한 금액은 중간재가 약 34.4%로 가공재는 30.3%, 부분품은 0.1%, 기초재는 4.0%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완성재는 FTA 특혜활용금액의 약 65.6%를 점유하고 있다. **對뉴질랜드 수입은 완성재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4-16> 한-뉴질랜드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단위 : 천달러, %)

	FTA적용수입금액(a)	FTA대상수입금액(b)	(a)비중	활용률
가공재	168,455	180,825	30.3	93.2
기초재	22,121	39,805	4.0	55.6
부분품	534	1,056	0.1	50.5
완성재	365,087	389,780	65.6	93.7
총합계	556,197	611,466	100.0	91.0

구체적으로 對뉴질랜드 수입의 중간재 FTA활용은 가공재는 93.2%, 부분품 50.5%, 기초재 55.6%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뉴질랜드 FTA의 활용률은 91.0%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공재는 93.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활용률에 도달하고 있다.

(6) 요약

중국,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이 RCEP 참여국과 체결한 FTA의 특혜수출 활용현황과 관련, 가장 높은 비중의 품목, 활용률, 전체 산업활용

률을 요약하여 <표 4-16>으로 나타내었다.

<표 4-17> 對RCEP FTA의 특혜수입 활용현황(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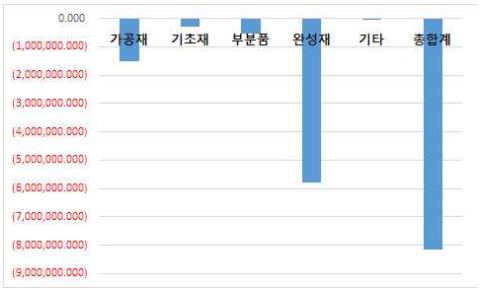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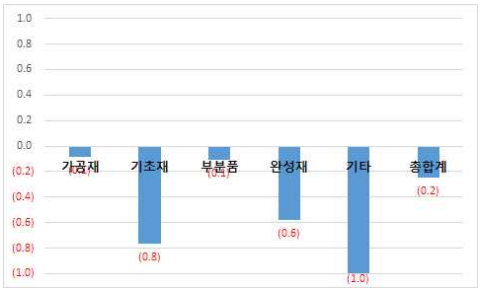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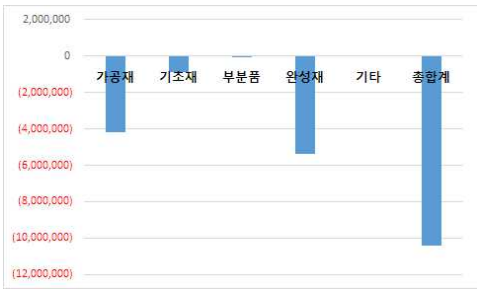
	FTA 적용 수입 금액 중 1위 품목		전체 활용률
	비중	활용률	
중 국	가공재(45.9%)	68.2%	60.9%
ASEAN	가공재(49.0%)	80.1%	80.3%
인 도	가공재(77.7%)	92.0%	83.9%
호 주	가공재(58.6%)	83.1%	85.9%
뉴질랜드	완성재(65.6%)	93.7%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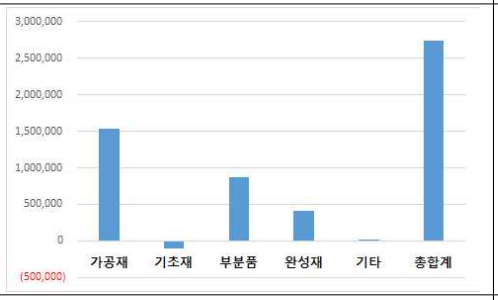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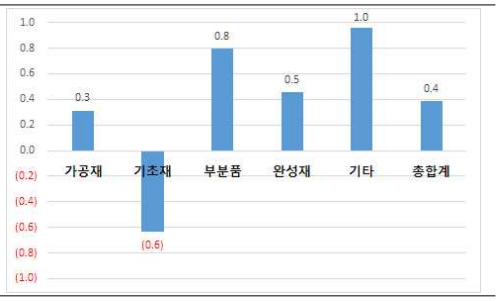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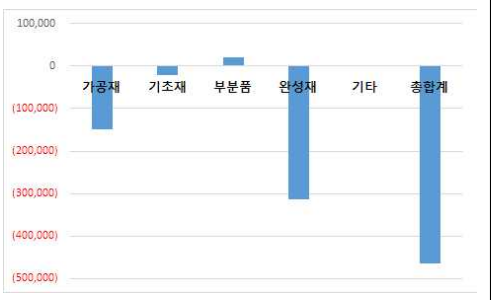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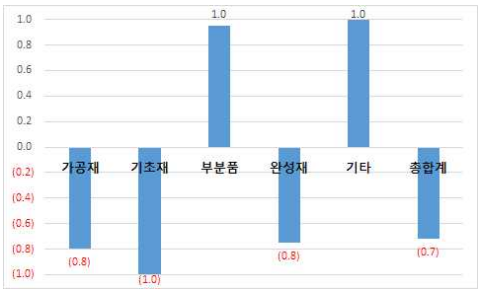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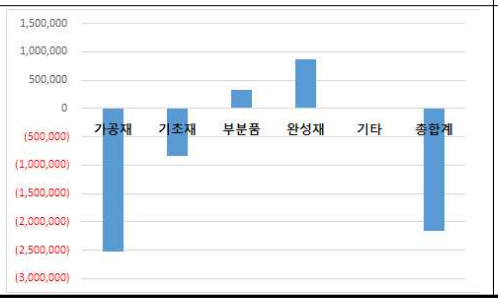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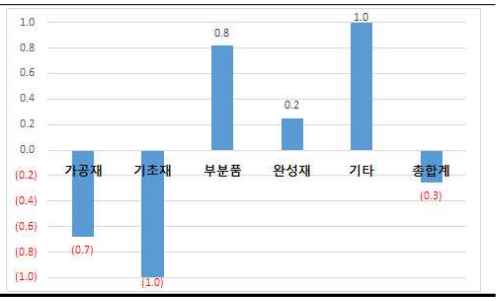
4. 對RCEP 참여국 특혜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RCEP 참여국 대상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FTA 특혜를 활용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對RCEP 참여국 특혜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7>과 같다.

<그림 4-17> 對RCEP 참여국 FTA특혜활용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단위 : 천달러)

	무역수지	무역특화지수
중국		
ASEAN		

	무역수지	무역특화지수
인도		
뉴질랜드		
호주		

한국의 RCEP 참여국에 대한 요소별 특혜무역수지 및 비교우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對중국 특혜무역수지는 모든 요소가 적자로 완성재의 적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적으로는 비교우위 중립적이지만, 요소별로는 기초재, 완성재가 수입우위(또는 특화) 가공재와 부분품은 비교우위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ASEAN 특혜무역수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가 적자로 완성재의 적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적으로는 수입우위이며, 요소별로는 부분품이 비교우위 중립, 그 외의 가공재, 기초재, 완성재는 수입 우위 또는 특화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특혜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적자이며, 부분품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적자로 완성재의 적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적으로는 수입우위이며, 요소별로는 부분품이 수출특화, 그 외의 가공재, 기초재, 완성재는 수입 우위 또는 특화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호주 특혜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적자이며, 완성재, 부분품은 흑자, 가공재와 기초재는 적자로, **가공재의 적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적으로는 수입우위이며, 요소별로는 부분품이 수출특화, 그 외의 가공재, 기초재, 완성재는 수입 우위 또는 특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對인도 특혜무역수지는** 모든 요소에서 유일하게 흑자이며, 이 가운데 **가공재의 흑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적으로는 수출우위이며, 요소별로는 부분품과 완성재가 수출 우이 또는 특화이며, 가공재는 비교우위 중립과 수출특화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제4절 對RCEP 참여국간 교역 경쟁력 분석

앞서 제2절에서는 한국의 對RCEP 참여국 교역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RCEP 참여국 간의 무역 현황과 구조를 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아울러 제3절에서는 한국과 對RCEP 참여국간 일본을 제외하고 이미 FTA를 체결·발효한 것에 착안하여 FTA활용률과 특혜무역수지, 특혜무역의 무역특화지수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시점에서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에서의 우위 부문을 점검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분석대상범위를 확장하여 RCEP 참여국 상호간의 교역을 분석한다. 이용자료는 RIETI-TID가 제공한 2015년 RCEP 체결국 무역데이터이다. 분석툴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무역특화지수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RCEP 체결국간 무역특화지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ASEAN의 경우 자본재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수출특화,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우위,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호주와 일본에 대해 수출우위,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으로 나타났다. 부분품에 대해서는 호주, 인도에 대해 수출 우위,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우위이며, **기초재에 대해서는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자본재와 부분품에 대해서는 ASEAN, 중국, 일본에 수입특화, 한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를 보여 대체로 수입의존적임을 보였다. 반면 **기초재의 경우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특화**를 보였다. 또한 호주의 경우 가공재에 대해 대부분의 RCEP 회원국 대상 비교우위 중립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만은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자본재와 부분품에 대해 호주, 인도, 뉴질랜드에 수출특화, 기초재에 대해서는 ASEAN, 호주, 인도 등에 수입특화를 보였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ASEAN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위위를 보이고 있다. **부분품**의 경우 타RCEP 회원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 또는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이 특징적이다. 기초재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ASEAN,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에 수입특화되어 있었다. 가공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우위 중립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도에 대해서는 수출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은 특히 인도를 대상으로 자본재, 소비재, 부분품 등 세부문에 대해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인도는 **소비재에 대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에, 부분품에 대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소비재와 부분품 등에 수입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일본은 자본재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수출특화 내지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ASEAN, 중국 등에 수입우위이며, 호주에 대해서만 수출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자본재와 원료등에 수출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자본재와 부분품에 대해 수입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재의 경우 ASEAN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수출우위 내지는 수출특화**된 것으로나타났다. **가공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교우위 중립적이나, 일본에 대해 수출특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본재에 대해 일본은 수입특화, 인도와 뉴질랜드, 호주는 수출특화 내지 수출우위, ASEAN과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에 대해 비교우위 중립적이나, ASEAN과 중국에 대해서는 수입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인도에 대해 수출특화, ASEAN, 중국,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수출우위로 도출되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재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의 경우 비교우위 중립, ASEAN,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수입우위였다. 가공재에 대해서는 ASEAN, 호주, 인도에 대해 수출우위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특화지수의 변동과 그 방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RCEP 참여국에 대한 연차별 무역특화지수를 <표 4-19>~<표 4-25>로 나타내었다.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8> RCEP 참여국간 무역특화지수 : 2015년

		ASEAN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ASEAN	Capital goods		0.85	-0.38	0.54	-0.36	0.87	-0.29
	Consumption goods		0.53	-0.22	-0.25	0.54	-0.15	0.43
	Parts and Compornents		0.46	0.19	0.34	-0.36	0.31	-0.53
	Primary goods		-0.29	0.80	0.80	0.74	0.74	0.84
	Processed goods		0.09	-0.18	0.25	-0.02	0.17	-0.33
호주	Capital goods	-0.85		-0.93	-0.30	-0.87	0.17	-0.68
	Consumption goods	-0.53		-0.68	-0.34	-0.31	-0.22	-0.22
	Parts and Compornents	-0.46		-0.90	-0.65	-0.90	0.08	-0.75
	Primary goods	0.29		1.00	0.97	0.96	-0.46	1.00
	Processed goods	-0.09		-0.24	0.06	0.45	-0.03	-0.26
중국	Capital goods	0.38	0.93		0.96	0.09	0.86	-0.28
	Consumption goods	0.22	0.68		0.75	0.63	-0.10	0.47
	Parts and Compornents	-0.19	0.90		0.87	-0.25	0.84	-0.57
	Primary goods	-0.80	-1.00		-0.73	-0.22	-0.96	0.25
	Processed goods	0.18	0.24		0.43	-0.21	0.12	-0.24
인도	Capital goods	-0.54	0.30	-0.96		-0.86	0.18	-0.76
	Consumption goods	0.25	0.34	-0.75		0.63	0.69	-0.05
	Parts and Compornents	-0.34	0.65	-0.87		-0.73	0.40	-0.84
	Primary goods	-0.80	-0.97	0.73		-0.12	-0.92	-0.16
	Processed goods	-0.25	-0.06	-0.43		-0.17	0.25	-0.35
일본	Capital goods	0.36	0.87	-0.09	0.86		0.83	0.48
	Consumption goods	-0.54	0.31	-0.63	-0.63		0.06	-0.14
	Parts and Compornents	0.36	0.90	0.25	0.73		0.96	0.26
	Primary goods	-0.74	-0.96	0.22	0.12		-0.98	0.40
	Processed goods	0.02	-0.45	0.21	0.17		-0.50	0.29
뉴질랜드	Capital goods	-0.87	-0.17	-0.86	-0.18	-0.83		-0.71
	Consumption goods	0.15	0.22	0.10	-0.69	-0.06		0.00
	Parts and Compornents	-0.31	-0.08	-0.84	-0.40	-0.96		-0.63
	Primary goods	-0.74	0.46	0.96	0.92	0.98		0.98
	Processed goods	-0.17	0.03	-0.12	-0.25	0.50		-0.26
한국	Capital goods	0.29	0.68	0.28	0.76	-0.48	0.71	
	Consumption goods	-0.43	0.22	-0.47	0.05	0.14	0.00	
	Parts and Compornents	0.53	0.75	0.57	0.84	-0.26	0.63	
	Primary goods	-0.84	-1.00	-0.25	0.16	-0.40	-0.98	
	Processed goods	0.33	0.26	0.24	0.35	-0.29	0.26	

1. 중국

첫째, 중국의 자본재 교역은 호주, 인도, 중국에 대해 수입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ASEAN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교우위 중립에서 수입우위로,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우위에서 2015년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되었다.

둘째, 중국의 소비재 교역은 ASEAN에 대해 수출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되었으며, 호주와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특화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부분품 교역은 호주를 대상으로는 수출우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기초재 교역은 ASEAN, 호주, 인도, 뉴질랜드에 대해 수입특화로 나타나는데, ASEAN과 인도에 대해서는 수입특화가 연차별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출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가공재 교역은 ASEAN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비교우위 중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011~2014년간 수입우위였으나, 2015년에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된 것이 특징적이다.

2. 일본

첫째, 일본의 자본재 교역은 호주, 인도, 뉴질랜드에 대해 강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과 ASEAN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 ASEAN, 인도, 호주에 대해서는 무역특화지수가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일본의 소비재 교역은 ASEAN, 중국, 인도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를 점

<표 4-19> 중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ASEAN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Capital goods	2011년	0.22	0.91	0.95	-0.11	0.86	-0.30
	2012년	0.25	0.93	0.94	0.00	0.89	-0.32
	2013년	0.36	0.94	0.94	0.10	0.91	-0.36
	2014년	0.36	0.93	0.95	0.10	0.73	-0.31
	2015년	0.38	0.93	0.96	0.09	0.86	-0.28
Consumption goods	2011년	0.39	0.87	0.75	0.72	0.07	0.45
	2012년	0.34	0.85	0.68	0.73	-0.02	0.48
	2013년	0.30	0.75	0.69	0.71	-0.23	0.47
	2014년	0.25	0.74	0.73	0.64	-0.31	0.47
	2015년	0.22	0.68	0.75	0.63	-0.10	0.47
Parts and Components	2011년	-0.29	0.83	0.87	-0.43	0.77	-0.51
	2012년	-0.21	0.84	0.88	-0.36	0.75	-0.54
	2013년	-0.18	0.85	0.86	-0.30	0.80	-0.56
	2014년	-0.17	0.88	0.83	-0.25	0.85	-0.59
	2015년	-0.19	0.90	0.87	-0.25	0.84	-0.57
Primary goods	2011년	-0.92	-0.99	-0.84	-0.20	-0.95	0.45
	2012년	-0.90	-1.00	-0.80	-0.27	-0.95	0.37
	2013년	-0.91	-1.00	-0.92	-0.34	-0.97	0.41
	2014년	-0.87	-1.00	-0.85	-0.28	-0.97	0.41
	2015년	-0.80	-1.00	-0.73	-0.22	-0.96	0.25
Processed goods	2011년	0.00	0.08	0.45	-0.25	0.05	-0.30
	2012년	0.02	0.10	0.38	-0.27	0.02	-0.33
	2013년	0.07	0.12	0.33	-0.29	0.01	-0.35
	2014년	0.12	0.18	0.39	-0.24	0.04	-0.35
	2015년	0.18	0.24	0.43	-0.21	0.12	-0.24

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부분품 교역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대해서는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출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표 4-20> 일본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ASEAN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한국
Capital goods	2011년	0.46	0.94	0.11	0.94	0.80	0.50
	2012년	0.50	0.93	0.00	0.95	0.86	0.39
	2013년	0.40	0.92	-0.10	0.93	0.86	0.40
	2014년	0.37	0.91	-0.10	0.90	0.90	0.41
	2015년	0.36	0.87	-0.09	0.86	0.83	0.48
Consumption goods	2011년	-0.53	0.33	-0.72	-0.50	-0.13	-0.19
	2012년	-0.48	0.44	-0.73	-0.52	-0.07	-0.24
	2013년	-0.53	0.43	-0.71	-0.44	0.06	-0.18
	2014년	-0.57	0.35	-0.64	-0.63	0.08	-0.14
	2015년	-0.54	0.31	-0.63	-0.63	0.06	-0.14
Parts and Compornents	2011년	0.47	0.92	0.43	0.86	0.96	0.31
	2012년	0.49	0.93	0.36	0.83	0.92	0.30
	2013년	0.44	0.93	0.30	0.79	0.95	0.33
	2014년	0.38	0.91	0.25	0.76	0.96	0.27
	2015년	0.36	0.90	0.25	0.73	0.96	0.26
Primary goods	2011년	-0.94	-1.00	0.20	-0.63	-0.98	0.37
	2012년	-0.95	-0.99	0.27	-0.45	-0.97	0.62
	2013년	-0.92	-0.98	0.34	-0.07	-0.97	0.58
	2014년	-0.87	-0.99	0.28	-0.26	-0.98	0.48
	2015년	-0.74	-0.96	0.22	0.12	-0.98	0.40
Processed goods	2011년	-0.03	-0.55	0.25	-0.05	-0.50	0.25
	2012년	-0.05	-0.67	0.27	-0.02	-0.58	0.21
	2013년	-0.03	-0.55	0.29	-0.11	-0.47	0.24
	2014년	-0.06	-0.63	0.24	-0.11	-0.45	0.24
	2015년	0.02	-0.45	0.21	0.17	-0.50	0.29

넷째, 일본의 기초재 교역은 호주, 뉴질랜드, ASEAN에 대해서는 수입특화로 나타났으며, 인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특화에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일본의 가공재 교역은 ASEAN, 중국, 인도, 한국에 대해서 비교우위 중립적이며,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3. 한국

첫째, 한국의 자본재 교역은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출특화 내지 우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ASEAN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변동,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소비재 교역은 ASEAN과 중국에 대해 수입우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일본,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다만, 호주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출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변동된 것이 특징적이다.

셋째, 한국의 부분품 교역은 ASEAN, 호주, 중국, 뉴질랜드에 대해 수출우위,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특화 되어있으며, 다만 일본에 대해서만은 수입우위에서 최근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변동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기초재 교역은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는 수입특화,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과 인도에 대해 2011~2014년간 수입우위에서 2015년 비교우위중립으로 변동되었다.

다섯째, 한국의 가공재 교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4~2015년간 ASEAN에 대해 수출우위, 2012~2014년간 중국에 대해 수출우위, 2015년 인도에 대해 수출우위, 2013~2014년간 뉴질랜드에 대해 수출우위를 보인 바 있는 등 수출우위와 비교우위 중립 간에 연차별 전환 변동이 특징적이다.

4. 인도

첫째, 인도의 자본재 교역은 ASEAN에 대해 수입우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중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우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표 4-21> 한국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ASEAN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Capital goods	2011년	0.44	0.82	0.30	0.90	-0.50	0.70
	2012년	0.42	0.94	0.32	0.93	-0.39	0.80
	2013년	0.42	0.84	0.36	0.89	-0.40	0.68
	2014년	0.32	0.84	0.31	0.81	-0.41	0.69
	2015년	0.29	0.68	0.28	0.76	-0.48	0.71
Consumption goods	2011년	-0.33	0.39	-0.45	0.36	0.19	-0.33
	2012년	-0.36	0.45	-0.48	0.24	0.24	-0.11
	2013년	-0.36	0.39	-0.47	0.27	0.18	-0.04
	2014년	-0.45	0.29	-0.47	-0.05	0.14	0.00
	2015년	-0.43	0.22	-0.47	0.05	0.14	0.00
Parts and Compornents	2011년	0.35	0.47	0.51	0.89	-0.31	0.63
	2012년	0.47	0.48	0.54	0.88	-0.30	0.56
	2013년	0.45	0.47	0.56	0.86	-0.33	0.56
	2014년	0.39	0.63	0.59	0.84	-0.27	0.61
	2015년	0.53	0.75	0.57	0.84	-0.26	0.63
Primary goods	2011년	-0.87	-1.00	-0.45	-0.37	-0.37	-0.99
	2012년	-0.83	-1.00	-0.37	-0.37	-0.62	-0.99
	2013년	-0.84	-1.00	-0.41	-0.36	-0.58	-0.99
	2014년	-0.82	-1.00	-0.41	-0.33	-0.48	-0.99
	2015년	-0.84	-1.00	-0.25	0.16	-0.40	-0.98
Processed goods	2011년	0.30	-0.19	0.30	-0.06	-0.25	0.10
	2012년	0.28	0.09	0.33	0.07	-0.21	0.26
	2013년	0.29	0.19	0.35	0.15	-0.24	0.34
	2014년	0.31	0.29	0.35	0.28	-0.24	0.31
	2015년	0.33	0.26	0.24	0.35	-0.29	0.26

둘째, 인도의 소비재 교역은 ASEAN,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기존의 무역 양상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셋째, 인도의 부분품 교역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출우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교우위 중립에서 최근 수출우위로 변동되었다.

<표 4-22> 인도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호주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
Capital goods	2011년	-0.28	0.38	-0.95	-0.94	-0.44	-0.90
	2012년	-0.32	0.34	-0.94	-0.95	-0.38	-0.93
	2013년	-0.54	0.35	-0.94	-0.93	0.31	-0.89
	2014년	-0.43	0.50	-0.95	-0.90	0.21	-0.81
	2015년	-0.54	0.30	-0.96	-0.86	0.18	-0.76
Consumption goods	2011년	0.33	0.59	-0.75	0.50	0.67	-0.36
	2012년	0.23	0.42	-0.68	0.52	0.56	-0.24
	2013년	0.32	0.36	-0.69	0.44	0.74	-0.27
	2014년	0.30	0.53	-0.73	0.63	0.79	0.05
	2015년	0.25	0.34	-0.75	0.63	0.69	-0.05
Parts and Compornents	2011년	-0.45	0.56	-0.87	-0.86	0.13	-0.89
	2012년	-0.42	0.56	-0.88	-0.83	-0.12	-0.88
	2013년	-0.36	0.68	-0.86	-0.79	0.30	-0.86
	2014년	-0.32	0.67	-0.83	-0.76	0.46	-0.84
	2015년	-0.34	0.65	-0.87	-0.73	0.40	-0.84
Primary goods	2011년	-0.69	-0.99	0.84	0.63	-0.96	0.37
	2012년	-0.70	-0.99	0.80	0.45	-0.96	0.37
	2013년	-0.68	-0.98	0.92	0.07	-0.95	0.36
	2014년	-0.76	-0.97	0.85	0.26	-0.93	0.33
	2015년	-0.80	-0.97	0.73	-0.12	-0.92	-0.16
Processed goods	2011년	0.03	-0.65	-0.45	0.05	-0.21	0.06
	2012년	-0.02	-0.58	-0.38	0.02	-0.10	-0.07
	2013년	-0.02	-0.57	-0.33	0.11	0.20	-0.15
	2014년	-0.12	-0.38	-0.39	0.11	0.17	-0.28
	2015년	-0.25	-0.06	-0.43	-0.17	0.25	-0.35

넷째, 인도의 기초재 교역은 ASEAN,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입우위 및 수입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는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다만, 기존에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수출우위였던 부문이 2015년에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된 양상이 특징적이다.

다섯째, 인도의 가공재 교역은 호주에 대해 2011~2014년간 수입우위에서 2015년 비교우위 중립으로,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교우위 중립에서 수입우위로 변동되었다.

<표 4-23> ASEAN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Capital goods	2011년	0.75	-0.22	0.28	-0.46	0.70	-0.44
	2012년	0.78	-0.25	0.32	-0.50	0.78	-0.42
	2013년	0.82	-0.36	0.54	-0.40	0.85	-0.42
	2014년	0.83	-0.36	0.43	-0.37	0.87	-0.32
	2015년	0.85	-0.38	0.54	-0.36	0.87	-0.29
Consumption goods	2011년	0.43	-0.39	-0.33	0.53	-0.30	0.33
	2012년	0.54	-0.34	-0.23	0.48	-0.19	0.36
	2013년	0.53	-0.30	-0.32	0.53	-0.17	0.36
	2014년	0.50	-0.25	-0.30	0.57	-0.24	0.45
	2015년	0.53	-0.22	-0.25	0.54	-0.15	0.43
Parts and Components	2011년	0.34	0.29	0.45	-0.47	0.45	-0.35
	2012년	0.32	0.21	0.42	-0.49	0.49	-0.47
	2013년	0.41	0.18	0.36	-0.44	0.45	-0.45
	2014년	0.50	0.17	0.32	-0.38	0.39	-0.39
	2015년	0.46	0.19	0.34	-0.36	0.31	-0.53
Primary goods	2011년	0.05	0.92	0.69	0.94	0.30	0.87
	2012년	0.01	0.90	0.70	0.95	0.79	0.83
	2013년	0.03	0.91	0.68	0.92	0.75	0.84
	2014년	-0.07	0.87	0.76	0.87	0.75	0.82
	2015년	-0.29	0.80	0.80	0.74	0.74	0.84
Processed goods	2011년	0.19	0.00	-0.03	0.03	0.23	-0.30
	2012년	0.32	-0.02	0.02	0.05	0.21	-0.28
	2013년	0.23	-0.07	0.02	0.03	0.10	-0.29
	2014년	0.19	-0.12	0.12	0.06	0.16	-0.31
	2015년	0.09	-0.18	0.25	-0.02	0.17	-0.33

5. ASEAN

첫째, ASEAN의 자본재는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특화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는 비교우위 중립에서 수입우위로, 인도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에서 수출우위로 변동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둘째, ASEAN의 소비재는 중국에 대해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한

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ASEAN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호주를 대상으로 수출우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수출우위가 약화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우위가 약화되는 추세다.

넷째, ASEAN의 기초재 교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수출우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ASEAN의 가공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교우위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6. 호주

첫째, 호주의 자본재 교역은 ASEAN에 대해 수입특화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은 각각 수입특화, 수입우위, 비교우위 중립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둘째, 호주의 소비재 교역은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수입우위가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셋째, 호주의 부분품 교역은 ASEAN, 인도,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우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호주의 기초재 교역은 ASEAN을 대상으로 2015년 무역특화지수가 급증하였는데 수출우위에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수입특화에서 수입우위로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운 수출특화 양상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

다섯째, 호주의 가공재 교역은 인도에 대해 2015년 무역특화지수가 급감하

<표 4-24> 호주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ASEAN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Capital goods	2011년	-0.75	-0.91	-0.38	-0.94	0.03	-0.82
	2012년	-0.78	-0.93	-0.34	-0.93	0.01	-0.94
	2013년	-0.82	-0.94	-0.35	-0.92	0.07	-0.84
	2014년	-0.83	-0.93	-0.50	-0.91	0.14	-0.84
	2015년	-0.85	-0.93	-0.30	-0.87	0.17	-0.68
Consumption goods	2011년	-0.43	-0.87	-0.59	-0.33	-0.12	-0.39
	2012년	-0.54	-0.85	-0.42	-0.44	-0.12	-0.45
	2013년	-0.53	-0.75	-0.36	-0.43	-0.19	-0.39
	2014년	-0.50	-0.74	-0.53	-0.35	-0.22	-0.29
	2015년	-0.53	-0.68	-0.34	-0.31	-0.22	-0.22
Parts and Compornents	2011년	-0.34	-0.83	-0.56	-0.92	-0.05	-0.47
	2012년	-0.32	-0.84	-0.56	-0.93	-0.02	-0.48
	2013년	-0.41	-0.85	-0.68	-0.93	-0.03	-0.47
	2014년	-0.50	-0.88	-0.67	-0.91	0.07	-0.63
	2015년	-0.46	-0.90	-0.65	-0.90	0.08	-0.75
Primary goods	2011년	-0.05	0.99	0.99	1.00	-0.71	1.00
	2012년	-0.01	1.00	0.99	0.99	-0.55	1.00
	2013년	-0.03	1.00	0.98	0.98	-0.59	1.00
	2014년	0.07	1.00	0.97	0.99	-0.52	1.00
	2015년	0.29	1.00	0.97	0.96	-0.46	1.00
Processed goods	2011년	-0.19	-0.08	0.65	0.55	0.04	0.19
	2012년	-0.32	-0.10	0.58	0.67	0.06	-0.09
	2013년	-0.23	-0.12	0.57	0.55	0.02	-0.19
	2014년	-0.19	-0.18	0.38	0.63	-0.01	-0.29
	2015년	-0.09	-0.24	0.06	0.45	-0.03	-0.26

였는데, 기존에 수출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으로 변환되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교우위 중립에서 최근 수입우위로 변동되는 추세이며, 수입우위에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다.

7. 뉴질랜드

첫째, 뉴질랜드의 자본재 교역은 일본, 한국, 중국, ASEAN에 대해 수입특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호주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다

<표 4-25> 뉴질랜드의 對RCEP 참여국 무역특화지수 : 2011~2015년

		ASEAN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Capital goods	2011년	-0.70	-0.03	-0.86	0.44	-0.80	-0.70
	2012년	-0.78	-0.01	-0.89	0.38	-0.86	-0.80
	2013년	-0.85	-0.07	-0.91	-0.31	-0.86	-0.68
	2014년	-0.87	-0.14	-0.73	-0.21	-0.90	-0.69
	2015년	-0.87	-0.17	-0.86	-0.18	-0.83	-0.71
Consumption goods	2011년	0.30	0.12	-0.07	-0.67	0.13	0.33
	2012년	0.19	0.12	0.02	-0.56	0.07	0.11
	2013년	0.17	0.19	0.23	-0.74	-0.06	0.04
	2014년	0.24	0.22	0.31	-0.79	-0.08	0.00
	2015년	0.15	0.22	0.10	-0.69	-0.06	0.00
Parts and Components	2011년	-0.45	0.05	-0.77	-0.13	-0.96	-0.63
	2012년	-0.49	0.02	-0.75	0.12	-0.92	-0.56
	2013년	-0.45	0.03	-0.80	-0.30	-0.95	-0.56
	2014년	-0.39	-0.07	-0.85	-0.46	-0.96	-0.61
	2015년	-0.31	-0.08	-0.84	-0.40	-0.96	-0.63
Primary goods	2011년	-0.30	0.71	0.95	0.96	0.98	0.99
	2012년	-0.79	0.55	0.95	0.96	0.97	0.99
	2013년	-0.75	0.59	0.97	0.95	0.97	0.99
	2014년	-0.75	0.52	0.97	0.93	0.98	0.99
	2015년	-0.74	0.46	0.96	0.92	0.98	0.98
Processed goods	2011년	-0.23	-0.04	-0.05	0.21	0.50	-0.10
	2012년	-0.21	-0.06	-0.02	0.10	0.58	-0.26
	2013년	-0.10	-0.02	-0.01	-0.20	0.47	-0.34
	2014년	-0.16	0.01	-0.04	-0.17	0.45	-0.31
	2015년	-0.17	0.03	-0.12	-0.25	0.50	-0.26

만 인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우위에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뉴질랜드의 소비재 교역은 인도를 제외한 ASEAN, 호주, 중국, 일본 한국에서 대체로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도에 대해서는 수입우위 또는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뉴질랜드의 부분품 교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의 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ASEAN에 대해서는 수입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다만 인근 지역인 호주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기존에 비교우위 중립에서 수입우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뉴질랜드의 기초재 교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특화되어 있었으며, 호주를 대상으로는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ASEAN을 대상으로는 수입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다섯째, 뉴질랜드의 가공재 교역은 ASEAN, 호주, 중국, 인도,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우위 중립의 양상을 보이며, 일본에 대해서만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제5장 기업의 對RCEP 참여국 누적조항 적용 실태조사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기체결 FTA의 원산지기준 활용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원산지 판정 자료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일반, 특례)의 적용한 사례와 비중과 국내외 원재료 조달 실태를 추출·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시점에서 누적 등 양자간 FTA에서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이보다 확장된 개념인 RCEP이 체결될 경우 Mega FTA의 기업 활용성을 진단해 본다.

TPP, RCEP 등 최근 논의되는 Mega FTA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누적보다 광범위한 영역과 내용을 포함한 완전누적 개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러 연구와 관세당국 가이드에 누적조항을 활용한 FTA 특혜수출입 사례(예)가 수록된 바 있다.[131] 그러나 실제 해당 조항이 FTA 활용 시 사용되는 빈도, 비중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누적조항 등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실태 기초 분석 자료로서, 수집된 2016년 인증된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 결과 8,355건을 바탕으로, 원산지결정기준 가운데 누적을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충족한 실제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 원재료 조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Mega FTA의 활용 가능성도 동시에 파악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누적 조항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Mega FTA가 체결될 경우 누적조항에 의해 원산지에 대한 허용범위가 광역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Mega FTA의 활용은 누적에 의한 투입 원재료의 허용 원산지의 범위 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1) 김한성(2006), 김영춘(2015), WCO, 스위스·영국 등 관세당국 자료 등

분석 대상기업의 기초 데이터와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6년 말 기준 유효 인증수출자는 누적 총 33,009건으로 사업자번호별로는 9,16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증물품은 평균 사업자당 3.6건이었다.

<표 5-1> 유효 인증수출자 인증 현황(2016년말 기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건수	692	6,990	10,395	6,283	8,649	33,009

유효 인증수출자 인증건의 지역적 분포는 <표 5-2>와 같다. 경기 9,121건(27.6%), 서울 6,546건(19.8%), 경남 3,686개(11.2%), 인천 2,533(7.7%) 순으로 수도권에 약 5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부산·경상권에 약 32.4%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광주, 충남, 대구, 충북, 강원, 울산, 전남, 대전, 전북 등이 5%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건의 지역별 비중

구 분	건수	비중
경기	9,121	27.6
서울	6,546	19.8
경남	3,686	11.2
인천	2,533	7.7
부산	2,512	7.6
대구	1,915	5.8
경북	1,754	5.3
충남	1,363	4.1
울산	821	2.5
충북	750	2.3
전북	538	1.6
대전	457	1.4
전남	337	1.0
광주	283	0.9
강원	262	0.8
세종	102	0.3
제주	29	0.1
합계	33,009	100.0

다음으로 유효 인증수출자 인증건의 산업별 분포는 <표 5-3>와 같다. 산업별로는 기계류가 8,859건(26.8%), 화학공업제품 5,489건(16.6%), 섬유류 4,532건(13.7%), 전자전기제품 3,888건(11.8%),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550건(10.8%), 농림수산물 1,665건(5.0%), 생활용품 1,492건(4.5%), 잡제품 468건(1.4%), 광산물 155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유효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건의 산업별 분포

구 분	기업수	비중
기계류	8,859	26.8
화학공업제품	5,489	16.6
섬유류	4,532	13.7
전자전기제품	3,888	11.8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550	10.8
철강금속제품	2,715	8.2
농림수산물	1,665	5.0
생활용품	1,492	4.5
잡제품	468	1.4
기계류/전자전기제품	196	0.6
광산물	155	0.5
총합계	33,009	100.0

마지막으로 인증수출자 인증물품의 협정별 비중은 다음 <표 5-4>로 나타내었다. 한-EU FTA가 14,992건으로 45.2%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한-ASEAN FTA가 7,525건 22.8%, 한-중 FTA가 3,395건 10.3%, 한-인도 FTA가 2680건 8.1%로 나타났다.

인증수출자를 FTA 특혜 수출의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는 한-EU FTA의 비중이 절반가량인 45.2%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ASEAN, 중국, 인도 등의 발급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기관발급시 필수적인 원산지발급신청시 첨부서류인 ①수출신고필증사본, ②원산지소명서, ③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④그 밖의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32]

<표 5-4> 유효인증수출자 인증건수의 협정별 구분(2016년말 기준)

구분	건수	비중
한-EU	14,922	45.2
한-ASEAN	7,525	22.8
한-중국	3,395	10.3
한-인도	2,680	8.1
한-EFTA	1,150	3.5
한-페루	948	2.9
한-미국	664	2.0
한-베트남	500	1.5
한-싱가포르	409	1.2
한-칠레	358	1.1
한-터키	245	0.7
한-캐나다	102	0.3
한-호주	86	0.3
한-뉴질랜드	24	0.1
한-콜롬비아	1	0.0
총합계	33,009	100.0

132)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은 다음과 같다.(자료 : FTA 협정 및 법령)

제2절 주요 산업(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원재료 조달 실태

1. 원산지판정 실태

분석을 위해 2016년의 인증수출자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 결과를 수집하고, 8,355건의 원산지판정자료를 추출하였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표 5-5> 2016년 인증수출자 인증건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 분		건수	비중(%)
완전생산기준		152	1.82
세번변경기준	CC	365	4.37
	CTH	5,515	66.01
	CTSH	459	5.49
	소계	6,339	75.87
부가가치기준	MC	327	3.91
	RVC	424	5.07
	소계	751	8.99
가공공정기준	SP	359	4.30
조합기준		680	8.14
기타		74	0.89
총합계		8,355	100

<표 5-5>는 수집된 인증된 인증수출자 원산지판정건수 8,355건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의 분포는 세번변경기준이 6,339건(75.9%), 부가가치기준이 751건(9.0%), 조합기준이 680건(8.1%), 가공공정기준 359건(4.3%), 완전생산기준 152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세번변경기준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높은 빈도로 채택되고 있었다.

2. 원재료조달 실태

RCEP 발효 후, 누적기준 활용 확대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 기업들의 원재료 조달 현황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표 5-6>은 조사대상 인증수출자 인증건수 중 원재료 조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을 15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해외 조달 원재료 비율은 전체 원산지 판정건수의 5.7%, 한국산 원재료 비율은 40.5%로 나타나, 한국(국내)으로부터 조달되는 원재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6> 조사대상 인증수출자의 원재료 조달 현황

(단위 : 건수, %)

산업별	HS (류)	한국산 원재료 133)	한국산 원재료 비율	해외조달 원재료	해외조달 비율	총계
1차산품	1~10	61	85.9	1	1.4	71
가공1차산품	11~24	275	57.1	29	6.0	482
가공광물	25~28	66	62.3	17	16.0	106
고무화학	29~40	665	29.1	127	5.6	2285
가죽제품	41~43	15	17.6	8	9.4	85
종이목재	44~49	26	32.5	16	20.0	80
의류직물	50~67	622	64.7	51	5.3	961
비금속광물	68~71	29	20.0	21	14.5	145
금속제품	72~83	328	36.4	58	6.4	901
일반기계	84	616	39.7	57	3.7	1,553
전기기계	85	266	42.0	24	3.8	634
기타 운송기기	86~89	-	-	-	-	7
운송기기	87	116	58.9	-	-	197
정밀기계	90~91	152	31.8	45	9.4	478
기타제조품	92~97	149	40.3	25	6.8	370
총 계		3,386	40.5	479		8,355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은 5개 산업은 1차산품, 의류직물, 가공광물, 운송기기, 가공 1차 산품이었다. 특히 관세율표 제3류부터 제10류까지 해당하는 품

133) BOM 내역에서 KR 원재료가 있는 물품의 수를 합산(원산지확인서 취득 유무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목의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85.9%로 나타나, 1차 산품에 속하는 물품 대부분이 한국산 원재료를 조달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조달받는 원재료 비율이 높은 5개 산업은 가공광물, 비금속광물, 가죽제품, 정밀기계, 기타 제조품이다. 가공광물 산업에서 해외 원재료를 주로 조달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PSR별로는 CTH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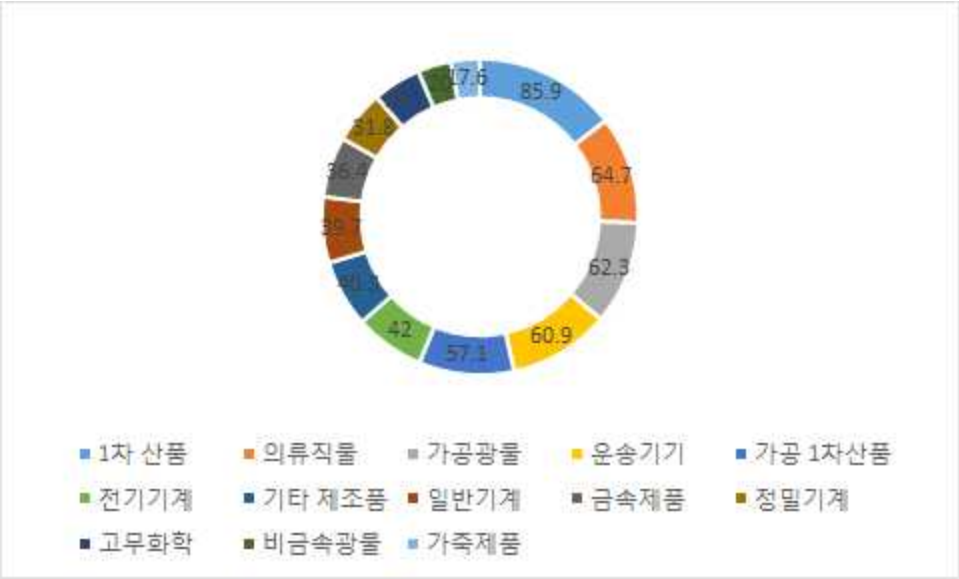
<표 5-7> 조사대상 인증수출자의 산업별 해외조달원재료 비중

(단위 : 건수)

구분	해외조달원재료(A)			총계(C)	B/C(%)
		RCEP조달 원재료(B)	A/B(%)		
고무화학	127	78	61.4	2,285	3.41
일반기계	57	43	75.4	1,553	2.77
의류직물	51	41	80.4	961	4.27
금속제품	58	51	87.9	901	5.66
전기기계	24	17	70.8	634	2.68
가공 1차산품	29	14	48.3	482	2.9
정밀기계	45	28	62.2	478	5.86
기타 제조품	25	23	92.0	370	6.22
운송기기	-	-		197	-
비금속광물	21	21	100.0	145	14.48
가공광물	17	12	70.6	106	11.32
가죽제품	8	8	100.0	85	9.41
종이목재	16	4	25.0	80	5
1차 산품	1	-		71	-
기타 운송기기	-	-		7	-
총합계	479	340	71.0	8,355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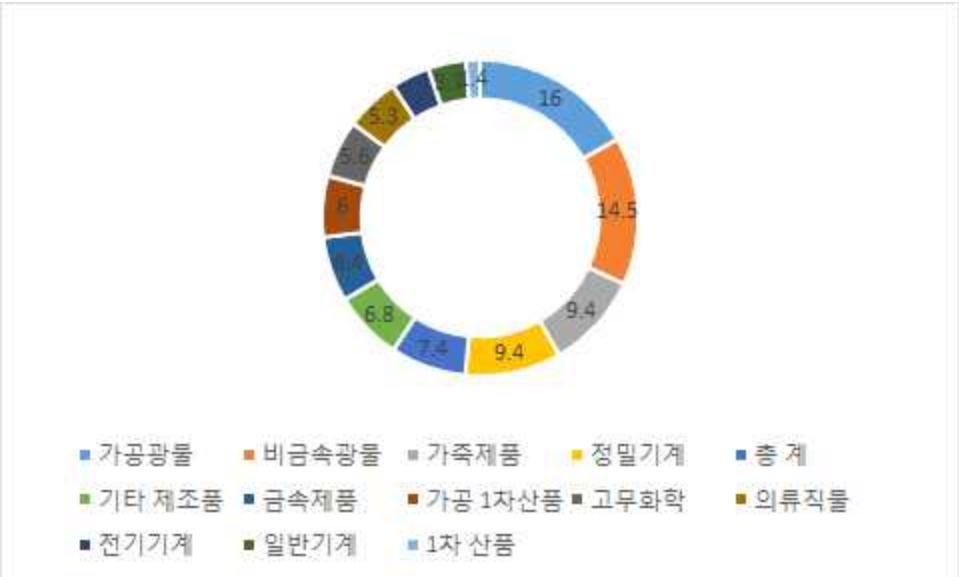
<표 5-7>은 해외원재료조달에서 RCEP 참여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한 부문을 분류한 것이다. 해외원재료 조달분 중 RCEP 참여국으로부터 조달한 비중은 7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금속광물, 가죽제품 등은 전부 RCEP 참여국으로부터 원재료 조달이 되고 있었다. 이는 향후 RCEP 타결에 의해 국내 기업의 RCEP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 산업별 한국산 원재료 비율내역



출처 : 정보원, 인증수출자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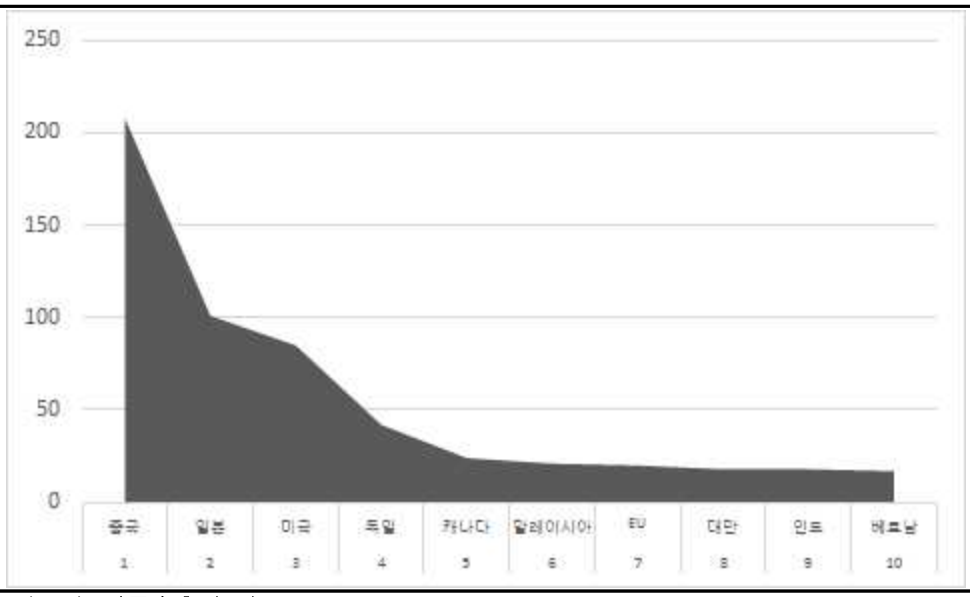
<그림 5-2> 산업별 해외조달 원재료 비율내역



출처 : 정보원, 인증수출자 자료

물품은 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위 수입국은 FTA 체결국인 미

<그림 5-3> 원재료 해외 조달 국별 현황



출처 : 정보원, 인증수출자 자료

국이나 독일 등이었다.

MEGA FTA가 발효되는 경우, 원산지 누적이 가능한 국가가 확대된다. 현재는 양자 협정인데 반해, MEGA FTA는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CEP 발효 시 누적기준 확대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사항이 된다.

이하에서는 인증수출자 신청 품목들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원재료 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각 품목의 원산지 판정 자료를 통해 FTA 활용률 확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제3절 원재료 조달과 RCEP 누적 활용 가능성 검토

1. 국내산 원재료 조달 사례

(1) 국내원재료조달 : 원산지결정기준 영향無

관세율표 제 8414.9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배기가스 터빈과급기의 부분품이며, 한-ASEAN FTA를 활용하였다. 해당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물품의 BOM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부품은 한국(국내)으로부터 조달하였으며, 그 외의 부품은 공급받는 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 세번으로 변경되어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었다.

<표 5-8>은 배기가스 터빈과급기 부분품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기업이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협정은 한-ASEAN,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로 확인된다. 향후 기업이 상기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판정가능하게 된다. 이에 RCEP에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 기준 등으로 채택할 경우, 기업은 한-인도 CEPA 보다는 RCEP 활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표 5-8> 배기가스 터빈과급기 부분품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8414.90	한-중	CTH	SPINDLE	8414.90	한국
			VALVE PLATE	8414.90	한국
			WASHER	7318.22	미상
			DISC SPRING	7508.90	독일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SH+RVC35	△
한-ASEAN	CTH	O
한-중	CTH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TH	O

(2) 국내원재료조달 & RCEP 원산지재료 사용 : 원산지결정기준 영향無

관세율표 제1904.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곡물조제품이며, 해당호의 한-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이다. <표 5-9> 는 곡물조제품의 BOM 내역이며, 원재료는 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SEASONING은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역내산 원재료임을 입증하였다.

<표 5-9>는 곡물조제품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이 활용한 한-ASEAN FT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 가능하다. 이처럼 동 물품은 한국이 RCEP 회원국과 기체결한 FTA에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RCEP에서도 해당 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동 물품은 인도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RVC40로 원산지재료의 가치에 따라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RCEP에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 기준 등으로 채택할 경우, 기업은 한-인도 CEPA 보다는 RCEP 활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표 5-9> 곡물조제품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1904.10	한-ASEAN	CTH	RICE POWDER	1102.90	한국
			CORN POWDER	1005.90	브라질
			PALM OIL	1511.90	말레이시아
			SEASONING	1904.90	한국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H+RVC40	△
한-ASEAN	CTH	O
한-중	CC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C	O

(3) 국내원재료조달 & 非RCEP 원산지재료 사용

관세율표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윤활유이다. 기업이 활용한 FTA는 한-EU FTA이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이다. BOM 내역을 확인한 결과,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를 역내(한국)로부터 공급받았다.

<표 5-10>은 윤활유에 대한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한-ASEAN,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로 동일한 원재료조달 시트템 하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분히 충족 가능하다.

<표 5-10> 윤활유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2710.19	한-EU	CTH	S-OIL 150 "	2710.19	한국
			S-OIL 60 "	2710.19	한국
			Viscosity Modifier	3902.20	미국
			Additive Package	2907.29	스페인
			Antiwear	2919.90	미국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SH+RVC35	△
한-ASEAN	CTH	O
한-중	CTSH	O
한-호주	CTSH	O
한-뉴질랜드	CTSH	O

2. 누적조항 활용사례 검토 결과

가. 非RCEP 참여국

(1) 기타 주스 : 한-미 FTA

관세율표 제2009.8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기타의 주스이며, 해당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표 5-11>은 기타 주스의

BOM 내역이며,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블루베리 농축액에 대해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였다.

<표 5-11> 기타 주스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2009.89	한-미	CC	겉박스	4819.10	미상
			속박스	4819.20	미상
			80ml패드	4808.10	미상
			캡	3923.50	미상
			바디	3926.90	미상
			치어팩	3923.29	미상
			블루베리 농축액	2009.89	미국

나. RCEP 실익 가능 사례

(1) 실리카 : 한-중 FTA

관세율표 제2811.22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실리카(미분말 상태)이다. 기업이 활용한 FTA는 한-중 FTA이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이다. BOM 내역을 확인한 결과,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며, 해당 물품은 중국산으로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 5-12> 윤활유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2811.22	한-중	CTH	Silica gel SG	2811.22	중국
			포장지	4819.50	한국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SH+RVC35	X	모두 역내산
한-ASEAN	**CTH or RVC 40**	△	
한-호주	CTSH	X	
한-뉴질랜드	CTSH	X	

<표 5-12>은 실리카(미분말 상태)에 대한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한-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or RVC 40의 선택기준으로 한-호주, 한-뉴질랜드는 CTSH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현재와 같은 원재료 조달 시스템에서

는 한-ASEAN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또는 CTSH를 채택할 경우, 동물품의 생산자는 한-ASEAN FTA보다는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조합기준(CTSH+RVC35)을 채택하고 있는 한-인도 CEPA 역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RCEP 활용이 유리하다.

(2) 플루오르화인삼염 :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제출시, 특혜수출 가능)

관세율표 제2826.9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플루오르화인산염이다. 기업이 활용한 FTA는 한-중 FTA이며, 해당호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이다. BOM 내역을 확인한 결과,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였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동 물품의 인증수출자는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

플루오르화인산염에 대한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를 통해 RCEP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현재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성이 낮아, 해당 PSR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결과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가능하다. 이에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RCEP의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인도 CEPA의 경우, RCEP 협상에서 동 물품에 대해 CTH 또는 CTSH를 규정할 경우 RCEP의 활용이 기존 협정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표 5-13> 플루오르화인산염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2826.90	한-중	CTH	AHF	2811.11	미상
			PCL3	2812.10	미상
			LIF	2826.19	중국
			CL2	2801.10	미상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SH+RVC35	△
한-호주	CTSH	O
한-ASEAN	**CTH or RVC 40**	△
한-뉴질랜드	CTSH	O

(3) 음료 : 한-ASEAN FTA, 부가가치 누적에 의한 RCEP 활용도 상승

관세율표 제2202.1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음료이다.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한-ASEAN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0이다. <표 5-14>는 음료에 대한 BOM 내역이며, 완제품 가격은 6,900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은 370원으로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이다.

<표 5-14> 음료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2202.10	한-ASEAN	RVC40	SMP(8515)	0404.90	캐나다	130
			설탕(T/L & T/B)	1701.11	한국	334
			고과당	1702.60	한국	370
			구연산(함수구연산)	2918.14	중국	13
			수용성대두다당류	1603.00	한국	73
			인산	2809.20	한국	3
			요구르트향	3302.10	대만	81
			요구르트향	3302.10	대만	77
			요구르트향	3302.10	싱가포르	69
			이산화탄소	2811.21	한국	13
			트레이박스	7612.90	한국	56
			CAN 공관	4819.20	한국	2,490
			필름	3923.30	한국	335
					역외산	370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H+RVC40	O
한-ASEAN	RVC40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C	O

<표 5-14>는 음료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해당 FTA 활용 시 해당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된다. 완제품 HS CODE와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역내 부가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표 5-14>와 동일하게 원재료를 공급받는다면 음료는 현재와 동일하게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된

다. 즉 기체결 FTA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동 물품의 경우 현행보다 RCEP 활용이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다만,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에서도 적용하게 될 경우, RCEP 원산지 누적조항을 활용하여 역내 부가가치비중이 보다 상승하게 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유리하게 된다.

관세율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음료이다.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한-ASEAN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RVC40이다. <표 5-15>는 음료에 대한 BOM 내역이며, 완제품 가격은 15,985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은 3,779원으로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이다.

<표 5-15> 음료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2202.90	한-ASEAN	RVC40	알로에베라겔	2008.99	태국	1,333
			알로에베라겔파우다	1303.19	멕시코	1,773
			고과당(T/L)	1702.60	한국	1,524
			구연산함수[80BX]	2918.14	중국	24
			구연산나트륨	2918.15	중국	2
			젖산칼슘	2918.11	네덜란드	51
			비타민C	2936.27	중국	17
			젤란검	3913.90	미국	252
			산그린LT	3203.00	한국	0.058
			포도향	3302.10	한국	0.464
			포도향	3302.10	일본	327
			PET공병	3923.30	한국	2,580
			퀄리티[28MM(HR)]	3923.50	한국	175
			펫박스[1.5*12]	4819.20	한국	316
					역외산	3,779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H+RVC40	O
한-ASEAN	RVC40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TH	O

<표 5-15>는 음료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를 요약한 것이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해당 FTA 활용 시 해당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된다. 완제품 HS CODE와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도 CEPA는 원재료 세번이 완제품 세번과 모두 상이하고,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RCEP 협상 결과 규정된 원산 지결정기준이 RVC라면, 태국·중국·일본산 원재료 가격이 모두 역내 부가가치로 합산가능하게 되어 부가가치 충족에 보다 유리하게 된다.

(4) 기타 조명기구 : RCEP 누적 활용 가능(원재료 조달범위 확장)

관세율표 제 9405.4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기타의 조명기구이다.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MC50이다. 원재료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표 5-16> 기타 조명기구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9405.40	한-EU	MC50	LEDCOOL	8541.40	한국	8,400
			LEDWARM	8541.40	한국	8,400
			회로	9405.99	한국	13,000
			(중략)			
			가변저항	8533.40	일본	1,000
			TACT스위치	8536.50	일본	250
			배터리 컨택트	9405.99	중국	350
			스위치 고무캡	4016.99	한국	80
			커버 렌즈	9405.99	한국	500
			확산판	9405.99	한국	550
					역외산	1,600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SH+RVC35	X	역내산
한-ASEAN	CTH	X	
한-호주	CTH	X	
한-뉴질랜드	CTSH	O	
한-중	CTH or RVC 40	O	

<표 5-16>은 기타의 조명기구에 대한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한-ASEAN,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

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BOM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를 중국(역외)에서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다(미소기준 고려 가능). 그러나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BOM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된다. 한-중 FTA의 경우 CTH or RVC 40으로 선택기준이나,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CTH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물품의 경우 일부 협정은 RCEP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ASEAN, 호주 등의 협정은 RCEP에 의해 원재료 조달의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RCEP 활용이 유리할 수 있다.

(5) 마커 : 세번변경기준 개선 효과

관세율표 제 9608.2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마커이다.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그러나 BOM 내역 확인 결과,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가 2개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세번변경기준의 예외기준인 미소기준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원재료의 가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었다.

<표 5-17>는 마커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ASEAN FTA는 기업이 활용한 PSR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ASEAN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인도네시아산 이므로 누적조항을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를 활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6단위 세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가능하다.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CTSH 기준은 충족되었으나, 부가가치를 입증할 가격증빙자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가 변경된다.

<표 5-17> 마커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9608.20	한-중	CTH	NIB	9608.91	미상	5.93
			WATER BASED DYE INK	3204.12	미상	-
			WIRE	7229.90	미상	-
			휠터	9608.99	인도네시아	-
			플라스틱 사출물	3926.90	미상	-
			타케이스	4819.50	미상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SH+RVC35	△	유리(개선)
한-ASEAN	CTH	△	유리(개선)
한-호주	CTSH	O	
한-뉴질랜드	CTSH	O	
한-중	CTH or RVC 40	O	

따라서 동 물품의 경우 한-중 FTA에 대해서는 RCEP에 의해 원재료 조달의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RCEP 활용이 유리할 수 있다.

(6) 밸브 : RCEP 누적 활용 가능(원재료 조달범위 확장), CEPA 조합기준 개선

<표 5-18> 밸브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8481.80	한-중	CTSH	Glove Body+Bonnet	8481.90	중국
			Glove Body+Bonnet	8481.90	중국
			Glove Body+Bonnet	8481.90	중국
			Glove Body+Bonnet	8481.90	중국
			CLAMP/ IRON	8481.90	중국
			GLAND FLANGE	8481.90	중국
			3500 YOKE	8481.90	중국
			3600 YOKE	8481.90	중국
			3600 DIAPHRAGM CASE	8481.90	중국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SH+RVC35	X	유리(개선)
한-ASEAN	CTH	O	
한-호주	CTSH	O	
한-뉴질랜드	CTSH	O	

관세율표 제 8481.8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밸브이며,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BOM 내역을 확인한 결과,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아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된다. 기업은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는데, 한-중 FTA 활용시에는 원재료의 공급국이 중요하지 않다.

<표 5-18>은 밸브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기업이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협정은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이다. 따라서 기업이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를 활용할 경우, 원산지가 충족된다. 한-ASEAN FTA의 경우,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를 역내(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재료 조달 하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렵다.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결정된다. 다만, RCEP이 적용될 경우 원재료 조달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한-ASEAN 대신 RCEP 활용이 유리하다.

(7) 분필 : RCEP에 의한 한-인도 CEPA 조합기준 개선

<표 5-19> 분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9609.90	한-ASEAN /한-중/ 한-EU	CTH	CRISTON SS	2836.50	JP
			KAOLIN	2507.00	JP
			MAGNESIUM CARBONATE	2836.99	JP
			BENTONITE	2508.10	JP
			CMC1160	3912.31	JP
			NS SOAP	3402.90	JP
			WATER (물)	2201.90	미상
			PVDC LATEX	3824.90	JP
			PRINTING INK	3215.90	JP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SH+RVC35	△	유리(개선)
한-ASEAN	CTH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TH	O	

관세율표 제 9609.9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분필이며, 한

-ASEAN, 한-중, 한-EU FTA를 활용하였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3개 협정 모두 동일하게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재료는 주로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PSR이 CTH이므로 원재료 원산지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표 5-19>는 분필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낸다. 기업이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협정인 한-ASEAN,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경우, 부가가치 비율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만 원산지 충족 물품으로 판정가능하다. 따라서 RCEP이 적용될 경우 원재료 조달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한-인도 CEPA의 경우 RCEP 활용이 유리할 수 있다.

다. RCEP 실익이 낮은 사례

(1) 규산염 : 한-ASEAN FTA

관세율표 제2839.9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규산염이다. 한-ASEAN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또는 RVC40이다. 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한국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인 원재료(중국산)가 투입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 한다. 그러므로, 동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되었다. 산정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은 58%이다. (참고 ; 완제품 가격 : 6,900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 : 2,914원, RVC58)

동 물품은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이며,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이 된다. 한-인도 CEPA의 경우에도 조합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므로 원산지가 충족된다. 한-중 FTA의 경우 누적조항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CTH)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물품은 기체결 FTA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RCEP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실익은 낮은 편이다.

<표 5-20> 규산염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2839.90	한-ASEAN	CTH or RVC	Cullet	2839.19	중국	54.9
			NaOH	2815.12	한국	4.6
			LiOH	2825.20	미상	2,860
			공업용수	2201.90	한국	1.1
			포장드림	3901.10	한국	80
					역외산	2,914.9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SH+RVC35	O
한-중	CTH	O
한-호주	CTSH	O
한-뉴질랜드	CTSH	O

(2) 황동제 파이프 : 한-중, 인도 FTA(누적조항 활용)

관세율표 제 7411.21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황동제 파이프이다.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조합기준으로 해당 물품은 누적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즉 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인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제시된 원산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면 61%가 도출되어 원산지 충족 물품으로 판정가능하다. (참고 ; 완제품 가격 : 5,469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 : 2,111원, RVC61)

<표 5-21> 황동제 파이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7411.21	한-인도	CTH+ RVC25	BRASS SCRAP	7404.00	중국/인도/ KR	2,215
			U352BILLET	7403.21	미상	2,111
					역외산	2,111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중	CTH	O
한-ASEAN	CTH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TH	O

동 물품은 한-중, 한-ASEAN,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이며,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이 된다. 따라서 동물품은 기체결 FTA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RCEP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실익은 낮은 편이다.

(3) 샤프 연필 : 한-중 FTA

관세율표 제 9608.40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은 샤프 연필이다.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BOM 내역 확인 결과,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를 역내(한국)에서 조달받았음이 확인된다(원산지확인서 입증). 따라서 해당 물품은 원산지를 충족시킨다.

<표 5-22> 샤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9608.40	한-중	CTH	황동와이어	7408.21	미상
			척링	7409.29	미상
			척스프링	7320.90	미상
			심파이프	9608.99	한국
			심통파이프	3926.90	미상
			정지고무	4017.99	미상
			플라스틱사출물	3926.90	미상
			클립	9608.99	한국
			쿠션스프링	7320.90	미상
			선금도금	3926.90	미상
			클립도금	3926.90	미상
			지우개	3926.10	중국
			스티커	3926.90	미상
			스폰지	3926.90	미상
			DZ 케이스	4819.50	미상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SH+RVC35	△
한-ASEAN	CTH	O
한-호주	CTSH	O
한-뉴질랜드	CTSH	O

<표 5-22>은 샤프 연필에 대한 RCEP 참여국과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ASEAN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기업이 활

용한 PSR과 동일하다. 따라서 한-ASEAN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재료의 HS 6단위와 완제품 HS 6단위가 상이하므로 원산지 충족 물품으로 판정된다.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비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동물품은 한-인도 CEPA를 제외한 기체결 FTA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RCEP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실익은 낮은 편이다.

제6장 Mega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1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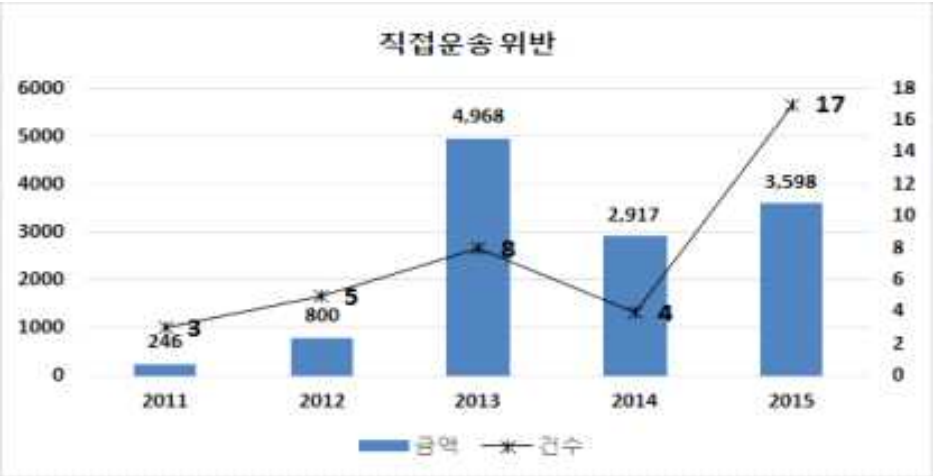
1. 광역 FTA의 직접운송기준 완화, RCEP 물류 영토 확장 및 물류 거점 확보형

가. 개요

FTA특혜를 받기 위한 운송원칙(직접운송원칙)은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 특혜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광역 FTA에서 영역은 다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현재의 1:1 협정에서 체약당사국간 적용되는 직접운송원칙 조항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1> 직접운송 위반 추징실적

(단위 : 건/백만원)



자료 : 관세청 자료 재가공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운송요건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기준으로 협정에서 정한 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여타 규정 충족과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여 추징된 실적은 <그림 6-1>과 같다. 직접운송 관련

추징 금액은 2013년 폭증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라 할 수 있다. 단, 건수는 2015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RCEP 양허협상의 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이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회원국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RCEP 활용에 실익이 있으려면, RCEP의 양허결과가 기체결한 협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혜세율의 혜택범위를 포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RCEP의 양허가 기체결한 협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혜세율의 혜택범위를 포괄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때 RCEP의 특혜세율은 기체결 양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RCEP과 기체결 FTA가 동등한 특혜세율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즉, 특혜세율에 있어서는 기체결된 양자간 협정을 향유하는 것이 일정기간 동안 유리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RCEP 협상 주는 실익은 특혜세율 이외에 운송요건, 후술하는 원산지재료의 누적 부문에서 찾을 수 있겠다.

<표 6-1> 한국-RCEP 회원국 체결 FTA 발효시기 및 최장양허 현황

협정	발효	최장 양허	0% 진입 시기
싱가포르	2006	10년 철폐	2015년
ASEAN	2007	민감품목	2016~2024년
인도	2010	8년 철폐	2017년
호주	2014	20년 철폐	2033년
베트남	2015	15년 철폐	2029년
중국	2015	20년 철폐	2034년
뉴질랜드	2015	20년 철폐	2034년

직접운송원칙의 경우, Mega FTA에서 체약당사국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운송에 있어 경유할 수 있는 “역내”의 범위가 확장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어 해당 조항의 위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혼재하고 있는 양자간 협정의 스파게티볼 효과도 완화될 수 있다.

<그림 6-2> 개별 FTA와 Mega FTA

개별 FTA	Mega FTA : 영역의 확장, 단일화
	
출처 : http://www.fta.go.kr/main/	https://blog.naver.com/mocienews/220506142409

나. 주요 내용

(1) 스파게티볼 효과의 완화

현재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표 6-2>로 나타내었다. BWT 허용여부,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서류요건, 경유사유, 경유국 불인정행위, 경유국 내에서의 작업인정범위 등이 협정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미 양자간 협정에서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에서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 <표 6-2>와 같다. 증빙서류의 경우 유형이 7개로 나뉘어지는 등 협정별로 다양하다. RCEP이 체결될 경우 운송서류는 1개의 조항으로 수렴될 것이며, 이는 원산지규정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표 6-2> RCEP 회원국간 체결한 FTA별 직접운송관련 규정 비교

		BWT	직접운송	비당사국비경유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경유 사유				경유국 불인정 행위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불인정행위	경유사유	보관기간	서류제출	서류리스트	지리	운송	경제	물류	거래	소비	교역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
한국	ASEAN	X	○			○	○	○		○	○	○	○			○	○		
	인도	X	○		○	○	○			○	○					○	○		
	중국	X	○		○	○	○	○	○	○	○	○	○			○	○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일시 보관 기간
	베트남	X	○			○	○	○		○	○	○	○			○	○		
	호주	○	○		○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뉴질랜드	○	○		○	○				○	○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싱가포르	○	○		○	○				○	○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ASEAN	한국	X	○			○	○	○		○	○	○	○			○	○		
	일본	○	○			○				○	○								일시적 보관
	호-뉴	X	○			○	○	○		○	○	○		○	○	○			보관
	중국	X	○			○	○	○		○	○	○	○			○	○		
	인도	X	○			○	○	○		○	○	○	○			○	○		
중	뉴질랜드	X	○			○	○		○	○						○		○	재포장
뉴	말레이	X	○			○	○	○				○		○	○			○	
중	호주	○	○		○	○			○	○									재라벨링, 재포장, 분리, 일시적 보관
일	호주	○			○	○													재라벨링, 재포장, 분리, 보관

		BWT	직접운송	비당사국비경유	비당사국 경유 요건					입증		경유 사유				경유국 불인정 행위			작업인정범위
					세관통제	작업인정범위	불인정행위	경유사유	보관기간	서류제출	서류리스트	지리	운송	경제	물류	거래	소비	교역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
일	인니	○	○			○				○	○								
일	인도	○	○			○				○	○								

<표 6-3> RCEP 회원국간 체결 FTA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협 정	주요 내용
한-베트남 중-ASEAN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원산지증명서 원본 ③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기타 증빙서류
한-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①~④ 상동 ⑤연결원산지증명서
한-인도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모든 경로) ②세관통제서류
한중간 한-페루	①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운송서류(모든 경로) ②세관증빙서류
한-싱가포르	①세관통제서류 ②비조작증명서(세관) ③비조작증명서(수입자)
일-인도네시아 일-인도 CEPA	①통과선하증권의 복사본 ②비조작증명서(세관)
일본-ASEAN	①연결원산지증명서

(2) 역내경유를 통한 운송거점 확보

직접운송과 누적은 RCEP에서 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FTA에서 영역, 누적, 직접운송 등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EU 또는 EEAA[134]가 대표적인데, 제2조[135]에서 “이

134)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은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

협정에서 적용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한다.” 고 언급하는 바, 이는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세관통제 없이 거래·유통이 가능한 것을 의미 즉 직접운송원칙이 매우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EA의 단일영역은 유럽내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근접, 참여국간 정치, 문화, 사회적 유사성과 공감대에 서 기인한 것으로, RCEP에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망된다.

이에 Mega FTA하 직접운송원칙 완화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RCEP에서 직접운송원칙에 “역내당사국 경유 허용” 부문이 포함되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RCEP의 회원국에서 생산되어 타RCEP의 회원국 역내 수출된 물품이 다시 다른 RCEP 회원국으로 재수출 될 때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는” 원칙이 관철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ASEAN+1 협정에서의 역내경유와 관련하여 협정문 검토결과는 다음의 <표 6-4>로 요약된다. 중-ASEAN, 인도-ASEAN, 호-뉴-ASEAN FTA의 경우, 일정조건하 역내경유 허용하고 있으며, 한-ASEAN, 일-ASEAN의 경우 수출, 수입 당사국 이외의 국가는 제3국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역내경유는 제3국 경유와 동일하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ASEAN+1의 협정은 경우 역내경유(보세구역에 일시적 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호-뉴, 인도-ASEAN 협정에서 수출국 이외의 역내 경유시 재수출할 수 있는 용도로서도 사용되는데, 인도의 경우 역내 장치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호-뉴-ASEAN FTA는 따로 규정하

다. 체약당사국은, ① the Community(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 등, 12개국), ②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구성된다. 즉 유럽의 일부 국가 간의 N:N협정. 완전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135) Article 2 General requirement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a) products wholly obtained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b) products obtained in the EEA incorporating materials which have not been wholly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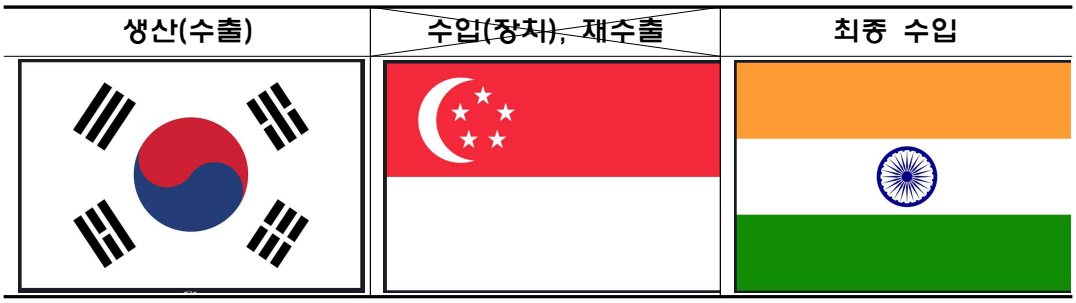
For this purpos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shall be considered as a single territory.

고 있지 않다.

<표 6-4> ASEAN+1 FTA별 직접운송관련 검토 요약

	역내 경유	제3국 경유	허용범위규정					서류	연결원산지증명서	역내 재수출
			운송상 사유	경제적 사유	물류적 사유	불인정행위	작업인정범위			
한국	동일 취급 제한적 허용		○			○	○	○	○	
일본	동일 취급 제한적 허용						○		○	
중국	○	제한적 허용	○			○	○	○		
인도	○	제한적 허용	○			○	○	○	○	○ (보세구역)
호-뉴	○	제한적 허용	○	○	○	○	○	○	○	○

<그림 6-3> RCEP의 중간물류 거점 활용 사례





한편, 개별국가로서 일본의 경우 일-ASEAN 등에서 역내 경유에 대해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은 존재 확인되나, 그외 역외경유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지리·운송상 정당화, 경유국 거래소비 불인정, 통과선하증권, 세관통제요건 등이 부재함이 확인되어, 직접운송에 대한 규정의 엄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3>과 같이 RCEP 체결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수출해서, 인도로 수출할 경우 한-인도 CEPA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협정에서는 BWT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물류기지에 일시적 장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RCEP이 체결되고, 해당협정이 역내 경유를 허용할 경우, RCEP 참여국인 싱가포르 물류기지에서 원산지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치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인도로의 재수출도 허용된다.

다. 효과

Mega FTA는 원산지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영역내에서 물류거점 확보가 보다 원활하며, 기업은 물류 루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략적으로 물류 거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Mega FTA는 양자간 협정에서 각각 정의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정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직접운송원칙의 경우, 다양한 증빙 방식, 증빙서류를 통일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2. RCEP을 통한 개방 사각지대 제로 선언형

가. 개요

RCEP은 앞서 양자간 협정에서 협정별로 정의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양허 여부, 양허유형, 양허기간, 양허율에 대한 단일화가 시현될 것이며, 특히 RCEP을 통해 양자간 협상을 넘어서는 추가개방을 통해 기존 FTA를 능가하는 FTA 적용률[136], 개방도를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1) RCEP을 통한 개방률 확대

<그림 6-4> 한국과 對RCEP 참여국 체결 FTA의 특혜수출 규모 및 FTA 적용률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2016), 한눈에 보는 2016년 FTA활용지도로부터 작성

136) FTA 적용률의 정의는 총수출입대비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출입의 비중이다.

<그림 6-4>에서와 같이 2016년 기준 한국이 체결한 RCEP 참여국과의 FTA에서 FTA 적용률(수출)은 ASEAN,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모두 30%이하이며, 인도, 호주에 대해서는 각각 64.8%, 54.4%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수출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FTA 적용률(수입)중국이 39.7%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호주 42.3%, ASEAN 50.6%, 뉴질랜드 57.4%, 베트남 63.9%, 인도 9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 특혜수출과 수입에 있어 인도의 개방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특혜수출입의 절대규모로는 중국과 ASEAN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RCEP을 통한 추가개방에 대한 효과가 중국과 ASEAN, 그리고 아직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의 기체결 RCEP 교역의 특징 : 수입을 통한 활용

본 보고서에서는 제4장에서 한국이 RCEP 참여국과 기체결한 FTA를 기초재, 가공재, 부분품, 완성재 등 요소로 분류하여 활용실태를 파악·분석하였다. <표 6-5>는 분류를 요약한 결과다.

<표 6-5> 기초재, 가공재, 부분품, 완성재 분류 요약

RIETI-TID	BEC	주요 내용
기초재	중간재	산업용 식음료품, 원재료(산업용 공급품), 연료 및 윤활유
가공재	중간재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제품, 가공된 산업용 공급품, 동력기용(연료, 윤활유)
부분품	중간재	부속품(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부속품
완성재	소비재	가정용 식음료제품,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승객용 자동차, 기타 비산업용 운송기계, 내구성 소비재, 반내구성 소비재, 비내구성 소비재
	자본재	기계 및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기타 산업용 운송기계

한국의 기체결 對RCEP 참여국 교역 중 특혜수출 활용 상위요소는 다음의 <표 6-6>으로 요약된다. 2016년 FTA 특혜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ASEAN, 인도의 경우 가공재의 비중이 63.3~65.8%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완성재의 비중이 56.1~69.8%로 국내의 對RCEP 참여국 FTA특혜 수출에 있어 아시아권과 오세아니아권으로 특성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혜수출활용률은 호주와 인도를 제외한 RCEP 참여국의 경우 활용률이 현재까지는 38.7~53.6%로 저

조한 수준이다.

특혜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대부분 가공재 교역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인도의 경우 가공재 수입이 전체 특혜수입의 77.7%를 점유하고 있으며, 활용률도 92.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수출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완성재 위주의 FTA 특혜 교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기체결 RCEP 교역의 특징은 요소 측면에서는 완성재, 소비재보다는 주로 가공재의 수출입이 주된 비중을 이루고 있다. 활용률 측면에서는 협정별로 정의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양허 여부, 양허유형, 양허기간, 양허율 등이 상이하여 특혜수출활용률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FTA 활용수준 6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6-6> 한국과 對RCEP 참여국 체결 FTA의 특혜수출입 활용현황(2016)

		FTA 적용 C/O 발급금액 중 1위 품목		전체 활용률
		비중	활용률	
수출	중 국	가공재(63.9%)	46.6%	42.9%
	ASEAN	가공재(63.3%)	55.7%	53.6%
	인 도	가공재(65.8%)	71.1%	68.9%
	호 주	완성재(69.8%)	86.8%	79.6%
	뉴질랜드	완성재(56.1%)	41.6%	38.7%
수입	중 국	가공재(45.9%)	68.2%	60.9%
	ASEAN	가공재(49.0%)	80.1%	80.3%
	인 도	가공재(77.7%)	92.0%	83.9%
	호 주	가공재(58.6%)	83.1%	85.9%
	뉴질랜드	완성재(65.6%)	93.7%	91.0%

다. 효과

RCEP의 추가개방을 통해 현재의 FTA 적용률을 높이고, 한국이 RCEP국을 대상으로 기체결한 FTA 비교시, RCEP의 양허가 우수한 경우 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무역패턴 분석을 통한 RCEP 참여국간 경합섹터 선점형

가. 개요

우리나라와 對RCEP 참여국 교역실태로 2016년 기준 전체 교역액의 약 49.0%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RCEP 참여국과의 기존의 교역에 대해 제2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우위(또는 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FTA 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RCEP 참여국간의 교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베트남 이외의 RCEP 참여국들(특히 우리나라와 경제적 상호보완 내지는 경합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이 상호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RCEP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요컨대 최근 무역패턴 분석을 통해 RCEP 회원국의 무역이 변화하는 양상과 시장내 경합섹터를 파악함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선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RCEP 시장 내에서 RCEP 참여국간 경합 요소를 분석하고, 상호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RCEP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RCEP 회원국의 수출입에서의 우세요소를 2000년과 2015년을 비교하여, 교역패턴의 변동성을 파악한 뒤, 각국 시장 내에서 RCEP 참여국간의 경합을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1) RCEP 회원국의 수출 상위 요소 : 부분품 4개국, 가공재·소비재 3개국

<표 6-7> RCEP 회원국의 교역비중과 수출입 상위 요소 비교: 2000년, 2015년

	RCEP내 교역비중	수출		수입	
		2000	2015	2000	2015
중국	38.9	소비재(48.8%) > 자본재(18.25%)	자본재(31.0%) > 소비재(27.2%)	가공재(38.8%) > 부분품23.6%)	가공재(26.9%) > 원료(26.2%)
일본	14.4	부분품(33.7%) > 자본재(27.9%)	부분품(29.5%) > 가공재(27.5%)	소비재(26.6%) > 가공재(25.3%)	가공재(29.7%) > 소비재(25.7%)
한국	10.7	가공재(31.7%) > 부분품(27.7%)	부분품(36.0%) > 가공재(32.0%)	가공재(31.1%) > 부분품(23.4%)	가공재(33.0%) > 원료(22.1%)
인도	6.9	가공재(46.7%) > 소비재(37.7%)	가공재(49.4%) > 소비재(32.9%)	가공재(41.1%) > 원료(30.8%)	가공재(42.0%) > 원료(32.6%)
싱가포르	5.5	부분품(38.5%) > 자본재(29.3%)	가공재(44.4%) > 부분품(30.5%)	부분품(42.2%) > 가공재(20.0%)	부분품(34.8%) > 가공재(30.7%)
말레이시아	4.7	부분품(39.7%) > 자본재(23.9%)	부분품(39.9%) > 가공재(31.2%)	부분품(48.5%) > 가공재(24.6%)	가공재(38.0%) > 부분품(28.9%)
태국	4.6	소비재(32.3%) > 부분품(21.6%)	소비재(27.3%) > 가공재(24.6%)	가공재(33.2%) > 부분품(30.4%)	가공재(36.7%) > 부분품(19.8%)
호주	4.3	원료(40.8%) > 가공재(32.7%)	원료(58.5%) > 가공재(24.0%)	소비재(28.7%) > 자본재(24.0%)	소비재(34.1%) > 가공재(27.8%)
베트남	3.7	소비재(54.0%) > 원료(33.0%	소비재(40.7%) > 자본재(25.9%)	가공재(53.8%) > 소비재(17.6%)	가공재(46.1%) > 부분품(20.2%)
인도네시아	3.5	가공재(43.2%) > 소비재(22.6%)	가공재(39.0%) > 원료(24.5%)	가공재(49.5%) > 원료(16.5%)	가공재(49.2%) > 자본재(16.3%)
필리핀	1.6	부분품(55.1%) > 자본재(21.3%)	부분품(48.2%) > 자본재(18.1%)	부분품(42.1%) > 가공재(25.5%)	부분품(31.7%) > 가공재 28.6%)
뉴질랜드	0.8	소비재(46.0%) > 가공재(32.8%)	소비재(55.2%) > 가공재(24.9%)	소비재(31.1%) > 가공재(27.7%)	소비재(34.4%) > 가공재(25.8%)

RCEP참여국 교역의 약 38.9%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수출 1위 요소가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변동하였다. 일본은 수출에 있어 가공재가, 한국의 경우 수입에 있어 원료가 상위 요소로 급등하였다.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는 소비재, 호주는 원료가 주된 수출요소로 유지되고 있다. 인도 역시 수출과 수입의 요소들의 변동성이 적은 국가이다.

요소별로 다시 살펴보면, 수출에 있어 2015년 기준 부분품 1위 점유율 국가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 가공재 1위 점유율 국가는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소비재 1위 점유율 국가는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원료 1위 점유율 국가는 호주, 자본재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가공재 1위 점유율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 부분품 1위 점유율 국가는 싱가포르, 필리핀 등 2개국 소비재 1위 점유율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등 2개국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RCEP 참여국 국가 수출입구조는 부분품과 가공재 등 중간재를 수출입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상호간 경합섹터가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음을 의미한다.

(2) RCEP 시장 내에서 RCEP 참여국 간 경합 분석 : 가공재 교역의 경합섹터 선점

가공재[137]는 가장 비교우위중립품목이 다수인 요소로서 가공재에 특화된 비교우위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RCEP 참여국간 가공재 경합을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6-8>로 요약된다. ASEAN의 가공재 교역은 대부분의 RCEP 참여국에 대해 비교우위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가공재 교역에 있어 중국에 대해서만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 ASEAN,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중립적이다. 비교우위 중립품목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 양국간 경합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향후 해당 물품이 수출우

137) 가공재에는 중간재로서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제품, 가공된 산업용 공급품, 동력기용(연료, 윤활유)이 포함되어 있다.

위로 선회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표 6-8> RCEP 참여국간 가공재 무역특화지수 결과표

	수입특화	수입우위	비교우위중립	수출우위	수출특화
ASEAN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		중국, 호주	ASEAN, 일본, 뉴질랜드, 한국		
중국		한국	ASEAN,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중국, 인도, 한국		
한국			ASEAN,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뉴질랜드			ASEAN, 호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호주			ASEAN, 중국, 뉴질랜드, 한국	인도, 일본	

(3) RCEP 시장 내에서 RCEP 참여국 간 경합 분석 : 부분품 교역 수출우위유지 전략

부분품[138]의 경우 각국별로 무역특화지수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점을 지속적으로 지원·강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15년 부분품이 수출품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36.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CEP 참여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출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수출우위 또는 특화를 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산업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38) 부분품에는 부속품(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부속품 등이 포함된다.

<표 6-9> RCEP 참여국간 부분품 무역특화지수 결과표

	수입특화	수입우위	비교우위중립	수출우위	수출특화
ASEAN		일본, 한국	중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	
중국		일본, 한국	ASEAN	뉴질랜드, 호주, 인도	
한국		일본		ASEAN,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인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ASEAN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중국, ASEAN	호주, 인도,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국, 일본	ASEAN, 인도, 한국	호주		
호주	중국, 일본	ASEAN, 인도, 한국	뉴질랜드		

다. 효과

한국이 RCEP국을 대상으로 기체결한 FTA 비교시 RCEP의 양허가 우수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FTA의 적용률을 높이고, RCEP 참여국간 무역경합도의 입체적 분석 결과를 통해 광역 FTA를 전략적 대응할 수 있다.

4. Made in RCEP : 누적조항 확대적용을 통한 특혜원산지

가. 개요

누적(Cumulation)이란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기준의 적용을 통해 협정 상대국의 재료가 원산지재료로 인정되게 되어 원산지 영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역내를 광역화하고 있는 Mega FTA에서 누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역내 GVC(Global Value Chain), 협정의 활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적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FTA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누적기준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등이 있다.

나. 주요 내용

누적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시키는 조치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면에서 FTA 체약국간 교역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139]

첫째, 누적은 FTA 협정문에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교역상의 제약을 완화한다. 둘째, 누적은 기업 선택권 확대에 기여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상품 생산시 사용되는 재료 선정에 있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이 용이한 재료를 전략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특히 TPP, RCEP 등 Mega FTA에서의 완전누적조항의 적용은 역내의 개념이 기존의 양자 개념에서 TPP, RCEP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바, TPP, RCEP 내에서의 특혜수출을 위해 TPP, RCEP 회원국의 원재료로 기업의 선택권이 확대되게 된다. 셋째, 누적은 역내 가치사슬의 구축

139) 강준하(2015),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국제경제법연구13(1)를 참고하여 작성함

및 강화한다. 누적조항에 의해 최종재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역외산 원재료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등 수입선을 변경할 유인이 발생한다. 넷째, 역외 투자의 유치가 확대된다. 재료, 공정누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단순작업을 거쳐 수입한 뒤, 자국에서는 고난이도 최종잡업을 수행하여 수출하는 구조 등 시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구축되며,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FTA의 효과로서 지역통합의 가속화이다. 누적조항으로 FTA 국가내 분업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역내 지역 통합 가속화되는 등 광범위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촉진된다. 다음은 누적의 사례 및 RCEP을 통한 특혜확장 가능 사례를 제시한다.

(1) 실리카겔 : RCEP을 통한 특혜확장 가능 품목

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2811.22호에 해당하는 실리카 겔이다. 동 품목의 한-ASEAN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또는 RVC 40이다. 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한국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인 원재료(중국산)가 투입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 한다. 그러므로 동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의 가격자료에 의하면, 완제품 가격은 3,600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 1,770원으로 RVC 51%, 부가가치기준을 만족한다.

<표 6-10> 실리카 겔 파이프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2811.22	한-ASEAN	RVC	Silica gel SAD	2811.22	중국	1,770
			포장지	4819.50	한국	58
					역외산	1,770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SH+RVC35	X	역내산* (유리)
한-중	CTH	O	
한-호주	CTSH	X	
한-뉴질랜드	CTSH	X	

한편 동 물품은 -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완제품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가 역내에서 조달

되지 않기 때문에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된다.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은 충족되나 세번변경기준이 미충족되어, 원산지 불충족 물품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RCEP을 활용할 경우, 원재료 조달처가 중국과 한국 모두 RCEP 역내에 있기 때문에, 특혜원산지물품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2) 소가죽 : 한-중 FTA(누적조항 활용), RCEP을 통한 특혜확장 가능 품목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제4107.92호에 해당하는 소가죽이다.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완제품의 4단위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를 역내(중국과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동물품은 원산지 입증을 위해, 누적기준을 활용한 물품이다.

한편 소가죽에 대한 RCEP 참여국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한-인도・한-ASEAN・한-호주・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도 CTH로 동물품의 현행방식대로 원재료 조달시, 각 협정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RCEP을 적용할 경우, 역내에서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RCEP 활용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다.

<표 6-11> 소가죽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가격
4107.92	한-중	CTH	SPLIT LEATHER	4107.19	중국	1,772
			Euderm Nappa Soft S2	3824.90	미상	
			Binder LS-3492	3824.90	미상	
			Primal SB-150	2934.10	미상	
			Aqualen AKU	3906.10	미상	
			(중략)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H	X	모두 역내산* (유리)
한-ASEAN	CTH	X	
한-호주	CTH	X	
한-뉴질랜드	CTH	X	

(3) 티타늄제 관 : 한-중 FTA(누적조항 활용), RCEP을 통한 특혜확장 가능 품목

<표 6-12>은 티타늄제 관에 대한 원재료 조달내역과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완제품의 6단위 세번과 동일한 원재료를 역내(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동물품은 원산지 입증을 위해, 누적기준을 활용한 물품이다.

티타늄제 관대한 RCEP 참여국이 체결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6-12>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현행 원재료 조달시, 각 협정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RCEP을 적용할 경우, 역내에서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RCEP 활용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다.

<표 6-12> 티타늄제 관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8108.90	한-중	CTSH	TITANIUM GR.2 SEAMLESS TUBE	8108.90	중국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적용시
한-인도	CTH+RVC25	X	모두 역내산* (유리)
한-ASEAN	CTH	X	
한-호주	CTSH	X	
한-뉴질랜드	CTSH	X	

다. 효과

한국이 RCEP국을 대상으로 기체결한 FTA 비교시 RCEP의 양허가 우수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FTA의 적용률을 높이고, 기존에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및 원재료 조달방식에 따라 특혜 원산지물품으로 불인정 받은 물품을 RCEP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토록 지원가능하다.

5. FTA의 선택적 활용! 한-인도 CEPA의 복잡하고 엄격한 조합기준 개선 및 증빙 간소화 모형

가. 개요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 체결 중에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FTA 활용시 기체결 FTA와 RCEP 간 실익 여부 판단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도 CEPA는 대다수에 품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증빙이 용이한 세번변경기준에 더해서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모형은 RCEP PSR과 기체결 FTA의 비교를 통해 기업이 특혜원산지물품으로 수출시 유리한 가이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 플루오르화인삼염의 RCEP 유용성 검토

o RCEP 유용성이 낮은 FTA :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성이 낮아, 해당 PSR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결과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가능. 이에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RCEP의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o RCEP 유용성이 높은 FTA : 한-인도 CEPA

- RCEP 협상에서 동 물품에 대해 CTH 또는 CTSH를 규정할 경우 RCEP의 활용이 기존 협정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플루오르화인산염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2826.90	한-중	CTH	AHF	2811.11	미상
			PCL3	2812.10	미상
			LIF	2826.19	중국
			CL2	2801.10	미상

협정	PSR	RCEP 유용성
한-인도	CTSH+RVC35	**높음**
한-호주	CTSH	낮음(기존협정 활용)
한-뉴질랜드	CTSH	낮음(기존협정 활용)

나. 주요 내용

(1) RCEP에 의한 한-인도 CEPA 조합기준 개선 사례

관세율표 제 5404.19호에 해당하는 모노필라멘트이다.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BOM 내역 확인 결과 완제품 세번과 원재료 세번이 상이하여 원산지를 충족시켰다.

<표 6-13> 모노필라멘트의 BOM 내역과 원산지 판정

완제품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원산지
5404.19	한-중	CC	UL TRADUR B4500 NATURAL POLYBUTULENE	3907.99	말레이시아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RCEP 유용성
한-인도	CTH+RVC40	△	높음
한-ASEAN	CC	○	낮음(기존협정 활용)
한-호주	CC	○	낮음(기존협정 활용)
한-뉴질랜드	CC	○	낮음(기존협정 활용)

<표 6-13>는 모노필라멘트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 판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협정은 한-ASEAN,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이다. 따라서 상기 3개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원산지 충족 물품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산지 불충족 물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RCEP이 적용될 경우 원재료 조달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기업은 RCEP 활용이 원산지 입증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한-인도 CEP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부가가치기준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RCEP을 활용할 경우 증빙 간소화도 가능하다.

(2) 부가가치기준 적용 물품의 원산지증빙 서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는 주로 상품의 가격이나 원재료의 원산지와 비원산지 구분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상품가격을 확인하는 이유는 역내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분모 값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세부 품목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의 경우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 및 이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검증 시 원재료 구매단계, 생산단계, 판매단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원재료 구매단계의 경우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조달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표 6-14>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의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구 분	요 구 자 료 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원재료 구매 단계	① 수입 원재료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 대금지급자료 등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원재료 구매사실 확인 원재료 구매처 확인 원재료의 가격 확인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② 국내 조달 원재료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 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원재료 품목분류(HS) 확인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준수 여부 확인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시스템출력자료	BOM의 정확성 확인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생 산 단 계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작업자·작업부서) 확인 공정내역·가공순서·제조일자·불인정 공정 이상 수행 여부 확인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부품번호·품명·규격·소요량·공급처·원산지·HS 등 확인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 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이윤내역, ERP시스템 출력자료	입출고 내역, 소요량, 금액(단가) 확인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 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판 매 단 계	검증대상물품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AWB), 포장명세서(P/L),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판매부대비용전표(운임·보험료·통관수수료 등), 표준원가정책, 실제원가결산자료, ERP시스템 출력 자료	검증대상물품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다. 효과

기존에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및 원재료 조달방식에 따라 특혜 원산지물품으로 불인정 받은 물품을 RCEP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토록 지원가능하며, 부가가치 등 까다로운 원산지증빙도 완화할 수 있다.

6. RCEP 다자간 역내 원재료의 합집합을 통한 부가가치기준 충족

가. 개요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에 있어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RCEP에서 회원국들과 기존에 체결한 FTA협정에서는 집적법(BU : Build-Up)과 공제법(BD : Build-Down)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 6-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RCEP회원국들과 기존에 맺고 있는 FTA협정들 중 인도와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으로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ASEAN·호주·뉴질랜드와 맺은 협정들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3개 협정 중 ASEAN과 맺은 협정은 여타의 2개 협정과 달리 부가가치의 계산에 있어 집적법과 공제법 중 개별 국가가 하나의 방식을 택해 일정기간 당해 방법으로만 부가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표 6-15> RCEP 주요국과의 기체결 협정별 부가가치 계산방식

구 분	ASEAN[140]	인도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계산방식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
근거규정	제4조	제3.4조	제3.5조	제3.3조	제3.4조	-

또한 인도와 중국과의 협정에서는 공제법만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계산공식의 제한적 적용으로 원산지 인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40) 당초 집적법과 공제법을 각 국가가 선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ASEAN FTA 제12차 이행위원회(2015년 5월 12일-14일) 결과 국가에 관계없이 수출자가 직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합의.

따라서 부가가치 계산방법의 설정에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집적법과 공제법 중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협상시 적용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의 범위가 확장될 경우, 허용되는 원재료의 범위도 확장되므로, 다음의 품목에서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주요 내용

(1) 음료 : 한-ASEAN FTA, 부가가치 누적에 의한 RCEP 활용도 상승

<표 6-16> 음료의 BOM 내역

완제품 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6단위	원산지	가격	
						양자	RCEP
2202.90	한-ASEAN	RVC40	알로에베라겔	2008.99	태국	1,333	
			알로에베라겔파우다	1303.19	멕시코	1,773	
			고과당	1702.60	한국	1,524	
			구연산함수	2918.14	중국	24	역내산
			구연산나트륨	2918.15	중국	2	역내산
			젖산칼슘	2918.11	네덜란드	51	51
			비타민C	2936.27	중국	17	역내산
			젤란검	3913.90	미국	252	252
			산그린LT	3203.00	한국	0.058	
			포도향	3302.10	한국	0.464	
			포도향	3302.10	일본	327	역내산
			PET공병	3923.30	한국	2,580	
			퀄리티	3923.50	한국	175	
			펫박스	4819.20	한국	316	
					역외산	3,779	303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H+RVC40	O
한-ASEAN	RVC40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TH	O

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음료이다.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한-ASEAN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RVC40이다. [표 18]은 음료에 대한 BOM 내역이며, 완제품 가격은 15,985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은 3,779원으로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이다.

<표 6-16>은 음료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해당 FTA 활용 시 해당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된다. 완제품 HS CODE와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도 CEPA는 원재료 세번이 완제품 세번과 모두 상이하고,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RCEP 협상 결과 규정된 원산 지결정기준이 RVC라면, 태국・중국・일본산 원재료 가격이 모두 역내 부가가치로 합산가능하게 되어 부가가치 충족에 보다 유리하게 된다. 즉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기존에 3,779원에서 RCEP이 체결될 경우 303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2) 음료 : 한-ASEAN FTA, 부가가치 누적에 의한 RCEP 활용도 상승

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2202.10호에 해당하는 음료이다.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한-ASEAN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0이다. <표 6-17>은 음료에 대한 BOM 내역이며, 완제품 가격은 6,900원, 비원산지 재료 가격은 370원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다.

<표 6-17>은 음료의 협정별 활용 가능 여부이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해당 FTA 활용 시 해당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된다. 완제품 HS CODE와 동일한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역내 부가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표 6-17>과 동일하게 원재료를 공급받는다면 음료는 현재와 동일하게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체결 FTA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동 물품의 경우 현행보다 RCEP 활용이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다만,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에서도 적용하게 될 경우, RCEP 원산지 누적조항을 활용하여 역내 부가가치비중이 보다

상승하게 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유리하게 된다. 즉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기존에 370원에서 RCEP이 체결될 경우 388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표 6-17> 음료의 BOM 내역

완제품 HS CODE	협정	PSR	원재료명(규격)	HS 6단위	원산지	가격	
						양자	RCEP
2202.10	한-ASEAN	RVC40	SMP)	0404.90	캐나다	130	130
			설탕	1701.11	한국	334	
			고과당	1702.60	한국	370	
			구연산(함수구연산)	2918.14	중국	13	역내산
			수용성대두다당류	1603.00	한국	73	
			인산	2809.20	한국	3	
			요구르트향	3302.10	대만	81	81
			요구르트향	3302.10	대만	77	77
			요구르트향	3302.10	싱가포르	69	
			이산화탄소	2811.21	한국	13	
			트레이박스	7612.90	한국	56	
			CAN 공관	4819.20	한국	2,490	
			필름	3923.30	한국	335	
					역외산	370	288

협정	PSR	활용가능여부
한-인도	CTH+RVC40	O
한-ASEAN	RVC40	O
한-호주	CTH	O
한-뉴질랜드	CC	O

다. 효과

RCEP은 기존 양자간 FTA를 포괄하므로 기업은 선택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원재료 조달방식에 따라 특혜 원산지물품으로 불인정 받은 물품을 RCEP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토록 지원가능하다. 특히 부가가치준의 원재료 조달폭과 인정폭이 넓어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 진다.

또한 부가기치기준 계산방식 통일화가 협상에서 반영될 경우,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가 가능하다.

7. 미리 알면 보인다! 보이지 않는 규제, 비관세 장벽 극복형

가. 개요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은 무역장벽 중 관세를 제외한 인위적 규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대국 고유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일반 기업은 제대로 대처자히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다.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식료품, 화장품 또는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 기술표준과 적합성 평가 절차 및 결과가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통관애로, 투자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표 6-1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2,530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6-18>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연도	SPS	TBT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	계
2006	239	231	115		1	6	10	602
2007	243	320	108		1	6	10	688
2008	250	500	112		1	6	10	879
2009	340	701	121	3	1	10	10	1,186
2010	493	763	127	4	1	10	10	1,408
2011	659	852	117	4	1	12	10	1,655
2012	684	926	119	5	1	14	10	1,759
2013	774	1,006	128	6	1	14	10	1,939
2014	842	1,053	107	5	1	42	10	2,060
2015	1,180	1,150	101	4	1	42	10	2,488
2016	1,192	1,179	100	5	2	42	10	2,530

자료 : WTO I-tip DB 자료 가공. 수치는 발의 되거나 시행된 개수의 합계
출처 : 안소영(2017.9), 무역리포트 p.83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의 예는 기술표준 및 인증시 과도하게 높고 상세한 수준의 표준을 제시,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허가·등록 기관 및 비용과다, 부당한 행정처리와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충분한 사전고지 미흡 및 유예기관 불충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중국, 베트남 등 RCEP 참여국의 비관세장벽 요소가 될 수 있는 규제들 수출 물품 HS 코드와 매칭하여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좋다.

나. 주요 내용[141)]

(1) 주요 검역 조건 및 관련 규정의 인지

□ 해외감관조건

해관감관조건이란 중국으로 수출·입 통관 시 품목별로 부합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해당 조건들을 인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주로 수출입 허가증, 검역검사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 등을 요한다. 이외에 전기·기계제품에 있어서는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폐전기기계제품수입금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 검역조건(检验条件)

검역조건이란 중국으로 수출·입 통관 시 품목별로 부합되어야 하는 규제로 해당 규제들을 인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는 주로 위생과 검역 그리고 기술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출·입 식품위생 감독검사, 민용상품 입경검증(3C), 수입상품검사 등이 있다.

□ 제도 및 관련규정

수출입 품목에 해당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결정된

141) 안소영(2017.9), 한-중 FTA 활용현황 및 중국의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FTA무역리포트 p.84

다. 해당 법령 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세부 규정(표준)들이 정해지는데 해당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표준이 모두 부합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인증관련 제도로는 중국제품강제인증[142](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CQC : China Quality Certificate), CFDA 화장품 행정허가, CFDA 의료기기 위생행정허가, CFDA 보건식품 위생행정허가, 중국유해물질처리지침[143](China RoHS : China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CQC 환경보호제품인증(China Ecolabelling), CCCF[144](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Fire Products) 등이 있다.

중국의 표준은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되고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표준과 자율표준으로 나누어진다.[145] 對중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수출기업들은 생산단계부터 수출품목의 국가표준(GB TEST)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산하여 수출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품목별 비관세 장벽 자료 사례 : 화장품

<table>
<tr><th>MTI 코드
및 명칭</th><th>품목명</th><th>품목설명</th><th>한국 HS
코드
(6 단위)</th><th>중국 HS
코드
(8 단위 혹은
10 단위)</th><th>중국 HS 품명
(8 단위 혹은
10 단위)</th><th>원산지결정
기준
(PSR)</th></tr>
<tr><td rowspan="3">227
비누치약
및
화장품</td><td rowspan="3">목욕용
조제품</td><td rowspan="3">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td><td>330730</td><td rowspan="3">33073000</td><td rowspan="3">香浴盐及其他沐
浴用制剂</td><td rowspan="3">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td></tr>
<tr><td>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td></tr>
<tr><td>10,143</td></tr>
<tr><th>증치세</th><th>퇴세율</th><th>신청요소</th><th colspan="2">감관조건</th><th colspan="2">검역조건</th></tr>
<tr><td>17</td><td>13</td><td>1:상품명
2:용도
3:포장
4:브랜드</td><td colspan="2">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td><td colspan="2">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td></tr>
<tr><th colspan="2">제도명</th><th colspan="5">근거규정</th></tr>
<tr><td colspan="2">CFDA 화장품</td><td colspan="5">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td></tr>
</table>

142) 전기전자 및 자동차류, 페인트, 완구류 등
143)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전기전자설비
144) 불꽃탐지기, 소화기, 소화약제 등 소방제품류
145) 국가표준은 국가 강제성 품질기준 (GB)과 국가 추천성 품질기준 (GB/T)으로 분류된다. 중국 산업별 표준으로는 기계 분야 표준인 JB/T, 식품 첨가물 관련 표준인 QB/T, 공산품 표준인 QC/T, 전자표준인 SJ/T 등이 있다. 여기서 T는 강제성표준이 아닌 추천표준을 의미한다.

행정허가 (CFDA 化妆品行政许可) 단,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제외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실행세칙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 (化妆品安全规范) 화장품 행정허가 수리규정 (化妆品行政许可申报受理规定) 화장품행정허가수리검사요점 (化妆品行政许可受理审查要点) 화장품기술심사요점 및 화장품 기술심사자첨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化妆品技术审评要点和化妆品技术审评指南的通知)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GB5296.3-2008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 라벨 (消费者使用说明化妆品通用标签) * 단, 치약은 현재(2017 년 9 월) CFDA 화장품 행정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CFDA 행정허가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수입통관 시 상기 법규를 근거로 검사함
인증구분 (강제:1, 임의:2)	
1	

(3) 품목별 비관세 장벽 자료 사례 : 농산가공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6 단위)**	**한국 HS 코드 (6 단위)**	**중국 HS 코드 (8 단위 혹은 10 단위)**	**중국 HS 품명 (8 단위 혹은 10 단위)**	**원산지결정 기준 (PSR)**
016 농산가공품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콘 플레이크(corn flake), 콘칩, 튀긴쌀 등	190410	19041000	膨化或烘炒谷物制成的食品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7,017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팽창 또는 구운 것)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 (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 (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GB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 (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 (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17401-2014 팽화식품 (膨化食品) GB17404-2016 팽화식품 생산 위생 규범 (膨化食品生产卫生规范)
인증구분 (강제:1, 임의:2)	
2	

다. 효과

정부차원에서 HS에 대응되는 해외감관조건, 법정검역조건, 제도 및 관련규정 등 정보를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미리 파악하여 수출시 해당 국가 비관세 장벽에 의해 FTA 특혜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8. RCEP 참여국간 품목분류 상위사례 최소화, 애로 개선형

가. 개요

RCEP 하 완전누적 등 다국 간 누적이 도입되어 운영되게 될 경우, 투입원재료에 대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자격 확인이나 수출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제조·가공과정에서 세번변경 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다. 현재 HS 2012, HS 6단위 기준 5,205개 세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과 완전생산기준 만을 제외한, 다시 말해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세번은 대략적으로 한-미 FTA 99.4%, 한-EU FTA 64.0%, 한-ASEAN FTA 87.5% 등으로 나타난다.

국제사회는 자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확정 및 정확한 교역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부터 제정되어 운영 중인 “통일물품 품목기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 간에 품목번호가 상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HS협약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HS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6단위 체계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국가별 필요에 따라 코드 수준의 분류체계를 더해 8단위 또는 10단위 등으로 추가적인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물품일 경우 6단위 수준에서는 분류체계가 동일하여야 하나,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품목분류가

상위(相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품목분류에 상위(相違)가 발생하게 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해당 세번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원부자재가 수입국에서는 원산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RCEP과 같이 다자간 누적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원부자재의 수출국과 수입국 양자 간의 이견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해 원부자재를 투입하여 만든 완제품을 수입하는 제3의 체약당사국까지 관여되어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RCEP의 원활한 특혜적용을 위해서는 품목분류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품목분류 상위(相違) 사례의 발생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상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국 간 품목분류 상위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도 준비되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를 <표 6-19>로 제시하였다. RCEP 체결국간 품목분류 상위사례 수집 및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6-19>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 중국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1	중국	조미 김	2106.90	2008.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	중국	제3906호의 수지를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	3208.20	3403.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	중국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잉크를 증착하여 손 또는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3212.10	4908.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MDF가구나 액자 등에 인쇄하는 스탬프용 박(箔)			
4	중국	액상의 프린트용 컬러잉크	3215.19	3215.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5	중국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의 뚜껑과 마개가 있는 용기	3923.30	3924.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6	중국	올레핀 중합체인 TPO 수지	3902.90	3902.3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7	중국	접착성있는 플라스틱제의 접착테이프로 폭이 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모양의 것	3919.90	3506.9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8	중국	차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로드 리테이너	3926.30	392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9	중국	스프링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SHEET	3926.90	3923.5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0	중국	플라스틱 재질의 ADAPTER	3926.90	3923.4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1	중국	오일의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실(Seal)	4016.93	8487.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2	중국	자동차 시트용으로 사용되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부직포	5903.14	3921.13 392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3	중국	폴리우레탄을 도포, 적층한 직물	5903.20	3921.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4	중국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직물	5903.20	3921.12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5	중국	합성섬유제의 것으로 구성된 경편직 염색 편물(라셀레이스)	6005.32	5804.2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6	중국	합성섬유제로 만들어진 편물제의 여아용 긴바지	6103.43	6104.63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7	중국	골이 진 허릿단(ribbed waistband)을 갖춘 편물제 긴소매 면제 의류	6110.20	6109.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8	중국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	6505.00	6506.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9	중국	은 95%, 백금 4.5%, 금 0.5%의 귀금속을 합금한 후 인발한 극세선으로 귀금속 합금 중 백금의 가격 비중이 높으므로 팔라듐 선(반도체 칩과 리드프레임을 전기	7106.92	7110.2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			
20	중국	자동차 안전벨트용 철강제 스프링	7320.90	7211.2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1	중국	구리함유량이 98.2%이고 도금 조제품을 첨가하여 만든 선	7408.29	7408.1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2	중국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페이서	7616.99	7616.10	해관진구화물보관단
23	중국	아연으로 만든 볼(Ball)	7907.00	7901.1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4	중국	차량에 사용되는 댐퍼에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착구	8302.30	3717.22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5	중국	차가운 물을 데워주는 열교환기로 보일러의 부속기기	8404.10	8419.5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6	중국	실외의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만 실내로 공급하는 기기	8405.10	8419.6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7	중국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하여 연소실 열량을 확인하여 제어하는 전기식의 온도 제어장치	8416.90	8417.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8	중국	인조가죽에 무늬를 찍어내는 로울기에 사용되는 철강재 엠보롤	8420.99	8420.9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9	중국	오염가스를 청전가스로 전환시켜주는 환경설비(RTO)의 부분품인 ROTARY WING	8421.99	8417.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0	중국	발열체와 EVA(Ethylene-Vinyl Acetate)이 결합된 구조로 가장자리에 센서 케이블이 연결된 구조의 전열용 저항체	8516.80	9018.2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1	중국	전류가 흐르면 탄소(Carbon)의 전기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탄소제의 전열저항체	8545.90	8516.8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2	중국	자동차 배기관에 장착되어 진동 및 소음을 흡수 차단해주는 자동차 배기관 부분품	8708.92	8708.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3	중국	캡슐, 정제(Tablet) 등을 은박지와 PVC로 개별 포장하는 BLISTER MACHINE	8422.40	8422.3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4	중국	유압브레이커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실린더	8431.49	8412.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5	중국	자동차 공기조절시스템의 압축기에 장착되는 VALVE의 부분품	8481.90	9032.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36	중국	의료기기에 조립되어 CHAING SPROCKET 구동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기어	8483.40	8483.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7	중국	펌프의 회전수를 자동 조절하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	8537.10	9032.2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8	중국	저주파를 이용하여 몸 안의 병균을 박멸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기기	9018.90	9019.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9	중국	정전용량을 측정하는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9030.39	9031.8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표 6-20>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 ASEAN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1	ASEAN (태국)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에 착색·인쇄하여 만든 접착성이 없는 플라스틱 필름	3920.62	392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	ASEAN (태국)	화장품을 침투한 부직포 마스크팩	3307.90	3304.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	ASEAN (태국)	콘크리트 벽이나 철골빔과 중간빔에 용접상으로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균형추(Counter Weight)의 승강을 안내하는 GUIDE RAIL/GUIDE TRACK	7308.90	8431.3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4	ASEAN (태국)	공장장동화 설비 라인을 제어하는 PLC를 구성하는 모듈중 하나인 프로그램 지시조절기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	8543.70	8537.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5	ASEAN (베트남)	PE와 PET로 만든 모유저장을 위한 팩	3923.29	3923.2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6	베트남	구강·치과위생용 거즈	3306.90	3005.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7	베트남	기기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켜 음식을 조리 또는 가열하는 기계	8514.10	8419.8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8	ASEAN	인테리어 장식용 몰딩	3925.90	3916.90	상대국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인도네시아)				수입신고필증
9	ASEAN (인도네시아)	가황한 고무로 만든 병마개	4016.99	4014.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0	ASEAN (인도네시아)	정지형 변환기	8504.40	8504.3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1	ASEAN (인도네시아)	접속단자에 케이블이나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터미널	8536.90	8537.2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2	ASEAN (인도네시아)	공장장동화 설비 라인을 제어하는 PLC를 구성하는 모듈중 하나인 프로그램 지시조절기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	8543.70	9025.8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3	ASEAN (인도네시아)	치과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의자와 치료에 필요한 각종의 기기들이 일체형으로 제시된 치과용 의자	9018.49	9402.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표 6-21>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 인도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1	인도	차량용 브레이크호스에 연결되는 철강재질의 연결구류	7307.99	8708.3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2	인도	PET필름에 특정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문구류 등의 제품에 전사시키는 전사지	4908.90	392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	인도	철강제의 프레싱다이	8207.30	8462.2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표 6-22> 한국의 기체결 RCEP 참여국 등 FTA의 품목분류 상위사례 : 기타

연번	협정명	품명	품목분류		입증자료
			한국	체약상대국	
1	EU	화장실 비데	8424.89	8516.79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및 해외품목분류 결정사례
2	EU	어류 추출물의 성분을 오일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보조식품	2106.90	1603.0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3	EU	조미 김	2106.90	2008.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유사결정사례
4	EU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3707.90	3215.1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5	EU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	3919.90	3921.1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6	EU	절삭 가공 등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	8207.90	6909.12	독일 세관에서 발급한 품목분류 시정명령서
7	EU	굴삭기나 착암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끌(CHISEL)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90	8431.4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8	EU	용기에 냉매를 주입하기 위한 냉매주입기	8422.30	8479.8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9	EU	자동차의 AIR BACK SENSOR 를 생산하기위한 반자동조립설비기기	8479.89	8479.4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0	EU	리튬폴리머축전지	8507.80	8507.6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1	EU	VGA단자 또는 HDMI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나 DVR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LCD MONITOR	8528.51	8528.72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2	EU	방전램프의 한 종류인 메탈 할라이드 램프	8539.32	8539.3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3	EU	연료필터 카트리지 하부에 장착되어 필터 카트리지 내에서 연료 여과시 발생되는 물의 수위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9026.10	8536.50	품목분류 유사결정사례
14	미국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충치봉, 싱글다이 등의 치과용 물품들의 표면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3차원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9018.49	9031.4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15	페루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	3919.90	9001.2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9.스타트업! 국내 제조의 강점을 활용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모델

가. 개요

2014년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46]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국내 완전생산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수매 확인서, 농축수산물 유관기관 인증서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증빙을 간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제도는 기관발급 대상인 RCEP 참여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6-5> 대기업,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비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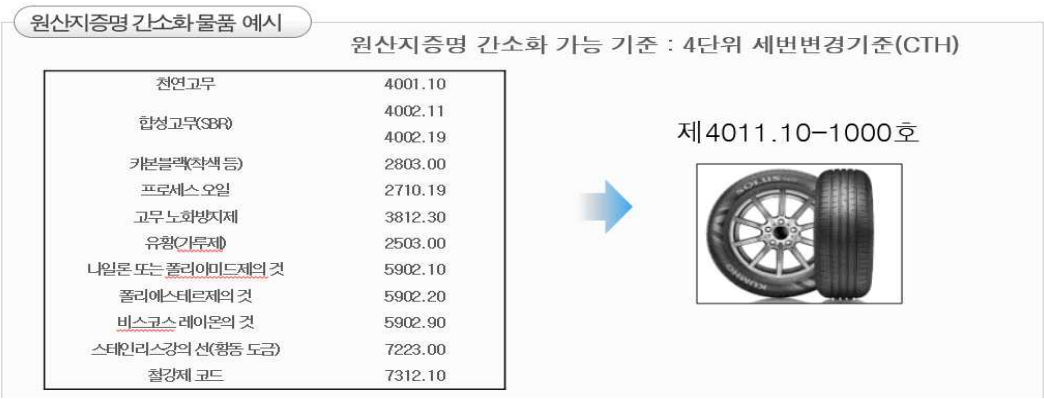


나.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으로, 투입된 모든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상이하여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면 원산지충족이 가능한 물품이다.

146) HS 6단위 기준 총 1,1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1,027개 품목, 수산물 81개품목, 축산물 5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6-6>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제도 도입 개요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제도 도입 개요〕

◆ **(의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와 소명서 입증서류를 간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제도 개요)**

①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고시

② 고시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 별도 증빙서류 없이 현행 법령서식인 '국내제조확인서'(1장)만으로 **원산지 소명서 작성** 허용

현 재	개 선
㉠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전산조회 가능시 생략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좌 동)
㉤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약 12종)*	⑤ '국내제조확인서'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 원재료 구매단계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생산단계 :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 판매단계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등

③ 원산지확인서 작성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 증빙서류 생략 가능

(1) 한-중국 FTA 대상물품

총 87개 품목으로, 제39류 해당 물품 9개 선정(특혜 수출액 기준 3.7%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다음으로 제29류(벤젠, 톨루엔), 27류(윤활유 기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류	품목수 (HSK수)	주요 물품	수출 금액(백만불)	비중 (특혜수출 中)
39	9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제품	1,089	3.7%
29	4	벤젠, 톨루엔	750	2.6%
27	1	윤활유 기유	569	2.0%
73	3	철강 제품	430	1.5%
84	9	밸브, 공기조절기 등	395	1.4%
37	1	포토레지스트	244	0.8%
40	6	고무타이어 등	235	0.8%
70	1	LCD제조용 유리쉬트	219	0.8%
76	6	알루미늄 제품	185	0.6%
90	1	프리즘	126	0.4%
79	3	아연괴, 아연선	111	0.4%
41	1	소 가죽	105	0.4%
그 외	4		340	1.2%
합 계	87		4,797	16.5%

(2) 한-ASEAN FTA 대상물품

총 145개 품목으로 제60류 편물제품이 특혜 수출액 기준 6.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철강제품(72류), 플라스틱제품(39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4>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류	품목수 (HSK수)	주요 물품	수출 금액(백만불)	비중 (특혜수출 中)
60	15	편물 제품	807	6.6%
72	35	철강 평판압연제품	605	5.0%
39	17	플라스틱 제품	493	4.1%
73	6	철강 제품	265	2.2%

류	품목수 (HSK수)	주요 물품	수출 금액(백만불)	비중 (특혜수출 中)
54	10	합성섬유 직물	159	1.3%
40	3	고무제품	159	1.3%
76	6	알루미늄 제품	148	1.2%
59	4	폴리우레탄 피복 직물 등	123	1.0%
27	4	윤활유 기유	113	0.9%
55	2	폴리에스테르 섬유	74	0.6%
48	3	종이 제품	65	0.5%
78	3	납의 괴	58	0.5%
그 외	37	-	350	2.9%
합 계	145	-	3,421	28.2%

(3) 한-베트남 FTA 대상물품

총 99개 품목으로 제60류 편물제품이 특혜 수출액 기준 12.1%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휘발유(27류), 플라스틱제품(39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5>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류	품목수 (HSK수)	주요 물품	수출 금액(백만불)	비중 (특혜수출 中)
60	15	편물 제품	1,028	12.1%
27	4	자동차 휘발유	965	11.4%
39	17	플라스틱 제품	553	6.5%
54	10	합성필라멘트 직물	350	4.1%
59	4	폴리우레탄 직물	230	2.7%
41	2	소 가죽	147	1.7%
76	4	알루미늄 제품	123	1.4%
48	3	종이 제품	85	1.0%
55	1	폴리에스테르 섬유	79	0.9%
32	2	스탬프용 박	60	0.7%
58	1	레이블	52	0.6%
그 외	36		122	1.4%
합 계	99		3,829	45.0%

(4) 한-인도 CEPA 대상물품

총 66개 품목으로 제72류 철강 압연제품이 특혜 수출액 기준 10.4%로 높은 비중 차지하고 윤활유(27류), 아연 괴(79류) 등이 차지한다.

<표 6-26>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현황

류	품목수 (HSK수)	주요 물품	수출 금액(백만불)	비중 (특혜수출 中)
72	35	철강 평판압연제품	781	10.4%
27	3	윤활유 기유	423	5.6%
79	4	아연 괴 등	308	4.1%
29	8	테레프탈산 등	245	3.3%
71	3	귀금속 제품	131	1.7%
78	3	납의 괴	124	1.7%
76	5	알루미늄 제품	76	1.0%
40	1	부타디엔 고무	43	0.6%
75	1	비합금 니켈	9	0.1%
그 외	3		0.3	0%
합 계	66		2,139	28.5%

다. 효과

동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 제조품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지원 및 원산지확인 편의 제고로 FTA 활용률 개선 등 FTA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6-27> 협정별 간이발급대상 품목 수출 비중(2016년 특혜품목 中)

		對중국	對ASEAN	對베트남	對인도	계
간이발급품목	품목수(HSK)	87개	145개	99개	66개	397개
	수출금액(백만불)	4,797	3,421	3,829	2,139	14,186
	협정대상수출 中 비중(%)	16.5	28.2	44.5	28.5	24.8
FTA협정대상 수출금액(백만불)		29,102	12,143	8,500	7,507	57,252

10. RCEP의 GVC 활용, 가치사슬 재정의형

가. 개요

RCEP에 대비할 양대 Mega FTA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협정에서는 기존의 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재료 누적과 공정누적에 의거하여 표현되었던 기존의 협정과는 달리 부가가치 누적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문구로서, 통상 "완전누적"으로 칭해지고 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재료로 수행된(undertaken) 생산품이, 그 상품이 재료 그 자체로부터 원산지 지위 획득을 부여받기에 충분한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의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요소(부가가치)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역외산인 투입 원재료가 역내에서 가공된 경우,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해서 계산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단계에서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더라도 최종재의 원산지 판정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쪼개어 합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RCEP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TPP에서 정의한 완전누적이 도입될 경우 GVC(Global Value Chain)을 활용한 생산 환경이 유리해져,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나. 주요 내용

(1) 재료누적만 인정할 경우

RCEP 협정에서 가장 제한적 범위의 누적인 재료(양자)누적만을 허용할 경우 가정하여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여러 차례 사례를 든 가정용 믹서를 생산

할 경우를 가정한다. EU산 모터(HS 8501)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믹서기의 몸체를 만든 후 태국에서 가정용 믹서기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베트남, 태국 등 RCEP각 회원국을 거쳐 對한 특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6-28> N:N 협정의 원재료(재료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생산국	EU	베트남	태국
최종생산품	HS 8501.10 모터	HS 8509.90 몸체(전동기를 갖춘 것)	HS 8509.40 가정용 믹서기
PSR		CTH	CTH
원재료		HS 8501.10 모터	HS 8509.90 몸체(전동기를 갖춘 것)
		HS 8208.30 커터	HS 3924.10 컵
			HS 3926.90 버튼 카바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첫 번째 단계는, 베트남에서 전동기를 갖춘 믹서기의 몸체(HS 8509.90)를 생산하게 된다. 이때 사용된 원재료는 HS 8501.10 모터, HS 8508.30 커터 등이다. 믹서기의 몸체의 PSR은 CTH(4단위 세번변경)로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믹서기 몸체는 RCEP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역내산이다.

두 번째 단계는, 태국에서 베트남산 믹서기 몸체(HS 8509.90)를 수입해서 HS 3924.10 컵, HS 3926.90 버튼 커버 등과 결합해서 최종재인 가정용 믹서기(HS 8509.40)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때 가정용믹서기의 PSR은 CTH(4단위 세번변경)로 믹서기의 몸체는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료가 역내산이라는 전제하에 충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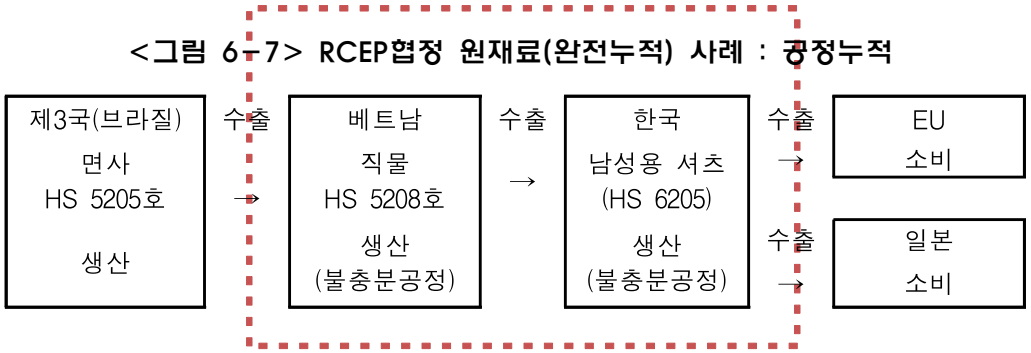
위의 사례는 베트남, 태국 등 RCEP 회원국 2개국 에서 생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 RCEP을 적용하여 베트남산 원재료를 태국에서 재료누적하기 위해서는 RCEP 국가간 거래 내에서 RCEP의 PSR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 완전누적을 인정할 경우

① 사례1 : 브라질- 베트남 - 한국 - EU or 일본[147]

완전누적이 FTA에 규정되어 있다면, 충분한 작업과 가공이 한 개의 단일한 국가 영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제조의 다른 단계가 전체 특혜무역지역을 가로질러 발생한 것을 누적으로서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림 6-7> RCEP협정 원재료(완전누적) 사례 : 공정누적



생산과정은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면사(HS 5205)가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데, 이는 베트남에서 면사를 직물(HS 5208)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때, 베트남에서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처리과정이 이행되어 비원산지제품으로 판정되었다.

해당 직물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뒤, 한국에서 남성용 셔츠로 만들어졌으나(HS 6205), 역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한 처리를 거쳐 완성된 셔츠로서 판정된다. 이후 완성품 셔츠는 EU와 일본으로 수출된다.

한편 최종재인 남성용 셔츠에 요구되는 원산지 규정을 '원사로부터 제직된 후, 해당 제직된 직물로부터 생산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동 요건은 누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는 역외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직물로부터 생산되지었기 때문에 특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적조항을 활용하면, 베트남에서 발생된 제직과정을 특혜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역내에서 원사로부터 제직된

147) 스위스 관세당국 제공 사례 Guide to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http://www.ezv.admin.ch/pdf_linker.php?doc=Wegleitung_zu_Pan_Euro_Med&lang=en)를 참고하여 작성함

직물로 부터 의류가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되고, 셔츠는 한국은 RCEP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는 같은 RCEP회원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셔츠에 대해서 발행될 수 있으며, 특혜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유럽으로 수출되는 셔츠는 비원산지 제품으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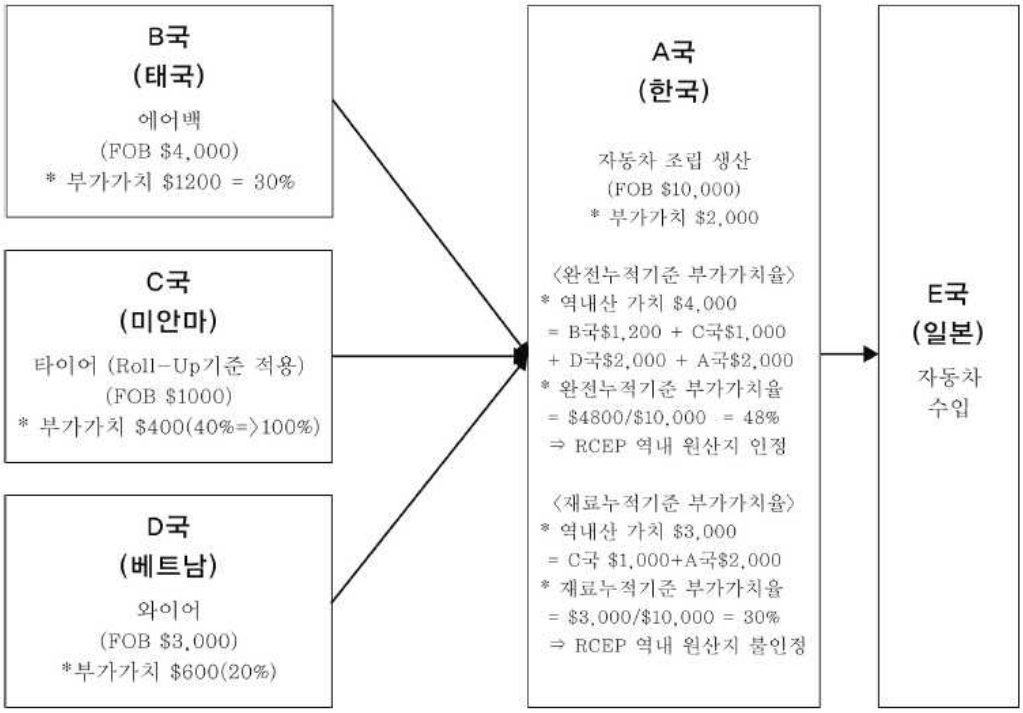
② 사례2 : 태국·미얀마·베트남-한국-일본[148)]

자동차부분품과 자동차에 대한 PSR은 부가가치 기준 40%로 가정하고, 원산지누적은 완전누적기준을 채용한다고 가정한다. B국(태국)에서 에어백을 제조하여 부가가치 $1200를 추가한 FOB $4,000로 자동차 조립 생산국 A국(한국)으로 수출하고, C국(미안마)은 Roll-Up기준이 적용되는 타이어를 생산하여 부가가치 $400를 추가한 FOB $1000로 자동차 조립 생산국 A국(한국)으로 수출하고, 자동차 조립 생산국 A국(한국)으로 수출하고, D국(베트남)은 와이어를 생산하여 부가가치 $600을 추가하여 FOB $3,000로 자동차 조립 생산국 A국(한국)으로 수출한 경우를 상정한다.

완전누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역내산 가격/수출원가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율(30%) = (C국 $1,000+A국 $2,000)/수출원가($10000))로 부가가치기준 40%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RCEP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누적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율=역내산가격/수출원가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율(48%)=(B국 $1,200 + C국 $1,000 + D국 $2,000 + A국 $2,000)/수출원가($10,000))로 부가가치기준 40%를 충족시키므로 RCEP 역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게 된다.

148) 김영춘 외(2015),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2호

<그림 6-8> RCEP협정 원재료(완전누적) 사례 : 부가가치누적①



다. 효과

완전누적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원재료 조달방식에 따라 특혜 원산지물품으로 불인정 받은 물품을 RCEP을 통해 가능토록 지원가능하다. 특히 부가가치 준의 경우 원재료 조달폭과 인정폭이 넓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발생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원산지판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RCEP 역내에서 다국을 거친 글로벌 생산이 가능해진다.

<표 6-29> RCEP 완전누적 가정시 누적규정의 변화 비교

1:1 체결(RCEP 이전)		RCEP 이후(완전누적 가정시)
재료누적	재료, 생산(공정)	완전누적
인도, 중국, ASEAN,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인도, 중국, ASEAN,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준하(2015),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국제경제법연구13(1)
- 국제원산지정보원(2016), 원산지결정기준
- 국제원산지정보원(2016), FTA 협정 및 법령
-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 권오복 외 7명 (200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김영춘 외(2015),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16(2)
- 김한성 외(2006),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누적조항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교통상부 연구용역)
- 라미령・김제국(2017.02.1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지은 외(2015),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Trade Focus 18호, 국제무역연구원
- 송경은(2016), 완전누적기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관세행정 체계 변화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위탁연구과제
- 이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2014),「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소영(2017.9), 한-중 FTA 활용현황 및 중국의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FTA 무역리포트,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 조미진(2014),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무역학회지 39(3)
- 진병진 외(2015), RCEP 완전누적 도입 필요성 연구, 국제원산지정보원・삼정KPMG(기획재정부 연구용역)
- 진병진 외(2016), 한국형 FTA 원산지규정・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위탁연구과제

· FTA 협정문
· 코트라(2016),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Global Market Report 16-038
·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2016), 한눈에 보는 2016년 FTA활용지도

해외문헌

· Raymond Kelly(2008), NAFTA: A Guide to Customs and Procedures, CBP
· UN(2002),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DEFINED IN TERMS OF THE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ISION 3 AND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THIRD EDITION
· WCO(2015),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스위스 관세당국) Guide to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 (영국 관세당국) Notice 828: tariff preferences-rules of origin for various countries
· (유럽연합)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 Ticon Development Consulting(2013), Cor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 Opportunities, Potential and Challenge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협정문

구분		협정문 출처
ASEAN	일본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asean/agreement.html
	중국	http://fta.mofcom.gov.cn/dongmeng/annex/xieyi2004en.pdf
	인도	http://commerce.gov.in/trade/asean-india%20trade%20in%20goods%20agreement.pdf
	호주-뉴질랜드	https://www.mfat.govt.nz/assets/FTAs-agreements-in-force/AANZFTA-ASEAN/Agreement-Establishing-the-ASEAN-Australia-New-Zealand-Free-Trade-Area-1.pdf

구분		협정문 출처
RCEP	중국-호주	https://dfat.gov.au/trade/agreements/chafta/official-documents/Documents/chafta-agreement-text.pdf
	중국-뉴질랜드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nz-china-free-trade-agreement/text-of-the-new-zealand-china-fta-agreement/
	호주-일본	http://dfat.gov.au/trade/agreements/jaepa/official-documents/Pages/official-documents.aspx
	일본-인도	http://commerce.nic.in/trade/IJCEPA_Basic_Agreement.pdf
	일본-인도네시아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my/trade/FTA_EPA/indonesia.html
	뉴질랜드-말레이시아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malaysia-fta/
	일본-베트남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vietnam/epa0812/agreement.pdf
	태국-호주	http://dfat.gov.au/trade/agreements/tafta/fta-text-and-implementation/Documents/aus-thai_FTA_text.pdf
	태국-뉴질랜드	http://www.thaifta.com/english/eng_nz.html_text.pdf https://www.mfat.govt.nz/assets/_securedfiles/FTAs-agreements-in-force/Thailand-FTA/thainzcep-agreement.pdf
	인도-싱가포르	https://www.iesingapore.gov.sg/~/media/IE%20Singapore/Files/FTA/Existing%20FTA/CECA%20India/Legal%20Text/India20CECA20FTA20Legal20Text.pdf https://www.iesingapore.gov.sg/~/media/IE%20Singapore/Files/FTA/Existing%20FTA/CECA%20India/Legal%20Text/Chapter%203/Chapter2032020Rules20of20Origin.pdf
	인도-말레이시아	http://fta.miti.gov.my/miti-fta/resources/Malaysia-India/MICECA.pdf
	일본-말레이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malaysia/epa/content.pdf
	일본-브루나이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brunei/epa0706/agreement.pdf
	일본-필리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hilippine/epa0609/main.pdf
	일본-싱가포르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ingapore/jsepa-1.pdf
	호주-싱가포르	http://dfat.gov.au/trade/agreements/safta/Documents/agreement-to-amend-the-singapore-australia-free-trade-agreement.pdf
	호주-말레이시아	http://dfat.gov.au/trade/agreements/mafta/pages/malaysia-australia-fta.aspx http://dfat.gov.au/trade/agreements/mafta/Pages/malaysia-australia-free-trade-agreement.aspx#chap_3
	뉴질랜드-싱가포르	https://www.iesingapore.gov.sg/~/media/IE%20Singapore/Files/FTA/Non%20Priority%20FTAs/

구분		협정문 출처
		New%20Zealand%20ANZSCEP/Legal%20Text/Chapter%203/Annex 20120Rules20of20Origin.pdf
	호주-뉴질랜드	http://dfat.gov.au/trade/agreements/anzcerta/pages/australia-new-zealand-closer-economic-relations-trade-agreement.aspx http://dfat.gov.au/trade/agreements/anzcerta/Documents/anzcerta1.pdf
기타	TPP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
	이스라엘-메르코수르	http://mof.gov.il/chiefecon/internationalconnections/doclib1/mercosur.pdf
	PEM	http://www.efta.int/media/documents/legal-texts/free-trade-relations/montenegro/pem-convention-on-origin.pdf
	일본-멕시코	http://www.mofa.go.jp/region/latin/mexico/agreement/
	일본-스위스	http://www.mofa.go.jp/region/europe/switzerland/epa0902/annex2.pdf
	중국-스위스	http://www.ezv.admin.ch/pdf_linker.php?doc=D30_5_1_cn&lang=en
	중국-아이슬랜드	https://www.mfa.is/media/fta-kina/Iceland-China.pdf
	미-싱가포르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singapore/asset_upload_file708_4036. pdf
	미-호주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australia/asset_upload_file148_5168. pdf